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04

# 한 · 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비교

윤철경 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무총리산하국책연구기관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04
연구보고서 12-46

#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비교

윤철경 · 장수현 · 정계영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NYPi 국무총리산하국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2-33-04**
**연구보고서 12-46**

##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비교

**인쇄일** 2012년 12월 26일
**발행일** 2012년 12월 31일
**발행인** **채 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 쇄** 예당문화인쇄 ☎ 02-2269-3202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비매품
ISBN 978-89-322-1429-0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2012년도 협동연구사업 중국종합연구”

##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 연구보고서명 | 연구기관 |
|---|---|---|
| 12-33-04 |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비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2. 참여연구진

| 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진 |
|---|---|---|---|
| 주관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선임연구위원 | |
| 협력연구기관 | 광운대학교 | | 장수현 교수 |
| | 상해복단대학교 | | 정계영 교수 |

# 국문요약


## 1. 연구목적

○ 한중 상호간 동북아 지역의 교류와 소통 방향 설정에 있어 양국의 문화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한중 청년이 중시하는 양국의 문화적 가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청년교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2. 연구내용

○ 상대국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

○ 자국의 문화자원 유형별로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문화자원 추출

○ 자국 및 상대국 문화자원 유형의 가치에 대한 인식 비교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국제관 분석

## 3. 연구방법

○ 설문조사

-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총 2,012명을 대상으로 한국(1,004명)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중국(1,008명) 북경, 상해, 천진, 광주, 하얼빈 지역 소재 대학 1곳을 선정하여 각각 200명씩(대학생 150명, 대학원생 50명/ 남·여 각각 100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4. 주요 연구결과

○ 한중청년의 상대국에 대한 인지정도

- 한국청년은 중국전반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47.7%인 반면 중국청년은 34.2%로 한국청년이 모른다는 반응이 더 많았음.
- 세부적으로 볼 때 상대국 지리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은 한국청년이 61.5%, 중국청년이 40.8% 이었으며 상대국 역사에 대해서 모른다는 응답은 한국청년이 46.2%, 중국청년이 51.7% 상대국문화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한국청년이 40.1%, 중국청년이 37.1%였음. 한국청년의 경우 중국의 지리에 대해, 중국청년의 경우 한국역사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양국 청년 모두 상대국 문화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음. 상대국 문화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국청년이 한국청년보다 10% 포인트 높았음.

○ 상대국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수준

- 상대국의 구체적인 20개 문화자원 중 한국청년은 10개, 중국청년은 8개를 안다고 응답하여 한국청년들이 중국청년보다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알고 있었음.

○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 조사결과 한국청년은 중국청년보다 상대국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즉 한국청년은 중국에 대해 복지수준을 뺀 문화유산, 문화예술, 자연, 관광지, 스포츠 수준 등 모든 영역에서 중국청년이 한국에 대해 평가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그러나 상대국민에 대해서는 '실용을 추구한다' 외에는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 이에 비해 중국청년은 한국보다 한국국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

○ 자국의 문화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 문화예술자원, 지역자원,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 인물자원, 생활문화자

원 등 5대 영역 19개 세부영역별로 대표적인 문화자원을 조사한 결과, 한국청년들은 전통문학 및 도서에서는 홍길동전(27.8%), 현대문학작가에서는 윤동주(29.8%), 미술작품에서는 도자기(42.8%), 전통놀이 혹은 운동은 태권도(62.6%), 무형문화재는 판소리(45.1%), 대중문화는 대중가요(52.8%), 역사유적지로는 경주(45.0%), 자연유산은 제주도(70.4%), 도시는 서울(45.8%)로 나타남. 역사적 발명품은 한글(71.0%), 역사적 사건은 3·1운동(42.2%)을 꼽았으며, 고대위인에서는 세종대왕(59.7%), 현대위인에서는 반기문(30.1%), 스포츠 스타에서는 김연아(45.9%)였음. 음식에서는 김치(47.3%), 제품에서는 핸드폰(54.5%), 현대적 건축물(랜드마크)은 인천공항(32.4%), 관광상품은 한류관광(52.8%), 지역축제는 부산국제영화제(33.1%)를 꼽음. 중국청년들은 전통문학 및 도서에서는 사대명저(27.2%), 실질적으로는 논어(23.7%), 현대문학작가에서는 루쉰(32.9%), 미술작품에서는 문방사보(28.3%), 전통놀이 혹은 운동은 용춤/사자춤(37.3%), 무형문화재는 전통명절(20.9%), 대중문화는 장기(26.7%), 역사유적지는 베이징 유적(37.2%), 자연유산은 쓰촨성 주자이거우(38.3%), 도시는 베이징(35.3%)으로 나타남. 역사적 발명품은 한자(36.0%), 역사적 사건은 베이징올림픽(24.5%)을 꼽았으며, 고대위인에서는 진시황(13.5%), 현대위인에서는 저우언라이(28.3%), 스포츠 스타에서는 야오밍(43.3%), 음식에서는 교자(33.2%), 제품에서는 비단(39.6%), 현대적 건축물(랜드마크)은 상하이 동방명주탑(35.0%), 관광상품은 인문역사관광(47.2%), 지역축제는 취푸국제공자문화제(28.3%)로 나타남.

- 자국의 문화유형 중 세계에 알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청년의 경우, 대중문화(38.8%), 음식(35.5%), 전통문화(34.4%) 순이었으며 중국청년의 경우, 전통문화(49.1%), 무형문화재(38.2%), 역사유적지(31.6%) 등의 순이었음. 자국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에서

양국 청년 간 격차가 큰 것은 한국청년의 경우 대중문화, 스포츠스타, 제품, 음식 등에, 중국청년의 경우 전통문화, 무형문화재, 역사유적지, 전통문학 및 도서 등에 상대국 청년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었음.

- 상대국 문화자원의 유형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한국청년들은 중국의 문화자원유형 중 역사유적지(43.8%), 자연유산(35.1%), 음식(34.8%) 순으로, 중국청년들은 음식(43.5%), 대중문화(32.6%), 전통문화(28.1%) 순으로 응답했음. 한국청년의 경우, 중국 여행, 관광과 관련된 문화자원 유형에 가치를 두고 있는 반면 중국청년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전통문화, 무형문화재, 전통문학 및 도서 등에 대한 가치인식은 낮았음. 반면 중국청년이 가치를 두고 있는 한국의 음식, 대중문화, 전통문화는 한국청년의 자국에 대한 가치인식과 일치하고 있었음.

○ 한·중·일 국가관계 및 국제관

- 한·중·일 국가관계에 있어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청년 모두 '보통이다'라는 평가가 가장 많으며 향후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거나 '좋아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음. 반면 양국 청년 모두 자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으며 향후 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였음. 한·중·일 분쟁사안에 대한 지식수준을 비교한 결과 중국청소년은 절반이상이 독도문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한국청소년은 35.5%만이 센카구열도(댜오위다오) 분쟁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군 위안부, 일본역사교과서 등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양국 청년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데 반해 동해/일본해 표기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은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중국청소년은 37.1%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국제관에 있어서는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라는 국가에 대한 정체감은 양국 청년 모두 90% 이상 되어 상당히 높았음. 동아시아인이나 아시아인에 대한 정체감은 한국은 50.7%, 70.3% 수준이었으나 중국은

27.8%, 45.9%로 한국에 비해 상당히 낮았음. 국가별 아시아지역 문화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한국청년들은 중국(80.6%), 한국(71.3%), 일본(70.7%)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중국청년들은 중국(83.4%), 일본(63.8%), 한국(50.5%)으로 응답하였음. 국가별 아시아지역문화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을 보면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한국청년은 긍정적 견해(28.5%)와 부정적 견해(26.3%)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중국문화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부정적 견해가 강했음.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29.8%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 보다 10% 포인트 높았음.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로 한국청년은 미국, 중국, EU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중국청년은 EU, 러시아 미국 순으로 응답하였음.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 양국 청년 모두 부정적이었으며 특히 중국청년은 72.4%가 동의하지 않았음.

## 5. 결론 및 정책제언

○ 한·중 청소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퀴즈대회 개최

- 한·중청소년 모두 양국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준이 향상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양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한·중 대학생 퀴즈대회를 개최. 양국 대학을 순방하며 KBS 1 TV '도전 골든벨' 과 같은 프로그램을 한·중 양국에서 진행함. 기업 및 방송사의 협찬을 조직하며 양국 청년들의 요리경연, 노래경연 등을 삽입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 한·중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균형감 있는 소재 개발 필요

- 한국청년은 중국의 문화, 예술, 자연, 역사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 중국청소년의 중화주의는 양국 간 청소년교류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음. 한·중 청소년 교류 시 양국 청소년의 관심만을 중심으로 개발하기보다 중국 청소년들에게 중국문화와 차별화된 한국 고유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하는 균형감 있는 소재 개발을 통해 양국 청소년의 문화적 자부심과 상호존중을 실현함.

○ 한·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다양한 소재 제안

- 한·중 청소년교류 시 상대국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을 접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 한국학생들에게는 중국청년들이 자국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 제시한 문화예술자원으로 사대명저, 논어, 문방사보, 용춤·사자춤, 용선경기, 중의(침구, 추나), 지역자원으로 쓰촨성의 주자이거우, 인물자원으로 진시황, 당태종, 제갈공명, 저우언라이, 야오밍, 생활문화자원으로 교자, 월병, 상하이 동방명주탑, 지역축제로 취푸국제공자문화제 등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으로 중국학생들에게는 대중가요(K-pop) 등 대중문화와 더불어 문화예술영역에서 홍길동전, 윤동주, 태권도, 판소리, 지역자원으로 경주, 제주도, 역사자원으로 3·1운동, 인물자원으로 세종대왕,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김연아, 생활문화자원으로 김치, 핸드폰, 인천공항,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

○ 한·중 청소년의 유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정기적인 한·중 청소년 캠프 개최

- 한·중 청소년의 상호교류를 위해서는 자국에 거주하고 있는 인적 자원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 거주하는 국가의 인적조직에서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한국, 중국에서 유학생 동아리와 캠프 등을 지원. 또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중 대학생 캠프를 개최.

○ 한·중 청소년 여행촌 및 여행벨트 개발

- 한국과 중국 청소년의 상대국에 대한 관심은 여행과 관광에 쏠려 있으므로 양국 청소년 간에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도록 안전하고 값싼 숙박시설과 이들의 관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행벨트를 개발. 서울, 북경, 상해, 부산 등에 청소년수련관 등을 활용한 외국청소년 거점시설을 개발.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간 파트너십 강화

- 북한이라는 위협 요인이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동북아 발전 모델이 필요함. 동북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한·중청소년은 일본의 침략이라는 근대사적 공유를 토대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족적 폐쇄성을 억제하고 동북아 발전의 파트너로서 번영과 평화라는 가치를 지켜나가도록 하는 교류방향을 강화.

# 차 례


국문요약 ····· 5

제1장 서 론 ····· 2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4
2. 연구내용 및 범위 ····· 25
   가. 연구대상 ····· 25
   나. 공간적 범위 ····· 25
   다. 연구내용 ····· 25
3. 연구방법 ····· 27
   가. 문헌연구 ····· 27
   나. 설문조사 ····· 27

제2장 이론적 배경 ····· 31

1. 문화자원의 개념과 유형 ····· 32
   가. 문화자원의 개념 ····· 32
   나. 문화자원의 유형 ····· 33
2. 동북아문화공동체 ····· 37
   가.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의미 ····· 37
   나.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장애요인 ····· 38
   다. 동북아문화공동체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 40

제3장 설문조사 결과 ····· 45

1. 조사대상자의 특징 ····· 46
2. 상대국에 대한 인지도 및 이미지 분석결과 비교 ····· 48
   가. 상대국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 48
   나. 상대국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수준 비교 ····· 54

다.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비교 ·····58
라. 상대국민에 대한 이미지 비교 ·····67
3. 자국 및 상대국 문화 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분석결과 비교 ·····76
가. 한국 응답자 조사결과 ·····76
나. 중국 응답자 조사결과 ·····105
다. 자국 및 상대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 비교 ·····134
4. 한·중·일 국가관계 및 국제관 분석결과 비교 ·····140
가. 한·중·일 국가 관계 비교 ·····140
다. 국제관 비교 ·····159

**제4장 요약 및 결론 ····· 179**
1. 요 약 ·····180
가. 상대국에 대한 인지정도 및 이미지 분석결과 비교 ·····180
나. 자국 및 상대국 문화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분석결과 비교 ·····182
다. 한·중·일 국가관계 및 국제관 분석결과 비교 ·····187
2. 결론 및 정책제언 ·····189
가. 한·중 청소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퀴즈대회 개최 ·····191
나. 한·중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균형감 있는 소재 개발 필요 ·····191
다. 한·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다양한 소재 제안 ·····192
라. 한·중 청소년의 유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정기적인 한·중 청소년캠프 개최 ·····193
마. 한·중 청소년 여행촌 및 여행벨트 개발 ·····194
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간 파트너십 강화 ···194

**부 록 ····· 195**

**참고문헌 ····· 284**

# 표 차례


표 1-1 문화자원 영역 및 세부문화자원 유형 ……26
표 1-2 국가별 표집인원수 ……28
표 1-3 조사 세부문항 구성 ……29
표 2-1 문화자원의 분류 ……35
표 2-2 문화관광부 문화자원 분류 ……35
표 2-3 부산발전연구원의 문화자원 분류 ……36
표 2-4 우리나라가 설정하는 동북아지역 범위 ……38
표 3-1 조사대상자의 특징 ……46
표 3-2 상대국 전반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48
표 3-3 상대국 역사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50
표 3-4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51
표 3-5 상대국 지리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52
표 3-6 상대국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54
표 3-7 상대국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수준 비교 ……57
표 3-8 상대국 문화유산에 대한 이미지 비교(문화유산이 많다) ……59
표 3-9 상대국 문화예술에 대한 이미지 비교(문화 예술수준이 높다) ……60
표 3-10 상대국 자연에 대한 이미지 비교(자연이 아름답다) ……61
표 3-11 상대국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관광지가 많다) ……62
표 3-12 상대국 스포츠에 대한 이미지(스포츠 강국이다) ……63
표 3-13 상대국 복지수준에 대한 이미지(복지수준이 높다) ……64
표 3-14 영역별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비교 ……66
표 3-15 상대국 국민 이미지1(남을 배려한다) ……67
표 3-16 상대국 국민 이미지2(매사에 적극적이다) ……69
표 3-17 상대국 국민 이미지3(실용을 추구한다) ……70
표 3-18 상대국 국민 이미지4(타문화에 개방적이다) ……71

표 3-19 상대국 국민 이미지5(여유가 있다) ·····73
표 3-20 상대국 국민 이미지6(믿음직하다) ·····74
표 3-21 영역별 상대국민에 대한 이미지 비교 ·····75
표 3-22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1(전통문학 및 도서) ·····77
표 3-23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2(현대문학작가) ·····79
표 3-24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3(미술작품) ·····80
표 3-25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4(전통놀이 혹은 운동) ·····81
표 3-26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5(무형문화재) ·····83
표 3-27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6(대중문화) ·····84
표 3-28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1(역사유적지) ·····86
표 3-29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2(자연유산) ·····87
표 3-30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3(도시) ·····89
표 3-31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1(역사적 발명품) ·····90
표 3-32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2(역사적 사건) ·····92
표 3-33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1(고대위인) ·····94
표 3-34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2(현대위인) ·····96
표 3-35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3(스포츠 스타) ·····97
표 3-36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1(음식) ·····98
표 3-37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2(제품) ·····100
표 3-38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3(현대건축물) ·····101
표 3-39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4(관광상품) ·····102
표 3-40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5(지역축제) ·····103
표 3-41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1(전통문학 및 도서) ·····106
표 3-42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2(현대문학작가) ·····107
표 3-43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3(미술작품) ·····108
표 3-44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4(전통놀이 혹은 운동) ·····110

표 3-45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5(무형문화재) ……112
표 3-46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6(대중문화) ……113
표 3-47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1(역사유적지) ……114
표 3-48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2(자연유산) ……116
표 3-49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3(도시) ……117
표 3-50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1(역사적 발명품) ……119
표 3-51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2(역사적 사건) ……120
표 3-52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1(고대위인) ……122
표 3-53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2(현대위인) ……123
표 3-54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3(스포츠 스타) ……125
표 3-55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1(음식) ……127
표 3-56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2(제품) ……128
표 3-57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3(현대건축물) ……130
표 3-58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4(관광상품) ……131
표 3-59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5(지역축제) ……133
표 3-60 자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 비교(1) ……136
표 3-61 자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 비교(2) ……136
표 3-62 상대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 비교(1) ……138
표 3-63 상대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 비교(2) ……139
표 3-64 한·중 관계에 대한 평가 비교 ……141
표 3-65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 비교 ……142
표 3-66 중·일 관계에 대한 평가 비교 ……143
표 3-67 한·중·일 관계에 대한 평가 비교 ……144
표 3-68 한·중 관계에 대한 전망 비교 ……146
표 3-69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 비교 ……147
표 3-70 중·일 관계에 대한 전망 비교 ……148

표 3-71 한·중·일 관계에 대한 전망 비교 ……149
표 3-72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1(독도문제) ……151
표 3-73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 2(센카구열도/댜오위다오 분쟁) ……152
표 3-74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 3(야스쿠니 신사참배) ……153
표 3-75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 4(일본역사교과서) ……154
표 3-76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 5(일본군'위안부') ……155
표 3-77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 6(동해/일본해 표기) ……157
표 3-78 한·중·일 간 분쟁 사안에 대한 지식수준 비교 ……158
표 3-79 자국인으로서의 소속감 비교 ……160
표 3-80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소속감 비교 ……161
표 3-81 아시아인으로서의 소속감 비교 ……162
표 3-82 아시아지역 소속감 비교 ……164
표 3-83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인식 비교 ……165
표 3-84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인식 비교 ……166
표 3-85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인식 비교 ……167
표 3-86 국가별 아시아 지역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 인식 비교 ……168
표 3-87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비교 ……170
표 3-88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비교 ……171
표 3-89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비교 ……172
표 3-90 국가별 아시아 지역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비교 ……173
표 3-91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 비교 ……174
표 3-92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한 동의여부 비교 ……175

# 그림 차례

그림 1-1 조사도구 개발절차 ·····28
그림 3-1 상대국 전반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49
그림 3-2 상대국 역사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50
그림 3-3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51
그림 3-4 상대국 지리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53
그림 3-5 상대국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54
그림 3-6 상대국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 비교 ·····57
그림 3-7 상대국 문화유산에 대한 이미지 비교(문화유산이 많다) ·····59
그림 3-8 상대국 문화예술에 대한 이미지 비교(문화 예술수준이 높다) ·····60
그림 3-9 상대국 자연에 대한 이미지 비교(자연이 아름답다) ·····61
그림 3-10 상대국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관광지가 많다) ·····62
그림 3-11 상대국 스포츠에 대한 이미지(스포츠 강국이다) ·····63
그림 3-12 상대국 복지수준에 대한 이미지(복지수준이 높다) ·····65
그림 3-13 영역별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비교 ·····66
그림 3-14 상대국 국민 이미지1(남을 배려한다) ·····68
그림 3-15 상대국 국민 이미지2(매사에 적극적이다) ·····69
그림 3-16 상대국 국민 이미지3(실용을 추구한다) ·····70
그림 3-17 상대국 국민 이미지4(타문화에 개방적이다) ·····71
그림 3-18 상대국 국민 이미지5(여유가 있다) ·····73
그림 3-19 상대국 국민 이미지6(믿음직하다) ·····74
그림 3-20 영역별 상대국민에 대한 이미지 비교 ·····75
그림 3-21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1(전통문학 및 도서) ·····77
그림 3-22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2(현대문학작가) ·····79
그림 3-23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3(미술작품) ·····80
그림 3-24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4(전통놀이 혹은 운동) ·····82
그림 3-25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5(무형문화재) ·····83

그림 3-26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6(대중문화) ·····85
그림 3-27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1(역사유적지) ·····86
그림 3-28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2(자연유산) ·····87
그림 3-29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3(도시) ·····89
그림 3-30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1(역사적 발명품) ·····90
그림 3-31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2(역사적 사건) ·····92
그림 3-32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1(고대위인) ·····94
그림 3-33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2(현대위인) ·····96
그림 3-34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3(스포츠 스타) ·····97
그림 3-35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1(음식) ·····98
그림 3-36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2(제품) ·····100
그림 3-37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3(현대건축물) ·····101
그림 3-38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4(관광상품) ·····102
그림 3-39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5(지역축제) ·····103
그림 3-40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1(전통문학 및 도서) ·····106
그림 3-41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2(현대문학작가) ·····107
그림 3-42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3(미술작품) ·····108
그림 3-43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4(전통놀이 혹은 운동) ·····110
그림 3-44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5(무형문화재) ·····112
그림 3-45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6(대중문화) ·····113
그림 3-46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1(역사유적지) ·····114
그림 3-47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2(자연유산) ·····116
그림 3-48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3(도시) ·····117
그림 3-49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1(역사적 발명품) ·····119
그림 3-50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2(역사적 사건) ·····120
그림 3-51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1(고대위인) ·····122

그림 3-52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2(현대위인) ·····123
그림 3-53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3(스포츠 스타) ·····125
그림 3-54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1(음식) ·····127
그림 3-55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2(제품) ·····128
그림 3-56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3(현대건축물) ·····130
그림 3-57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4(관광상품) ·····131
그림 3-58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5(지역축제) ·····134
그림 3-59 자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 비교 ·····137
그림 3-60 상대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 비교 ·····139
그림 3-61 한·중 관계에 대한 평가 비교 ·····141
그림 3-62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 비교 ·····142
그림 3-63 중·일 관계에 대한 평가 비교 ·····143
그림 3-64 한·중·일 관계에 대한 평가 비교 ·····144
그림 3-65 한·중 관계에 대한 전망 비교 ·····146
그림 3-66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 비교 ·····147
그림 3-67 중·일 관계에 대한 전망 비교 ·····148
그림 3-68 한·중·일 관계에 대한 전망 비교 ·····149
그림 3-69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1(독도문제) ·····151
그림 3-70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 2(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 ·····152
그림 3-71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 3(야스쿠니 신사참배) ·····153
그림 3-72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 4(일본역사교과서) ·····154
그림 3-73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 5(일본군'위안부') ·····155
그림 3-74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 6(동해/일본해 표기) ·····157
그림 3-75 한·중·일 간 분쟁 사안에 대한 지식수준 비교 ·····158
그림 3-76 자국인으로서의 소속감 비교 ·····161
그림 3-77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소속감 비교 ·····161

그림 3-78 아시아인으로서의 소속감 비교 ……162
그림 3-79 아시아지역 소속감 비교 ……164
그림 3-80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인식 비교 ……165
그림 3-81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인식 비교 ……166
그림 3-82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인식 비교 ……167
그림 3-83 국가별 아시아 지역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 인식 비교 ……169
그림 3-84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비교 ……170
그림 3-85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비교 ……171
그림 3-86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비교 ……172
그림 8-87 국가별 아시아 지역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비교 ……173
그림 3-88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 비교 ……174
그림 3-89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대한 의견 비교 ……176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방법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교류확대와 더불어 한중관계는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 왔다.

학술, 언어, 관광, 스포츠 부분의 쌍방향 문화 교류가 급속히 증대 되었고, 특히 문화 교류에서 1990년대 중반 시작된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유입 현상인 '한류(韓流)'가 부상하면서 방송 드라마와 대중가요를 통해 크게 확산되었다. 하지만 이후 한국 대중문화 소비성 및 상업성에 대한 비판이 중국 내에 제기됨에 따라 대중문화 수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2005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 등재를 계기로 '혐한(嫌韓)' 기류가 조성되고 이후 서해안 영토문제,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에서 보여 준 중국의 태도 등으로 양국 국민간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1년 한중청년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윤철경, 2011)[1]에서 한국 청년은 중국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높은 혐오감을, 중국은 한국에 대한 관심은 낮은 반면, 막연한 호감을 표시해 상호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청년들은 향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갈 세대로 동북아 문화적 가치와 자산에 대한 존중과 이해,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중교류가 중요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지만 기존의 한중 청소년교류는 양국 청소년의 문화적 인식에 대한 분석 없이 상업적 여행이나 기관 방문 위주의 교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중 상호간에 교류하고 소통

1) 윤철경,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할 양국,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 지를 파악하고 이를 공통 요소로 한 교류와 소통의 방향 설정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청년이 중시하는 양국의 문화자원 가치 요소들이 무엇인 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청년교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범위

### 가. 연구대상

연구대상의 연령 범위는 청소년(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한정하였다.

### 나. 공간적 범위

연구지역은 중국과 한국의 5대도시로 설정하였으며 한국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를, 중국은 북경, 상해, 광주, 천진, 하얼빈을 공간적 범위로 제한하였다.

### 다.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상대국에 대한 인지도와 문화적 관심이다. 여기에서는 상대국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수준, 상대국 및 상대국 국민에 대한 이미지 등이다.

둘째, 자국의 문화자원 유형별로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문화자원 추출

하였다. 문화자원을 크게 ①문화예술, ②지역, ③ 역사적 발명품 및 사건, ④ 인물 ⑤ 생활 등 5대 영역, 총 19개 세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화자원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문화자원에 대한 추출은 대학생의 인식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대학생 FGI를 실시하였다.

19개 세부 문화자원 유형은 〈표 1-1〉과 같다.

셋째, 자국 및 상대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 비교이다.

자국의 문화자원 유형 가치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상대국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 수준을 비교하였다.

**표 1-1 문화자원 영역 및 세부문화자원 유형**

| 문화자원영역 | 문화자원 세부유형 |
|---|---|
| Ⅰ. 문화예술자원 | 1. 전통문학 및 도서 |
| | 2. 현대문학작가 |
| | 3. 미술작품 |
| | 4. 전통문화 |
| | 5. 무형문화재 |
| | 6. 대중문화 |
| Ⅱ. 지역자원 | 7. 역사유적지 |
| | 8. 자연유산 |
| | 9. 도시 |
| Ⅲ.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 | 10. 역사적 발명품 |
| | 11. 역사적 사건 |
| Ⅳ. 인물자원 | 12. 고대 위인 |
| | 13. 현대 위인 |
| | 14. 스포츠 스타 |
| Ⅴ. 생활문화자원 | 15. 음식 |
| | 16. 제품 |
| | 17. 현대적 건축물(랜드마크) |
| | 18. 관광상품 |
| | 19. 지역축제 |

넷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국제관을 분석하였다. 한중일 삼국관계의 평가와 전망, 분쟁사안에 대한 지식수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소속감, 국가별 아시아 지역문화에 대한 영향력과 그에 대한 평가,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의견 및 중요한 협력 대상 국가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다.

## 3. 연구방법

### 가. 문헌연구

중국과 한국의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를 구체화할 수 있는 문화영역 설정과 관련된 연구, 문화요소와 관련된 선행연구, 중국과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석·박사 학위논문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서적 및 인터넷 자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 나. 설문조사

#### 1) 표집방법 및 표본수

한국과 중국의 대학 및 대학원생 2,012명(남 989명, 여 1023명)을 대상으로, 한국 1,004명(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중국 1,008명(북경, 상해, 광주, 천진, 하얼빈)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식은 각 지역별 대표적인 대학을 선정하며 실시하며 중국의 조사는 상해 복단대학교가, 한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다. 실제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상해복단대학교 한국연구센터가 개발한 조사표를 토대로 상호 협의를 거쳐 검토 및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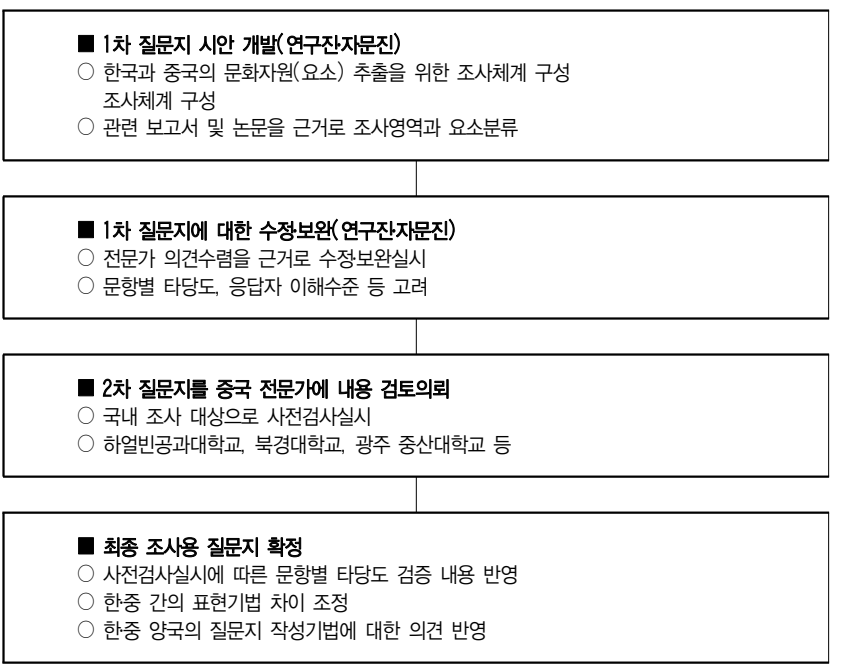
표 1-2 국가별 표집인원수

| 국가 / 신분 | 한국 | | 중국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대학생(1456명) | 380 | 361 | 340 | 375 |
| 대학원생(556명) | 126 | 137 | 143 | 150 |
| 계(2012명) | 506 | 498 | 483 | 525 |

## 2) 조사도구

### 가) 조사도구 개발 절차

그림 1-1 조사도구 개발절차



## 나) 조사도구의 구성

**표 1-3 조사 세부문항 구성**

| 분 야 | 세 부 조 사 항 목 | 문항 번호 | 참조 |
|---|---|---|---|
| 상대국에 대한 인지도 | · 상대국에 대한 지식수준 | 1 | |
| | · 상대국하면 떠오르는 것 | 2 | |
| | ·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 3 | |
| | · 상대국민에 대한 이미지 | 4 | |
|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자원 I | · 전통문학 및 도서 | 6-1 | |
| | · 현대문학작가 | 6-2 | |
| | · 미술작품 | 6-3 | |
| | · 전통문화 | 6-4 | |
| | · 무형문화재 | 6-5 | |
| | · 대중문화 | 6-6 | |
|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 II | · 역사유적지 | 7-1 | |
| | · 자연유산 | 7-2 | |
| | · 도시 | 7-3 | |
|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 III | · 역사적 발명품 | 8-1 | |
| | · 역사적 사건 | 8-2 | |
|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 IV | · 고대 위인 | 9-1 | |
| | · 현대 위인 | 9-2 | |
| | · 스포츠 스타 | 9-3 | |
|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 V | · 음식 | 10-1 | |
| | · 제품 | 10-2 | |
| | · 현대적 건축물(랜드마크) | 10-3 | |
| | · 관광상품 | 10-4 | |
| | · 지역축제 | 10-5 | |
| 자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 및 상대국에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관심 | · 자국의 19개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 | 11 | |
| | · 상대국의 19개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관심 | 5 | |
|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제관 | · 한중일 관계 평가 | 12 | |
| | · 한중일 관계 전망 | 13 | |
| | · 한중일간 분쟁사안에 대한 지식 수준 | 14 | |
| | · 아시아지역 소속감 | 15 | |
| | · 국가별 아시아 지역문화에 대한 영향력 정도 | 16 | |
| | · 국가별 아시아 지역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 평가 | 17 | |
| | · 가장 협력해야 할 국가 | 18 | |
| | ·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의견 | 19 | |
| 배경질문 | · 성, 연령, 신분, 가정의 소득수준, 자국민으로서의 자부심 | 선문1~3/통계1,2 | |

# 제2장 이론적 배경

1. 문화자원의 개념과 유형
2. 동북아문화공동체

## 1. 문화자원의 개념과 유형

### 가. 문화자원의 개념

문화(culture)는 그 개념이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상이한 개념들로 표현되고 있다.

먼저 영국의 인류학자 타일러(Edward Burnett Tylor)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및 사회의 성원인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라고 정의했다. 유네스코 국제회의(UNESCO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e)에서는 문화의 정의를 "광의의 문화란 어떤 사회나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독특한 영적・물질적・지적・정서적 특징들의 총체적인 복합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술과 문자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 믿음을 포함한다."[2]고 하였다.

문화는 '인간의 창조적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유형, 무형의 산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조적 사고와 행위는 인간 자신의 이해에 대한 표상으로서 인간 본래적 능력이며 인간의 표현적 욕구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표현적 욕구에는 학문・예술・종교 활동 및 산물들이 포함된다. 또한 예술작품이 아니라도 특수한 건축과 특수한 공산품들이 문화범주에 속하게 되는데 이는 실용성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성 혹은 심미성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3]

이렇게 문화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듯, 문화자원의 범주 역시 광범위하

2) 문화관광부, 『창의한국 :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 2004, pp.19~20
3) 조수동 외, 『문화의 이해』, 이문출판사, 2002, pp.20

다. 찰스 랜들리(Charles Landry)는 "문화자원은 도시와 그 가치 기반의 원자재이고 석탄과 철강 또는 금을 대신할 수 있는 자산이다. 문화자원의 세계가 열리면서 모든 지역이 자신만의 독특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며 역사적・산업적・예술적 유산가 더불어 '무에서 무언가 창조' 하는 것 역시 문화자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문화자원에 대한 가치 판단은 시대와 시간, 지역과 장소, 정보와 기술, 민족과 인종, 종교와 가치관, 지리 및 풍토 등의 요인들에 따라서 서로 상이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문화자원은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인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들이 그 자원에 대해 심상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소, 지역, 공간을 바탕으로 보존・발굴・활용 등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자원은 '보존・발굴・활용의 측면에서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유・무형의 여러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4)]

## 나. 문화자원의 유형

문화자원의 범주는 넓게 분포할 수 있으며 어떤 관점을 중심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자원은 〈표 2-1〉과 같이 유형문화자원(visible cultural resources)과 무형문화자원(invisible cultural resources)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유형문화자원은 하나의 현상(phenomena)으로 시각을 통해서 접근이

4) 남치호, 『문화자원과 지역정책』, 대왕사, 2007, pp.27

가능한 것으로,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역사문화자원, 문화시설자원, 인공경관자원 등이 해당된다. 역사문화자원은 한 국가와 민족을 상징하는 자원이다. 이러한 자원으로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정된 유형·무형 문화재와 민속자료 및 기념물 등이 포함되고, 지정되지 않았지만 문화자원으로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문화유산이 이에 해당된다. 문화시설자원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경관자원은 인간의 노력과 지혜가 총합되어 문화자원으로 가치를 형성시킨 유형의 자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경관자원이라는 점에서는 자연경관과 같으나, 인간의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어 계획적인 개발, 보존의 결과로 나타난 자원이라는 면에서는 자연경관과 구별된다. 공간 그 자체가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로서 예술의 거리, 보존 가치를 지니는 아름다운 건축물, 문화광장이나 공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무형문화자원은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의 시각을 통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문화 프로그램 및 활동을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서 전시, 공연활동 이외에도 문화예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문화정보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5)]

문화자원의 범주에 대해 문화관광부(1990)는 〈표 2-2〉와 같이 전통문화자원, 종교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관광문화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정책연구원(1998)은 문화관광부의 분류체계를 보완하여 주제별 대분류를 ① 종교, 신앙 ② 학술, 예술 ③ 생활, 민속 ④ 정치, 군

5) 남치호, 『문화자원과 지역정책』, 대왕사, 2007, pp.27~30 재구성

표 2-1 문화자원의 분류

| 구분 | 세부내용 |
|---|---|
| 유형문화자원 | 역사문화자원(민속자료, 기념물 등) |
| | 문화시설자원(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 |
| | 인공경관자원(건축물, 문화광장 등) |
| 무형문화자원 | 특정 유명인물과 관련된 자원 |
| | 무형문화재(연극, 음악, 공예기술 등) |
| | 문화프로그램(축제, 전시, 공연, 각종 문화행사 및 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등) |

자료: 남치호, 『문화자원과 지역정책』, 대왕사, 2007, pp.27-30에서 재구성

표 2-2 문화관광부 문화자원 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
| 전통문화자원 | 민속, 문화, 설화, 관혼상제 |
| 종교문화자원 |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
| 예술문화자원 | 문학, 음악, 미술, 공연, 기타 |
| 생활문화자원 | 행정, 교육, 산업, 의료, 교통, 통신, 체육, 레저, 편의시설 |
| 관광문화자원 | 유물, 유적, 명승지, 특산물 |

자료: 문화광광부, 『문화지도 작성을 위한 기초 연구』, 1990, pp. 62-63에서 재구성

사 ⑤ 산업, 경제 ⑥ 자연 ⑦ 종합 7가지를 제시하고 형태적 분류기준으로 ① 인물 ② 동식물 ③ 문화행사 ④ 축조물 ⑤ 유적, 사적지 ⑥ 시설물 ⑦ 전적, 회화류의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표 2-3〉에서 부산발전연구원(2009)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화자원 분류방식에 더하여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정립하였다.

또한 부산발전연구원(2007)에서는 문화자원의 가치를 전통성, 지역성, 고유성으로 보았는데 먼저 문화자원의 가치를 가늠하는 첫 번째 척도로서 전통성은 지역자원의 유래, 형성시기, 역사성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양식, 기술, 생산방식 등에 체화 되어온 역사성을 의미한다.

표 2-3 부산발전연구원의 문화자원 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항목 |
|---|---|---|
| 역사문화자원 | 문화재 |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비지정 문화유산, 근대 문화유산 |
| | 전통사찰 | |
| | 박물관 | |
| | 전통문화자원 | 전수시설, 민속예술보존회, 설화, 당산 |
| 예술문화자원 | 공연예술자원 | 공연장, 공연기획사, 공연예술단체, 공연예술 관련 교육시설, 공연예술활동 |
| | 시각예술자원 | 미술관, 화랑, 경매소, 조각공원, 대안공간, 창작스튜디오, 시각예술단체, 시각예술관련 교육시설 |
| | 문학예술자원 | 문학관, 문예지, 출판사, 인쇄소, 서점, 문학예술단체, 문학예술관련 교육시설 |
| 영상문화자원 | 영화자원 | 영화관, 영화관련단체, 영화관련 교육시설, 영화업체, 영화촬영지 |
| | 방송게임자원 | 방송사, 미디어센터 및 영상자료원, 게임업체 |
| 생활문화자원 | 도서관 |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문고), 쌈지도서관 |
| | 지역문화기반시설 | 문화회관, 시민회관, 청소년문화시설, 공원, 체육시설, 기초자치단체 산하 문화단체 |
| 대중문화자원 | 문화지역 | 문화거리, 문화단지 |
| | 대중문화공간 | 대안문화공간, 대중예술공간, 청소년문화존 |
| | 문화축제 | 지역특성축제, 관광특산축제, 문화예술축제, 전통민속축제, 기타 |
| 해양문화자원 | 자연해양자원 | 해수욕장, 강/하천, 섬 |
| | 조망자원 | 등대, 산마루, 조망대, 기타 |
| | 해양과 어우러진 지역문화 | 어촌, 어항, 해안산책로, 해양관련시설, 기타 |

자료: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지역 문화자원 특성분석과 활용방안 연구』, 2009, pp. 8-9

두 번째 척도인 지역성은 해당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존재의 유일성, 양적인 정도, 품질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지역의 역사나 문화, 삶 등에 체화되어 있는 속성을 의미한다. 향토자원의 전승과 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역적 환경이 바로 지역성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척도는 고유성으로 이는 다른 지역의 지역자원과는 차별화된 대체되기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예술성 및 생태환경성 등의 특징을 가지는 속성을 의미한다.

## 2. 동북아문화공동체

### 가.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의미

공동체는 전통적으로 혈연과 지연을 유대로 하여 결합된 사회집단을 의미한다. 종족을 근간으로 하는 혈연공동체,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연공동체, 종교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결사공동체 등이 공동체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사회·문화적 생활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강한 연대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형성되며 외부집단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보유한다. 따라서 문화공동체는 문화요소들의 기능적 통합 및 제도적 통합을 통하여 형성되며 역외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문화적 연대의식을 갖춘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6)]

동북아공동체의 범위에서 먼저 동북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를 포함하는 지리적 기준에 따르면, 남북한·중국·일본·몽골·러시아가 포함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기능적 기준에서는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하게 된다. 미국은 지리적 동북아시아 국가는 아니지만 동북아 지역 경제·안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문화적 차원에서도 한·중·일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경제적 세계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간개념이 축소되고 지리적 국경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동북아문화의 공통성만 강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7)]

---

6) 김국신 외, 『동북아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Ⅲ)-종합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 pp.41

7) 김국신 외, 2006, pp.49

표 2-4 우리나라가 설정하는 동북아지역 범위

| 구 분 | | | 해 당 국 가 |
|---|---|---|---|
| 지역 범위 | 물리 | 지리적 동북아 |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
| | 기능 (목적·의지, 개입) | 역사적 동북아 | 한국, 북한, 중국, 일본 |
| | | 관계적 동북아 |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
| | | 문화적 동북아 | 문화동질성, 교류활성화 초점: 한국, 중국, 일본 |
| | | | 미래전략 감안: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아세안 |

자료: 정정숙,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의의와 전망: 문화공동체 시각에서 본 동북아시대 구상"『동북아시대위원회 정책자료실』, 2006. 9. 13, 김국신 외,『동북아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Ⅲ)-종합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 pp.50에서 재인용.

동북아문화공동체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이 문화적 동질성을 공통분모로 하여 보다 밀접한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연대 체제'를 의미한다. 동북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상당 정도의 정신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고 현시대에 나타나는 서로의 문화적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세계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가치관을 모색하면서 보다 밀접한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연대 체제이다.[8)]

## 나.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장애요인

동북아지역은 과거 발전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류가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교류협력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3국의 역사적 공통성 측면이다. 대표적으로 유교문화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과 한자문화의 공유를 들 수 있다.

8) 전영평, 박경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구상과 전략",「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0호, 2003, pp.45

유교문화는 동북아 국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사고체계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규범체계이다. 이는 동북아 국가들 간의 여러 교류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주고 동질성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자는 동북아 3국이 하나의 문자적 의사소통수단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언어장벽이라는 문제점을 해소시켜주며, 여타의 활자화된 매체의 원활한 유통촉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9)]

하지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동북아 3국은 유교문화권이라든가 한자문화권에서의 큰 사상적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10)] 문화교류의 역사가 오래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남아있다는 점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3국의 전통문화가 동일하다고 믿는 것은 '신화'에 가까운 것이며, 그 믿음에서 탈피하는 것이 오히려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11)]

동북아는 세계 4대강국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부딪치고 있는 지역이다. 냉전적 요인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동북아 질서는 경제협력이 심화되면서도 군비경쟁이 증가하는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 이후 동맹관계를 재정비하였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저지하기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

9) 박기홍, 김대관,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잠재력과 장애요인』, 통일연구원, 2004, pp. 97~98

10) 오명석 외,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통일연구원, 2004

11) 김우준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한중일 시각 비교와 협력 방안 모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 pp. 69

해 오고 있다. 이는 오히려 역내 국가들 사이에 과거사 및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발되고 있다.[12)]

최근 한·중·일 3국은 민족주의 의식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오래 전부터 역사논쟁이 전개되어 왔으며 최근도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 위안부 문제 등으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과 북한도 한국과 비슷한 입장에서 일본과 유사한 역사논쟁이 있다.

한편, 한국과 중국도 역사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하여 한국의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한국과 중국 간에도 역사논쟁이 전개되었다. 이는 향후 한중관계가 한일관계처럼 역사문제로 대립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민족의식의 대립은 정치적 이슈와 연계되어 표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정치 지도자들의 여론 조작에 의해 촉발되는 현상이 아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경험, 냉전시대의 전쟁 등을 통해 한·중·일 3국 국민들의 정서에 깊이 깔려 있다. 동북아 3국 간의 민족주의 갈등은 정부의 타협만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이해증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13)]

### 다. 동북아문화공동체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동북아시아 지역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지역

12) 김국신 외, 『동북아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Ⅲ)-종합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 pp. 55~56

13) 김국신 외, 2006, pp.57

공동의 역사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청소년은 상호교류를 통해 자국중심주의의 협애한 역사인식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식민주의적 침략과 지배로 인한 피해국-가해국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용서라는 화해의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출되는 역사분쟁은 각국의 민족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상대국에 대한 진정한 신뢰기반을 형성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4)]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동북아시아는 유교와 한자문화권이라는 공통적 문화기반이 있기는 하지만 언어, 종교, 관습과 의식, 민족성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한・중・일 동북아 3국은 상호 호혜적이고 우호적인 수평적인 교류의 역사적 경험이 부족하고 자국 중심적, 자국 우월적 문화해석이 강해 수평적 의사소통과 교류에 방해가 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청소년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상대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용과 존중, 감수성 개발이 필요하다.[15)]

동북아시아는 경제 분야를 넘어 문화 분야에서도 활기를 띠고 있다. 관광여행으로 상호 방문하는 수도 많아 사람들 간의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적어도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동북아공동체'는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남희(2005)는 이른바 '한류(韓流)'로 불리는 문화적 현상을 좋은 사례

14) 윤철경,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pp. 189
15) 윤철경, 2004, pp. 190

로 보고 그 같은 방식으로 동북아 지역의 대중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동북아문화공동체를 구축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대중문화의 자연스러운 공감대야말로 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 귀중한 자산이 되며, 더욱이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층이 미래의 주역인 젊은 세대라는 점에서 보다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확대 재생산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화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확대 재생산을 해가기 위해 현재의 문화만이 아니라 종래의 동북아시아 문화유산을 과감히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문화에 맞게 현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대에 맞게 가공하여 소개한다면 상호 이해를 돕는 기반이 될 것이다.[16]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에서는 정치적 마찰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 잘 알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특정 개인들의 인맥과 파트너십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교류의 증진과 지속을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개인적 인맥이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활성화 시키며, 새로운 인맥을 발굴하고 키워가는 전략이 필요하다.[17]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윤철경 외, 2004)에서 한·중·일 삼국 간 바람직한 청소년교류활동의 방향 및 접근방식에 관한 단기적 차원의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로는 첫째, 자원봉사나 공동작업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프로그램 마련, 둘째, 정부의 지원 확대, 셋째, 3개국의 청소년들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 넷째, 민간차원의 청소년교류기회 증대, 다섯째, 언어적 장애극복을 위한 노력 등의

16) 이남희, "아시아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그 현황과 과제", 「한국향토문화 진흥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2004

17) 문옥표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 pp. 197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기적인 차원의 추진과제로서는 첫째, 3개국의 청소년들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 둘째 기획과정에서부터 참여 가능한 형태와 다양한 방법의 교류형태 도입, 셋째, 정부의 지원 확대, 넷째, 민간차원의 청소년교류기회 증대, 다섯째, 언어적 장애극복을 위한 노력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오해섭 외(2005)는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청소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이해교육과정 개발 및 지속적인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는 정규 학교교육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한중일 청소년교류 촉진을 위한 이동수단 및 이용시설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한일노선과 한중노선의 항공권은 동남아지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없으며 오히려 여행비용이 더 비싼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중일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북아 공용 자유항공권 및 선박할인권', '동북아 유스레일 패스', '국립공원 및 문화유적지 할인권',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수련시설 숙식 이용권' 등을 개발하여 한중일 청소년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대국을 방문하고 관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제3장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징
2. 상대국에 대한 인지도 및 이미지 분석결과 비교
3. 자국 및 상대국 문화 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분석결과 비교
4. 한·중·일 국가관계 및 국제관 분석결과 비교

## 1. 조사대상자의 특징

본 설문조사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1,004명이 조사에 응답한 반면, 중국은 1,008명이 참여하여 총 2,012명으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은 남자가 506명으로 50.4%, 여자가 498명으로 한국 응답자 가운데 49.6%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남자와 여자가 각각 483명(47.9%)과 525명(52.1%)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경우 모두 20대가 각각 73.6%와 65.3%로 가장 많았으나, 중국에서는 10대가 33.4%로 한국의 경우에 비해 약 10% 정도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표 3-1〉 참조).

표 3-1 조사대상자의 특징

| | | 한국 | | 중국 | | 전체 | |
|---|---|---|---|---|---|---|---|
| | | N | % | N | % | N | % |
| 성 | 남자 | 506 | 50.4% | 483 | 47.9% | 989 | 49.2% |
| | 여자 | 498 | 49.6% | 525 | 52.1% | 1023 | 50.8% |
| 연령 | 10대 | 202 | 20.1% | 337 | 33.4% | 539 | 26.8% |
| | 20대 | 739 | 73.6% | 658 | 65.3% | 1397 | 69.4% |
| | 30대 이상 | 63 | 6.3% | 13 | 1.3% | 76 | 3.8% |
| 신분 | 대학생 | 741 | 73.8% | 715 | 70.9% | 1456 | 72.4% |
| | 대학원생 | 263 | 26.2% | 293 | 29.1% | 556 | 27.6% |
| 소득 수준 | 상 | 64 | 6.4% | 46 | 4.6% | 110 | 5.5% |
| | 중 | 800 | 79.7% | 742 | 73.6% | 1542 | 76.6% |
| | 하 | 140 | 13.9% | 220 | 21.8% | 360 | 17.9% |
| 거주 지역 | 북경 | - | - | 187 | 18.6% | 200 | 9.9% |
| | 상해 | - | - | 196 | 19.4% | 200 | 9.9% |

표 3-1 계속

| | | 한국 | | 중국 | | 전체 | |
|---|---|---|---|---|---|---|---|
| | | N | % | N | % | N | % |
| | 천진 | - | - | 218 | 21.6% | 205 | 10.2% |
| | 광주 | - | - | 215 | 21.3% | 200 | 9.9% |
| | 하얼빈 | - | - | 192 | 19.0% | 199 | 9.9% |
| | 서울 | 200 | 19.9% | - | - | 187 | 9.3% |
| | 부산 | 200 | 19.9% | - | - | 196 | 9.7% |
| | 대구 | 205 | 20.4% | - | - | 218 | 10.8% |
| | 대전 | 200 | 19.9% | - | - | 215 | 10.7% |
| | 광주 | 199 | 19.8% | - | - | 192 | 9.5% |
| 계 | | 1004 | 100.0% | 1008 | 100.0% | 2012 | 100.0 |

응답 학생들 가운데 대학생이 양국 모두 7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대학원생은 30%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가정의 소득 수준은 중간 정도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양국 모두 75% 내외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하층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은 13% 정도, 중국은 20% 정도였으며, 상층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은 6.4%, 중국은 4.6%로 나타나, 한국의 경우 중간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중국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하층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가 기본적으로 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약 20% 정도씩 할당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북경, 상해, 천진, 광주, 하얼빈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각국의 표본에서 지역별 참여자의 비율은 모두 20% 내외를 이루고 있다.

## 2. 상대국에 대한 인지도 및 이미지 분석결과 비교

### 가. 상대국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본 조사에서는 먼저 상대국 역사, 문화, 지리 등 전반에 대한 인지 정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먼저 중국 전반에 대한 인지 정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 한국 학생들은 전체 한국 응답자의 42.3%에 달하는 425명이 보통 정도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47.7%에 해당하는 479명이 '모른다' 또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100명(10%)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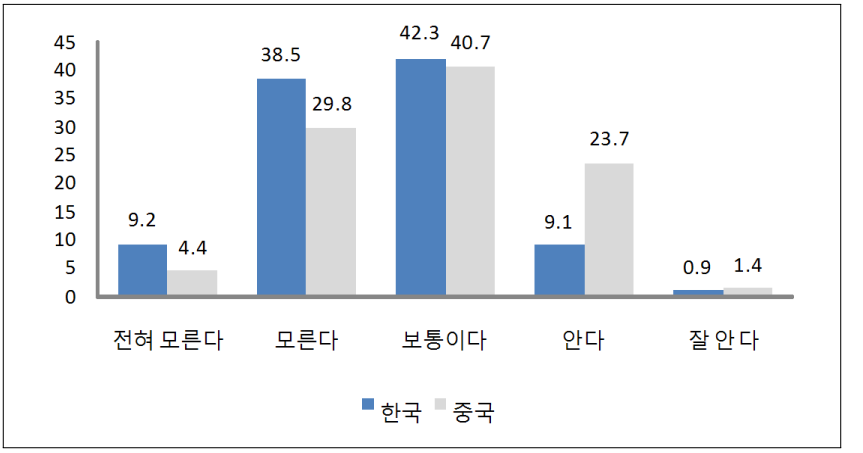
반면에 중국 학생들은 한국 전반에 대해 '안다' 또는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1%로 전체 응답자의 1/4에 달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모른다' 또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34.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한국 전반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의 응답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중국 전반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국의 경우 이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상대적으로

표 3-2 **상대국 전반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 | | 전혀 모른다 | 모른다 | 보통 이다 | 안다 | 잘 안다 | $x^2$ (p) |
|---|---|---|---|---|---|---|---|
| 한국 | N | 92 | 387 | 425 | 91 | 9 | 95.3 (.000) |
| | % | 9.2% | 38.5% | 42.3% | 9.1% | .9% | |
| 중국 | N | 44 | 299 | 408 | 238 | 14 | |
| | % | 4.4% | 29.8% | 40.7% | 23.7% | 1.4% | |
| 전체 | N | 136 | 686 | 833 | 329 | 23 | 2007 |
| | % | 6.8% | 34.2% | 41.5% | 16.4% | 1.1% | 100.0% |

그림 3-1 상대국 전반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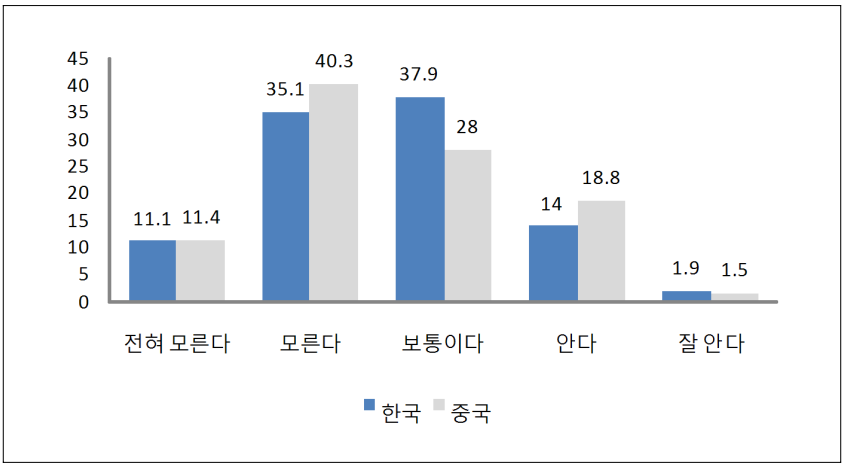

한국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에 비해 상대 국가에 대한 주관적 인지 정도는 더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분포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의 역사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조금 유형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 역사에 대한 인지 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국 전반에 대한 인지 정도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 학생의 경우 중국 역사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이 352명으로 전체 한국 응답자의 35.1%였고, 중국 학생 가운데 한국 역사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5개의 응답범주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양국 학생 모두 상대국의 역사에 대한 주관적 인지 정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상대국 역사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 | | 전혀 모른다 | 모른다 | 보통 이다 | 안다 | 잘 안다 | $x^2$ (p) |
|---|---|---|---|---|---|---|---|
| 한국 | N | 111 | 352 | 381 | 141 | 19 | 25.9 (.000) |
| | % | 11.1% | 35.1% | 37.9% | 14.0% | 1.9% | |
| 중국 | N | 114 | 404 | 281 | 188 | 15 | |
| | % | 11.4% | 40.3% | 28.0% | 18.8% | 1.5% | |
| 전체 | N | 225 | 756 | 662 | 329 | 34 | 2006 |
| | % | 11.2% | 37.7% | 33.0% | 16.4% | 1.7% | 100.0% |

그림 3-2 상대국 역사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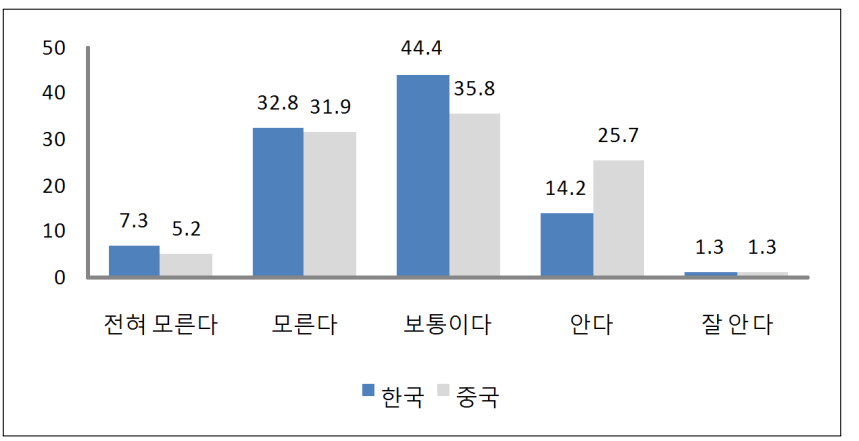

이에 비해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5개의 응답범주 가운데 '보통이다'와 '안다'를 제외한 나머지 범주에서의 양국 학생들의 응답 분포는 매우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 가운데 중국 문화에 대해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4.2%에 그친 반면, 중국 학생들 가운데 한국 문화에 대해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5.7%로 약 10% 포인트 정도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이 결과는 상당 부분 한류의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한국 드라마나 K-pop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 학생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한국 학생들의 중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 전반, 역사, 지리 등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경향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4**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 | | 전혀 모른다 | 모른다 | 보통 이다 | 안다 | 잘 안다 | $x^2$ (p) |
|---|---|---|---|---|---|---|---|
| 한국 | N | 73 | 329 | 446 | 143 | 13 | 46.0 (.000) |
| | % | 7.3% | 32.8% | 44.4% | 14.2% | 1.3% | |
| 중국 | N | 52 | 320 | 359 | 258 | 13 | |
| | % | 5.2% | 31.9% | 35.8% | 25.7% | 1.3% | |
| 전체 | N | 125 | 649 | 805 | 401 | 26 | 2006 |
| | % | 6.2% | 32.4% | 40.1% | 20.0% | 1.3% | 100.0% |

**그림 3-3**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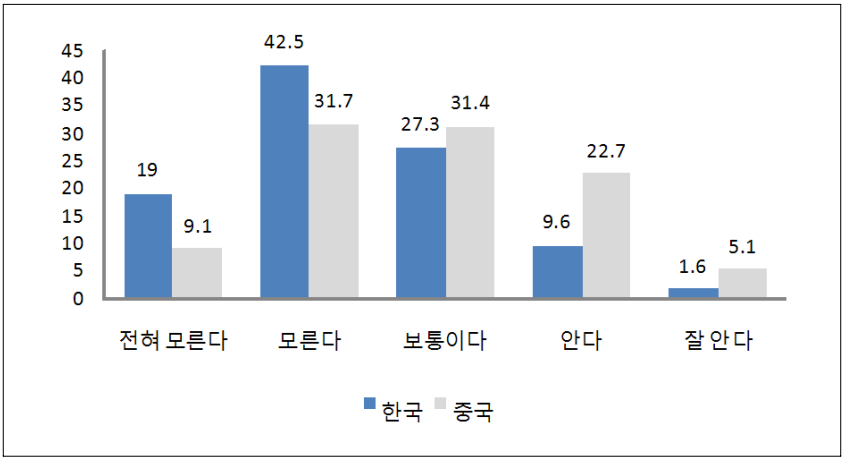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상대국의 지리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한국 학생들 가운데 '모른다' 또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이 618명으로 61.5%에 달하는 반면, 중국 학생들은 40.8%에 해당하는 409명이 '모른다' 또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함으로써 중국 학생들에 비해 한국 학생들의 중국 지리에 대한 주관적 인지 정도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상대국의 지리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관심을 갖고 공부하거나 신문 등 언론매체의 보도 등을 주의 깊게 읽기 전에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주제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중국 지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편으로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중국의 역사나 지리 등에 대해 실제 알고 있는 지식 정도와 관계없이 주관적 인지 정도가 낮다는 것은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3-5 **상대국 지리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 | | 전혀 모른다 | 모른다 | 보통 이다 | 안다 | 잘 안다 | $x^2$ (p) |
|---|---|---|---|---|---|---|---|
| 한국 | N | 191 | 427 | 274 | 96 | 16 | 125.7 (.000) |
| | % | 19.0% | 42.5% | 27.3% | 9.6% | 1.6% | |
| 중국 | N | 91 | 318 | 315 | 227 | 51 | |
| | % | 9.1% | 31.7% | 31.4% | 22.7% | 5.1% | |
| 전체 | N | 282 | 745 | 589 | 323 | 67 | 2006 |
| | % | 14.1% | 37.1% | 29.4% | 16.1% | 3.3% | 100.0% |

그림 3-4 상대국 지리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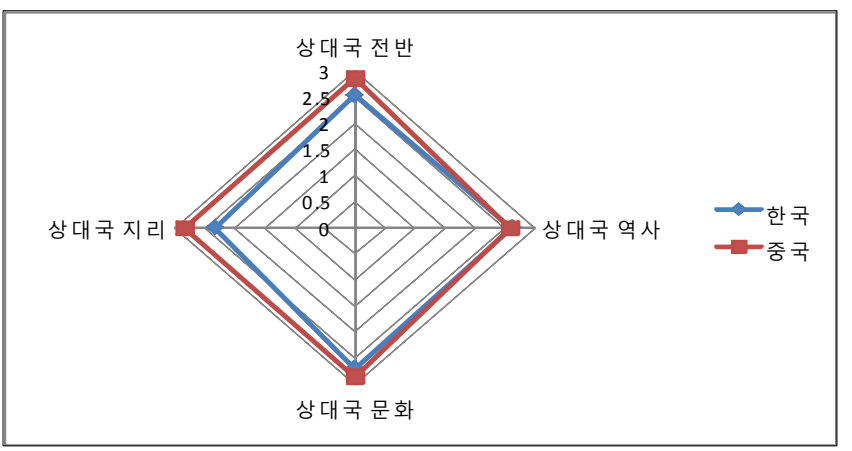

상대국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문항들은 0(=전혀 모른다)에서 5(=잘 안다)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양국 응답자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가 〈표 3-6〉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상대국 역사에 대한 인지정도는 양국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상대국 전반과 문화, 그리고 지리에 대한 응답에서는 한국 학생들보다 중국 학생들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각각의 문항에 대해 응답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문화·역사적 차이로 인하여 양국 학생들이 동일한 기준에 근거하여 응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평균비교로 나타난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표 3-6〉의 결과는 단순한 참고를 위한 정보 정도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6 상대국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 | 국가 | N | 평균 | 표준편차 | t(p) |
|---|---|---|---|---|---|
| 상대국 전반 | 한국 | 1004 | 2.54 | .817 | -9.02(.000) |
| | 중국 | 1003 | 2.88 | .868 | |
| 상대국 역사 | 한국 | 1004 | 2.61 | .925 | .47(.640) |
| | 중국 | 1002 | 2.59 | .967 | |
| 상대국 문화 | 한국 | 1004 | 2.70 | .849 | -4.13(.000) |
| | 중국 | 1002 | 2.86 | .904 | |
| 상대국 지리 | 한국 | 1004 | 2.32 | .942 | -11.46(.000) |
| | 중국 | 1002 | 2.83 | 1.041 | |

그림 3-5 상대국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 나. 상대국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수준 비교

다음으로 본 조사에서는 실제 양국의 학생들이 상대국의 문화자원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20개씩의 상대국 문화자원 항목들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먼저 문화예술자원으로 한국 학생들에게는 홍루몽,

태극권, 경극, 마장을 제시하였고 중국 학생들에게는 춘향전, 태권도, 판소리, K-pop을 제시하였다. 지역자원으로 한국 학생들에게는 만리장성, 자금성, 장가계, 상하이를, 중국 학생들에게는 남대문, 경복궁, 제주도, 인천을 제시하였다.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으로 한국 학생들에게는 치파오, 불설관무량수불경, 5·4운동, 베이징올림픽을, 중국 학생들에게는 팔만대장경, 한복, 5·18 광주민주화운동, 2002 서울월드컵을 제시하였다. 인물자원으로 한국 학생들에게는 모택동, 등소평, 진시황, 야오밍을, 중국 학생들에게는 세종대왕, 김대중, 반기문, 박지성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생활문화자원으로 한국 학생들에게는 동방명주, 북경오리, 신주 우주선, 상하이국제영화제를, 중국 학생들에게는 김치, 삼성갤럭시, 남산타워, 부산국제영화제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자원에 대해 제시된 4개 항목 모두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4점이 주어지고, 4개 항목 모두에 대해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이 주어지도록 코딩하였다. 따라서 각 문화자원별로 응답범위는 0(=4개 모두 모르거나 들어본 적 없음)부터 4(=4개 모두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음)의 값을 갖게 되며, 마지막으로 20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모두 합산하여 20개 항목에 대한 지식 정도를 측정하였다.

상대국의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정도에 대한 양국 학생들의 응답을 비교해 보면(〈표 3-7〉 참조), 먼저 문화예술자원의 경우 한국과 중국 학생들 모두 평균값이 각각 1.59, 1.57로서 4개 항목 가운데 2개 미만 정도만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자원의 경우 한국 학생들은 평균 3개 이상에 대해 알고 있

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 학생들은 평균 1.37개 정도만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의 경우 한국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항목의 개수가 중국 학생들의 응답보다 많았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인물자원의 경우 한국 학생들은 평균 2.7개 정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 학생들은 1.6개 정도라고 응답하였으며, 지역자원,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 및 인물자원에 대한 양국 학생들의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생활문화자원의 경우에는 응답 유형이 다른 자원에 대한 응답과는 반대로 나타났는데, 한국 학생들은 제시된 4개의 생활문화자원 가운데 평균 1.4개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 학생들은 2.18개라고 응답함으로써 생활문화자원에 대한 중국 학생들의 지식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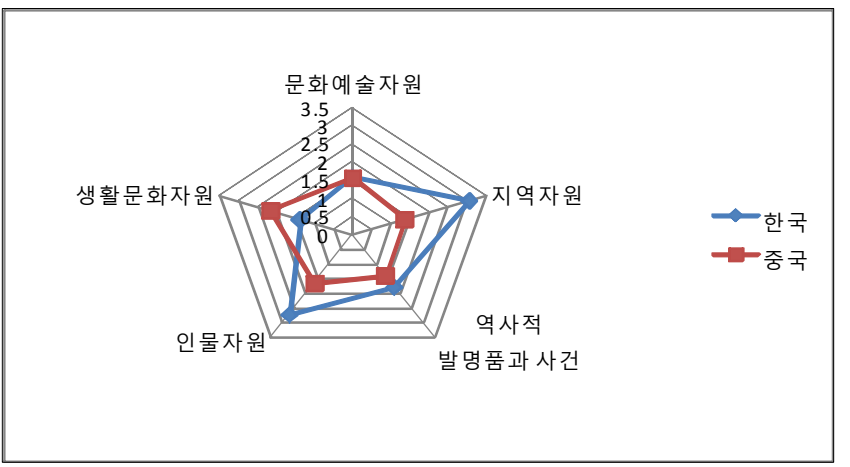
20개의 자원 항목을 총합한 경우 한국 학생들의 평균 10개 정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 학생들은 8개 정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한국 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지식수준이 중국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지식수준보다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을 나타났다.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중국 학생들에 비해 한국 학생들이 중국의 문화자원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정도, 즉 중국의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 정도가 중국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국 전반, 역사, 문화, 지리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는 오히려 중국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물론 상대국의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실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보다는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정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

표 3-7 상대국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수준 비교

| | 국가 | N | 평균 | 표준편차 | t(p) |
|---|---|---|---|---|---|
| 문화예술자원 | 한국 | 1004 | 1.59 | .918 | .44 (.658) |
| | 중국 | 1008 | 1.57 | .928 | |
| 지역자원 | 한국 | 1004 | 3.08 | .772 | 40.4 (.000) |
| | 중국 | 1008 | 1.37 | 1.102 | |
|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 | 한국 | 1004 | 1.77 | .837 | 10.1 (.000) |
| | 중국 | 1008 | 1.38 | .879 | |
| 인물자원 | 한국 | 1004 | 2.71 | 1.110 | 21.8 (.000) |
| | 중국 | 1008 | 1.63 | 1.120 | |
| 생활문화자원 | 한국 | 1004 | 1.40 | .843 | -19.4 (.000) |
| | 중국 | 1008 | 2.18 | .960 | |
| 전 체 | 한국 | 1004 | 10.55 | 3.091 | 15.9 (.000) |
| | 중국 | 1008 | 8.13 | 3.696 | |

그림 3-6 상대국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 비교




항들에 대한 응답 결과로 실제 지식 정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국 전반이나

문화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에 대해 중국 학생들보다 낮게 응답한다는 것은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문화적 차이가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다.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비교

상대국의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수준에 이어 본 조사에서는 평소 상대국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먼저 상대국에 '문화유산이 많다'는 문항에 대해 한국 학생들은 84.2%에 달하는 845명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중국 학생들은 전체 중국 학생 응답자 가운데 46.2%를 차지하는 462명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446명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한국 학생들은 중국에 문화유산이 많다는 것에 상당수가 동의한 반면, 중국 학생들은 한국에 문화유산이 많다는 것에 90%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부정적으로 또는 그저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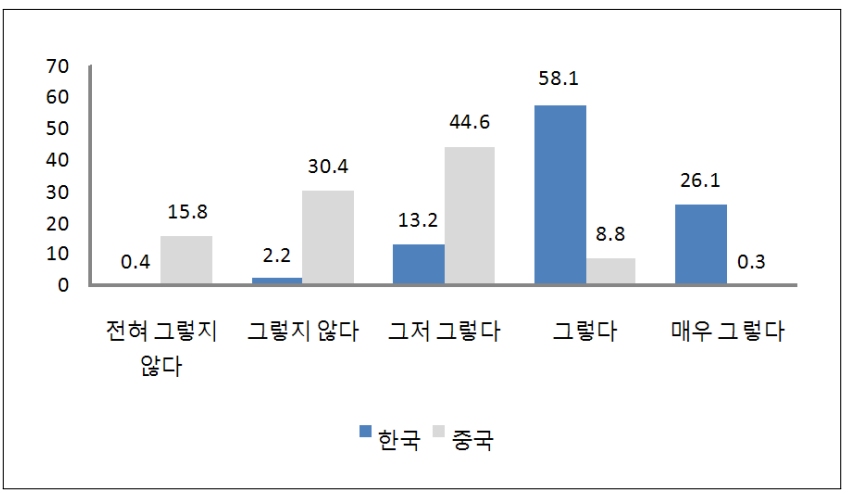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실제 중국의 문화유산이 한국의 문화유산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한국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에 비해 중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상대국의 문화예술 수준에 관한 문항에 대한 응답도 문화유산 수준에 대한 문항에서와 비슷한 양상의 응답 유형을 관찰할 수 있다. 즉 한국 학생들의 경우 중국 문화예술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41.8%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15.6%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중국 학생들

표 3-8 상대국 문화유산에 대한 이미지 비교(문화유산이 많다)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한국 | N | 4 | 22 | 133 | 583 | 262 | 1177.8 (.000) |
| | % | .4% | 2.2% | 13.2% | 58.1% | 26.1% | |
| 중국 | N | 158 | 304 | 446 | 88 | 3 | |
| | % | 15.8% | 30.4% | 44.6% | 8.8% | .3% | |
| 전체 | N | 162 | 326 | 579 | 671 | 265 | 2003 |
| | % | 8.1% | 16.3% | 28.9% | 33.5% | 13.2% | 100.0% |

그림 3-7 상대국 문화유산에 대한 이미지 비교(문화유산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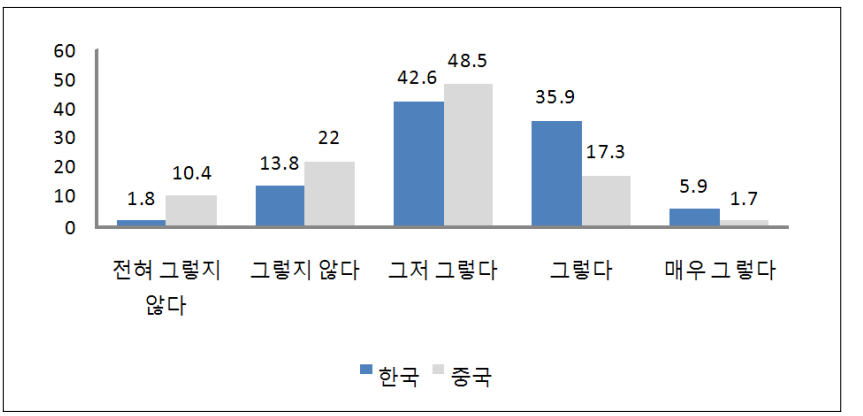

가운데 한국의 문화예술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19%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2.4%로 한국의 문화예술 수준을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국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상대국은 물론 자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미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 중국의

표 3-9 상대국 문화예술에 대한 이미지 비교(문화 예술수준이 높다)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한국 | N | 18 | 139 | 428 | 360 | 59 | 171.3 (.000) |
| | % | 1.8% | 13.8% | 42.6% | 35.9% | 5.9% | |
| 중국 | N | 104 | 220 | 485 | 173 | 17 | |
| | % | 10.4% | 22.0% | 48.5% | 17.3% | 1.7% | |
| 전체 | N | 122 | 359 | 913 | 533 | 76 | 2003 |
| | % | 6.1% | 17.9% | 45.6% | 26.6% | 3.8% | 100.0% |

그림 3-8 상대국 문화예술에 대한 이미지 비교(문화 예술수준이 높다)




문화예술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중국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예술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상대국의 문화예술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가 주요 준거로 작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중국 학생들의 자국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한국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에 여러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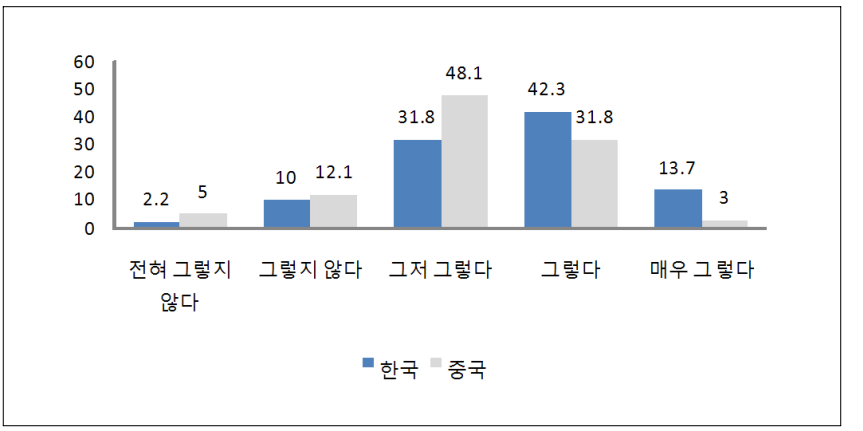
대적인 준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학생들이 우리나라 문화예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혹은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상대국 자연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응답은 문화예술에 대한 응답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대국의 '자연이 아름답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정도를 살펴보면, 한국 학생들의 경우 56%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중국 학생들은 34.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48.1%는 '그저

**표 3-10 상대국 자연에 대한 이미지 비교(자연이 아름답다)**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한국 | N | 22 | 100 | 319 | 425 | 138 | 103.5 (.000) |
| | % | 2.2% | 10.0% | 31.8% | 42.3% | 13.7% | |
| 중국 | N | 50 | 121 | 480 | 317 | 30 | |
| | % | 5.0% | 12.1% | 48.1% | 31.8% | 3.0% | |
| 전체 | N | 72 | 221 | 799 | 742 | 168 | 2002 |
| | % | 3.6% | 11.0% | 39.9% | 37.1% | 8.4% | 100.0% |

**그림 3-9 상대국 자연에 대한 이미지 비교(자연이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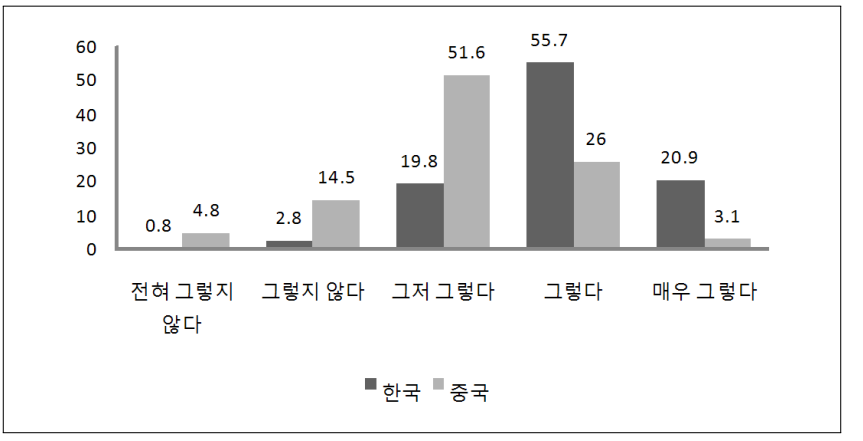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에 대한 응답과 달리 중국 학생들의 경우 한국의 자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생의 비율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판단을 보류하거나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평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대국에 '관광지가 많다'는 문항에 대해 한국 학생들은 76.6%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함으로써 전체 한국 학생 응답자 가운데

표 3-11 상대국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관광지가 많다)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한국 | N | 8 | 28 | 199 | 559 | 210 | 489.8 (.000) |
| | % | .8% | 2.8% | 19.8% | 55.7% | 20.9% | |
| 중국 | N | 48 | 145 | 514 | 259 | 31 | |
| | % | 4.8% | 14.5% | 51.6% | 26.0% | 3.1% | |
| 전체 | N | 56 | 173 | 713 | 818 | 241 | 2001 |
| | % | 2.8% | 8.6% | 35.6% | 40.9% | 12.0% | 100.0% |

그림 3-10 상대국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관광지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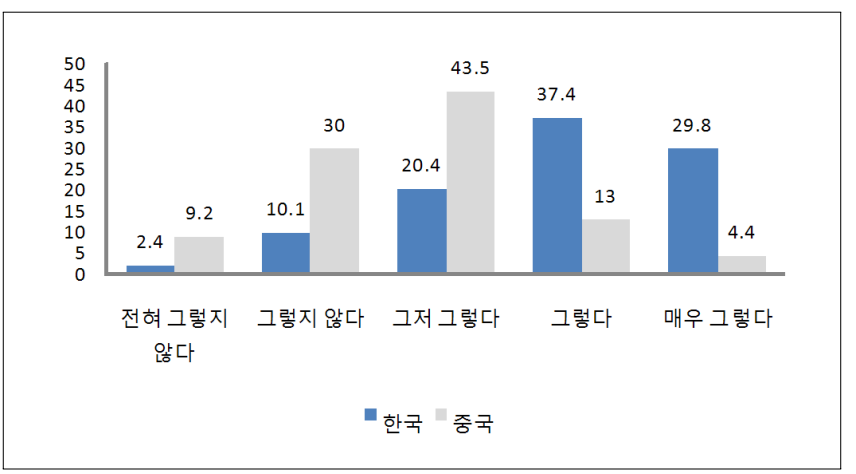


3/4이 중국에 관광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국 학생들의 응답은 한국의 자연에 이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에 관광지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29.1%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19.3%)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1.6%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2** 상대국 스포츠에 대한 이미지(스포츠 강국이다)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한국 | N | 24 | 101 | 205 | 375 | 299 | 529.7 (.000) |
| | % | 2.4% | 10.1% | 20.4% | 37.4% | 29.8% | |
| 중국 | N | 92 | 300 | 435 | 130 | 44 | |
| | % | 9.2% | 30.0% | 43.5% | 13.0% | 4.4% | |
| 전체 | N | 116 | 401 | 640 | 505 | 343 | 2005 |
| | % | 5.8% | 20.0% | 31.9% | 25.2% | 17.1% | 100.0% |

**그림 3-11** 상대국 스포츠에 대한 이미지(스포츠 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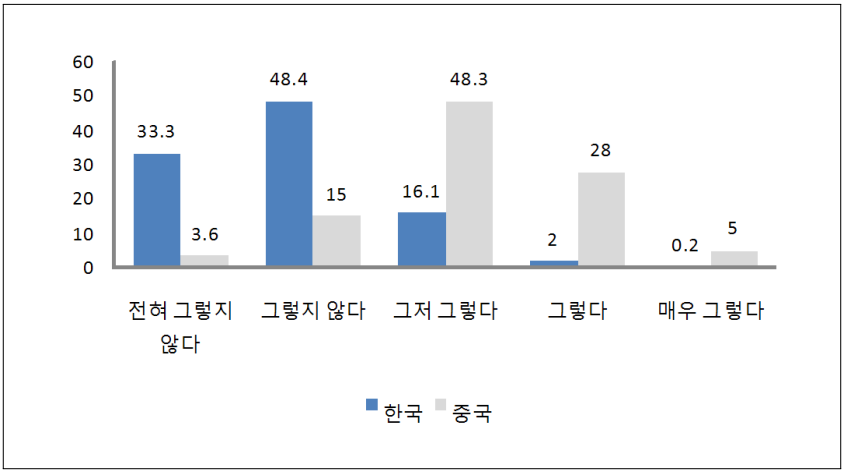
상대국의 스포츠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양국 학생들의 응답은 문화예술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 중국이 '스포츠 강국이다'라는 문장에 대해 67.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학생들의 경우 한국이 '스포츠 강국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7.4%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9.2%로 긍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보다 약 2배 정도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된 런던올림픽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본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양국 선수들이 거둔 성과가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상대국의 복지 수준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이전의 문항들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 중국의 '복지 수준이 높다'는 문장에 대해 2.2%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전체 한국 응답자의 4/5에 해당하는 81.7%가 부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중국의 복지 수준에 대해 한국 학생의 상당수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 학생들 가운데 한국의 복지 수준이 높

표 3-13 상대국 복지수준에 대한 이미지(복지수준이 높다)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한국 | N | 334 | 486 | 162 | 20 | 2 | 846.9 (.000) |
| | % | 33.3% | 48.4% | 16.1% | 2.0% | .2% | |
| 중국 | N | 36 | 150 | 483 | 280 | 50 | |
| | % | 3.6% | 15.0% | 48.3% | 28.0% | 5.0% | |
| 전체 | N | 370 | 636 | 645 | 300 | 52 | 2003 |
| | % | 18.5% | 31.8% | 32.2% | 15.0% | 2.6% | 100.0% |

그림 3-12 상대국 복지수준에 대한 이미지(복지수준이 높다)




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33%인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8.6%로 나타남으로써 한국의 복지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6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학생들은 복지 수준을 제외한 중국에 대한 나머지 5개 문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중국 학생들은 복지 수준에 대한 문항을 제외한 5개 문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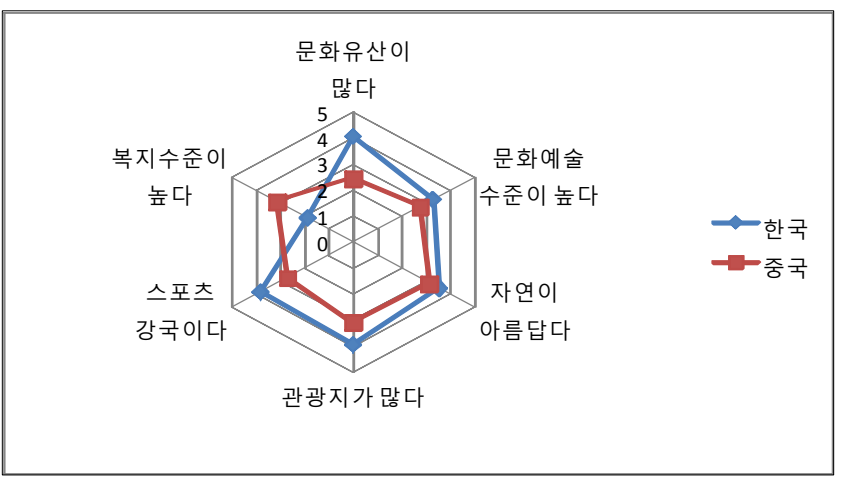
이러한 5개 문항에 대해 각 문항 내용의 실제 사실 여부를 떠나 상대국에 대한 평가 정도가 서로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것은 한편으로는 한국 학생들의 경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른 나라의 제반 상황을 평가하는데 있어 동일 항목에서 자국에 대한 평가가 준거로 사용되고 있다

면, 한국 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평가가 그리 높지 않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표 3-14 영역별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비교**

| | 국가 | N | 평균 | 표준편차 | t(p) |
|---|---|---|---|---|---|
| 문화유산이 많다 | 한국 | 1004 | 4.07 | .716 | 44.9 (.000) |
| | 중국 | 999 | 2.47 | .872 | |
| 문화예술 수준이 높다 | 한국 | 1004 | 3.30 | .845 | 13.3 (.000) |
| | 중국 | 999 | 2.78 | .911 | |
| 자연이 아름답다 | 한국 | 1004 | 3.55 | .924 | 10.0 (.000) |
| | 중국 | 998 | 3.16 | .858 | |
| 관광지가 많다 | 한국 | 1004 | 3.93 | .766 | 23.6 (.000) |
| | 중국 | 997 | 3.08 | .846 | |
| 스포츠 강국이다 | 한국 | 1004 | 3.82 | 1.043 | 24.4 (.000) |
| | 중국 | 1001 | 2.73 | .950 | |
| 복지수준이 높다 | 한국 | 1004 | 1.87 | .759 | -35.3 (.000) |
| | 중국 | 999 | 3.16 | .866 | |

**그림 3-13 영역별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비교**



상대국의 이미지를 묻는 6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의 양국 간 비교 결과가 〈표 3-14〉와 [그림 3-13〉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수준이 높다'는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문항에서 한국 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평가가 중국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평가보다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상대국민에 대한 이미지 비교

다음으로 본 조사에서는 상대국의 국민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6개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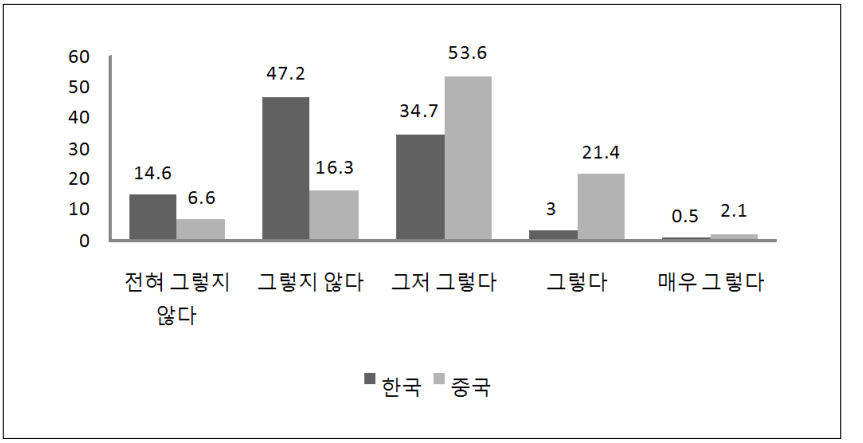
첫 번째로 중국 국민이 '남을 배려한다'는 문장에 대해 한국 학생들은 단지 4.6%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60.4%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중국 국민이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국 학생들은 한국 국민이 '남을 배려한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과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각각 23.5%, 22.9%로 매우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절반이 넘는 53.6%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3-15 상대국 국민 이미지1(남을 배려한다)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한국 | N | 151 | 454 | 352 | 43 | 3 | 337.6 (.000) |
| | % | 14.6% | 47.2% | 34.7% | 3.0% | .5% | |
| 중국 | N | 66 | 163 | 538 | 215 | 21 | |
| | % | 6.6% | 16.3% | 53.6% | 21.4% | 2.1% | |
| 전체 | N | 217 | 617 | 890 | 258 | 24 | 2006 |
| | % | 10.8% | 30.8% | 44.4% | 12.9% | 1.2% | 100.0% |

그림 3-14 상대국 국민 이미지1(남을 배려한다)




다음으로 중국 국민이 '매사에 적극적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한국 학생이 190명으로 전체 한국 응답자의 18.9%에 그친 반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은 372명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 수에 비해 약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국 학생들 가운데 한국 국민이 매사에 적극적이라고 생각한 비율이 39.5%인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2.7%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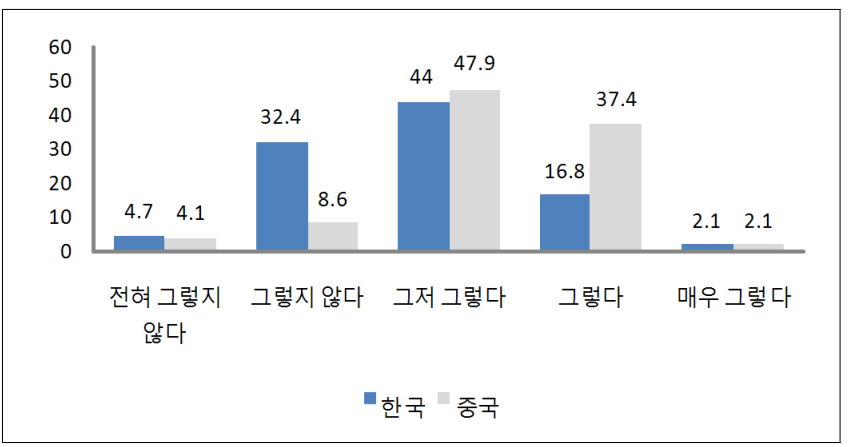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한국의 경우에는 44%, 중국은 47.9%로 약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양상은 한국 학생들이 중국 국민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면, 중국 학생들이 한국 국민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표 3-16 상대국 국민 이미지2(매사에 적극적이다)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한국 | N | 47 | 325 | 441 | 169 | 21 | 219.1 (.000) |
| | % | 4.7% | 32.4% | 44.0% | 16.8% | 2.1% | |
| 중국 | N | 41 | 86 | 481 | 375 | 21 | |
| | % | 4.1% | 8.6% | 47.9% | 37.4% | 2.1% | |
| 전체 | N | 88 | 411 | 922 | 544 | 42 | 2007 |
| | % | 4.4% | 20.5% | 45.9% | 27.1% | 2.1% | 100.0% |

그림 3-15 상대국 국민 이미지2(매사에 적극적이다)




상대국 국민이 '실용을 추구한다'에 대한 문항에서 한국 학생들은 약 41%정도가 긍정적인 응답을 제시한 반면, 21.3%는 부정적인 응답을 제시하였고, 37.4%는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함으로써 중국 국민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생들의 중국 국민에 대한 이미지 가운데 앞의 두 문항과 달리 '실용을 추구한다'라는 문항에서는 중국 국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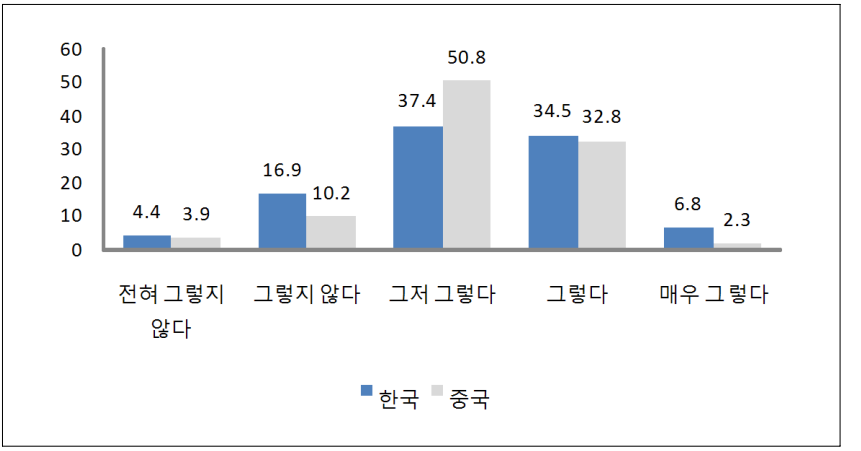
음을 알 수 있다.

중국 학생들의 응답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국민이 '실용을 추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1%,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4.1%,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8%로 나타났다. 중국 학생들도 한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국민이 '실용을 추구한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앞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7 상대국 국민 이미지3(실용을 추구한다)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한국 | N | 44 | 170 | 375 | 346 | 68 | 59.8 (.000) |
| | % | 4.4% | 16.9% | 37.4% | 34.5% | 6.8% | |
| 중국 | N | 39 | 102 | 507 | 327 | 23 | |
| | % | 3.9% | 10.2% | 50.8% | 32.8% | 2.3% | |
| 전체 | N | 83 | 272 | 882 | 673 | 91 | 2001 |
| | % | 4.1% | 13.6% | 44.1% | 33.6% | 4.5% | 100.0% |

그림 3-16 상대국 국민 이미지3(실용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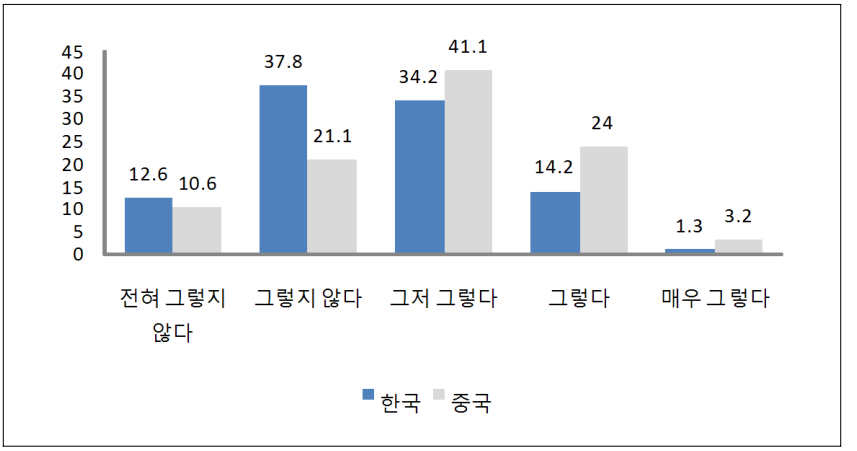
상대국 국민이 '타문화에 개방적이다'에 대한 문항에서 한국 학생들은 앞서의 중국 국민에 대한 이미지와 유사한 응답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 학생들 가운데 중국 국민이 타문화에 개방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5.5%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34.2%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 학생들의 경우 한국 국민이 타문화에 개방적이라고 생각하

표 3-18 상대국 국민 이미지4(타문화에 개방적이다)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한국 | N | 126 | 379 | 343 | 142 | 13 | 88.8 (.000) |
| | % | 12.6% | 37.8% | 34.2% | 14.2% | 1.3% | |
| 중국 | N | 107 | 212 | 413 | 241 | 32 | |
| | % | 10.6% | 21.1% | 41.1% | 24.0% | 3.2% | |
| 전체 | N | 233 | 591 | 756 | 383 | 45 | 2008 |
| | % | 11.6% | 29.4% | 37.6% | 19.1% | 2.2% | 100.0% |

그림 3-17 상대국 국민 이미지4(타문화에 개방적이다)



는 비율은 27.2%, 그저 그렇다는 비율이 41.1%,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1.7%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국민이 타문화에 개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개방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에 있어 양국의 학생들이 상대방 국가에 대해 서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서 한편으로는 다양한 통로를 활용한 상호 교류의 필요성을 시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상대국 국민이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도 타문화에 개방적인가에 대한 문항과 유사한 양상의 응답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학생의 경우 중국 국민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4.8%,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1.8%,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3.4%로 나타남으로써 중국 국민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 학생들의 경우 한국 국민이 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45.3%,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8.7%로 나타남으로써 긍정적인 응답을 제시한 학생의 비율과 부정적인 응답을 제시한 학생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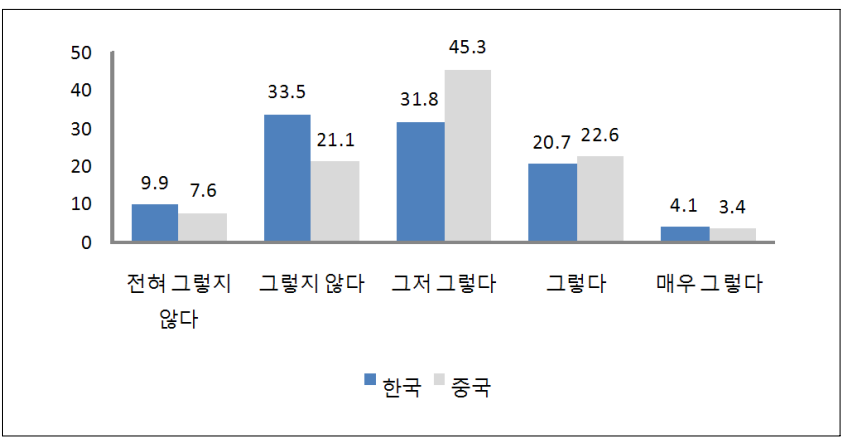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 학생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 학생들이 중국 국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대국 국민이 '믿음직하다'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유형을 관찰할 수 있다. 즉 한국 학생의 경우 중국 국민이 '믿음직하다'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제시한 비율이 2.7%에 불과한 반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3.4%, 믿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무려 73.9%로 전체 응답자의 약 3/4 정도가 부정적인 응답을 제시하고 있다.

표 3-19 상대국 국민 이미지5(여유가 있다)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한국 | N | 99 | 336 | 319 | 207 | 41 | 56.6 (.000) |
| | % | 9.9% | 33.5% | 31.8% | 20.7% | 4.1% | |
| 중국 | N | 76 | 212 | 455 | 227 | 34 | |
| | % | 7.6% | 21.1% | 45.3% | 22.6% | 3.4% | |
| 전체 | N | 175 | 548 | 774 | 434 | 75 | 2006 |
| | % | 8.7% | 27.3% | 38.6% | 21.6% | 3.7% | 100.0% |

그림 3-18 상대국 국민 이미지5(여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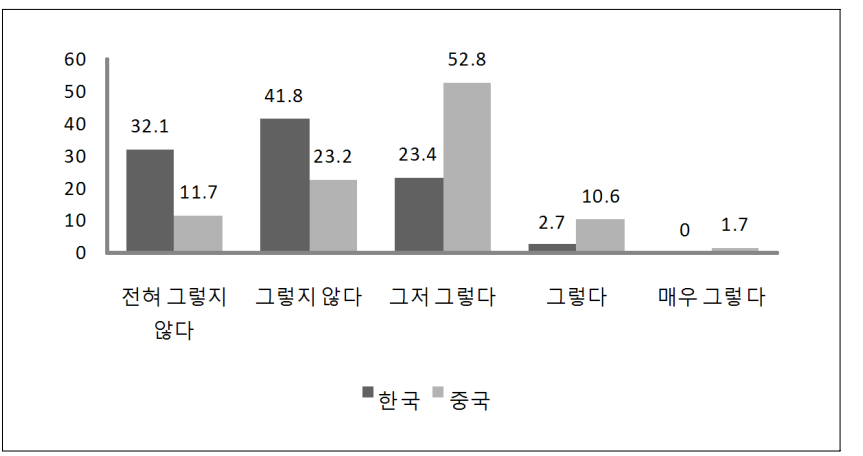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양상의 응답 유형이 중국 학생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학생의 경우 한국 국민이 '믿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2.3%,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8%, 믿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4.9%로 나타남으로써 믿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믿음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상대국 국민 이미지6(믿음직하다)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한국 | N | 322 | 419 | 235 | 27 | 0 | 326.5 (.000) |
| | % | 32.1% | 41.8% | 23.4% | 2.7% | .0% | |
| 중국 | N | 117 | 232 | 529 | 106 | 17 | |
| | % | 11.7% | 23.2% | 52.8% | 10.6% | 1.7% | |
| 전체 | N | 439 | 651 | 764 | 133 | 17 | 2004 |
| | % | 21.9% | 32.5% | 38.1% | 6.6% | .8% | 100.0% |

그림 3-19 상대국 국민 이미지6(믿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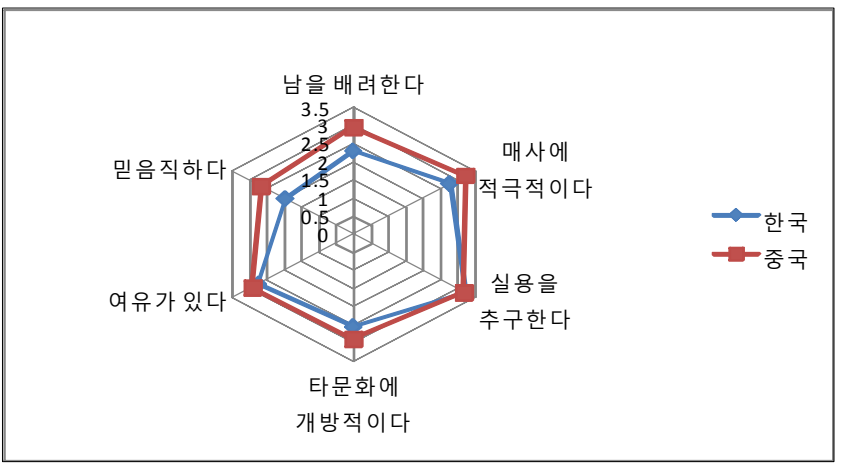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중관계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중국 국민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국의 경우도 한국 국민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부정적인 경우가 긍정적인 경우보다 더 많다는 것은 향후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 우선 양국의 학생들의 상대국 국민에 대한 선입견 혹은 편견을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3-21 영역별 상대국민에 대한 이미지 비교

| | 국가 | N | 평균 | 표준편차 | t(p) |
|---|---|---|---|---|---|
| 남을 배려한다 | 한국 | 1003 | 2.30 | .783 | -18.3 (.000) |
| | 중국 | 1003 | 2.96 | .850 | |
| 매사에 적극적이다 | 한국 | 1003 | 2.79 | .849 | -12.3 (.000) |
| | 중국 | 1004 | 3.25 | .803 | |
| 실용을 추구한다 | 한국 | 1003 | 3.22 | .955 | .76 (.448) |
| | 중국 | 998 | 3.19 | .801 | |
| 타문화에 개방적이다 | 한국 | 1003 | 2.54 | .928 | -7.9 (.000) |
| | 중국 | 1005 | 2.88 | .995 | |
| 여유가 있다 | 한국 | 1002 | 2.76 | 1.021 | -4.0 (.000) |
| | 중국 | 1004 | 2.93 | .934 | |
| 믿음직하다 | 한국 | 1003 | 1.97 | .814 | -18.7 (.000) |
| | 중국 | 1001 | 2.67 | .876 | |

그림 3-20 영역별 상대국민에 대한 이미지 비교




〈표 3-21〉과 [그림 3-20〉은 양국 학생들의 상대국민에 대한 이미지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용성을

제외한 5개 문항에서 한국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보다 상대국 국민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자국 및 상대국 문화 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분석결과 비교

### 가. 한국 응답자 조사결과

#### 1) 세계에 알리고 싶은 한국의 문화예술자원

세계에 알리고 싶은 한국의 문화예술자원에 관한 설문은 전통문학 및 도서, 현대문학 및 도서, 미술작품, 전통문화, 무형문화재, 대중문화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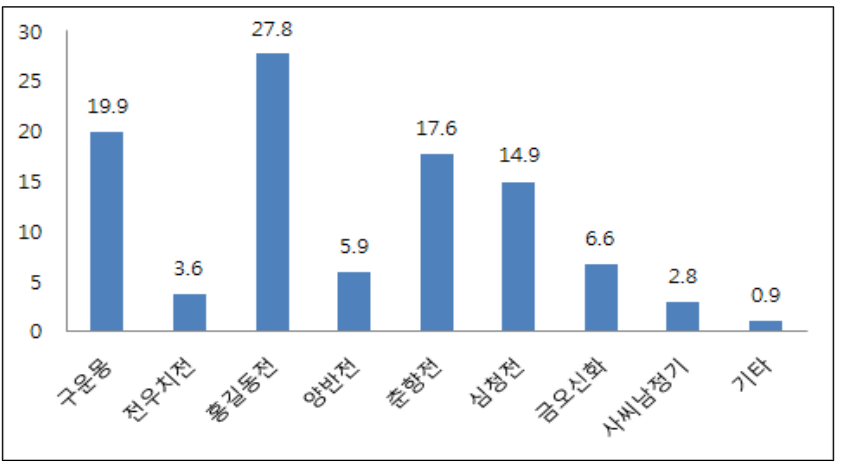
먼저 〈표 3-22〉와 [그림 3-21]은 세계에 가장 알리고 싶은 한국 전통문학 및 도서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대표적인 전통문학 및 도서로 제시한 항목들 중에서 한국 응답자들이 세계에 가장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은 홍길동전이다. 홍길동전은 총 응답자의 27.8%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했고 구운몽(19.9%), 춘향전(17.6%), 심청전(14.9%)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금오신화(6.6%), 양반전(5.9%), 전우치전(3.6%), 사씨남정기(2.8%) 등은 이 작품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면서 한 단계 아래에 위치해 있다.

이것은 접근성, 인지도, 작품성, 주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보이는데, 선택 이유와 관련된 문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 어떤 요인이 더 중요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높은 순위를 차지한 홍길동전, 구운몽, 춘향전, 심청전 등이 모두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이라는 점, 그리고 구운몽을 제외한 상위 세 작품이 영화나 TV드라마, 공연

표 3-22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1(전통문학 및 도서)

| | | 구운몽 | 전우치전 | 홍길동전 | 양반전 | 춘향전 | 심청전 | 금오신화 | 사씨남정기 | 기타 | $x^2$ (p) |
|---|---|---|---|---|---|---|---|---|---|---|---|
| 전체 | N | 200 | 36 | 279 | 59 | 177 | 149 | 66 | 28 | 9 | 1003 |
| | % | 19.9% | 3.6% | 27.8% | 5.9% | 17.6% | 14.9% | 6.6% | 2.8% | .9% | 100.0% |

그림 3-21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1(전통문학 및 도서)




등의 형식을 통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작품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전작품의 경우 특히 접근성과 인지도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현대문학작가 중에서는 윤동주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표 3-23〉과 [그림 3-2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윤동주는 거의 30%에 가까운 비율로 1위에 올랐다. 그 다음으로 김소월(15.0%), 이상(12.4%), 한용운(9.3%)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이들은 모두 교과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쉽게 작품을 접할 수 있었던 작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윤동주는 〈서시〉처럼 대중적 인기가 높은 시를 쓴 작가이면서 동시에 일제 치하 독립

운동가로서 젊은 나이에 옥중에서 사망한 양심적 지식인이라는 생애사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이 동시대인으로 간주할 만한 작가들 중에서는 박경리(8.9%), 박완서(6.3%)가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 있고 그 뒤를 이문열(3.9%), 황순원(3.7%), 신경숙(2.7%)이 잇고 있다. 동시대 작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과 작품에 대한 선호도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라는 변수가 작가 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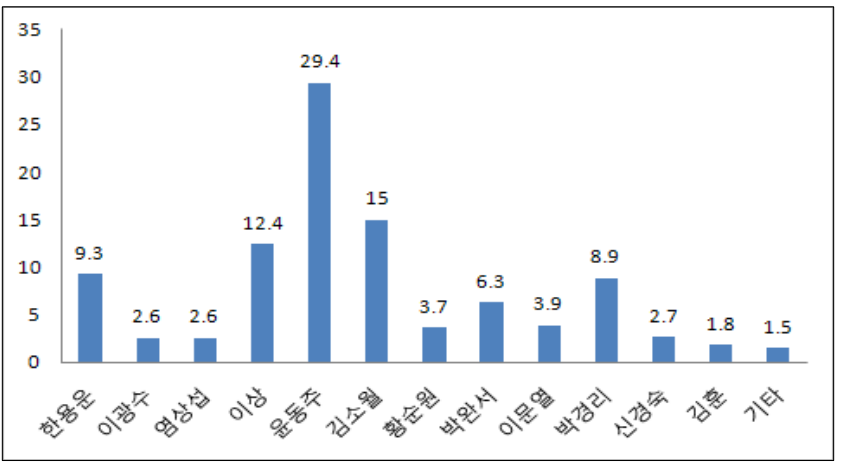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보다 여자 응답자 중에서 여성작가를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남자 중에서 여성작가인 박경리, 박완서, 신경숙을 꼽은 응답자 비율은 각각 6.3%, 5.6%, 1.8%인데 비해 여자의 경우 11.4%, 7.0%, 3.6%로 일관되게 높게 나타난다. 여성 응답자만을 놓고 볼 때 박경리는 순위에서 한용운을 앞지르고 있다.

대학생과 대학원을 비교할 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학원생 중에서 박경리와 이문열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박경리의 경우 대학생이 7.4%인데 비해 대학원생은 13.0%로 김소월과 비율이 같다. 이문열의 경우는 그 비율이 각각 2.7%, 7.3%로서 대학원생 응답자로만 보면 한용운보다 순위가 앞선다. 연령 차이가 크지 않은 이 두 집단에서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난 것이 어떤 요인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혹시 이 작가들의 대중적 인지도나 작품 접근성이 몇 년 간격을 두고 달라진 것인지, 어떤 시기적 유행에 따른 것인지, 연령에 따른 미세한 이념성향의 차이를 반영한 것인지는 더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부분이다.

표 3-23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2(현대문학작가)

| | | 한용운 | 이광수 | 염상섭 | 이상 | 윤동주 | 김소월 | 황순원 | 박완서 | 이문열 | 박경리 | 신경숙 | 김훈 | 기타 | $x^2$ (p) |
|---|---|---|---|---|---|---|---|---|---|---|---|---|---|---|---|
| 전체 | N | 93 | 26 | 26 | 124 | 295 | 150 | 37 | 63 | 39 | 89 | 27 | 18 | 15 | 1002 |
| | % | 9.3% | 2.6% | 2.6% | 12.4% | 29.4% | 15.0% | 3.7% | 6.3% | 3.9% | 8.9% | 2.7% | 1.8% | 1.5% | 100.0% |

그림 3-22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2(현대문학작가)




〈표 3-24〉와 [그림 3-23]은 세계에 알리고 싶은 미술작품 장르에 관한 응답결과이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것은 도자기로서 점유율이 무려 42.8%에 이른다. 2위와 3위는 각각 22.7%, 21.5%의 응답자가 선택한 공예품과 동양화가 차지했다. 비디오아트(7.7%), 설치미술(2.2%), 사진(1.8%), 서양화(0.7%) 등을 꼽은 응답자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한국적 고유성과 특색을 더 잘 드러내는 장르로 간주될 수 있는 도자기, 공예품, 동양화 등 한국 전통과 관련성이 큰 장르들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비디오아트를 비롯하여 설치미술, 사진, 서양화 등 상대적으로 현대성이 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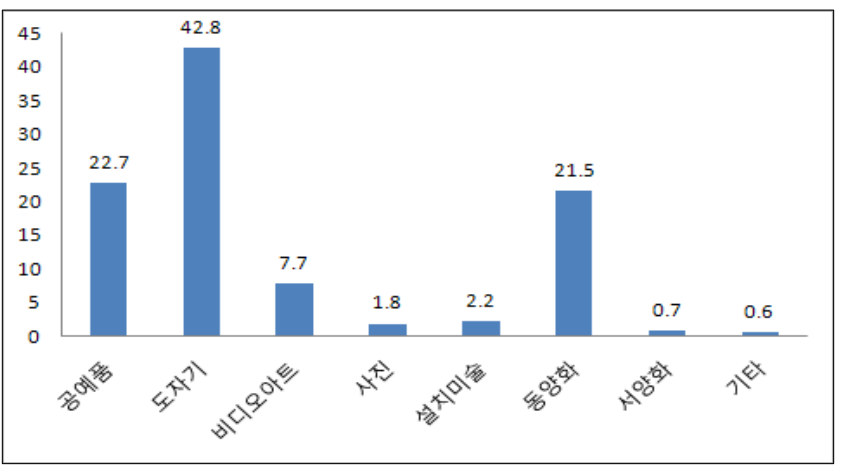
장르들은 점유율에서 전통적 장르들과 큰 격차를 보인다. 대중적 인지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되는 비디오아트 장르가 4위에 오른 것은 백남준과 같은 세계적 거장을 배출한 장르라는 사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녀에 따른 응답 차이는 대체로 크지 않다. 다만, 여자 응답자들의 경우 공예품의 점유율이 28.5%로 남자의 17.0%보다 10% 이상 높은 반면, 도자기의 점유율은 여자 38.0%, 남자 47.5%로 10%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성별에 따른 문화적 관심과 취향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24**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3(미술작품)

| | | 공예품 | 도자기 | 비디오 아트 | 사진 | 설치 미술 | 동양화 | 서양화 | 기타 | $x^2$ (p) |
|---|---|---|---|---|---|---|---|---|---|---|
| 전체 | N | 227 | 428 | 77 | 18 | 22 | 215 | 7 | 6 | 1000 |
| | % | 22.7% | 42.8% | 7.7% | 1.8% | 2.2% | 21.5% | .7% | .6% | 100.0% |

**그림 3-23**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3(미술작품)



〈표 3-25〉와 [그림 3-24]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에 알리고 싶은 전통놀이나 운동 중에서는 태권도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태권도를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62.6%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태껸(16.1%), 윷놀이(13.7%) 순이고 그밖에 널뛰기, 제기차기, 썰매타기, 그네타기 등을 선택한 응답자도 소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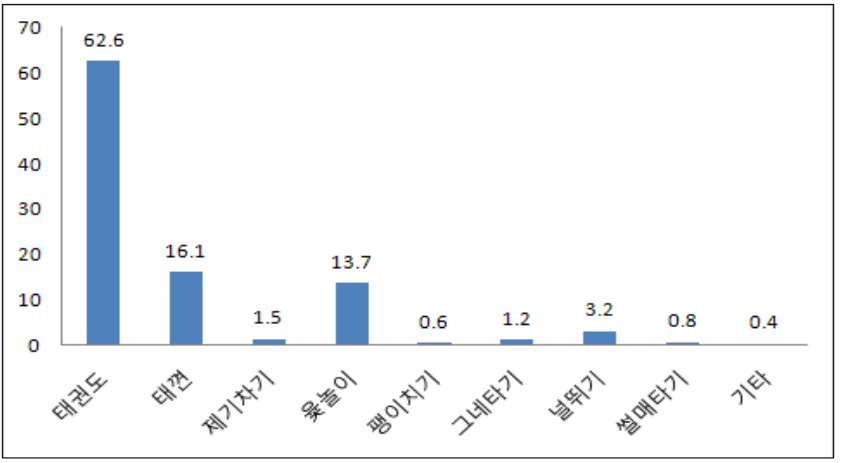
태권도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이것은 태권도가 세계 각지에 수많은 수련생을 가진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서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운동으로 세계인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태껸의 점유율이 2위를 기록한 것은 그것이 태권도만큼 널리 보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태권도보다 훨씬 오래된 전통무예라는 점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윷놀이 점유율이 꽤 높게 나타난 것은 아마 윷놀이가 오늘날까지도 명절놀이로서 많은 가정에서 사랑받고 있는 것과 관련될 것이다.

남자에 비해 여자 응답자 중에서 태권도 비율이 7% 정도 높게 나온 반면 태껸의 경우에는 7% 정도 적게 나왔는데 이것은 태껸이라는 운동이 여자들보다 남자들 사이에서 더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널뛰기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3% 정도 더 높게 나온 것도 흥미롭다. 널뛰기가 여자들 운동으로 간주되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표 3-25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4(전통놀이 혹은 운동)**

| | | 태권도 | 태껸 | 제기차기 | 윷놀이 | 팽이치기 | 그네타기 | 널뛰기 | 썰매타기 | 기타 | $x^2$ (p) |
|---|---|---|---|---|---|---|---|---|---|---|---|
| 전체 | N | 628 | 161 | 15 | 137 | 6 | 12 | 32 | 8 | 4 | 1003 |
| | % | 62.6% | 16.1% | 1.5% | 13.7% | .6% | 1.2% | 3.2% | .8% | .4% | 100.0% |

그림 3-24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4(전통놀이 혹은 운동)




〈표 3-26〉과 [그림 3-25]는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무형문화재를 묻는 질문에 대한 한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응답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무형문화재로 손꼽힌 것은 판소리로 총 응답자의 45.1%가 선택하였다. 탈춤은 판소리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전체의 5분의 1에 가까운 응답자가 선택하여 2위를 차지했다. 3위 자리에는 10.8%를 기록한 종묘제례악이 올랐고 그 뒤를 농악, 강강술래, 줄타기, 단오제, 타령이 잇고 있다.

판소리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은 약간 의외의 결과로 보인다. 후속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서는 판소리의 어떤 점이 탈춤, 종묘제례악, 농악 등과 비교하여 더 가치 있게 보였는지 알기 힘들다. 다만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판소리가 다른 무형문화재들보다 한국적 특색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일반적 인식과의 관련성이다. 탈춤 등 다른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 등에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

들이 대체로 알고 있지만 판소리와 비슷한 해외 전통음악의 존재 유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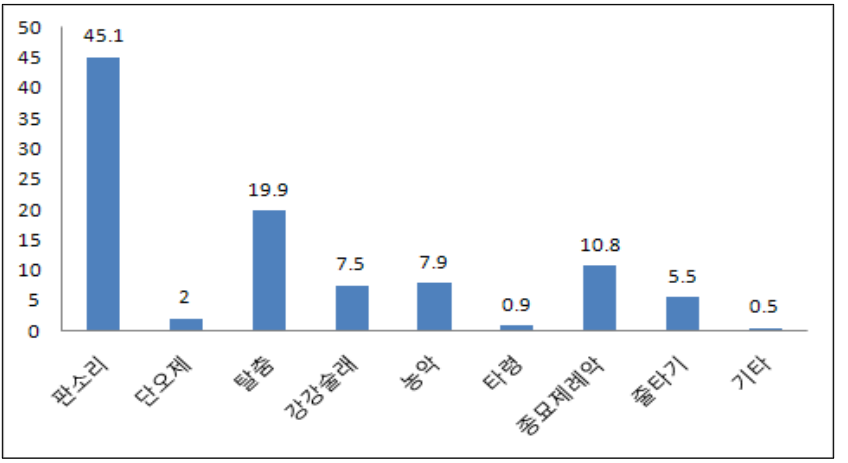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응답결과에서 판소리 점유율이 꽤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대학원생 응답자 중에 판소리를 선택한 사람은 38.0%로 이것은 대학생의 47.6%에 비해 10% 가까이 낮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훨씬 더 세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표 3-27〉과 [그림 3-26]에는 세계에 알리고 싶은 한국 대중문화에 관한 응답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압도적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은 대중가요로

표 3-26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5(무형문화재)

| | | 판소리 | 단오제 | 탈춤 | 강강술래 | 농악 | 타령 | 종묘제례악 | 줄타기 | 기타 | $x^2$ (p) |
|---|---|---|---|---|---|---|---|---|---|---|---|
| 전체 | N | 452 | 20 | 199 | 75 | 79 | 9 | 108 | 55 | 5 | 1002 |
| | % | 45.1% | 2.0% | 19.9% | 7.5% | 7.9% | .9% | 10.8% | 5.5% | .5% | 100.0% |

그림 3-25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5(무형문화재)



무려 52.8%의 응답자가 대중가요를 선택했다.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은 영화(17.7%), 드라마(15.4%), 컴퓨터게임(9.0%)이다. 뮤지컬, 연극, 만화, 애니메이션을 꼽은 응답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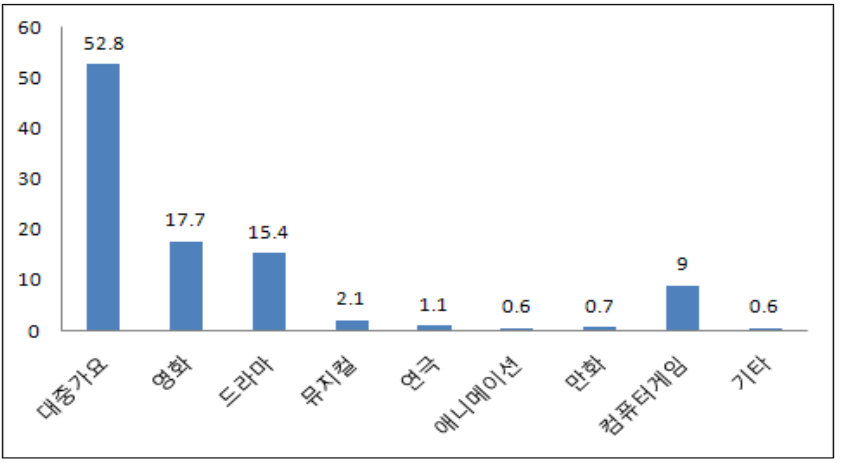
최근 들어 아이돌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K-pop 한류의 상승세가 눈부시고 그와 관련된 보도나 프로그램이 각종 매체에 넘쳐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중가요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한류를 움직이는 추진력을 제공해온 드라마의 순위가 3위로 떨어진 것은 2000년대 중반을 고비로 드라마 한류의 기세가 한 풀 꺾인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해외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볼 때는 컴퓨터게임(특히 온라인게임)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그것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가치 있는 문화예술자원으로 인식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단, 컴퓨터게임과 관련해서는 남녀 간 응답결과에서 확실한 차이가 드러난다. 여자 응답자들 중에서 컴퓨터게임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은 3.0%에 불과한 반면, 남자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14.8%에 달한다. 남자 응답자만을 놓고 본다면 컴퓨터게임은 드라마와 동률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분명히 이것은 컴퓨터게임이 기본적으로 남자들의 게임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 컴퓨터게임의 수준과 인기에 대한 인식에서 남녀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27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6(대중문화)**

| | | 대중가요 | 영화 | 드라마 | 뮤지컬 | 연극 | 애니메이션 | 만화 | 컴퓨터게임 | 기타 | $x^2$ (p) |
|---|---|---|---|---|---|---|---|---|---|---|---|
| 전체 | N | 530 | 178 | 155 | 21 | 11 | 6 | 7 | 90 | 6 | 1004 |
| | % | 52.8% | 17.7% | 15.4% | 2.1% | 1.1% | .6% | .7% | 9.0% | .6% | 100.0% |

그림 3-26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6(대중문화)




## 2) 세계에 알리고 싶은 자국(한국)의 지역자원

세계에 알리고 싶은 한국의 지역자원에 대한 질문은 역사유적지, 자연유산, 도시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계에 알리고 싶은 한국 역사유적지에 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표 3-28〉과 [그림 3-27]과 같다.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곳은 불국사, 첨성대 등이 있는 경주로, 경주를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45.0%에 달한다. 경주와 큰 격차를 두고 경복궁(19.1%)이 2위를 차지했으며,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18.8%), 하회마을로 대표되는 안동(11.7%)을 선택한 응답자도 적지 않다. 남대문(3.9%)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할 만한 곳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낙화암과 김해 가야 유적은 거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 결과는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부여 낙화암을 비롯한 백제유적이나 김해 가야유적보다는 신라시대와 조선시대 유적들이 훨씬 널리 알려져 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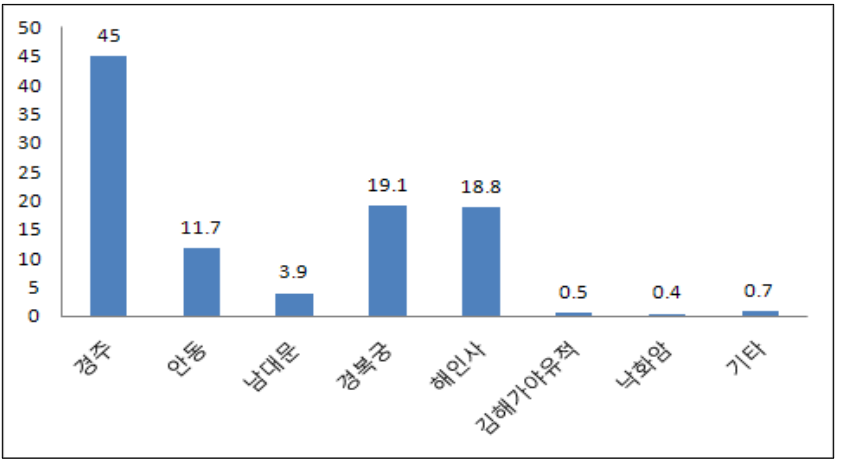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은데, 그 중에서 해인사에 대한 거주 지역별 응답 차이는 약간의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부산과 대구 응답자 중에서 해인사를 선택한 사람의 비율은 각각 25.0%와 24.4%인 반면, 그 밖의 지역은 모두 1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대전의 경우는 10.6%로서 부산과 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응답자의 거주지에 따라 역사유적지에 대한 접근성과 인지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역사유적지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29〉와 [그림 3-28]은 한국의 자연유산 중에서 세계에 알리고 싶은 곳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예상했던 대로 세계에 알리고 싶은 한국의 자연

표 3-28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1(역사유적지)

| | | 경주 | 안동 | 남대문 | 경복궁 | 해인사 | 김해가야유적 | 낙화암 | 기타 | $x^2$ (p) |
|---|---|---|---|---|---|---|---|---|---|---|
| 전체 | N | 450 | 117 | 39 | 191 | 188 | 5 | 4 | 7 | 1001 |
| | % | 45.0% | 11.7% | 3.9% | 19.1% | 18.8% | .5% | .4% | .7% | 100.0% |

그림 3-27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1(역사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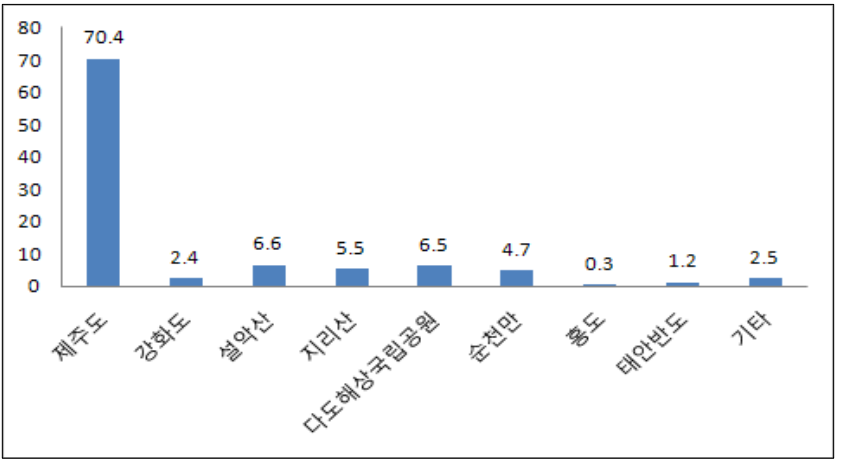
유산으로 제주도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주도는 응답자의 70.4%의 지지를 받아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재확인시켰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1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자연유산이 없다. 설악산과 다도해상국립공원이 각각 6.6%와 6.5%로 2, 3위에 올랐고, 그 뒤를 지리산(5.5%), 순천만(4.7%), 강화도(2.4%), 태안반도(1.2%), 홍도(0.3%)가 잇고 있다.

제주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은 제주도가 가진 풍부한 천혜자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로서의 지명도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주관단

**표 3-29**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2(자연유산)

| | | 제주도 | 강화도 | 설악산 | 지리산 | 다도해상 국립공원 | 순천만 | 홍도 | 태안 반도 | 기타 | $x^2$ (p) |
|---|---|---|---|---|---|---|---|---|---|---|---|
| 전체 | N | 707 | 24 | 66 | 55 | 65 | 47 | 3 | 12 | 25 | 1004 |
| | % | 70.4% | 2.4% | 6.6% | 5.5% | 6.5% | 4.7% | .3% | 1.2% | 2.5% | 100.0% |

**그림 3-28**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2(자연유산)



체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기는 했지만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의 하나로 선정되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것도 이처럼 높은 지지를 얻게 한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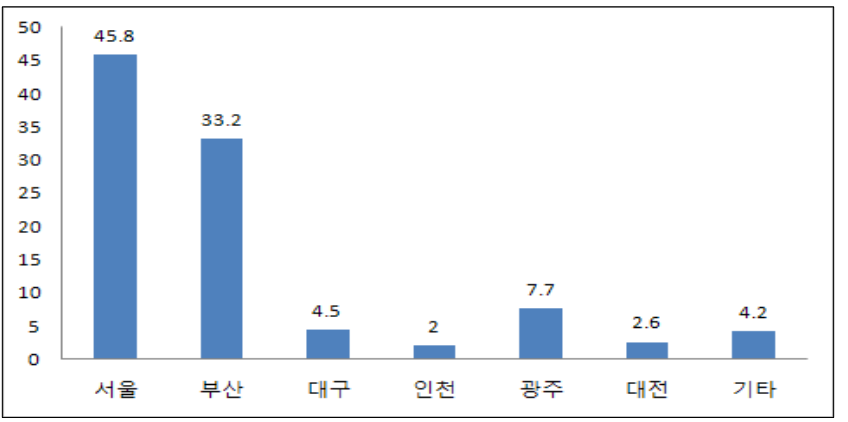
〈표 3-30〉과 [그림 3-29]는 한국의 도시 중에서 세계에 알리고 싶은 곳에 대한 설문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세계에 알리고 싶은 한국 도시로는 서울(45.8%)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인식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결과로 보인다. 서울 다음으로는 부산이 많은 지지를 받는 도시로 밝혀졌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이 부산을 선택한 것은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라는 점과 함께 항구도시로서 보유한 바다 관련 자원이 높게 평가된 결과로 보인다. 부산 다음으로는 광주(7.7%)가 높은 지지를 얻었고, 대구(4.5%), 대전(2.6%), 인천(2.0%)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울 지역 응답자의 경우, 서울 72.4%, 부산 14.6% 순이었으나, 부산 지역 응답자의 경우는 서울이 19.5%에 불과한 반면 부산은 76.0%에 달한다. 이와 비슷하게, 대구 지역 응답자의 경우 대구를 선택한 비율이 16.1%로 모두 3% 미만의 비율을 기록한 다른 지역 응답자들의 대구 선택 비율에 비해 훨씬 높다. 광주 지역 응답자 역시 광주를 선택한 비율이 32.0%로 부산에 대한 지지(18.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대전 지역 응답자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중에서 대전을 선택한 사람은 11.1%로, 1%를 넘지 못하는 다른 지역 응답자들보다 훨씬 높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에 알리고 싶은 도시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응답자의 자신의 거주 지역에 애향심이 작용하여 거주 지역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표 3-30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3(도시)

|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기타 | $x^2$ (p) |
|---|---|---|---|---|---|---|---|---|---|
| 전체 | N | 459 | 333 | 45 | 20 | 77 | 26 | 42 | 1002 |
| | % | 45.8% | 33.2% | 4.5% | 2.0% | 7.7% | 2.6% | 4.2% | 100.0% |

그림 3-29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3(도시)




### 3) 세계에 알리고 싶은 자국(한국)의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

세계에 알리고 싶은 한국의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은 모두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역사적 발명품에 관한 문항이고, 둘째는 역사적 사건에 관한 문항이다.

역사적 발명품의 보기로는 한글을 비롯하여 인쇄기술(직지심경, 팔만대장경), 도자기(상감청자), 한복, 거북선, 신기전, 온돌 등이 제시되었다. 〈표 3-31〉과 [그림 3-30]은 이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준다. 역사적 발명품 중에서는 세계에 알리고 싶은 것으로는 응답자의 71%가 선택한 한글이 단연코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 다음은 인쇄기술(9.2%), 도자기(5.2%), 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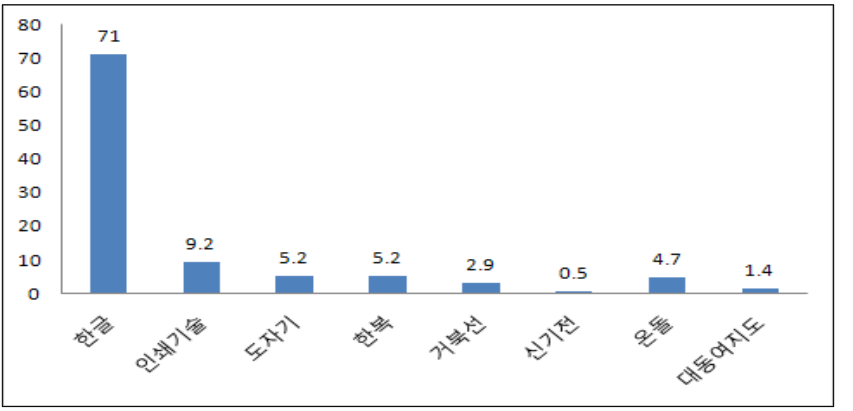
(5.2%), 온돌(4.7%), 거북선(2.9%), 대동여지도(1.4%), 신기전(0.5%) 순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 한글 창제의 고귀한 뜻과 과학적 원리의 우수성이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져 왔기 때문에 한글이 1위를 차지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71%라는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한 데는 다른 요인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지난 해 방영되어 대중적 관심과 높은 인기를 얻었던 SBS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한글 창제 및 반포에 얽힌 복잡한 권력관계를 다루면서 백성들을 위한 발명품으로서 한글의 가치를 강하게 부각시켰는데 이것이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더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표 3-31**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1(역사적 발명품)

| | | 한글 | 인쇄 기술 | 도자기 | 한복 | 거북선 | 신기전 | 온돌 | 대동여지도 | $x^2$ (p) |
|---|---|---|---|---|---|---|---|---|---|---|
| 전체 | N | 712 | 92 | 52 | 52 | 29 | 5 | 47 | 14 | 1003 |
| | % | 71.0% | 9.2% | 5.2% | 5.2% | 2.9% | .5% | 4.7% | 1.4% | 100.0% |

**그림 3-30**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1(역사적 발명품)



다음으로,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3·1 운동, 6.25전쟁, 4.19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88올림픽, 2002 서울월드컵, 대전엑스포, 여수엑스포 등 현대사 범주에 속한 역사적 사건들을 보기로 제시하였다.

〈표 3-32〉와 [그림 3-31]은 한국인들이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한 것은 3·1 운동으로 전체 응답자의 42.2%에 이른다. 그 뒤로는 상당히 큰 격차를 두고 5.18광주민주화운동(18.9%), 2002서울월드컵(15.7%), 6.25전쟁(15.0%)이 비교적 많은 응답을 얻었으며 그 한 단 아래에는 88올림픽(4.2%), 4.19항쟁(1.9%), 여수엑스포(1.4%)가 자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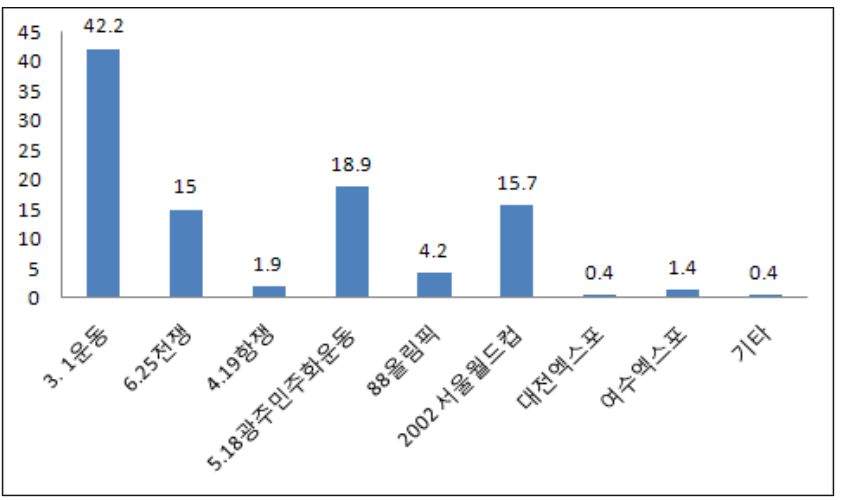
상위에 오른 사건들은 모두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큰 성과를 거둔 사건 중에서 대중적 기억이 비교적 뚜렷한 사건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3.1운동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보여준 민족적 쾌거로서 주변 국가들에 큰 충격을 던진 의미 깊은 사건이다. 학교 교육의 영향도 당연히 있겠지만, 국경일로서 매년 모든 국민이 그 의의를 되새기는 의식을 반복적으로 치른다는 점에서 보기로 주어진 다른 어떤 사건보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 역시 독재정권의 무력탄압에 맞선 민주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준 사건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2002서울월드컵은 스포츠 이벤트이기는 했지만 준결승 진출이라는 엄청난 성과와 붉은 악마의 주도 하에 대규모로 진행된 일사불란한 응원 등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던 대회라는 점이 상당히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성에 따른 차이는 6.25전쟁에 대한 평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남자

표 3-32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2(역사적 사건)

| | | 3·1 운동 | 6.25 전쟁 | 4.19 항쟁 | 5.18광주민주화운동 | 88 올림픽 | 2002 서울월드컵 | 대전 엑스포 | 여수 엑스포 | 기타 | $x^2$ (p) |
|---|---|---|---|---|---|---|---|---|---|---|---|
| 전체 | N | 423 | 150 | 19 | 189 | 42 | 157 | 4 | 14 | 4 | 1002 |
| | % | 42.2% | 15.0% | 1.9% | 18.9% | 4.2% | 15.7% | .4% | 1.4% | .4% | 100.0% |

그림 3-31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2(역사적 사건)




응답자 중 5분의 1이 6.25전쟁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사건으로 선택한 데 비해 6.25전쟁을 선택한 여자 응답자는 그 반 정도(9.9%)에 불과하다. 그 대신 여자 응답자들의 경우 3·1운동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남자 응답자들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이 설문결과는 전쟁에 대한 평가에서 남녀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4) 세계에 알리고 싶은 자국(한국)의 인물자원

세계에 알리고 싶은 한국의 인물자원에 관한 설문은 고대위인, 현대위인, 스포츠 스타 등 세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고대위인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표 3-33〉과 [그림 3-32]와 같다. 보기로는 광개토대왕, 강감찬, 김유신, 원효대사, 최치원, 세종대왕, 이순신, 율곡 이이, 허준, 장영실, 신사임당 등 국민들에게 매우 익숙한 역사적 인물들을 제시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세종대왕에 대한 지지가 거의 6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위 이순신 장군의 15.3%, 3위 광개토대왕 12.4%와 큰 격차를 보인다. 세종대왕이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정 정도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영향을 받은 탓으로 짐작된다. 나머지 고대위인 중에서 10%를 넘긴 인물은 없었다.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과학발명가인 장영실(4.3%)과 여성인 신사임당(2.4%)이 다른 위인들보다 높은 순위에 오른 것이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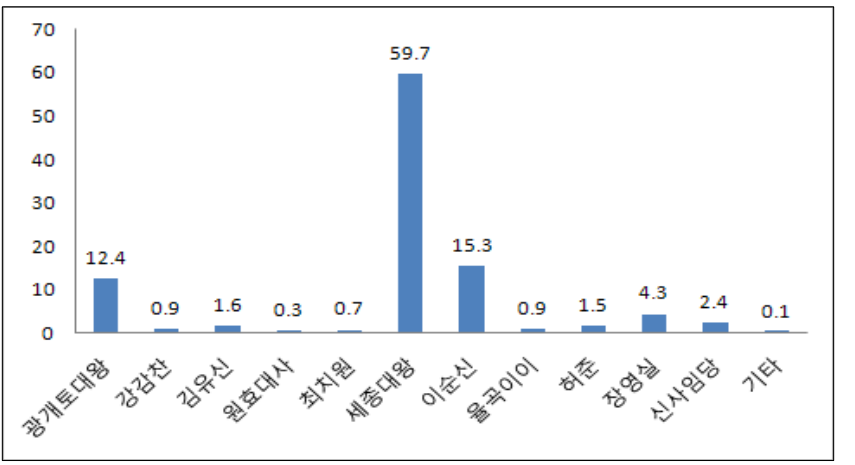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에 대한 평가에서 남녀 응답자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 남자 중에서 이순신을 선택한 응답자는 20.4%인 데 비해 여자 응답자는 그 반인 10.2%에 그친다. 반면, 여자 중에서 세종대왕을 선택한 응답자는 66.9%로 남자 응답자의 52.6%보다 거의 15%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위인에 대한 평가에서 남녀가 중시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세계에 알리고 싶은 현대위인에 대한 설문문항이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신채호, 유관순, 안중근, 김구, 박정희, 김대중, 반기문, 백남준 등의 인물을 보기로 제시하였다.

표 3-33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1(고대위인)

| | | 광개토대왕 | 강감찬 | 김유신 | 원효대사 | 최치원 | 세종대왕 | 이순신 | 율곡이이 | 허준 | 장영실 | 신사임당 | 기타 | $x^2$ (p) |
|---|---|---|---|---|---|---|---|---|---|---|---|---|---|---|
| 전체 | N | 124 | 9 | 16 | 3 | 7 | 599 | 154 | 9 | 15 | 43 | 24 | 1 | 1004 |
| | % | 12.4% | .9% | 1.6% | .3% | .7% | 59.7% | 15.3% | .9% | 1.5% | 4.3% | 2.4% | .1% | 100.0% |

그림 3-32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1(고대위인)




한국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인물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다. 반기문 총장은 응답자 30.1%의 선택을 받아 1위에 올랐고 그 뒤를 김구(20.1%), 유관순(18.7%), 안중근(14.6%)이 잇고 있다. 그보다 한 계단 아래에는 한국 당대정치에서 서로 다른 노선을 상징하는 인물들인 김대중(6.1%)과 박정희(4.2%), 그리고 예술가로서는 유일하게 포함된 백남준(3.9%)이 있다.

반기문 총장이 1위를 기록한 것은 그가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된 후 언론보도나 도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롤모델로서 크게 부각된 것과 일

정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인물들과 비교할 때 그의 국내적 위상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가 세계 지도자 반열에 오른 유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응답자들은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으로 남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 여자의 경우 유관순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남자 응답자에 비해 10% 이상 높게 나타난다. 남자와 여자 응답자들을 비교해 보면, 남자 응답자들 중에서 안중근, 김구, 박정희를 선택한 사람의 비율은 여자 응답자에 대체로 5%씩 높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비교할 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발견은 유관순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에서 나타나는 차이이다. 대학생 중에서 유관순을 지지한 응답자는 21.9%인데 비해, 대학원생의 경우 그 비율이 9.5%에 불과하다. 그러나 심층조사 없이 이것이 어떤 요인과 관련된 것인지를 알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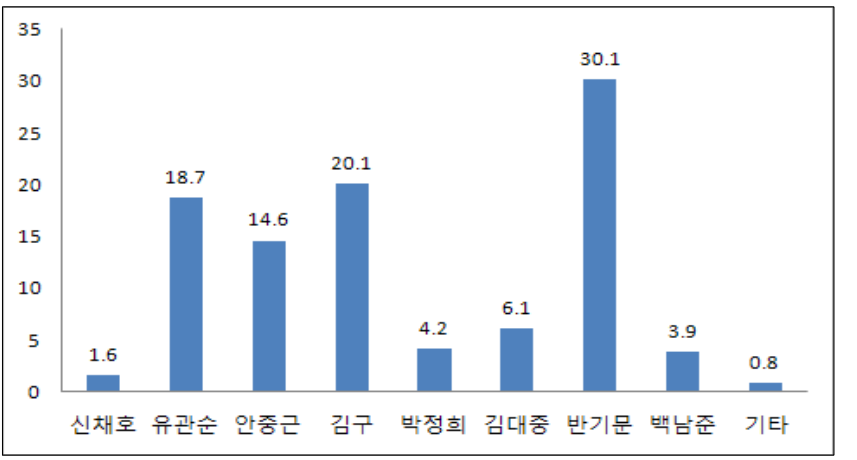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위인의 출신지가 응답자 거주지역과 같은 범주에 속할 경우 그 위인에 대한 지지가 일정 정도 높게 나타난다. 대전의 응답자들 중 35.2%가 충남 천안 출신인 유관순을 선택한 데 비해 다른 지역 응답자들의 경우 10%~20% 정도에 불과하다. 경북 출신의 박정희와 전남 출신의 김대중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을 거주지역과 연결시켜 비교해 보면, 대구 응답자들은 각각 8.3%와 2.5%, 광주 응답자들은 각각 1.5%와 17.0%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 결과들을 보면, 지역주의가 한국 청년층에게 여전히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스포츠 스타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보기로 제시된 스타들은 마라톤종목의 손기정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 청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현역 선수들이다. 〈표 3-35〉와 [그림 3-34]에 나타나듯이, 세계에 알리고 싶

표 3-34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2(현대위인)

| | | 신채호 | 유관순 | 안중근 | 김구 | 박정희 | 김대중 | 반기문 | 백남준 | 기타 | $x^2$ (p) |
|---|---|---|---|---|---|---|---|---|---|---|---|
| 전체 | N | 16 | 187 | 146 | 201 | 42 | 61 | 301 | 39 | 8 | 1001 |
| | % | 1.6% | 18.7% | 14.6% | 20.1% | 4.2% | 6.1% | 30.1% | 3.9% | .8% | 100.0% |

그림 3-33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2(현대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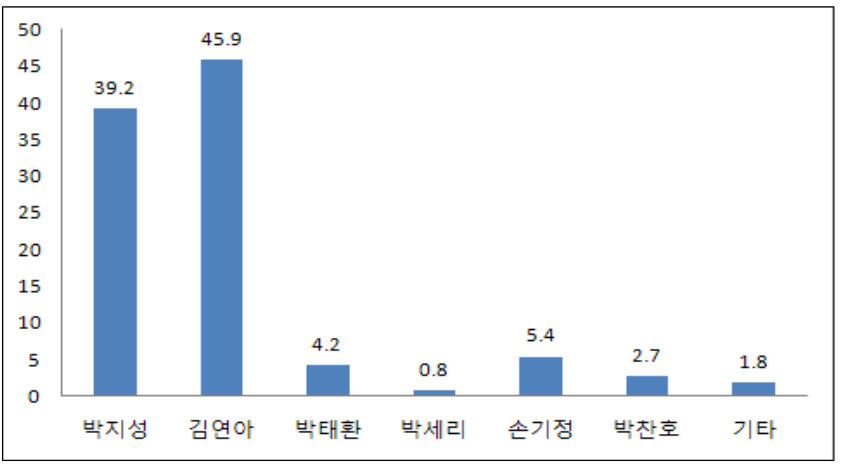

은 한국 스포츠 스타로 김연아와 박지성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김연아는 45.9%를 얻어 1위에 올랐고 그 바로 뒤에 39.2%의 박지성이 있다. 이 두 스타를 선택한 응답자를 합치면 85%에 달한다. 최근 런던올림픽을 통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박태환은 4.2%에 머물렀고 한 때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박찬호 역시 2.7%라는 미미한 수치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 분야가 방송연예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기의 굴곡이 심한 분야임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성에 따른 차이이다. 여자 응답자들의 경우 김연아를 선택한 사람이 58.2%에 달하고 박지성은 31.3%에 그치고 있다.

표 3-35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3(스포츠 스타)

| | | 박지성 | 김연아 | 박태환 | 박세리 | 손기정 | 박찬호 | 기타 | $x^2$ (p) |
|---|---|---|---|---|---|---|---|---|---|
| 전체 | N | 394 | 461 | 42 | 8 | 54 | 27 | 18 | 1004 |
| | % | 39.2% | 45.9% | 4.2% | .8% | 5.4% | 2.7% | 1.8% | 100.0% |

그림 3-34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3(스포츠 스타)




이에 비해, 남자 응답자들을 보면 박지성이 47.0%로 1위를 차지했고, 김연아는 33.8%로 2위에 머물렀다. 이것은 남녀가 선호하는 스포츠가 다른 데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 5) 세계에 알리고 싶은 자국(한국)의 생활문화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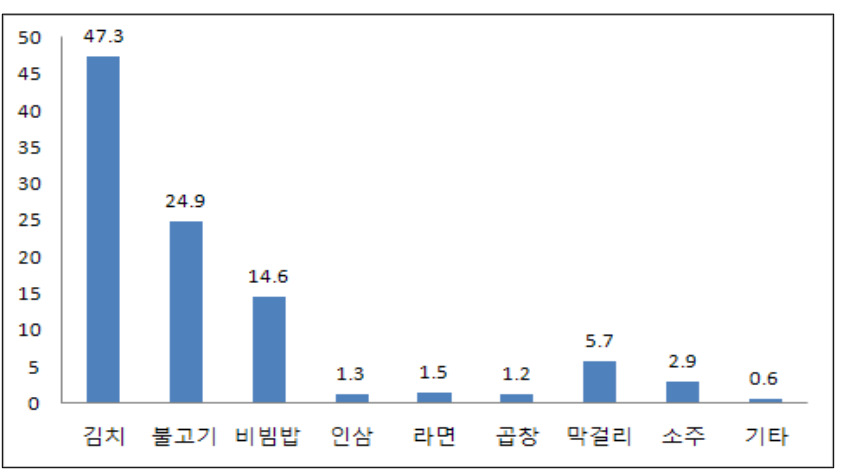
세계에 알릴만 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생활문화자원을 묻는 질문은 음식, 제품, 현대적 건축물(랜드마크), 관광상품, 지역축제 등 모두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음식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김치, 불고기, 비빔밥, 인삼, 라면, 곱창, 막걸리, 소주 등이 보기로 주어졌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것은 김치이다. 김치는 47.3%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1위 자리에 올랐다. 김치가 흔히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별로 놀랍지 않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은 불고기(24.9%)와 비빔밥(14.6%)이다. 이 두 종류는 이미 해외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을 뿐 아니라 한식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종종 언급되는 음식이라는 점이 응답자들의 선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표 3-36**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1(음식)

| | | 김치 | 불고기 | 비빔밥 | 인삼 | 라면 | 곱창 | 막걸리 | 소주 | 기타 | $x^2$ (p) |
|---|---|---|---|---|---|---|---|---|---|---|---|
| 전체 | N | 475 | 250 | 147 | 13 | 15 | 12 | 57 | 29 | 6 | 1004 |
| | % | 47.3% | 24.9% | 14.6% | 1.3% | 1.5% | 1.2% | 5.7% | 2.9% | .6% | 100.0% |

**그림 3-35**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1(음식)



응답 비율은 낮지만 막걸리(5.7%)가 소주를 제치고 4위에 오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최근 다양한 입맛에 맞춘 막걸리 제품이 개발되어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 현상을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으로 각광받아 온 인삼이 겨우 1.3%에 머문 것은 설문조사 대상이 이삼십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라는 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은 세계에 알릴 가치가 있는 한국 제품을 묻는 항목이다. 보기로는 핸드폰, 가전제품, 자동차, 반도체, 패션, 화장품 등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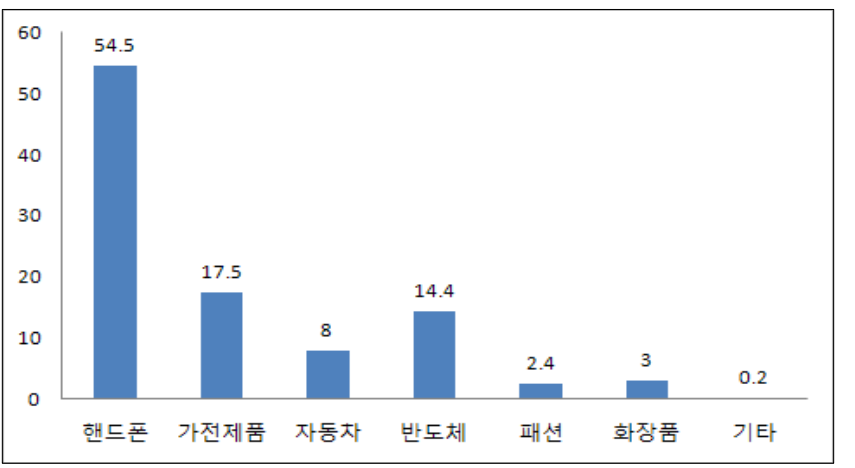
〈표 3-37〉과 [그림 3-36]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에 알릴만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은 핸드폰이다. 핸드폰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54.5%에 이른다. 현재 삼성을 필두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한국 핸드폰 제조회사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예상된 결과이다. 더욱이 최근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분쟁을 둘러싸고 세계적 수준의 삼성 스마트폰 제품들이 언론의 집중적 주목을 받았던 것도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한다.

핸드폰 다음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품목은 가전제품(17.5%)과 반도체(14.4%)이다.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온 자동차(8.0%)가 4위를 기록한 것은 약간 의외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응답자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한국 TV와 냉장고, 특정 반도체 제품과는 달리 한국 자동차들은 여전히 독일이나 일본의 자동차에 비해 한 등급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지도 모른다. 한류와 함께 특히 동아시아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화장품과 패션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아주 낮은 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37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2(제품)

| | | 핸드폰 | 가전제품 | 자동차 | 반도체 | 패션 | 화장품 | 기타 | $x^2$ (p) |
|---|---|---|---|---|---|---|---|---|---|
| 전체 | N | 547 | 176 | 80 | 144 | 24 | 30 | 2 | 1003 |
| | % | 54.5% | 17.5% | 8.0% | 14.4% | 2.4% | 3.0% | .2% | 100.0% |

그림 3-36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2(제품)




한국 제품에 대한 응답결과 중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핸드폰과 관련된 부분이다. 대학생의 경우 핸드폰을 선택한 응답자는 60.1%로 대학원생의 38.8%에 비해 20% 이상 높다. 이것은 연령이 어릴수록 핸드폰 유행에 훨씬 더 민감하고 최신 핸드폰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는 점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다음은 랜드마크로 내세울 만한 한국 현대건축물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보기로 제시된 것은 63빌딩, 남산타워, 부산팬텀시티, 예술의 전당, 서울역사박물관, 인천공항, 코엑스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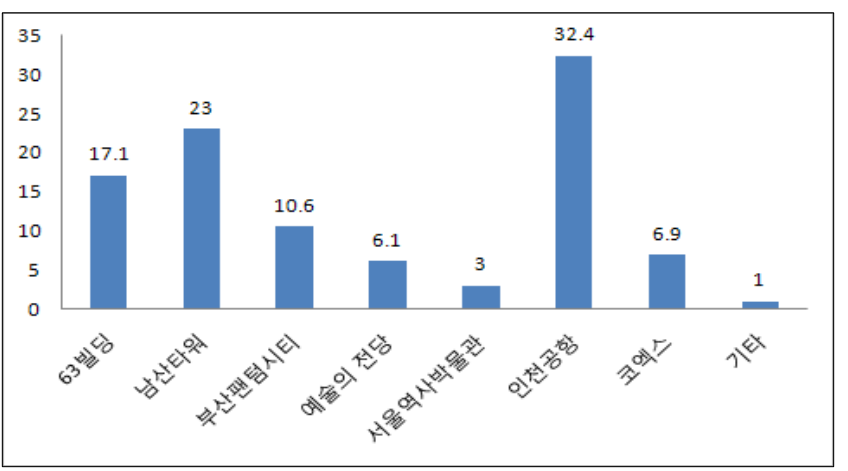
〈표 3-38〉과 [그림 3-37]에서 보듯이 1위는 인천공항으로 전체 응답자

중 32.4%가 인천공항을 택했다. 세계에 알리고 싶은 건축물로 인천공항을 꼽은 응답자가 많은 것은 건축물 자체의 우수성과 함께 세계 초일류 공항으로서의 높은 평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짐작된다. 2위는 오래 전부터 서울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간주되어온 남산타워(23.0%)이며 그 뒤를 한국을 대표하는 고층빌딩인 63빌딩(17.1%), 최근 개발된 부산팬텀시티(10.6%), 코엑스(6.9%), 예술의 전당(6.1%), 서울역사박물관(3.0%)이 잇고 있다. 부산팬텀시티가 코엑스와 예술의 전당보다 순위가 앞선 것은 부산과 대구 지역 응답자들 중에 부산팬텀시티를 선택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표 3-38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3(현대건축물)**

| | | 63빌딩 | 남산타워 | 부산팬텀시티 | 예술의 전당 | 서울역사박물관 | 인천공항 | 코엑스 | 기타 | $x^2$ (p) |
|---|---|---|---|---|---|---|---|---|---|---|
| 전체 | N | 171 | 230 | 106 | 61 | 30 | 325 | 69 | 10 | 1002 |
| | % | 17.1% | 23.0% | 10.6% | 6.1% | 3.0% | 32.4% | 6.9% | 1.0 % | 100.0% |

**그림 3-37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3(현대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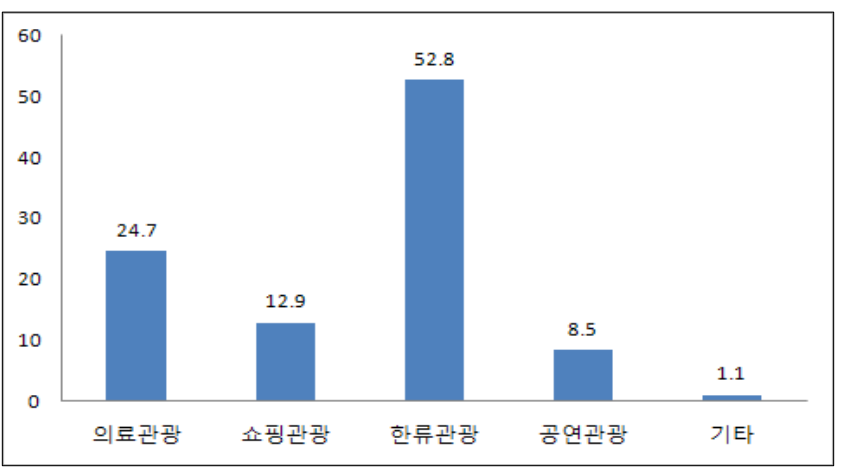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관광상품을 의료관광(성형), 쇼핑관광, 한류관광, 공연관광으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세계에 가장 알리고 싶은 것을 선택하게 하였다. 〈표 3-39〉와 [그림 3-38]을 보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한류관광을 꼽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K-pop이 주도하는 한류가 초강세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충분히 예상된 결과이다. 한류관광 다음으로는 의료관광(24.7%)을 꼽은 사람이 많으며 쇼핑관광(12.9%)과 공연관광(8.5%)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에 가장 알리고 싶은 지역축제를 묻는 문항이다. 대표적인 지역축제라 할 수 있는 보령머드축제, 함안나비축제, 대관령눈꽃축

**표 3-39**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4(관광상품)

| | | 의료관광 | 쇼핑관광 | 한류관광 | 공연관광 | 기타 | $x^2$ (p) |
|---|---|---|---|---|---|---|---|
| 전체 | N | 246 | 129 | 526 | 85 | 11 | 997 |
| | % | 24.7% | 12.9% | 52.8% | 8.5% | 1.1% | 100.0% |

**그림 3-38**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4(관광상품)



제, 강릉단오제, 인제빙어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여주·이천도자기축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지산 등지의 락페스티벌을 보기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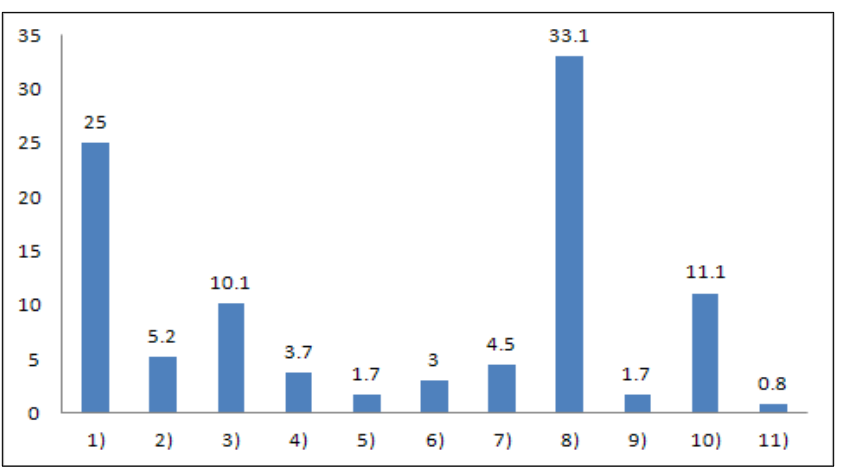
〈표 3-40〉와 [그림 3-39]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부산국제영화제이다. 전체 응답자의 33.1%가 부산국제영화제를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간주하였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영화제로서 세계적 명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높은 평가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표 3-40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5(지역축제)**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x^2$ (p) |
|---|---|---|---|---|---|---|---|---|---|---|---|---|---|
| 전체 | N | 250 | 52 | 101 | 37 | 17 | 30 | 45 | 331 | 17 | 111 | 8 | 999 |
| | % | 25.0% | 5.2% | 10.1% | 3.7% | 1.7% | 3.0% | 4.5% | 33.1% | 1.7% | 11.1% | .8% | 100.0% |

주: 1) 보령머드축제, 2) 함평나비축제, 3) 대관령눈꽃축제, 4) 강릉단오제, 5) 인제빙어축제, 6) 화천산천어축제, 7) 여주·이천도자기축제, 8) 부산국제영화제, 9) 부천판타스틱영화제, 10) 락페스티벌(지산 등), 11) 기타

**그림 3-39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5(지역축제)**




주: 1) 보령머드축제, 2) 함평나비축제, 3) 대관령눈꽃축제, 4) 강릉단오제, 5) 인제빙어축제, 6) 화천산천어축제, 7) 여주·이천도자기축제, 8) 부산국제영화제, 9) 부천판타스틱영화제, 10) 락페스티벌(지산 등), 11) 기타

다음으로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보령머드축제(25.0%)이다. 방송매체의 집중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축제라는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높은 응답을 얻은 것은 락페스티벌(11.1%)로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축제이다. 대관령눈꽃축제는 10.1%의 지지를 얻어 4위를 기록했다. 함평나비축제, 여주·이천도자기축제, 강릉단오제, 화천산천어축제, 인제빙어축제, 부천판타스틱영화제를 선택한 응답자는 미미한 숫자에 불과했다.

대학생, 대학원생에 따라 선호하는 지역축제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보령머드축제를 선택한 응답자는 대학원생보다 대학생 중에서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대학원생 중에서 이 축제를 지지한 사람은 16.4%인데 비해 대학생 중에서는 그 비율이 28.1%이다. 이와 달리 부산국제영화제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은 대학생보다 대학원생들 중에서 훨씬 더 높다. 대학생의 경우 29.4%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선택했는데 대학원생 중에서는 그 비율이 43.5%를 차지한다. 아마도 대학생들이 훨씬 더 동적인 축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부산국제영화제와 보령머드축제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 부산지역 응답자 중에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선택한 비율은 59.3%인 반면 보령머드축제를 선택한 비율은 타 지역 응답자들의 절반 수준인 12.1%에 불과했다. 대전 지역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보령머드축제를 선택한 비율이 44.4%로서 1위를 기록했고 그에 비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선택한 비율은 21.4%로 그쳐 서울(20.0%) 다음으로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서울 응답자들의 경우 부산국제영하제보다 보령머드축제를 선호한 사람이 조금 더 많다. 아무래도 자기 지역의 축제나 참가하기 쉬운 축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 나. 중국 응답자 조사결과

### 1) 세계에 알리고 싶은 자국(중국)의 문화예술 자원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계에 가장 알리고 싶은 중국 문화예술자원에 관한 설문은 전통문학 및 도서, 현대문학 및 도서, 미술작품, 전통문화, 무형문화재, 대중문화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학 및 도서로 사대명저, 시경, 자치통감, 전국책, 금병매, 논어, 사기, 주역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세계에 가장 알리고 싶은 것을 고르게 하였다. 〈표 3-41〉과 [그림 3-40]에 나타나듯이 중국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전통 저작은 사대명저(27.2%)이며 논어(23.7%)가 큰 차이 없이 2위에 올랐다. 그 다음 단에는 비슷한 지지를 받은 시경(10.4%), 사기(10.3%), 주역(10.1%), 자치통감(9.2%)이 속해 있고, 전국책(4.5%)과 금병매(2.4%)는 한 단 아래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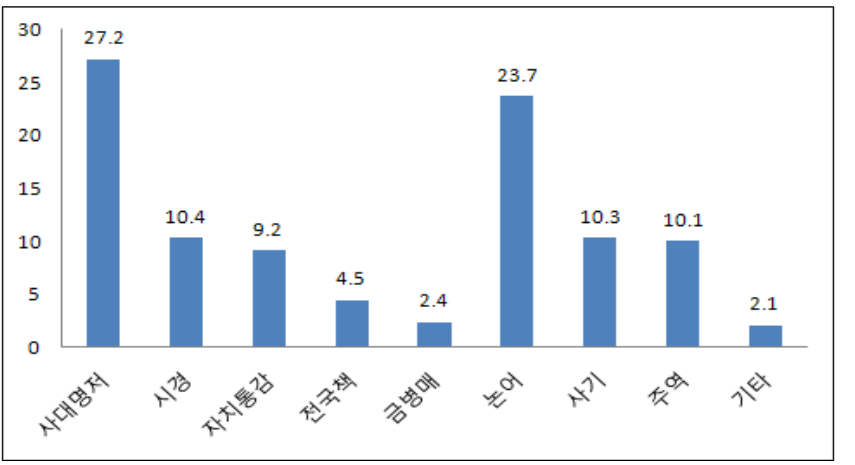
사대명저는 삼국연의, 서유기, 수호전, 홍루몽 등 네 편의 고전소설을 말하는데 중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작품들로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단, 만약 작품별로 답하게 했더라면 각 작품의 순위는 훨씬 뒤로 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가치 있는 고전으로 인정받은 것은 논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의 대상이 오늘날처럼 유교로 대표되는 중국 전통사상과 학문에 대한 열기가 고조된 시대에 학교 교육을 받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라는 점에서 논어를 택한 응답이 많았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 사상 및 고전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파괴가 행해진 문화대혁명 시기에 교육을 받은 중노년 세대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표 3-41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1(전통문학 및 도서)

| | | 사대명저 | 시경 | 자치통감 | 전국책 | 금병매 | 논어 | 사기 | 주역 | 기타 | $x^2$ (p) |
|---|---|---|---|---|---|---|---|---|---|---|---|
| 전체 | N | 264 | 101 | 89 | 44 | 23 | 230 | 100 | 98 | 20 | 969 |
| | % | 27.2% | 10.4% | 9.2% | 4.5% | 2.4% | 23.7% | 10.3% | 10.1% | 2.1% | 100.0% |

그림 3-40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1(전통문학 및 도서)




다음은 문화예술자원 중 현대문학작가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작가로 루쉰(鲁迅), 샤오홍(肖红), 한한(韩寒), 량스추(梁实秋), 주쯔칭(朱自清), 첸종수(钱钟书), 장팡저우(蒋方舟), 마오둔(茅盾), 왕안이(王安忆), 바진(巴金), 위추위(余秋雨), 빙신(冰心) 등을 보기로 제시하였다. 〈표 3-42〉와 [그림 3-41]는 응답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중국 대학생 · 대학원생들이 중국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현대문학작가로 꼽은 인물은 루쉰이다. 그는 전체 응답의 32.9%를 얻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아큐정전〉, 〈광인일기〉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루쉰이 중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작가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이번 조사에

서도 확인되었다. 루쉰 다음으로는 1947년에 발표한 〈위성〉이라는 장편 소설로 문명을 떨친 첸종수(16.8%)가 높은 지지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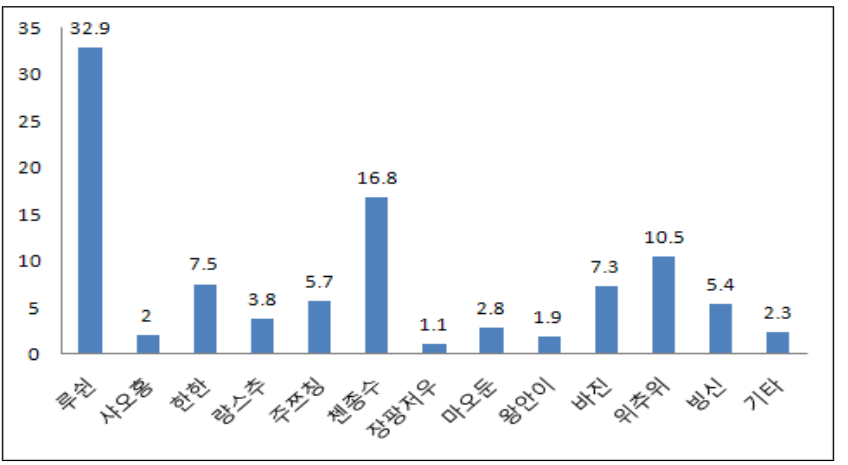
현존하는 작가로서는 1990년대 이후 수필작품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위추위(10.5%)가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현재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신세대 작가 한한(7.5%)이 중국 대표작가의 한 사람인 바진(7.3%)을 제치고 4위에 오른 것은 특기할 만하다. 그 다음은 주쯔칭(5.7%), 빙신(5.4%), 량스추(3.8%), 마오둔(2.8%), 샤오홍(2.0%), 왕안이(1.9%), 장팡저우(1.1%) 순이다.

다음은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자원 중 미술품에 대한 설문조

표 3-42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2(현대문학작가)

| | | 루쉰 | 샤오홍 | 한한 | 량스추 | 주쯔칭 | 첸종수 | 장팡저우 | 마오둔 | 왕안이 | 바진 | 위추위 | 빙신 | 기타 | $x^2$ (p) |
|---|---|---|---|---|---|---|---|---|---|---|---|---|---|---|---|
| 전체 | N | 321 | 20 | 73 | 37 | 56 | 164 | 11 | 27 | 19 | 71 | 102 | 53 | 22 | 976 |
| | % | 32.9% | 2.0% | 7.5% | 3.8% | 5.7% | 16.8% | 1.1% | 2.8% | 1.9% | 7.3% | 10.5% | 5.4% | 2.3% | 100.0% |

그림 3-41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2(현대문학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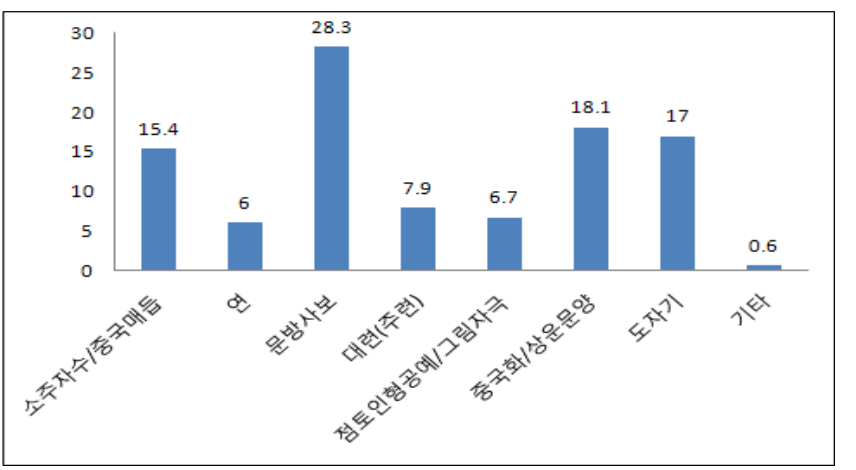
사 결과이다. 보기로는 소주자수 · 중국매듭(苏州刺绣·中国结), 연, 문방사보, 대련(주련), 점토인형공예 · 그림자극(泥人面塑·皮影戏), 중국화 · 상운문양(国画·祥云图案),[18] 도자기 등이 제시되었다.

〈표 3-43〉과 [그림 3-42]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청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미술품 종류는 문방사보이다. 문방사보는 전체 응답의 28.3%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지지를 획득한 미술품 종류는 중국

**표 3-43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3(미술작품)**

| | | 소주자수·중국매듭 | 연 | 문방사보 | 대련(주련) | 점토인형공예·그림자극 | 중국화·상운문양 | 도자기 | 기타 | $x^2$ (p) |
|---|---|---|---|---|---|---|---|---|---|---|
| 전체 | N | 151 | 59 | 277 | 77 | 66 | 177 | 167 | 6 | 980 |
| | % | 15.4% | 6.0% | 28.3% | 7.9% | 6.7% | 18.1% | 17.0% | .6% | 100.0 % |

**그림 3-42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3(미술작품)**




18) 상운문양은 수천 년 역사를 가진 중국 전통문양이다. '상서로운 구름'을 뜻하는 상운은 중국문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 중 하나이다.

화 · 상운문양(18.1%)이다. 중국화 · 상운문양이 2위를 기록한 것은 북경 올림픽 때 채택된 성화봉 디자인에 상운문양이 활용되면서 세계적 주목을 끌었던 것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국화 · 상운문양 다음에는 그와 비슷한 지지를 받은 도자기(17.0%)와 소주자수 · 중국매듭(15.4%)이 올라있다. 이들보다 한 단 아래는 대련(7.9%), 점토인형공예 · 그림자극(6.7%), 연(6.0%) 순으로 되어 있다.

응답자 거주 지역에 따라 항목별로 꽤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북경과 광주의 응답자들 중에 문방사보를 선택한 비율은 20% 전후인데 비해, 상해와 천진의 경우 30%대 중반으로 나타난다. 또 북경 응답자들은 다른 지역응답자들에 비해 대련을 선택한 사람 비율이 8%에서 10% 정도 높다. 이런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후속 심층조사 없이 설명하기 힘들다.

남녀에 따른 응답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소주자수 · 중국매듭을 선택한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가 5%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자수와 매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남녀 응답자의 관심분야의 차이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세계에 가장 알리고 싶은 중국 전통놀이 혹은 운동에 대한 설문내용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놀이 혹은 운동 중에서 굴렁쇠놀이(推铁环), 용선경기(赛龙舟), 팽이치기(抽陀螺), 줄넘기 · 고무줄뛰기(跳绳·跳皮筋), 용춤 · 사자품(舞龙·舞狮), 제기차기(踢毽子), 숨바꼭질(捉迷藏), 새총놀이(弹弓)가 보기로 주어졌다.

〈표 3-44〉와 [그림 3-43]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에 알릴 가치가 있는 전통놀이 혹은 운동 중에서 가장 많은 중국 대학생 · 대학원생들이 선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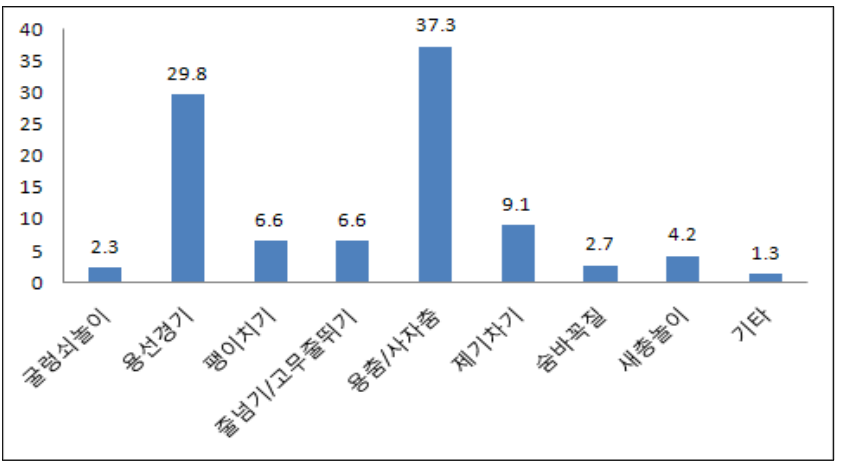
것은 용춤 · 사자춤(37.3%)과 용선경기(29.8%)이다. 이 둘을 합치면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그 나머지 중에서는 제기차기가 응답자 9.1%의 지지를 받아 3위에 올랐고, 팽이치기(6.6%), 줄넘기 · 고무줄뛰기(6.6%), 새총놀이(4.2%), 숨바꼭질(2.7%), 굴렁쇠놀이(2.3%)가 그 뒤를 이었다.

용춤 · 사자춤과 용선경기가 다른 것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나머지 놀이들이 모두 소수의 개인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반해 이 두 가지는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규모 행사라는 점에서 더 가치 있는

표 3-44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4(전통놀이 혹은 운동)

| | | 굴렁쇠 놀이 | 용선 경기 | 팽이 치기 | 줄넘기· 고무줄 뛰기 | 용춤· 사자춤 | 제기 차기 | 숨바 꼭질 | 새총 놀이 | 기타 | $x^2$ (p) |
|---|---|---|---|---|---|---|---|---|---|---|---|
| 전체 | N | 23 | 293 | 65 | 65 | 366 | 89 | 27 | 41 | 13 | 982 |
| | % | 2.3% | 29.8% | 6.6% | 6.6% | 37.3% | 9.1% | 2.7% | 4.2% | 1.3 % | 100.0% |

그림 3-43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4(전통놀이 혹은 운동)



것으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용춤 · 사자춤은 세계 각지의 중국 관련 문화행사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길거리 공연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용선경기는 중국뿐 아니라 화교인구가 많은 나라들에서도 대회가 개최될 정도로 중국인의 집단적 문화정체성을 상징하는 요소가 되어 있다.

다음은 문화예술 자원 중 무형문화재 관련 설문결과이다. 중국을 대표할 만한 무형문화재로는 중국요리, 전통명절, 소주자수, 변검 · 그림자극 · 나희(变脸·皮影戏·傩戏),[19] 당삼채 · 자사도예 · 도자기(唐三彩 · 紫砂 · 陶瓷), 쿵푸 · 기공 · 무술, 극 · 전가 · 화고 · 설창(剧目·田歌·花鼓·说唱类),[20] 중의(침구 · 추나) 등이 보기로 제시되었다.

〈표 3-45〉와 [그림 3-44]에 나타나 있듯이, 중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것은 전통명절이다. 이것은 춘절에 행해지는 풍속을 비롯한 명절풍속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체 응답자 20.9%의 지지를 얻었다. 중의(침구 · 추나)는 전체 응답의 18.3%를 얻어 2위에 올랐고, 그 뒤를 쿵푸 · 기공 · 무술(16.4%), 당삼채 · 자사도예 · 도자기(11.9%), 변검 · 그림자극 · 나희(9.7%), 중국요리(9.5%), 극 · 전가 · 화고 · 설창(6.6%), 소주자수(6.3%)가 잇고 있다.

성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항목은 쿵푸 · 기공 · 무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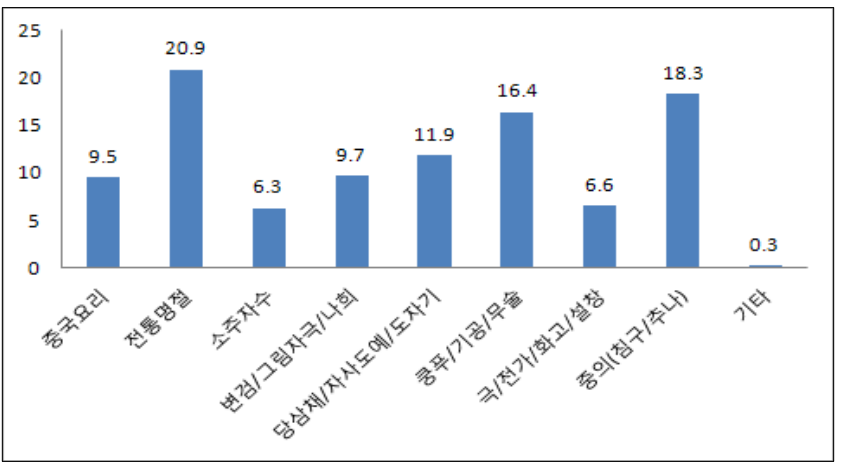
19) 동명의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변검은 중국 사천극(四川剧)의 특수한 예술표현 기교 중의 하나로 순간적으로 얼굴 모양을 바꾸는 기법이다. 그림자극(皮影戏)은 투명한 인형에 빛을 비추고 오색그림자를 만들어 상연하는 중국 전통극으로 영화 〈인생〉에도 잠시 등장한 적이 있다. 나희(傩戏)는 사천, 귀주 등지에서 유행하는 전통극의 하나로 가면을 쓴 배우가 춤을 추며 역병을 쫓는 전설 속의 신 나신(傩神)을 연기한다.

20) 여기서 극(剧目)은 전통 희극과 가극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전가(田歌)는 장강가 주강 유역 벼농사 지역에서 이앙 등을 할 때 부르는 민가를 가리킨다. 화고(花鼓)는 농민들이 농사일을 할 때 소고 등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고 춤추는 민간연행의 일종이다. 설창(说唱)은 노래 형식을 빌어 고사를 들려주는 전통 민간예술의 일종이다.

표 3-45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5(무형문화재)

| | | 중국 요리 | 전통 명절 | 소주 자수 | 변검·그림자극·나희 | 당삼채·자사도예·도자기 | 쿵푸·기공·무술 | 극·전가·화고·설창 | 중의(침구·추나) | 기타 | $x^2$ (p) |
|---|---|---|---|---|---|---|---|---|---|---|---|
| 전체 | N | 93 | 205 | 62 | 95 | 117 | 161 | 65 | 179 | 3 | 980· |
| | % | 9.5% | 20.9% | 6.3% | 9.7% | 11.9% | 16.4% | 6.6% | 18.3% | .3% | 100.0% |

그림 3-44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5(무형문화재)




이다. 남자들의 경우 여자들보다 쿵푸 · 기공 · 무술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9% 정도 더 높다. 그 대신 여자들의 경우 소주자수, 당삼채 · 자사도예 · 도자기 등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남자들에 비해 각각 몇 퍼센트씩 높게 나타났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항목들이라는 점에서 성에 따른 문화적 관심과 취향의 차이가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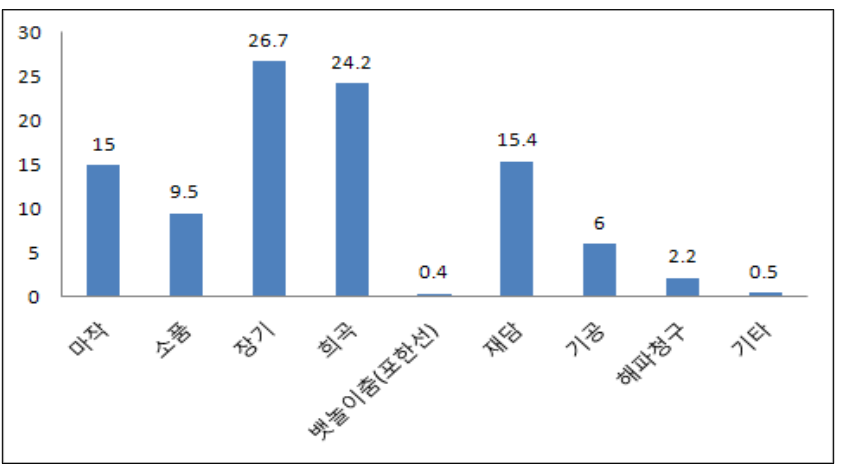
다음으로, 중국 대중문화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중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즐겨온 중국 고유의 대중문화 형식들인 마작, 소품(小

品),[21] 장기, 희곡,[22] 뱃놀이춤(跑旱船),[23] 재담(相声),[24] 기공, 해파청구(海派清口)[25] 등을 보기로 제시하였다.

**표 3-46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6(대중문화)**

| | | 마작 | 소품 | 장기 | 희곡 | 뱃놀이춤(포한선) | 재담 | 기공 | 해파청구 | 기타 | $x^2$ (p) |
|---|---|---|---|---|---|---|---|---|---|---|---|
| 전체 | N | 147 | 93 | 262 | 237 | 4 | 151 | 59 | 22 | 5 | 980 |
| | % | 15.0% | 9.5% | 26.7% | 24.2% | .4% | 15.4% | 6.0% | 2.2% | .5% | 100.0% |

**그림 3-45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6(대중문화)**




21) 소품(小品)은 한두 사람 혹은 몇 사람이 나와 연기하는 짧고 간단한 희극을 가리킨다.

22) 여기서 희곡(戏曲)은 중국 고래로 전해 내려온 전통희극(戏剧), 즉 문학, 음악, 무용, 미술, 무술, 잡기와 표현예술의 각종 요소가 집대성된 민족예술을 말한다. 경극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가 있다.

23) 뱃놀이춤(跑旱船)은 주로 산시 지역에서 유행하는 민족예술의 일종으로, 배우들이 모형배를 타고 배를 모는 동작을 흉내낸 춤을 춘다.

24) 재담(相声)은 대개 두 사람이 나와 재치 있는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청중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중국의 고유의 공연예술이다. 우리나라 만담과 비슷하다.

25) 해파청구(海派清口)는 상해 출신 개그맨 저우리보(周立波)가 기존의 여러 재담 형식을 참고하여 만든 공연형식이다. 배우 한 명이 무대에서 단독으로 재치 있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청중들을 웃긴다.

〈표 3-46〉과 [그림 3-45]에 나와 있듯이, 중국 응답자들이 세계에 가장 알리고 싶은 대중문화로 꼽은 것은 중국 장기(26.7%)와 희곡(24.2%)으로 거의 비슷한 지지를 얻고 있다. 그보다 한 단 아래에는 재담(15.4%), 마작(15.0%)이 있고, 그 뒤를 소품(9.5%)과 기공(6.0%)이 잇고 있다. 젊은이들이 별로 즐겨하는 놀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기와 마작이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약간 의외의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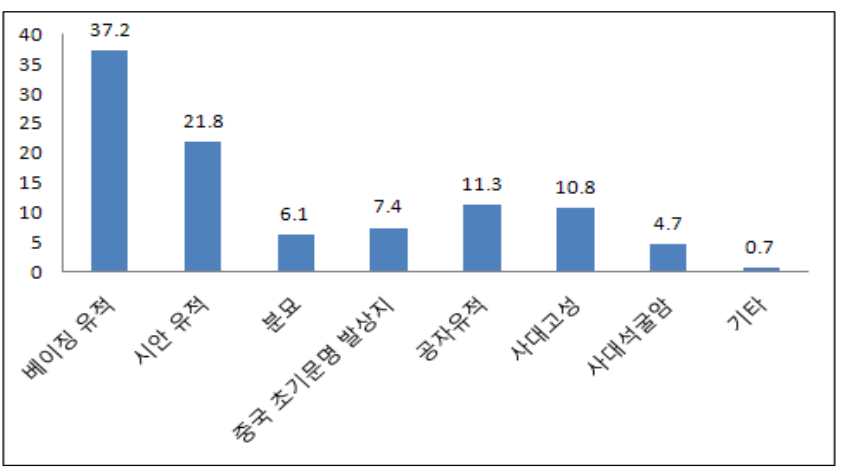
### 2) 세계에 알리고 싶은 자국(중국)의 지역자원

중국 지역자원에 대한 질문은 역사유적지, 자연유산, 도시 등 3개의 문

표 3-47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1(역사유적지)

| | | 베이징 유적 | 시안 유적 | 분묘 | 초기문명 발상지 | 공자 유적 | 사대 고성 | 사대 석굴암 | 기타 | $x^2$ (p) |
|---|---|---|---|---|---|---|---|---|---|---|
| 전체 | N | 365 | 214 | 60 | 73 | 111 | 106 | 46 | 7 | 982 |
| | % | 37.2% | 21.8% | 6.1% | 7.4% | 11.3% | 10.8% | 4.7% | .7% | 100.0% |

그림 3-46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1(역사유적지)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계에 가장 알리고 싶은 역사유적지에 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표 3-47〉과 [그림 3-46]과 같다. 이 문항에서 보기로 주어진 것은 베이징 유적, 시안 유적, 분묘 유적, 중국 초기문명 발상지, 공자 유적(공부·공묘·공림), 사대고성,[26] 사대석굴[27] 등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위의 역사유적지 중에서 고궁박물관과 만리장성 등을 포함하는 베이징 유적이 37.2%의 지지를 얻어 확실한 1위에 올랐다. 병마용과 진시황릉 등이 있는 시안 유적은 21.8%의 지지로 그 뒤를 이었다. 공자 유적(11.3%)과 사대고성(10.8%)은 거의 비슷한 지지를 받아 3, 4위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홍산 등 중국 초기문명 발상지(7.4%), 창사의 마왕퇴와 뤄양의 고묘 등을 포함하는 분묘 유적(6.1%), 사대석굴암(4.7%) 순이었다.

하얼빈 지역 응답자의 경우 다른 지역 응답자들과는 달리 시안 유적을 선택한 비율이 베이징 유적을 선택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것이 베이징·시안과 하얼빈 간의 어떤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에 불과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추후 심층조사를 통해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세계에 가장 알리고 싶은 중국 자연유산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주자이거우(九寨沟), 황룽(黄龙), 우링위안(武陵源), 싼장빙류(三江并流), 싼칭산(三清山), 자이언트팬더서식지, 남방 카르스트, 중국 단하(丹霞)지형 등,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들을 보기로 제시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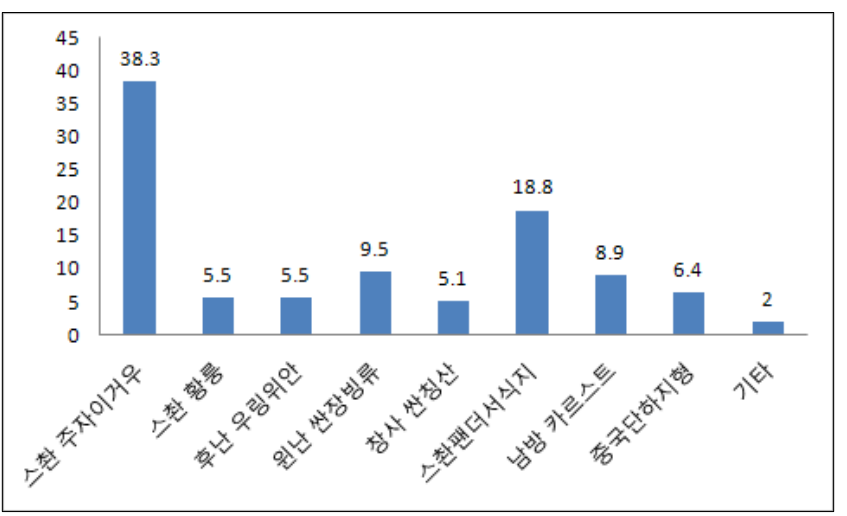
26) 사대고성은 랑중(阆中), 리장(丽江), 핑야요(平遥), 서시엔(歙县)의 고성을 가리킨다.
27) 사대석굴은 윈강석굴, 룽먼석굴, 대족석각(大足石刻), 둔황 막고굴을 말한다.

〈표 3-29〉와 [그림 3-28]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자연유산 중에서 단연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은 쓰촨의 주자이커우로 전체 응답의 38.3%를 차지했다. 아름다운 자연풍광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최고 인기를 누리는 관광지답게 1위 자리에 올랐다. 두 번째는 18.8%의 지지를 얻은 쓰촨성에 있는 자이언트팬더서식지이다. 세계적으로 진귀한 동물로서 높은 인기가 있는 자이언트팬더가 서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응답자가 이곳을 중국을 가장 잘 대표하는 곳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다음 순위는 9.5%의 응답자가 선택한 싼장빙류이다. 이곳은 중국 칭장고원(青藏高原)에서 발원

표 3-48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2(자연유산)

| | | 스촨 주자이거우 | 스촨 황룽 | 후난 우링위안 | 윈난 싼장빙류 | 장시 싼칭산 | 스촨 팬더 서식지 | 남방 카르 스트 | 중국 단하 지형 | 기타 | $x^2$ (p) |
|---|---|---|---|---|---|---|---|---|---|---|---|
| 전체 | N | 378 | 54 | 54 | 94 | 50 | 186 | 88 | 63 | 20 | 987 |
| | % | 38.3% | 5.5% | 5.5% | 9.5% | 5.1% | 18.8% | 8.9% | 6.4% | 2.0% | 100.0% |

그림 3-47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2(자연유산)



한 진사강(金沙江), 란창강(澜沧江), 누강(怒江) 등 세 개의 강이 높고 가파른 봉우리 사이를 따라 서로 평행하게 흐르는 독특한 지형을 보인다. 그 다음으로 윈난 석림을 포함하여 남방 여러 곳에 형성되어 있는 중국 남방 카르스트를 선택한 응답자가 8.9%이다. 나머지는, 동남부 지역에 폭넓게 형성된 중국 단하지형(6.4%), 쓰촨의 황룽풍경구(5.5%), 후난성의 우링위안(5.5%), 그리고 장시성의 싼칭산(5.1%)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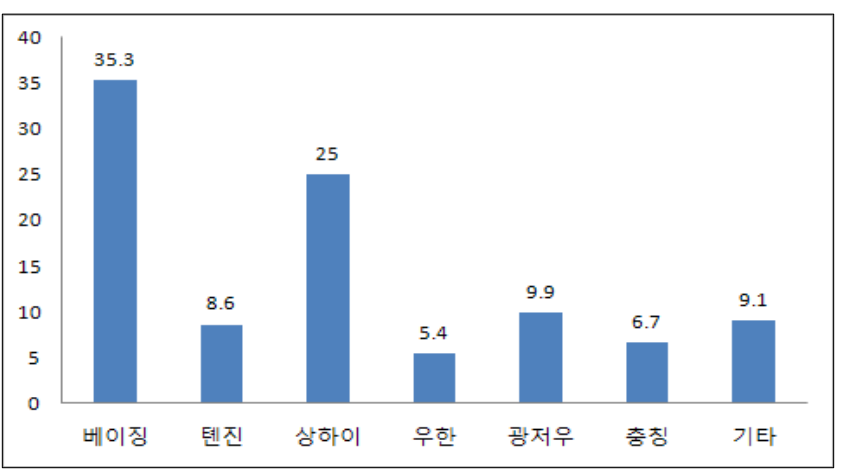
세계에 가장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 중 도시에 대한 응답 내용을 보면 〈표 3-49〉와 [그림 3-4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예상대로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베이징을 꼽은 응답자가 35.3%로 가

**표 3-49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3(도시)**

| | | 베이징 | 톈진 | 상하이 | 우한 | 광저우 | 충칭 | 기타 | $x^2$ (p) |
|---|---|---|---|---|---|---|---|---|---|
| 전체 | N | 348 | 85 | 247 | 53 | 98 | 66 | 90 | 987 |
| | % | 35.3% | 8.6% | 25.0% | 5.4% | 9.9% | 6.7% | 9.1% | 100.0% |

**그림 3-48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3(도시)**



장 많다. 베이징은 중국 수도로서 오랜 기간 정치 중심지의 위상을 유지해 왔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된다.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도시는 25.0%의 응답자가 선택한 상하이이다. 중국의 경제수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국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개혁개방 정책을 상징하는 도시 광저우(9.9%)가 톈진(8.6%)보다 조금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충칭(6.7%)과 우한(5.4%)은 그 뒤를 이었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응답의 편차가 상당히 심하다는 점이다. 베이징 지역 응답자의 경우 베이징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50.3%로 전체 평균보다 15% 정도 높았다. 상하이 지역의 경우 응답자의 41.2%가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상하이를 선택하여 전체 평균보다 26% 정도 높은 지지를 보였다. 광저우 지역 응답자의 경우에는 광저우가 베이징과 거의 비슷한 지지를 받아 상하이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베이징에서 가까운 톈진 지역의 응답자의 경우 베이징이 압도적인 1위이기는 하지만 톈진이 상하이보다 더 많은 지지(23.4%)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만약 우한과 충칭 지역의 대학들이 설문대상에 포함되었더라면 이 두 도시의 순위가 이번 조사결과보다 상위로 올라갔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 3) 세계에 알리고 싶은 자국(중국)의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

세계에 알리고 싶은 중국의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에 관한 질문은 모두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역사적 발명품에 관한 문항이고, 둘째는 역사적 사건에 관한 문항이다.

먼저 역사적 발명품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자. 중국을 대표할 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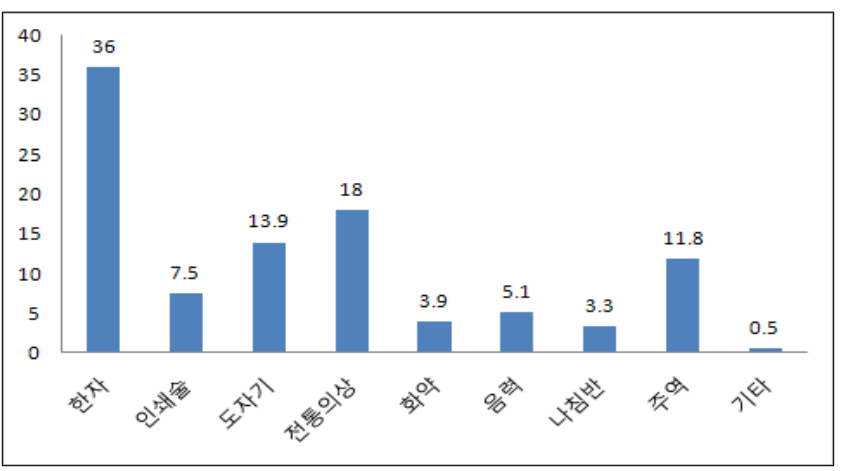
발명품으로는 한자, 인쇄술, 도자기, 전통의상, 화약, 음역, 나침반, 주역 등이 보기로 주어졌다.

〈표 3-50〉과 [그림 3-49]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대학생 · 대학원생들이 가장 가치 있는 역사적 발명품으로 꼽은 것은 한자이다. 한자는 응답자 36%의 지지를 받아 독보적인 1위 자리에 올랐다. 한자문화의 기반 위에서 동아시아문명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청년들이 한자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치파오를 비롯한 중국 의복이 18.0%의 지지를 받아 2위를 기록했다. 그 뒤로는 도자기(13.9%), 주역(11.8%), 인쇄술(7.5%), 음력(5.1%), 화약

표 3-50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1(역사적 발명품)

| | | 한자 | 인쇄술 | 도자기 | 전통의상 | 화약 | 음력 | 나침반 | 주역 | 기타 | $x^2$ (p) |
|---|---|---|---|---|---|---|---|---|---|---|---|
| 전체 | N | 354 | 74 | 137 | 177 | 38 | 50 | 32 | 116 | 5 | 983 |
| | % | 36.0% | 7.5% | 13.9% | 18.0% | 3.9% | 5.1% | 3.3% | 11.8% | .5% | 100.0% |

그림 3-49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1(역사적 발명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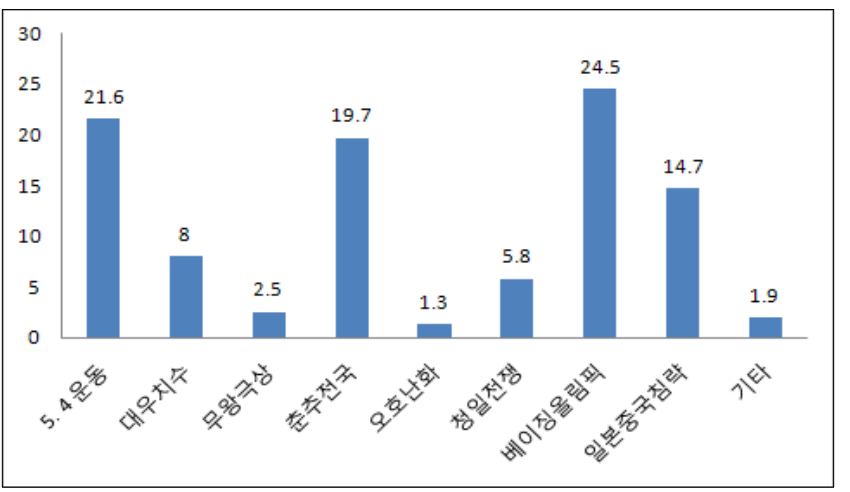
(3.9%), 나침반(3.3%) 순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역사적 사건의 보기로는 5·4운동, 대우치수(大禹治水),[28] 무왕극상(武王克商),[29] 춘추전국, 오호난화(五胡乱华),[30] 청일전쟁, 베이징올림픽, 일본의 중국

표 3-51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2(역사적 사건)

| | | 5·4 운동 | 대우 치수 | 무왕 극상 | 춘추 전국 | 오호 난화 | 청일 전쟁 | 베이 징올 림픽 | 일본 중국 침략 | 기타 | $x^2$ (p) |
|---|---|---|---|---|---|---|---|---|---|---|---|
| 전체 | N | 214 | 79 | 25 | 195 | 13 | 57 | 242 | 145 | 19 | 989 |
| | % | 21.6% | 8.0% | 2.5% | 19.7% | 1.3% | 5.8% | 24.5% | 14.7% | 1.9% | 100.0% |

그림 3-50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2(역사적 사건)




28) 수천 년 전 우(禹)가 물길을 소통시키는 방법으로 황하의 홍수를 방지하는 데 성공한 역사적 사건을 가리킨다. 그의 부친 곤(鯀)은 흙으로 물길을 막는 방법을 사용하여 홍수를 막고자 했으나 실패했었다.

29) 주나라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공격하여 멸망시킨 사건을 가리킨다.

30) 중국 동진 시대 때 북방 유목민족들이 남하하여 중원을 차지하고 국가를 세운 것을 가리킨다.

침략 등이 제시되었다.

〈표 3-51〉과 [그림 3-50]을 보면 중국 청년들에게는 베이징올림픽(24.5%)이 세상에 가장 알리고 싶은 역사적 사건으로 첫 손가락에 꼽힌다. 이것이 스포츠 제전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다시 부상한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는 점 때문에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의 근대화를 촉발시킨 5·4운동(21.6%)이 많은 지지를 받았다. 춘추전국(19.7%)은 5·4운동과 거의 비슷한 지지를 받아 3위에 올랐다. 4위를 차지한 일본의 중국침략(14.7%)은 중국인들 입장에서 자랑스러운 사건이라기보다 뼈아픈 교훈을 안겨준 역사적 사건으로서 기억된다. 그 뒤는 대우치수(8.0%), 청일전쟁(5.8%), 무왕극상(2.5%), 오호난화(1.3%) 순이다.

### 4) 세계에 알리고 싶은 자국(중국)의 인물자원

세계에 알리고 싶은 중국의 인물자원에 관한 설문은 고대위인, 현대위인, 스포츠 스타 등 세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고대위인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자. 중국을 대표할 만한 고대위인의 보기로는 진시황, 한무제, 당태종, 건륭황제, 삼황오제, 숭정황제, 측천무후, 사마천, 왕양명, 제갈공명, 조조, 징기스칸 등이 제시되었다.

〈표 3-52〉와 [그림 3-51]를 보면 세계에 가장 알리고 싶은 고대위인으로 가장 많은 중국 대학생·대학원생들이 선택한 인물은 진시황이다. 진시황은 13.5%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 동률 2위에 오른 당태종 이세민과 제갈공명은 불과 0.3% 모자란 13.2%를 얻었다. 한무제는 12.5%의 지지로 4위를 차지했다. 이 인물들은 모두 중국 역사교육뿐 아니라 영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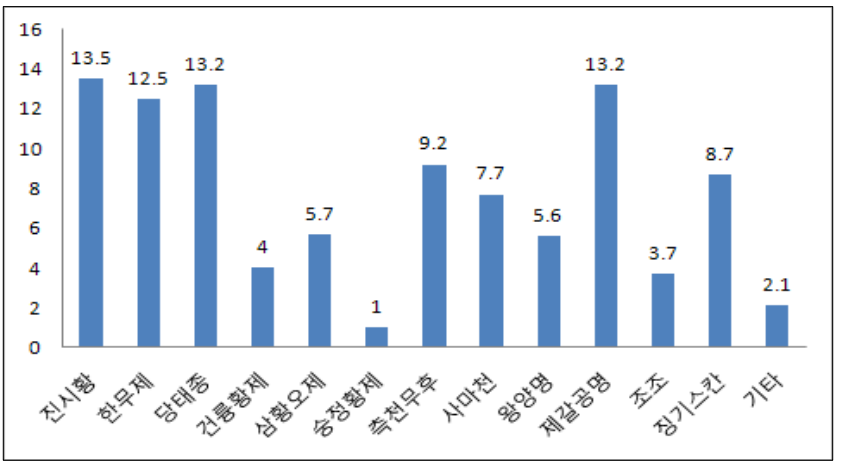
드라마 등에서 자주 다뤄졌기 때문에 대중들 사이에서 매우 높은 인기를 누리는 위인들이다.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위대한 영웅으로서, 당태종은 중국 문명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인 당왕조를 창건한 인물로서, 제갈공명은 삼국연의에 등장하는 위대한 전략가로서, 그리고 한무제는 당시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위대한 지도자로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

측천무후(9.2%)가 5위에 오른 것은 약간 의외의 결과로 보인다. 측천무후는 간악한 요녀의 이미지와 나라를 잘 다스린 여걸이라는 이중적 이미지가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응답자들의 높은 지지를 얻었기

표 3-52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1(고대위인)

| | | 진시황 | 한무제 | 당태종 | 건륭황제 | 삼황오제 | 숭정황제 | 측천무후 | 사마천 | 왕양명 | 제갈공명 | 조조 | 징기스칸 | 기타 | $x^2$ (p) |
|---|---|---|---|---|---|---|---|---|---|---|---|---|---|---|---|
| 전체 | N | 133 | 123 | 130 | 39 | 56 | 10 | 91 | 76 | 55 | 130 | 36 | 86 | 21 | 986 |
| | % | 13.5% | 12.5% | 13.2% | 4.0% | 5.7% | 1.0% | 9.2% | 7.7% | 5.6% | 13.2% | 3.7% | 8.7% | 2.1% | 100.0% |

그림 3-51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1(고대위인)



때문에 5위까지 오른 것이다. 남자 응답자 중에서 측천무후를 선택한 비율은 5.9%인데 비해 여자 응답자의 경우는 12.3%나 되었다.

징기스칸이 6위에 오른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것은 징기스칸 등 이민족 출신 지도자들이 중화민족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최근의 분위기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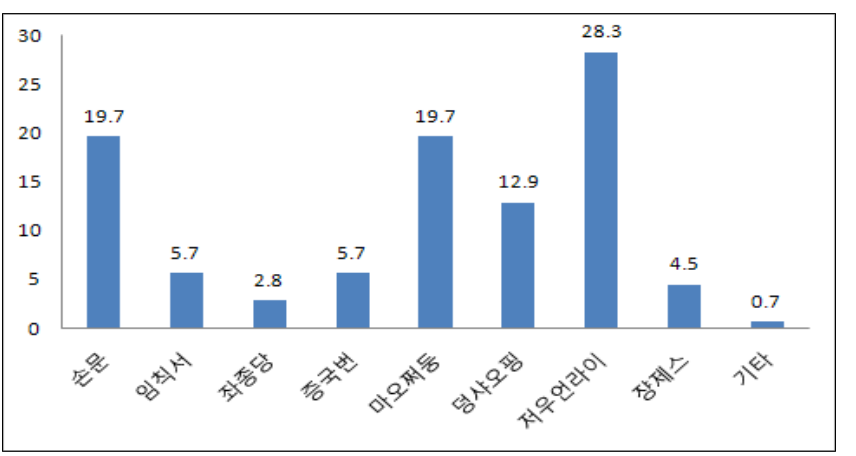
나머지 위인들의 순위는 사마천(7.7%), 삼황오제(5.7%), 왕양명(5.6%), 건륭황제(4.0%), 조조(3.7%), 숭정황제(1.0%) 순으로 되어 있다.

다음 문항은 세계에 가장 알리고 싶은 중국 현대위인에 대한 것이다. 손문, 임칙서(林则徐), 좌종당(左宗棠), 증국번(曾国藩), 마오쩌둥, 덩샤오핑, 저우언라이, 쟝제스 등이 현대위인의 보기로 제시되었다.

표 3-53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2(현대위인)

| | | 손문 | 임칙서 | 좌종당 | 증국번 | 마오쩌둥 | 덩샤오핑 | 저우언라이 | 쟝제스 | 기타 | $x^2$ (p) |
|---|---|---|---|---|---|---|---|---|---|---|---|
| 전체 | N | 195 | 56 | 28 | 56 | 195 | 127 | 280 | 44 | 7 | 988 |
| | % | 19.7% | 5.7% | 2.8% | 5.7% | 19.7% | 12.9% | 28.3% | 4.5% | .7% | 100.0% |

그림 3-52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2(현대위인)



〈표 3-53〉과 [그림 3-52]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현대 위인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인물은 저우언라이이다. 전체 응답자의 28.3%가 저우언라이를 선택하였는데, 이것은 동률 2위인 중국 국부 손문과 중국 혁명의 영웅 마오쩌둥의 19.7%보다 9% 정도 높은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인물은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인했던 덩샤오핑인데, 그는 응답자 12.9%의 선택을 받았다. 나머지는 임칙서, 증국번, 쟝제스, 좌종당 순인데, 쟝제스가 4.5%의 지지를 받은 것이 눈길을 끈다. 이것은 최근 중국에서 과거와는 달리 쟝제스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있는 것과 연관된 결과로 보인다.

응답자 거주지역과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점은, 광저우 지역 응답자의 경우 다른 지역 응답자들보다 광둥 출신의 손문을 선택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상해(23.3%)를 제외할 때 북경, 천진, 하얼빈 지역은 10% 초반에서 중반 정도인데 광저우에서는 손문이 32.4%의 지지를 얻었다. 중국의 지역주의 경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스포츠 스타에 대한 질문이다. 덩야핑(邓亚萍), 예스원(叶诗文), 야오밍(姚明), 녜웨이핑(聂卫平), 랑핑(郎平), 궈징징(郭晶晶) 등을 보기로 주고 세계에 가장 알리고 싶은 스포츠 스타가 누구인지를 질문했다. 중국 대학생·대학원생들의 응답 내용을 분석해 보면 〈표 3-54〉와 [그림 3-53]과 같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중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로 선택한 인물은 농구선수 야오밍이다. 그는 43.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 동양선수로서는 뚫기 힘든 미국 NBA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세계적 수준의 선수라는 희귀성이 그 배경에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여자탁구선수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를 연속 석권하여 최고의 금자탑을 세운 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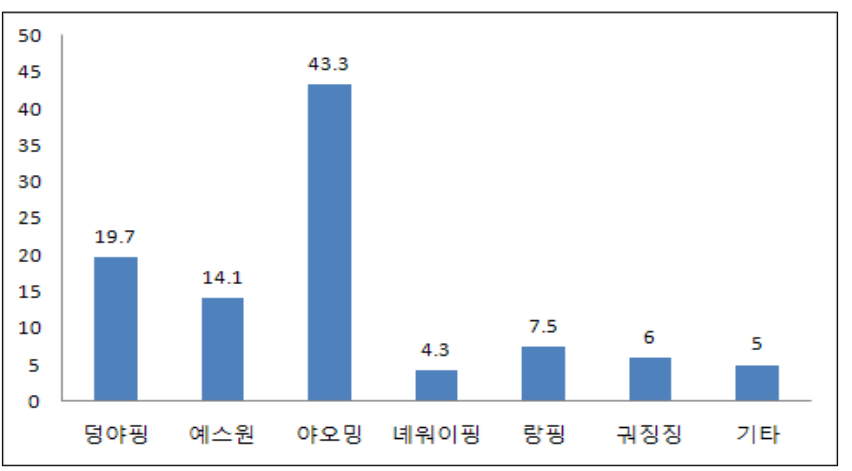
야핑이 19.7%의 지지를 받아 2위, 런던올림픽에서 16세의 나이로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여자수영의 신동 예스원이 14.1%로 3위에 올랐다. 그 다음은 여자배구선수 랑핑(7.5%), 여자 다이빙 선수 궈징징(6.0%), 그리고 한 때 세계 바둑계를 제패했던 녜웨이핑(4.3%) 순이다.

이 문항에서는 남녀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 여자 응답자만을 보면 야오밍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34.2%로 남자 응답자 중 53.0%가 야오밍을 선택한 것과 비교할 때 20%에 가까운 격차가 있다. 또 덩야핑을 선택한 응답자를 보면 여자의 경우 전체 여자 응답자의 23.6%인데 비해 남자의 경우는 15.5%에 그치고 있다. 이 패턴은 예스원

**표 3-54**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3(스포츠 스타)

| | | 덩야핑 | 예스원 | 야오밍 | 녜워이핑 | 랑핑 | 궈징징 | 기타 | $x^2$ (p) |
|---|---|---|---|---|---|---|---|---|---|
| 전체 | N | 196 | 140 | 430 | 43 | 75 | 60 | 50 | 994 |
| | % | 19.7% | 14.1% | 43.3% | 4.3% | 7.5% | 6.0% | 5.0% | 100.0% |

**그림 3-53**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3(스포츠 스타)



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스타에 대한 평가에서 성이라는 변수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 5) 세계에 알리고 싶은 자국(중국)의 생활문화자원

세계에 알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의 생활문화자원을 묻는 질문은 음식, 제품, 현대적 건축물(랜드마크), 관광상품, 지역축제 등 모두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계에 가장 알리고 싶은 중국 음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표 3-55〉, [그림 3-54]와 같다. 여기서는 타초어두,[31] 월병, 분증육,[32] 교자, 광동해물요리, 오리구리, 양고기샤브샤브·마라탕,[33] 불도장[34] 등이 보기로 주어졌다.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음식은 교자(饺子)로 33.2%의 지지를 받았다. 교자는 최대 명절인 춘절 때 반드시 빚어서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간주될 정도로 일상화되고 보편화된 음식이라는 점에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월병으로 21.1%의 응답자가 월병을 선택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석 때 송편을 빚어 먹듯이 중국인들에게는 중추절 때 월병을 먹는 것이 오래된 풍습

31) 타초어두(剁椒鱼头)는 생선머리찜 요리로 생선머리살의 싱싱한 맛과 고추의 매운 맛이 잘 어울려 많은 중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원래 후난지방 요리였지만 이제는 중국을 대표하는 요리의 하나가 되었다.

32) 분증육(粉蒸肉)은 돼지고기 삼겹살에 쌀가루를 입혀 양념을 한 다음 찜통에 넣어 찐 요리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요리 중 하나이다.

33) 마라탕(麻辣烫)은 대중적 인기가 높은 일종의 꼬치 샤브샤브로 다양한 재료의 꼬치를 양념된 뜨거운 국물에 살짝 담군 뒤 익혀서 먹는 음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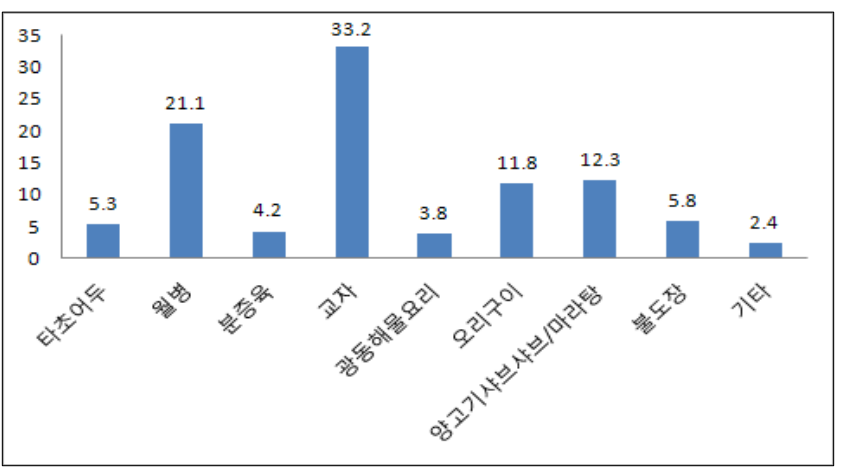
34) 불도장(佛跳墙)은 상어지느러미 스프 요리의 일종으로 그 이름("스님이 담을 넘다")이 나타내듯 중국요리의 별미 중 하나로 이름이 높다.

이므로 월병을 중국 대표 음식의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12.3%의 지지를 받아 3위에 오른 양고기샤브샤브·마라탕은 전통음식은 아니지만 비교적 최근에 대중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게 된 음식이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 다음 순위에는 오리구이가 올랐는데 이 요리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중국 음식의 하나이다. 나머지 음식은 불도장(5.8%), 타초어두(5.3%), 분증육(4.2%), 광동해물요리(3.8%) 순인데 이 요리들은 수많은 중국요리 중의 몇 사례에 불과하므로 높은 지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표 3-55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1(음식)

| | | 타초어두 | 월병 | 분증육 | 교자 | 광동해물요리 | 오리구이 | 양고기샤브샤브·마라탕 | 불도장 | 기타 | $x^2$ (p) |
|---|---|---|---|---|---|---|---|---|---|---|---|
| 전체 | N | 52 | 209 | 42 | 329 | 38 | 117 | 122 | 57 | 24 | 990 |
| | % | 5.3% | 21.1% | 4.2% | 33.2% | 3.8% | 11.8% | 12.3% | 5.8% | 2.4% | 100.0% |

그림 3-54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1(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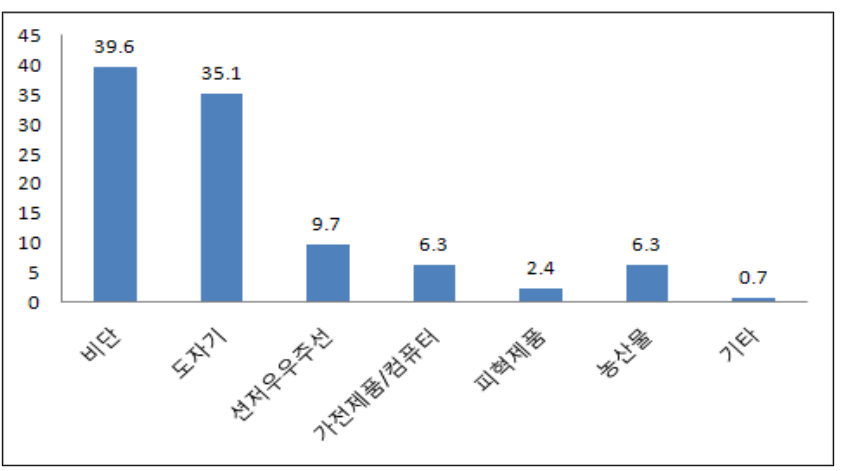
그 다음은 세계에 알릴 가치가 있는 제품을 묻는 항목이다. 보기로는 비단, 도자기, 션저우우주선, 가전제품·컴퓨터, 피혁제품, 농산물 등이 제시되었다.

〈표 3-37〉과 [그림 3-36]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에 알릴만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은 비단으로 전체 응답의 39.6%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도자기(35.1%)가 많은 지지를 얻었는데 1위와의 격차가 크지 않다. 전체 응답자의 4분의 3이 이 두 제품을 선택한 셈이다. 션저우우주선은 9.7%의 지지를 받아 3위에 올랐다. 우주선의 성공적인 발사가 가장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건임은 분

표 3-56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2(제품)

| | | 비단 | 도자기 | 션저우 우주선 | 가전제품· 컴퓨터 | 피혁제품 | 농산물 | 기타 | $x^2$ (p) |
|---|---|---|---|---|---|---|---|---|---|
| 전체 | N | 393 | 348 | 96 | 62 | 24 | 62 | 7 | 992 |
| | % | 39.6% | 35.1% | 9.7% | 6.3% | 2.4% | 6.3% | .7% | 100.0% |

그림 3-55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2(제품)



명하지만 제품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그것과 별개의 문제임을 말해준다. 그밖에 가전제품·컴퓨터와 농산물이 각각 6.3%, 피혁제품이 2.4%의 지지를 얻었다.

설문결과를 보면 가전제품, 컴퓨터, 우주선보다는 비단, 도자기, 농산물을 선택한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비단과 도자기, 농산물 등이 세계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서 보면 이 결과는 당연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 공산품 중에서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별로 없다는 중국 청년들의 인식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랜드마크로 내세울 만한 중국 현대건축물에 대한 질문이다. 상하이동방명주탑, 베이징인민대회당, 정저우2·7기념탑, 톈진천탑, 지난천성광장, 삼협댐, 우한장강대교 등, 중국인 대부분이 잘 아는 거대한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보기로 제시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3-57〉과 [그림 3-56]에 나타나 있다.

중국 대학생·대학원생들의 응답은 상하이동방명주탑(35.0%)과 베이징인민대회당(26.8%)에 집중되어 있다. 세 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은 건축물은 삼협댐(三峽大壩)이고 그 뒤를 우한장강대교(6.8%), 지난천성광장(4.8%), 톈진천탑(4.5%), 정저우2·7기념탑(2.9%) 등이 잇고 있다.

상하이와 베이징이 각각 중국의 경제 중심지와 정치 중심지를 상징하듯이, 이 두 도시의 건축물인 상하이동방명주탑과 베이징인민대회당이 중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선택받았다. 1위에 오른 상하이동방명주탑은 개혁개방 후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그리고 미국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처럼 최고의 관광명소로 높은 지명도가 있는 곳이다. 베이징인민대회당은 중국의 정치역사가 새겨져 있는 유서 깊은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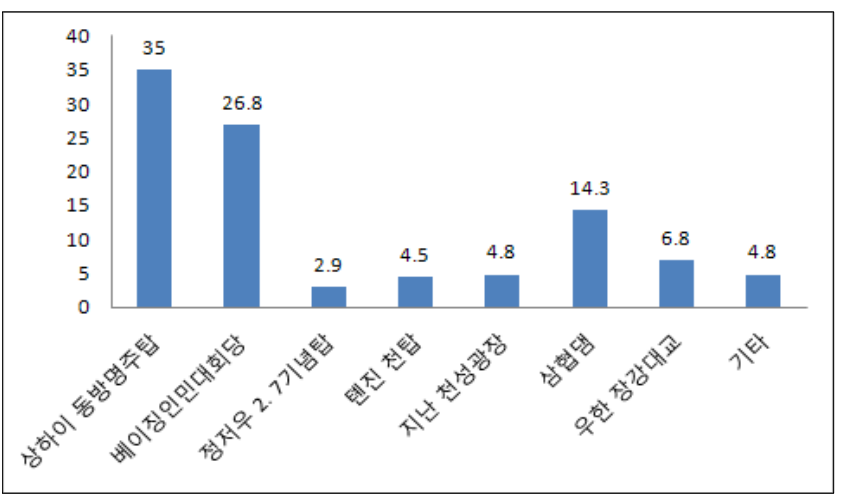
물로서 베이징을 찾는 중국인들이 반드시 거쳐 가야 할 곳으로 간주하는 곳이다.

삼협댐은 후베이성 이창시에 건설된 엄청난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1994년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어 2009년에 완공되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이 전 세계 수력발전소 중 발전량 1위를 자랑하며 홍수 조절 기능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수몰지역 주민의 피해, 생태계 파괴, 문화유산 수몰, 수질 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삼협댐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뚜렷하게 나뉠 수 있다.

**표 3-57**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3(현대건축물)

| | | 상하이 동방 명주탑 | 베이징 인민 대회당 | 정저우 2·7 기념탑 | 톈진 천탑 | 지난 천성광장 | 삼협댐 | 우한 장강대교 | 기타 | $x^2$ (p) |
|---|---|---|---|---|---|---|---|---|---|---|
| 전체 | N | 348 | 266 | 29 | 45 | 48 | 142 | 68 | 48 | 994 |
| | % | 35.0% | 26.8% | 2.9% | 4.5 % | 4.8% | 14.3% | 6.8% | 4.8 % | 100.0% |

**그림 3-56**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3(현대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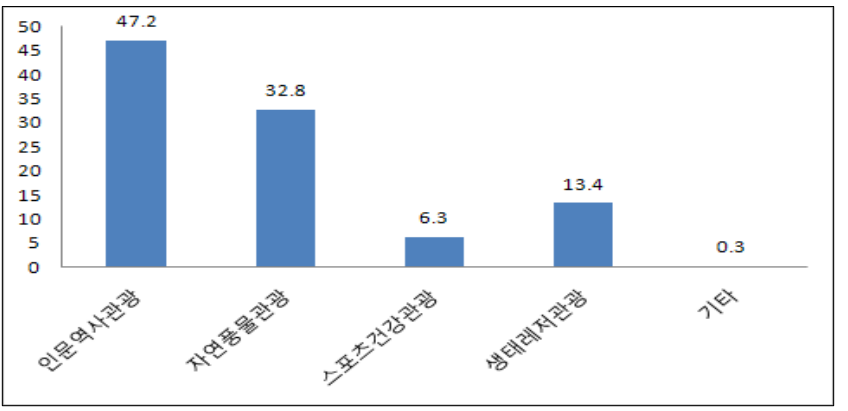
이 설문문항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상하이동방명주탑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은 상하이 지역 응답자의 경우 56.8%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20~25%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상하이 응답자 중에서 베이징인민대회당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은 17.7%로 이것은 다른 지역 응답자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다. 베이징 응답자의 경우에도 베이징인민대회당을 선택한 비율이 다른 지역들의 응답자들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톈진 응답자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다른 지역들에 비해 톈진천탑을 선택한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이 결과들에서 중국 청년세대의 지역주의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다.

다음은 중국의 생활문화자원 중 관광상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표 3-58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4(관광상품)**

| | | 인문역사관광 | 자연풍물관광 | 스포츠건강관광 | 생태레저관광 | 기타 | $x^2$ (p) |
|---|---|---|---|---|---|---|---|
| 전체 | N | 470 | 327 | 63 | 133 | 3 | 996 |
| | % | 47.2% | 32.8% | 6.3% | 13.4% | .3% | 100.0% |

**그림 3-57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4(관광상품)**



관광상품을 의료관광(성형), 쇼핑관광, 한류관광, 공연관광으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중국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였다. 〈표 3-58〉과 [그림 3-57]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위는 인문역사관광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의 지지를 받았고, 그 뒤를 32.8% 지지를 받은 자연풍물관광이 잇고 있다. 생태레저관광(13.4%)과 스포츠건강관광(6.3%)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풍부한 역사유적과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엄청나게 넓은 국토가 자랑하는 다채로운 자연환경이 중국 관광의 최대 자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연풍물관광보다 인문역사관광을 선택한 비율이 15% 이상 높은 것에서는 자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당대 중국 청년들의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문화자원 중 지역축제에 대한 설문문항을 분석한 결과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지역축제 중에서 장쑤쉬이바다가재축제,[35] 칭다오맥주축제,[36] 닝보국제패션축제,[37] 후허하오터왕소군문화제,[38] 상하이국제예술제,[39] 취푸국제공자문화제,[40] 항저우서호국제박람회, 우차오

35) 장쑤쉬이바다가재축제((中国盱眙国际龙虾节)는 가재를 지역 특산물로 하는 장쑤성 쉬이현 정부가 중심이 되어 200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축제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진행된다.

36) 칭다오맥주축제(青岛国际啤酒节)는 칭다오맥주로 유명한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1991년부터 개최해온 행사로 관광, 체육, 비즈니스가 결합된 축제이다.

37) 닝보국제복장축제(宁波国际服装节)는 저장성 닝보시에서 1997년 이래 개최해 온 축제로서 국제복장박람회를 비롯하여 각종 비즈니스 활동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38) 후허하오터왕소군문화제(中国呼和浩特昭君文化节)는 중국 4대 미녀의 한 명으로 회자되는 왕소군의 무덤이 있는 내몽골 후허하오터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축제이다.

39) 상하이국제예술제(中国上海国际艺术节)는 중국정부 문화부의 주최로 1999년부터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로 각종 예술공연과 문화전람회, 대중문화활동, 예술품교역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40) 취푸국제공자문화제(中国曲阜国际孔子文化节)는 공자의 탄생지인 취푸에서 1989년부터 열리고 있는 유교문화축제이다.

국제서커스축제,[41] 화이난국제두부문화제,[42] 난닝국제민가예술제[43]를 보기로 주고 질문한 결과 〈표 3-59〉, [그림 3-58]과 같은 응답을 얻었다.

세계에 가장 알리고 싶은 지역축제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꼽은 것은 취푸국제공자문화제이다. 전체 응답의 28.3%라는 높은 지지를 얻어 중국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축제 1위에 올랐다. 국학열 등 유교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 민족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의 최근의 추세가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상하이국제예술제(16.2%)와 칭다오맥주축제(15.3%)이다.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은 세계적 수준의 문화공연이 많이 열린다는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항저우서호국제박람회(12.4%)가 높은 지지를 받았고 나머지 축제들은 대체로 저조한 지지에 머물렀다.

**표 3-59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5(지역축제)**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x^2$ (p) |
|---|---|---|---|---|---|---|---|---|---|---|---|---|---|
| 전체 | N | 36 | 150 | 31 | 40 | 159 | 277 | 121 | 49 | 53 | 47 | 16 | 979 |
| | % | 3.7 % | 15.3 % | 3.2 % | 4.1 % | 16.2 % | 28.3% | 12.4 % | 5.0% | 5.4 % | 4.8% | 1.6 %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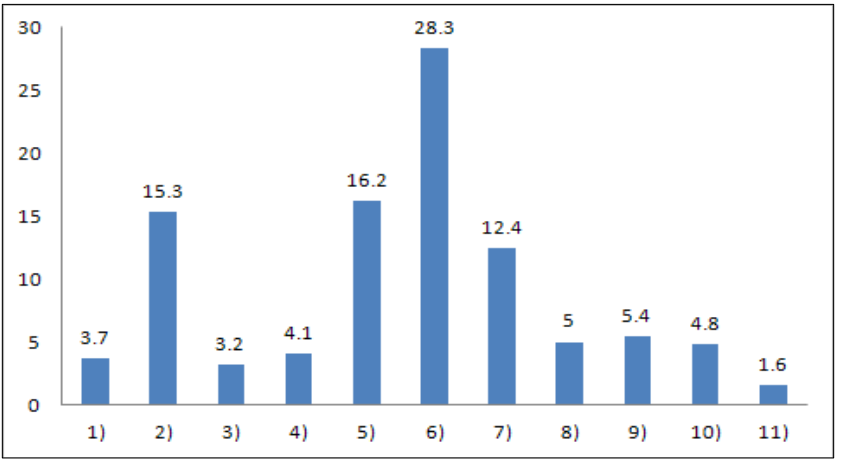
주: 1) 장쑤쉬이바다가재축제, 2) 칭다오맥주축제, 3) 닝보국제패션축제, 4) 후허하오터왕소군문화제, 5)상하이국제예술제, 6) 취푸국제공자문화제, 7) 항저우서호국제박람회, 8) 우차오국제서커스축제, 9) 화이난국제두부문화제, 10) 난닝국제민가예술제, 11) 기타

41) 우차오국제서커스축제(中国吴桥国际杂技节)는 1987년부터 중국 서커스의 본향으로 이름 높은 허베이성 우차오현에서 개최하고 있는 유명한 서커스축제로서 서커스시합, 전통민간예술공연, 예술교류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다.

42) 항저우서호국제박람회(杭州西湖国际博览会)의 역사는 19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도중에 수십 년간 중단되었으나 1999년부터 다시 항저우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국제박람회이다.

43) 난닝국제민가예술제(南宁国际民歌艺术节)는 소수민족 집결지로 유명한 광시성의 난닝시에서 1999년부터 개최해온 민간예술축제로 문화, 관광, 교역 등 다방면에 걸쳐 국제교류가 전개된다.

그림 3-58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5(지역축제)




주: 1) 장쑤쉬이바다가재축제, 2) 칭다오맥주축제, 3) 닝보국제패션축제, 4) 후허하오터왕소군문화제, 5)상하이국제예술제, 6) 취푸국제공자문화제, 7) 항저우서호국제박람회, 8) 우차오국제서커스축제, 9) 화이난국제두부문화제, 10) 난닝국제민가예술제, 11) 기타

## 다. 자국 및 상대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 비교

본 조사에서는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에게 각각 자국과 상대국의 문화자원 유형 중에서 세계에 알릴만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문화자원 유형은 문화예술자원, 지역자원,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 인물자원, 생활문화자원 등 5개의 범주로 나뉜다. 문화예술자원으로는 전통문학 및 도서, 현대문학 및 도서, 미술작품, 전통문화, 무형문화재, 대중문화 등 6개의 유형이 있고, 지역자원은 역사유적지, 자연유산, 도시 등 3개,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은 역사적 발명품, 역사적 사건 등 2개, 인물자원은 고대위인, 현대위인, 스포츠스타 등 3개, 생활문화자원은 음식, 제품, 현대건축물, 관광상품, 지역축제 등 5개의 유형이 있다.

### 1) 자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 비교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에게 자국 문화자원 유형 중에서 세계에 알릴만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표 3-60〉, 〈표 3-61〉, [그림 3-59]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 대중문화(38.8%), 음식(35.5%), 전통문화(34.4%)가 큰 차이 없이 30%대의 지지를 받아 최상단에 속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문화자원 유형은 역사유적지(22.5%), 스포츠스타(21.6%), 자연유산(20.5%) 등인데 모두 20% 초반대에 속한다. 다음으로 역사적 사건(17.1%), 제품(14.7%), 무형문화재(14.5%), 전통문학 및 도서(11.8%), 고대위인(11.6%), 역사적 발명품(10.4%) 등이 10%대의 지지를 받았다. 도시(9.4%), 관광상품(8.6%), 현대문학 및 도서(7.0%), 지역축제(6.7%), 현대위인(4.8%), 미술작품(4.3%), 현대건축물(4.2%) 등 대체로 현대적 성격이 강한 문화자원 유형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중국 학생들의 경우 전통문화(49.1%)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무형문화재(38.2%)와 역사유적지(31.6%)가 잇고 있다. 전통문학 및 도서(27.1%), 음식(26.5%), 자연유산(23.4%)도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중문화(12.0%), 역사적 사건(11.3%), 지역축제(11.0%), 역사적 발명품(10.5%), 고대위인(10.4%)이 10%대 비율을 기록하였다. 미술작품(9.7%), 도시(7.7%), 현대문학 및 도서(7.1%), 현대위인(6.1%), 현대건축물(4.4%), 관광상품(3.8%), 제품(3.5%), 스포츠스타(2.4%) 등은 하위에 속했다.

이 결과를 보면,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이 세계에 알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자원 유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 학생들이 높게 평가하는 문화자원 유형은 대체로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

는 한류나 스포츠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들이나 한국 고유의 전통이나 역사, 자연자원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대중문화와 음식이 1, 2위에 오른 것은 최근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한류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에 관한 보도가 각종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문화나 스포츠를 제외할 때 현대적 성격이 강한 문화자원들은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에 비해 중국 학생들은 자국의 전통문화와 역사, 자연자원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문화자원은 거의 대부분 문화전통과 역사, 자연과 연결된 것들이다. 대체로 현

**표 3-60 자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 비교(1)**

| | | 문화예술자원 | | | | | | 지역자원 | | | 역사적발명품과 사건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한국 | N | 118 | 70 | 43 | 344 | 145 | 388 | 225 | 205 | 94 | 104 | 171 |
| | % | 11.8% | 7.0% | 4.3% | 34.4% | 14.5% | 38.8% | 22.5% | 20.5% | 9.4% | 10.4% | 17.1% |
| 중국 | N | 263 | 69 | 94 | 477 | 371 | 117 | 307 | 227 | 75 | 102 | 110 |
| | % | 27.1% | 7.1% | 9.7% | 49.1% | 38.2% | 12.0% | 31.6% | 23.4% | 7.7% | 10.5% | 1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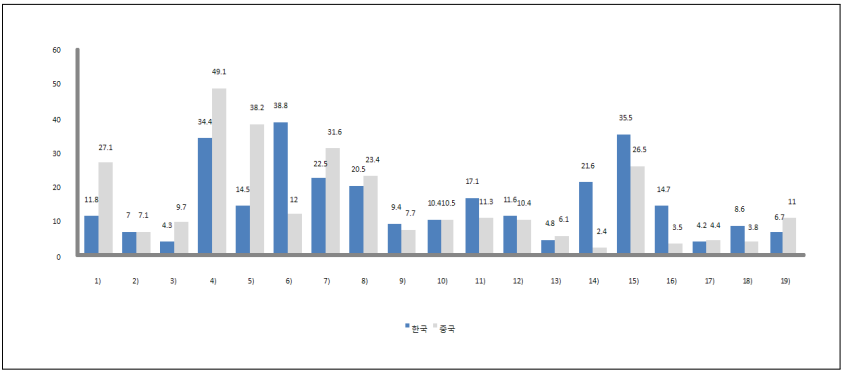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주 2: 1) 전통문학 및 도서, 2) 현대문학 및 도서, 3) 미술작품, 4) 전통문화, 5) 무형문화제, 6) 대중문화, 7) 역사유적지, 8) 자연유산, 9) 도시, 10) 역사적 발명품, 11) 역사적 사건

**표 3-61 자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 비교(2)**

| | | 인물자원 | | | 생활문화자원 | | | | | 합계 |
|---|---|---|---|---|---|---|---|---|---|---|
|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 한국 | N | 116 | 48 | 216 | 355 | 147 | 42 | 86 | 67 | 2984 |
| | % | 11.6% | 4.8% | 21.6% | 35.5% | 14.7% | 4.2% | 8.6% | 6.7% | 298.7% |
| 중국 | N | 101 | 59 | 23 | 258 | 34 | 43 | 37 | 107 | 2874 |
| | % | 10.4% | 6.1% | 2.4% | 26.5% | 3.5% | 4.4% | 3.8% | 11.0% | 295.7% |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주 2: 12) 고대 위인, 13) 현대 위인, 14) 스포츠 스타, 15) 음식, 16) 제품, 17) 현대건축물(랜드마크), 18) 관광상품, 19) 지역축제

그림 3-59 자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 비교




주: 1) 전통문학 및 도서, 2) 현대문학 및 도서, 3) 미술작품, 4) 전통문화, 5) 무형문화제, 6) 대중문화, 7) 역사유적지, 8) 자연유산, 9) 도시, 10) 역사적 발명품, 11) 역사적 사건, 12) 고대 위인, 13) 현대 위인, 14) 스포츠 스타, 15) 음식, 16) 제품, 17) 현대건축물(랜드마크), 18) 관광상품, 19) 지역축제

대적 성격이 강한 문화자원 유형들은 높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한국 학생들과 비교할 때 뚜렷한 차이점은 대중문화와 스포츠에 관련된 자원 유형이 높은 지지를 받지 못했거나 최하위에 속했다는 점이다.

### 2) 상대국 문화 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비교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에게 상대국 문화자원 유형 중에서 세계에 알릴만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표 3-62〉, 〈표 3-63〉, [그림 3-60]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 중국 문화자원 유형 중에서 역사유적지(43.8%), 자연유산(35.1%), 음식(34.8%) 등을 가장 가치 있는 문화자원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통문화(23.6%), 도시(21.6%), 역사적 사건(23.4%), 고대 위인(18.5%), 관광상품(18.2%) 등이 비교적 상위에 올랐다. 전통문학 및 도서(13.7%), 스포츠스타(12.1%), 대중문화(11.3%), 지역축제(10.4%)는 10% 대 초반의 지지를 얻어 하위권에 속했다. 현대건축물(7.8%), 무형문화재

(6.7%), 미술작품(4.9%), 제품(4.4%), 역사적 발명품(3.9%), 현대위인(3.0%), 현대문학 및 도서(2.4%) 등을 꼽은 한국 학생들은 제한적이다.

한국 학생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꼽은 중국의 문화자원들은 넓은 범주로 볼 때 역사와 자연, 전통과 관련된 것이 많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체로 여행 혹은 관광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는 역사유적지, 자연유산, 음식, 도시, 관광상품 등이 상위에 포진해 있는 데 반해 중국 학생들이 자국의 가치 있는 문화자원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전통문화, 무형문화재, 전통 문학 및 도서 등은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현대적 성격이 강한 중국 문화자원들에 대한 평가는 매우 박하다.

중국 학생들의 경우 한국 문화자원 중에서 음식(43.5%)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다. 대중문화(32.6%)와 전통문화(28.1%)도 매우 높은 지지를 받아 2위와 3위에 올랐다. 그 다음은 도시(20.6%), 제품(20.5%), 자연유산(17.9%), 무형문화재(17.3%), 관광상품(16.8%), 스포츠스타(14.4%), 역사유적지(13.4%), 전통문학 및 도서(13.1%), 역사적 사건(12.3%), 지역축제(10.1%), 현대건

**표 3-62 상대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 비교(1)**

| | | 문화예술자원 | | | | | | 지역자원 | | | 역사적발명품과 사건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한국 | N | 138 | 24 | 49 | 237 | 67 | 113 | 440 | 352 | 217 | 39 | 235 |
| | % | 13.7% | 2.4% | 4.9% | 23.6% | 6.7% | 11.3% | 43.8% | 35.1% | 21.6% | 3.9% | 23.4% |
| 중국 | N | 130 | 85 | 80 | 278 | 171 | 322 | 133 | 177 | 204 | 28 | 122 |
| | % | 13.1% | 8.6% | 8.1% | 28.1% | 17.3% | 32.6% | 13.4% | 17.9% | 20.6% | 2.8% | 1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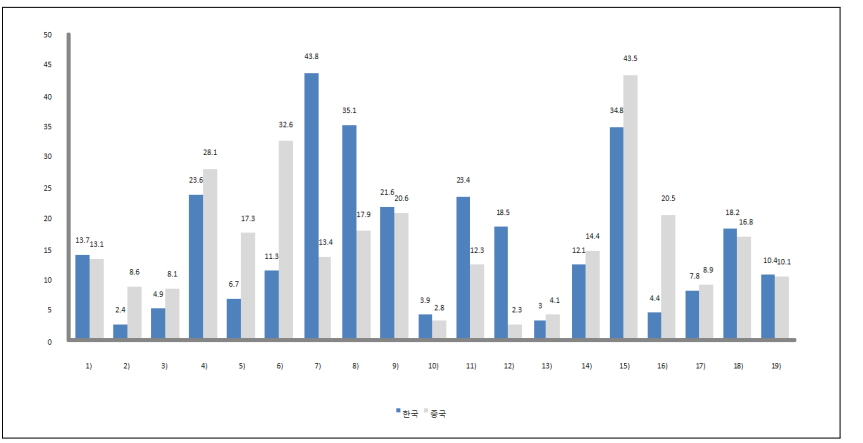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주 2: 1) 전통문학 및 도서, 2) 현대문학 및 도서, 3) 미술작품, 4) 전통문화, 5) 무형문화재, 6) 대중문화, 7) 역사유적지, 8) 자연유산, 9) 도시, 10) 역사적 발명품, 11) 역사적 사건

표 3-63 상대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 비교(2)

| | | 인물자원 | | | 생활문화자원 | | | | | 합계 |
|---|---|---|---|---|---|---|---|---|---|---|
|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 한국 | N | 186 | 30 | 121 | 349 | 44 | 78 | 183 | 104 | 3006 |
| | % | 18.5% | 3.0% | 12.1% | 34.8% | 4.4% | 7.8% | 18.2% | 10.4% | 299.4% |
| 중국 | N | 23 | 41 | 142 | 430 | 203 | 88 | 166 | 100 | 2923 |
| | % | 2.3% | 4.1% | 14.4% | 43.5% | 20.5% | 8.9% | 16.8% | 10.1% | 295.6% |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주 2: 12) 고대 위인, 13) 현대 위인, 14) 스포츠 스타, 15) 음식, 16) 제품, 17) 현대건축물(랜드마크), 18) 관광상품, 19) 지역축제

그림 3-60 상대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 비교




주: 1) 전통문학 및 도서, 2) 현대문학 및 도서, 3) 미술작품, 4) 전통문화, 5) 무형문화재, 6) 대중문화, 7) 역사유적지, 8) 자연유산, 9) 도시, 10) 역사적 발명품, 11) 역사적 사건, 12) 고대 위인, 13) 현대 위인, 14) 스포츠 스타, 15) 음식, 16) 제품, 17) 현대건축물(랜드마크), 18) 관광상품, 19) 지역축제

축물(8.9%), 현대문학 및 도서(8.6%), 미술작품(8.1%) 순이다. 현대위인(4.1%), 역사적 발명품(2.8%), 고대위인(2.3%)을 선택한 사람은 소수이다.

중국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한국 문화자원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진다. 첫째는 한류 현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문화자원이다. 대중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음식과 전통문화 역시 〈대장금〉을

비롯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중국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진 내용들이다. 둘째는 여행이나 관광과 연관성이 높은 문화자원이다. 도시, 자연유산, 관광상품, 역사유적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은 도시, 제품 등 한국의 현대적 성과물들이다. 중국의 현대적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한국 학생보다는 한국의 현대적 성과를 인정하는 중국 학생 숫자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4. 한·중·일 국가관계 및 국제관 분석결과 비교

### 가. 한·중·일 국가 관계 비교

#### 1) 한·중·일 관계 평가 비교

본 조사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3국인 한국과 중국 및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한 한·중 양국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3개국 사이의 현재 관계에 대한 평가, 향후 전망 및 국가 간 주요 분쟁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먼저 현재의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하여 한국 학생들은 63.8%에 달하는 637명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중관계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학생은 없었으며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10.4%에 그친 반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에 참여한 한국 학생들 가운데 4명 중 1명 정도가 한·중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동북공정 등으로 인한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한·중관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7.8%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한·중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14.8%,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17.4%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4** 한·중 관계에 대한 평가 비교

| | | 매우 나쁘다 | 나쁘다 | 보통이다 | 좋다 | 매우 좋다 | $x^2$ (p) |
|---|---|---|---|---|---|---|---|
| 한국 | N | 17 | 241 | 637 | 104 | 0 | 75.580 (.000) |
| | % | 1.7% | 24.1% | 63.8% | 10.4% | .0% | |
| 중국 | N | 43 | 132 | 681 | 119 | 30 | |
| | % | 4.3% | 13.1% | 67.8% | 11.8% | 3.0% | |
| 전체 | N | 60 | 373 | 1318 | 223 | 30 | 2004 |
| | % | 3.0% | 18.6% | 65.8% | 11.1% | 1.5% | 100.0% |

**그림 3-61** 한·중 관계에 대한 평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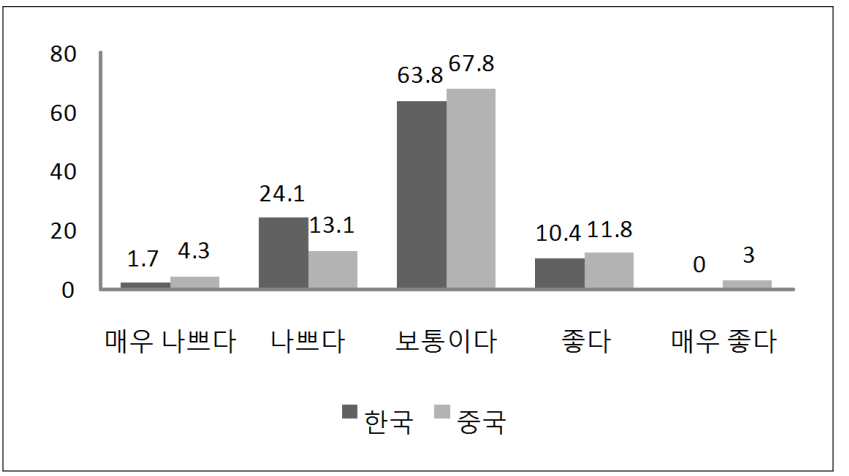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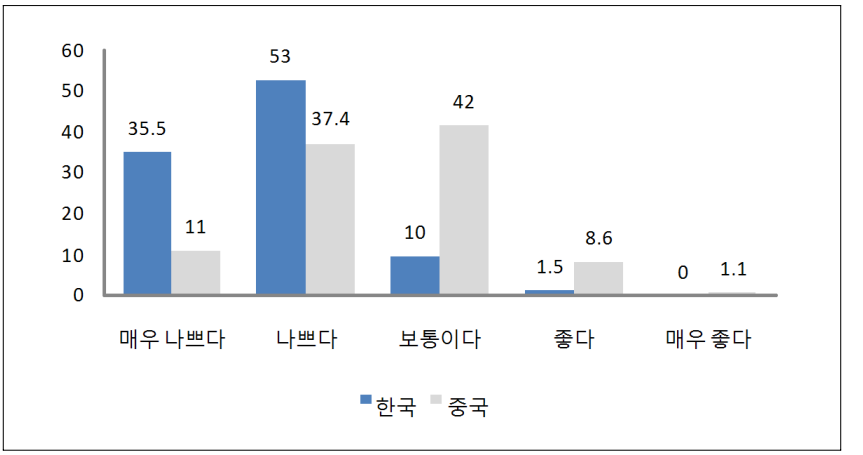


표 3-65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 비교

| | | 매우 나쁘다 | 나쁘다 | 보통이다 | 좋다 | 매우 좋다 | $x^2$ (p) |
|---|---|---|---|---|---|---|---|
| 한국 | N | 355 | 530 | 100 | 15 | 0 | 413.840 (.000) |
| | % | 35.5% | 53.0% | 10.0% | 1.5% | .0% | |
| 중국 | N | 110 | 374 | 420 | 86 | 11 | |
| | % | 11.0% | 37.4% | 42.0% | 8.6% | 1.1% | |
| 전체 | N | 465 | 904 | 520 | 101 | 11 | 2001 |
| | % | 23.2% | 45.2% | 26.0% | 5.0% | .5% | 100.0% |

그림 3-62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 비교




한·중 관계를 보통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한국과 중국 학생들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현재 동북아 관계에서 양국의 주요 현안이 일본과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고 양국 간에 주목받을 만한 이슈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문항에서는 양국 학생들 모두에게서 매우 부정적인 응답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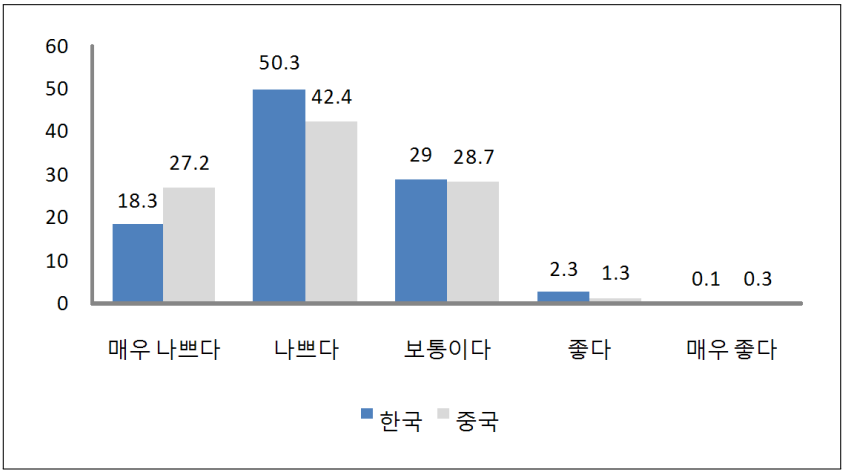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은 응답자 가운데 88.5%가 나쁘다고 응답한 반면, 양국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학생은 1.5%에 그치고 있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65〉 참조).

반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중국 학생들은 48.4%가 나쁘다고 응답하였고, 9.7%만이 양국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표 3-66 중·일 관계에 대한 평가 비교

| | | 매우 나쁘다 | 나쁘다 | 보통이다 | 좋다 | 매우 좋다 | $x^2$ (p) |
|---|---|---|---|---|---|---|---|
| 한국 | N | 183 | 502 | 290 | 23 | 1 | 27.939 (.000) |
| | % | 18.3% | 50.3% | 29.0% | 2.3% | .1% | |
| 중국 | N | 273 | 425 | 288 | 13 | 3 | |
| | % | 27.2% | 42.4% | 28.7% | 1.3% | .3% | |
| 전체 | N | 456 | 927 | 578 | 36 | 4 | 2001 |
| | % | 22.8% | 46.3% | 28.9% | 1.8% | .2% | 100.0% |

그림 3-63 중·일 관계에 대한 평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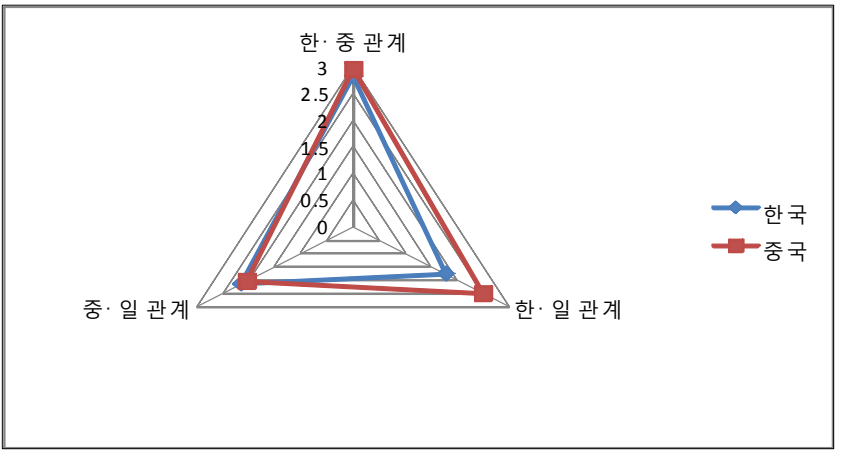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 중국은 제3자의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국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조사에 참여한 한국 학생들의 68.6%가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 반면, 중국 학생들의 경우 69.6%가 자국과 일본과

표 3-67 한·중·일 관계에 대한 평가 비교

| 내 용 | 국 가 | N | 평균 | 표준편차 | t(p) |
|---|---|---|---|---|---|
| 한중 관계 | 한 국 | 999 | 2.83 | .620 | -4.358 (.000) |
| | 중 국 | 1005 | 2.96 | .734 | |
| | 계 | 2004 | 2.90 | .683 | |
| 한일 관계 | 한 국 | 1000 | 1.78 | .682 | -21.599 (.000) |
| | 중 국 | 1001 | 2.51 | .841 | |
| | 계 | 2001 | 2.14 | .850 | |
| 중일 관계 | 한 국 | 999 | 2.16 | .742 | 3.084 (.002) |
| | 중 국 | 1002 | 2.05 | .798 | |
| | 계 | 2001 | 2.10 | .772 | |

그림 3-64 한·중·일 관계에 대한 평가 비교



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두 나라 모두 2%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중국 학생들 모두 자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특히 중국 학생들의 경우 응답자의 2/3 정도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반면, 한국 학생들은 응답자의 9/10 정도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자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에서 대다수의 한국 학생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개국 상호 간의 평가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가 〈표 3-67〉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학생들의 경우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관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중국 학생들은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한·중·일 관계 전망 비교

한・중・일 3개국 간의 현재 관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3개국 간의 관계에 대한 전망과 관련한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도 전반적으로 현재 관계에 대한 응답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먼저 한・중 관계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 가운데 '현재와 같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4.8%와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향후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40.8%와 38.3%로 나타나 양국 모두 80%가 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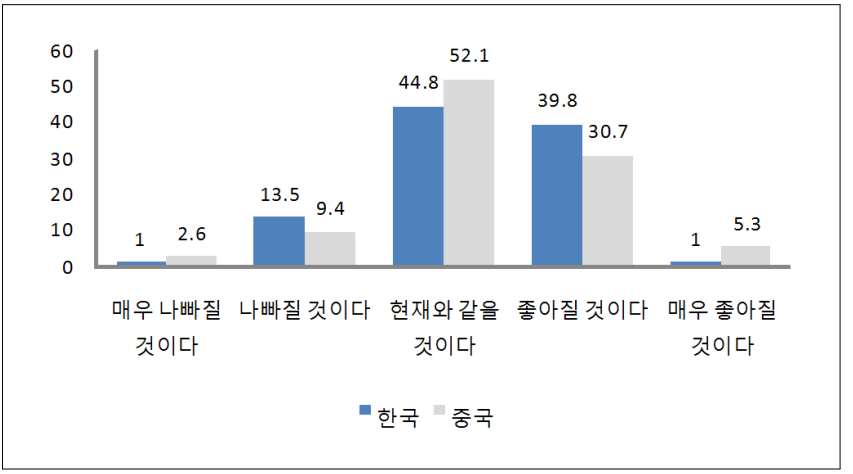
학생들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응답 유형이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학생들 가운데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14%에 불과한 반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9%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현재보

표 3-68 한·중 관계에 대한 전망 비교

| | | 매우 나빠질 것이다 | 나빠질 것이다 | 현재와 같을 것이다 | 좋아질 것이다 | 매우 좋아질 것이다 | $x^2$ (p) |
|---|---|---|---|---|---|---|---|
| 한국 | N | 10 | 135 | 449 | 399 | 10 | 61.147 (.000) |
| | % | 1.0% | 13.5% | 44.8% | 39.8% | 1.0% | |
| 중국 | N | 26 | 94 | 523 | 308 | 53 | |
| | % | 2.6% | 9.4% | 52.1% | 30.7% | 5.3% | |
| 전체 | N | 36 | 229 | 972 | 707 | 63 | 2007 |
| | % | 1.8% | 11.4% | 48.4% | 35.2% | 3.1% | 100.0% |

그림 3-65 한·중 관계에 대한 전망 비교



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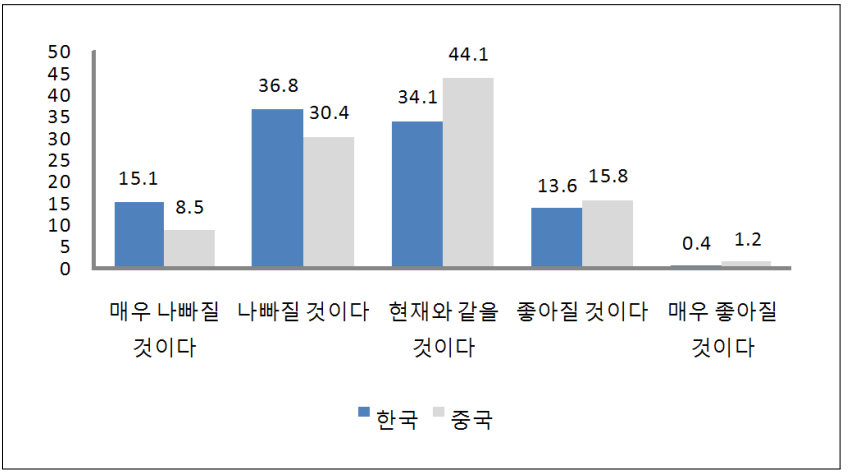
이에 비해 중국 학생들의 경우 '현재와 같을 것이다'라고 평가한 비율이 44.1%로 가장 높았지만,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38.9%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는 학생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일의 관계의 전망에 대한 중국 학생들의 평가는 비록 제3자

**표 3-69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 비교**

| | | 매우 나빠질 것이다 | 나빠질 것이다 | 현재와 같을 것이다 | 좋아질 것이다 | 매우 좋아질 것이다 | $x^2$ (p) |
|---|---|---|---|---|---|---|---|
| 한국 | N | 152 | 369 | 342 | 137 | 4 | 43.223 (.000) |
| | % | 15.1% | 36.8% | 34.1% | 13.6% | .4% | |
| 중국 | N | 85 | 304 | 441 | 158 | 12 | |
| | % | 8.5% | 30.4% | 44.1% | 15.8% | 1.2% | |
| 전체 | N | 237 | 673 | 783 | 295 | 16 | 2004 |
| | % | 11.8% | 33.6% | 39.1% | 14.7% | .8% | 100.0% |

**그림 3-66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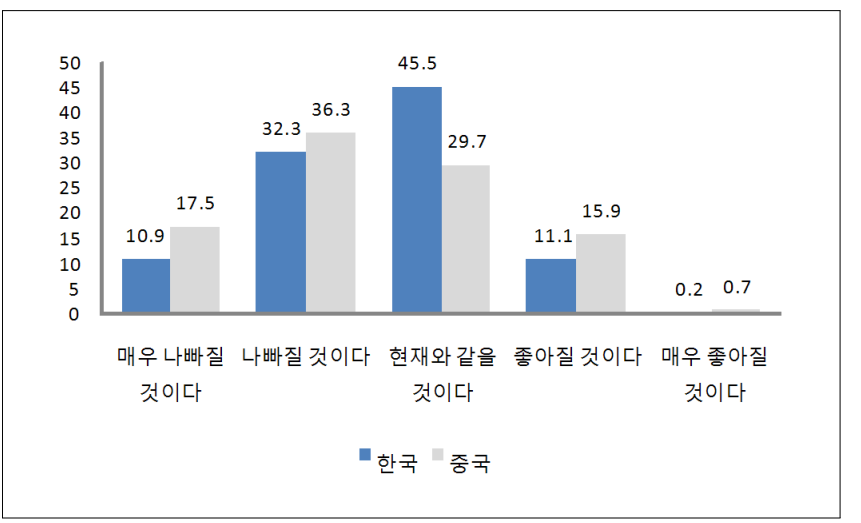
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학생들의 일본에 대한 태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전망을 묻는 문항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응답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중국 학생들의 응답과 매우 유사한

표 3-70 중·일 관계에 대한 전망 비교

| | | 매우 나빠질 것이다 | 나빠질 것이다 | 현재와 같을 것이다 | 좋아질 것이다 | 매우 좋아질 것이다 | $x^2$ (p) |
|---|---|---|---|---|---|---|---|
| 한국 | N | 109 | 324 | 456 | 111 | 2 | 62.436 (.000) |
| | % | 10.9% | 32.3% | 45.5% | 11.1% | .2% | |
| 중국 | N | 175 | 363 | 297 | 159 | 7 | |
| | % | 17.5% | 36.3% | 29.7% | 15.9% | .7% | |
| 전체 | N | 284 | 687 | 753 | 270 | 9 | 2003 |
| | % | 14.2% | 34.3% | 37.6% | 13.5% | .4% | 100.0% |

그림 3-67 중·일 관계에 대한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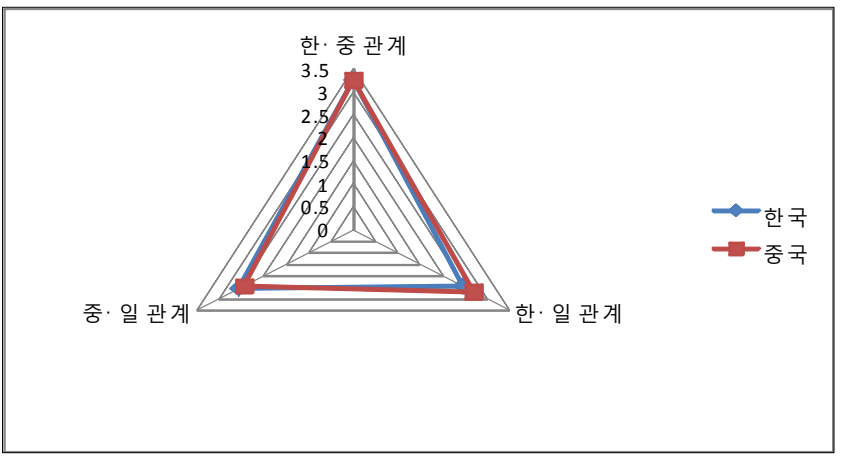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현재와 같을 것이다'라고 평가한 한국 학생들의 비율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평가한 학생들의 비율도 43.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거의 90%에 달하는 학생들이 향후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3-71 한·중·일 관계에 대한 전망 비교**

| 내 용 | 국 가 | N | 평균 | 표준편차 | t(p) |
|---|---|---|---|---|---|
| 한중 관계 | 한 국 | 1003 | 3.26 | .737 | -.108 (.914) |
| | 중 국 | 1004 | 3.27 | .803 | |
| | 계 | 2007 | 3.27 | .771 | |
| 한일 관계 | 한 국 | 1004 | 2.47 | .922 | -5.826 (.000) |
| | 중 국 | 1000 | 2.71 | .875 | |
| | 계 | 2004 | 2.59 | .906 | |
| 중일 관계 | 한 국 | 1002 | 2.57 | .834 | 2.787 (.005) |
| | 중 국 | 1001 | 2.46 | .979 | |
| | 계 | 2003 | 2.52 | .911 | |

**그림 3-68 한·중·일 관계에 대한 전망 비교**



반면, 중・일 관계에 대한 중국 학생들의 전망은 한・일 관계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전망과 유사한 양상을 지니고 있는데, 우선 향후 중・일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53.8%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와 같을 것이다'라고 평가한 학생들의 비율이 2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에 참여한 중국 학생들 가운데 80%가 넘는 학생들이 향후 중・일 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향후 한・일 관계를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한・중・일 3개국 간의 관계에 대한 전망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가 〈표 3-71〉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학생들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일 관계에 대해, 중국 학생들의 경우는 중・일 관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한·중·일 간 분쟁사안에 대한 지식 수준 비교

최근 한・중・일의 동북아 3국 간에 가장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영토 분쟁과 과거 일본 침략사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상당한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국제 정세와 관련하여 양국의 학생들이 일본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는 주요 문제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먼저 한국과 일본 간 영토분쟁의 핵심 대상인 독도와 관련하여 한국 학생들 가운데 90.1%는 '알고 있다' 또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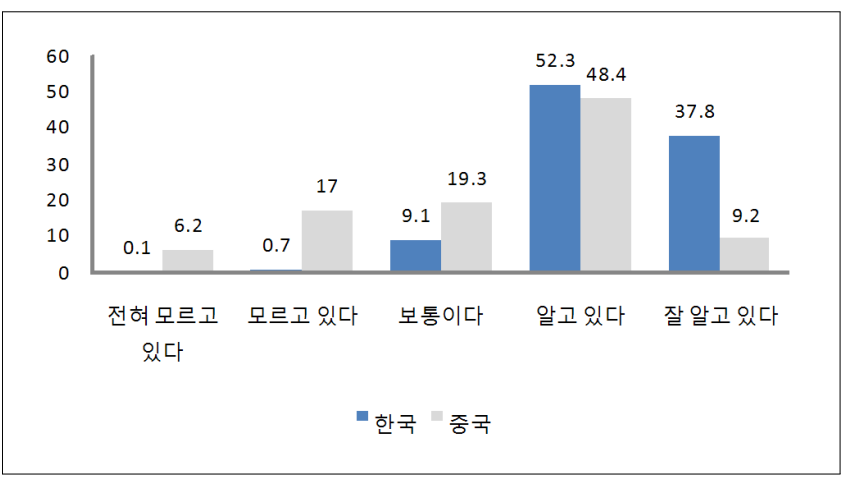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이 독도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중국 학생들의 경우도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6%가 독도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3.2% 정도에 그치고 있어 조사에 참여한 중국 학생들 가운데 3/4 정도가 독도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2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1(독도문제)**

| | | 전혀 모르고 있다 | 모르고 있다 | 보통이다 |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x^2$ (p) |
|---|---|---|---|---|---|---|---|
| 한국 | N | 1 | 7 | 91 | 525 | 380 | 424.622 (.000) |
| | % | .1% | .7% | 9.1% | 52.3% | 37.8% | |
| 중국 | N | 62 | 171 | 194 | 486 | 92 | |
| | % | 6.2% | 17.0% | 19.3% | 48.4% | 9.2% | |
| 전체 | N | 63 | 178 | 285 | 1011 | 472 | 2009 |
| | % | 3.1% | 8.9% | 14.2% | 50.3% | 23.5% | 100.0% |

**그림 3-69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1(독도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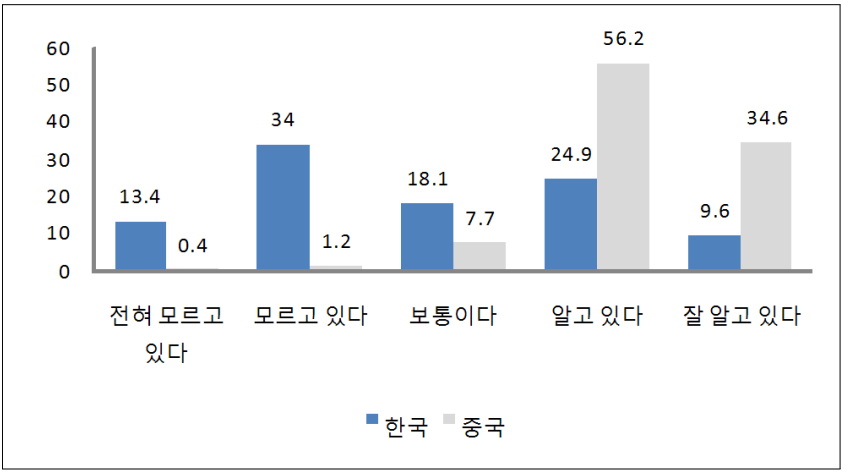
중국과 일본 간에 첨예한 대립을 낳고 있는 센카구열도(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인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비율은 34.5%에 불과한 반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47.7%로 한국 학생 가운데 절반 가량은 센카구열도(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국 학생들의 경우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8%로

**표 3-73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 2(센카구열도/댜오위다오 분쟁)**

| | | 전혀 모르고 있다 | 모르고 있다 | 보통이다 |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x^2$ (p) |
|---|---|---|---|---|---|---|---|
| 한국 | N | 135 | 341 | 182 | 250 | 96 | 737.434 (.000) |
| | % | 13.4% | 34.0% | 18.1% | 24.9% | 9.6% | |
| 중국 | N | 4 | 12 | 77 | 565 | 348 | |
| | % | .4% | 1.2% | 7.7% | 56.2% | 34.6% | |
| 전체 | N | 139 | 353 | 259 | 815 | 444 | 2010 |
| | % | 6.9% | 17.6% | 12.9% | 40.5% | 22.1% | 100.0% |

**그림 3-70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 2(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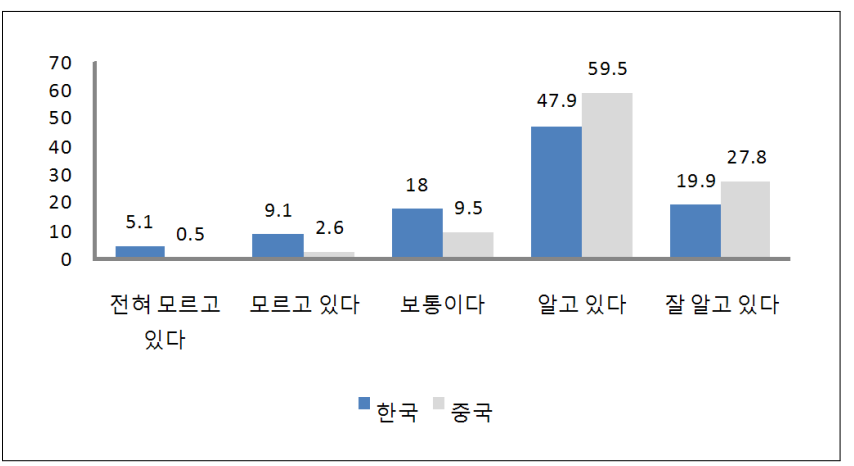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센카구열도(댜오위다오)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중국 학생들 가운데 독도문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6%에 달하고 있으나 센카구열도(댜오위다오) 문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한국 학생들의 비율이 이에 훨씬 못 미치는 34.5%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한국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

**표 3-74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 3(야스쿠니 신사참배)**

| | | 전혀 모르고 있다 | 모르고 있다 | 보통이다 |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x^2$ (p) |
|---|---|---|---|---|---|---|---|
| 한국 | N | 51 | 91 | 181 | 480 | 200 | 126.433 (.000) |
| | % | 5.1% | 9.1% | 18.0% | 47.9% | 19.9% | |
| 중국 | N | 5 | 26 | 96 | 599 | 280 | |
| | % | .5% | 2.6% | 9.5% | 59.5% | 27.8% | |
| 전체 | N | 56 | 117 | 277 | 1079 | 480 | 2009 |
| | % | 2.8% | 5.8% | 13.8% | 53.7% | 23.9% | 100.0% |

**그림 3-71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 3(야스쿠니 신사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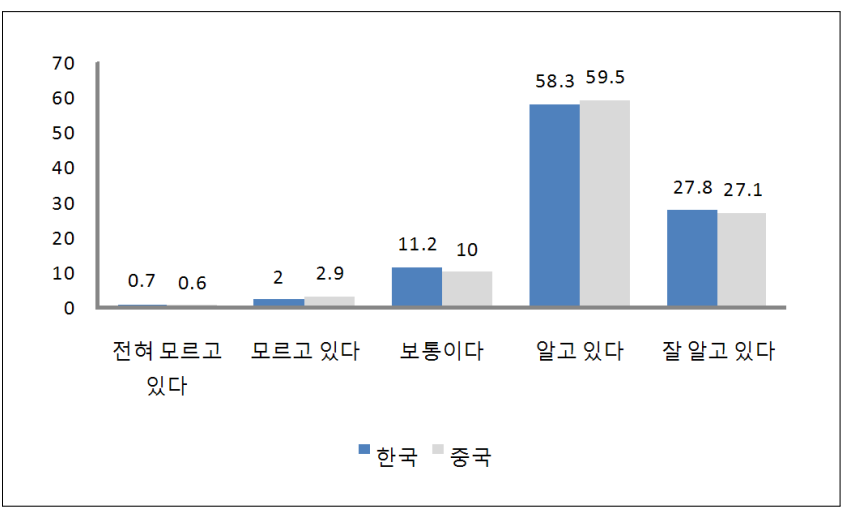


접국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적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해석이 적절하다면, 동북아 3개국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독도문제와 센카구 열도(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현저하게 달리 나타나고

표 3-75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 4(일본역사교과서)

| | | 전혀 모르고 있다 | 모르고 있다 | 보통이다 |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x^2$ (p) |
|---|---|---|---|---|---|---|---|
| 한국 | N | 7 | 20 | 112 | 585 | 279 | 2.619 (.623) |
| | % | .7% | 2.0% | 11.2% | 58.3% | 27.8% | |
| 중국 | N | 6 | 29 | 100 | 597 | 272 | |
| | % | .6% | 2.9% | 10.0% | 59.5% | 27.1% | |
| 전체 | N | 13 | 49 | 212 | 1182 | 551 | 2007 |
| | % | .6% | 2.4% | 10.6% | 58.9% | 27.5% | 100.0% |

그림 3-72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 4(일본역사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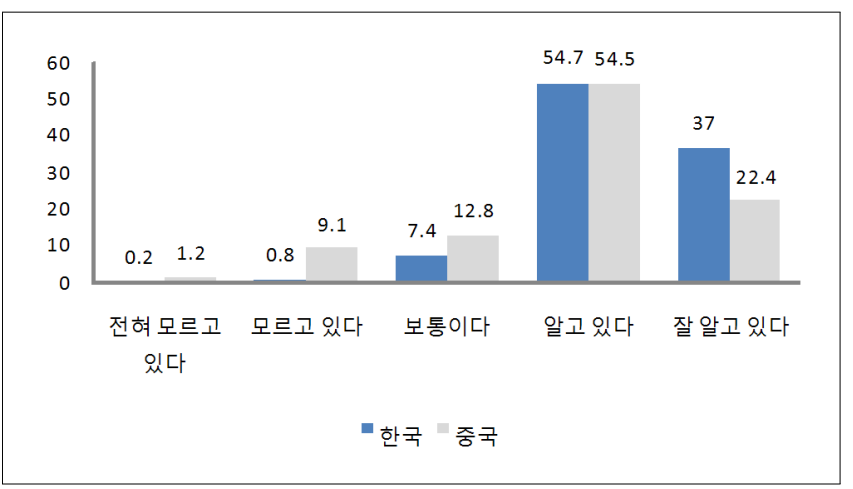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 뿐 아니라 주변 인접국의 상황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통해 국제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과 관련한 태도를 보여 주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학생들 응답자 가운데 67.8%가 알고 있

표 3-76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 5(일본군 '위안부')

| | | 전혀 모르고 있다 | 모르고 있다 | 보통이다 |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x^2$ (p) |
|---|---|---|---|---|---|---|---|
| 한국 | N | 2 | 8 | 74 | 549 | 371 | 127.399 (.000) |
| | % | .2% | .8% | 7.4% | 54.7% | 37.0% | |
| 중국 | N | 12 | 91 | 129 | 547 | 225 | |
| | % | 1.2% | 9.1% | 12.8% | 54.5% | 22.4% | |
| 전체 | N | 14 | 99 | 203 | 1096 | 596 | 2008 |
| | % | .7% | 4.9% | 10.1% | 54.6% | 29.7% | 100.0% |

그림 3-73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 5(일본군'위안부')



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 학생들은 87.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학생들이 일본이 침략전쟁과 관련하여 견지하는 태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과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학생들 가운데 14.2%가 이 문제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 대부분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생 응답자 가운데 86.1%가, 중국 학생 응답자 가운데 86.6%가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는 한국과 중국 모두와 관련이 있는 문제로서 양국의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양국 학생들의 응답은 한국 학생들 가운데 91.7%가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중국 학생들은 76.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중국 학생들 가운데 10.3%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함으로써 1%만이 모른다고 응답한 한국 학생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학생들은 92.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2%에 그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77〉 참조).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인식 정도는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중국 학생들의 경우 다른 문제에 대한 응답과는 달리 37.6%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8.1%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한 중국 학생들의 인식 정도가 다른 문제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영토분쟁이나 일본의 과거 침략과 관련한 문제에 비해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는 상대적으로 언론 등에의 노출 정도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일 3개국 간에 일어나는 제반 분쟁에 대한 한국 학생들과 중

표 3-77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 6(동해/일본해 표기)

| | | 전혀 모르고 있다 | 모르고 있다 | 보통이다 |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x^2$ (p) |
|---|---|---|---|---|---|---|---|
| 한국 | N | 2 | 18 | 58 | 498 | 427 | 652.745 (.000) |
| | % | .2% | 1.8% | 5.8% | 49.7% | 42.6% | |
| 중국 | N | 37 | 245 | 300 | 340 | 83 | |
| | % | 3.7% | 24.4% | 29.9% | 33.8% | 8.3% | |
| 전체 | N | 39 | 263 | 358 | 838 | 510 | 2008 |
| | % | 1.9% | 13.1% | 17.8% | 41.7% | 25.4% | 100.0% |

그림 3-74 분쟁에 대한 인식 비교 6(동해/일본해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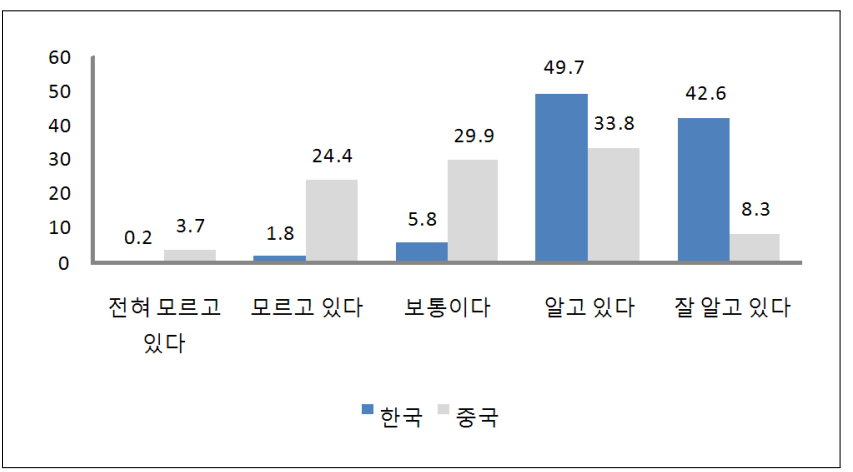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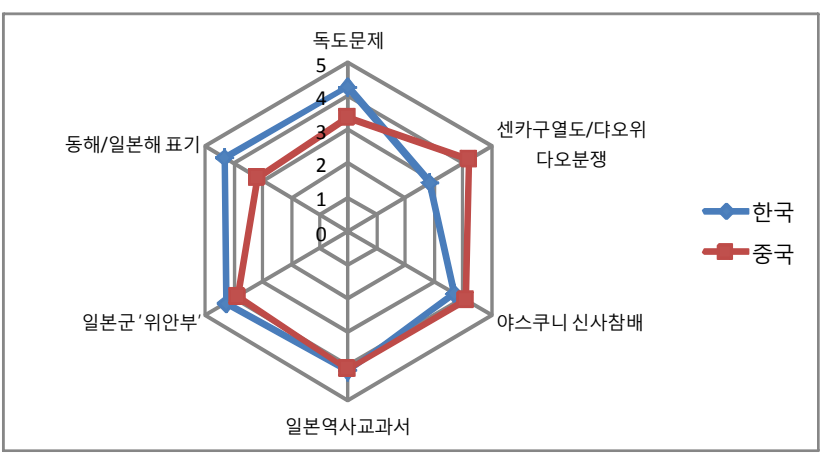


표 3-78 한·중·일 간 분쟁 사안에 대한 지식수준 비교

| 내 용 | 국 가 | N | 평균 | 표준편차 | t(p) |
|---|---|---|---|---|---|
| 독도문제 | 한 국 | 1004 | 4.27 | .658 | 22.773 (.000) |
| | 중 국 | 1005 | 3.37 | 1.062 | |
| | 계 | 2009 | 3.82 | .991 | |
| 센카구열도/댜오위 다오 분쟁 | 한 국 | 1004 | 2.83 | 1.217 | -31.950 (.000) |
| | 중 국 | 1006 | 4.23 | .672 | |
| | 계 | 2010 | 3.53 | 1.207 | |
| 야스쿠니 신사참배 | 한 국 | 1003 | 3.68 | 1.050 | -10.768 (.000) |
| | 중 국 | 1006 | 4.12 | .713 | |
| | 계 | 2009 | 3.90 | .923 | |
| 일본역사교과서 | 한 국 | 1003 | 4.11 | .722 | .311 (.756) |
| | 중 국 | 1004 | 4.10 | .729 | |
| | 계 | 2007 | 4.10 | .725 | |
| 일본군 '위안부' | 한 국 | 1004 | 4.27 | .647 | 11.310 (.000) |
| | 중 국 | 1004 | 3.88 | .899 | |
| | 계 | 2008 | 4.08 | .808 | |
| 동해/일본해 표기 | 한 국 | 1003 | 4.33 | .684 | 29.561 (.000) |
| | 중 국 | 1005 | 3.19 | 1.013 | |
| | 계 | 2008 | 3.76 | 1.035 | |

그림 3-75 한·중·일 간 분쟁 사안에 대한 지식수준 비교



국 학생들의 응답 결과는 동북아 관계에 있어서 일본과 관련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은 한·일 또는 중·일 관계에 있어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서의 3개국 간의 현재 및 향후 관계에 대한 응답과 연결하여 볼 때, 양국 학생들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즉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평가보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평가에 있어 양국 학생들이 비슷한 양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양국 학생들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의 단면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북아 관계에 있어 일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학생들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나 감정을 감안할 때, 향후 동북아 3개국 관계를 평화적이고 발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물론 한국과 중국도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 분쟁 사안에 대해 한국 및 중국 학생들의 응답 평균값에 대한 비교 결과가 〈표 3-78〉에 제시되어 있다.

## 나. 국제관 비교

### 1) 아시아지역 소속감 비교

세계 각국들이 인접국들을 중심으로 공동의 협력체 등을 구성하여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최대화하려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지리적 근접성 뿐 아니라 문화적 유사성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협력체 구성에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국민의 국가 및 동북아시아와 관련한 정체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학생들에서 자국인으로서, 동아시아인으로서, 그리고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자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학생들에게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진술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물어보았는데, 전체 응답자 가운데 96.9%가 '공감한다' 또는 '매우 공감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응답자 대부분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는 중국인이다'라는 진술에 대한 공감도를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90.1%가 공감한다고 응답한 반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한국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수치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데, 이는 중국이 한족을 비롯하여 여러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소수 민족은 고유의 풍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79** 자국인으로서의 소속감 비교

| | |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 공감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공감한다 | 매우 공감한다 | $x^2$ (p) |
|---|---|---|---|---|---|---|---|
| 한국 | N | 1 | 3 | 27 | 239 | 733 | 42.261 (.000) |
| | % | .1% | .3% | 2.7% | 23.8% | 73.1% | |
| 중국 | N | 17 | 12 | 70 | 245 | 663 | |
| | % | 1.7% | 1.2% | 7.0% | 24.3% | 65.8% | |
| 전체 | N | 18 | 15 | 97 | 484 | 1396 | 2010 |
| | % | .9% | .7% | 4.8% | 24.1% | 69.5% | 100.0% |

그림 3-76 자국인으로서의 소속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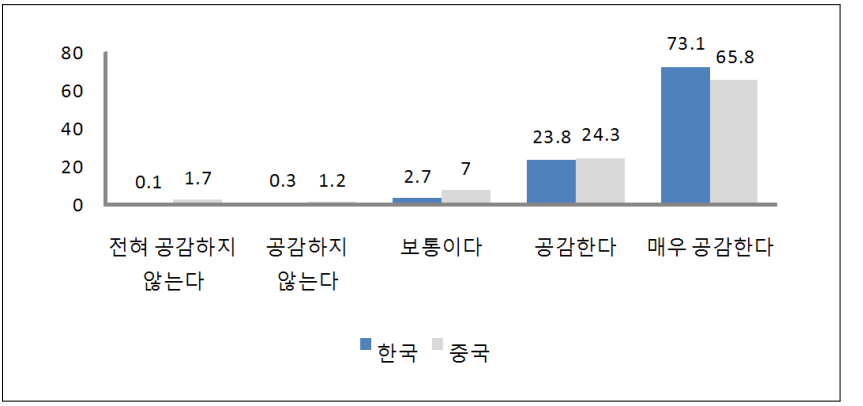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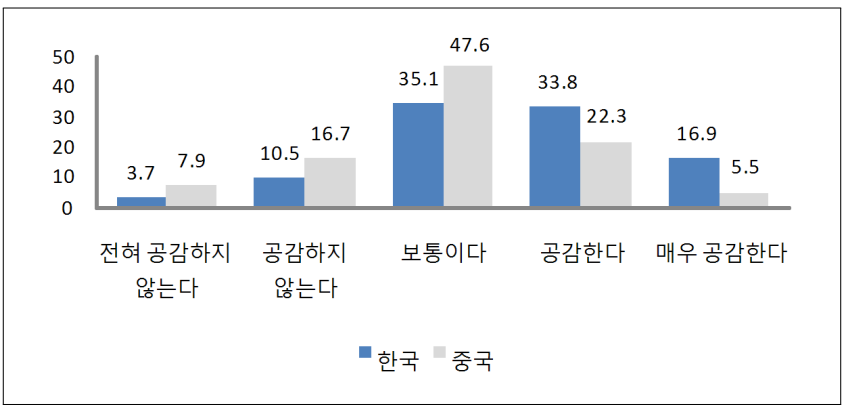



표 3-80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소속감 비교

| | |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 공감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공감한다 | 매우 공감한다 | $x^2$ (p) |
|---|---|---|---|---|---|---|---|
| 한국 | N | 37 | 105 | 352 | 339 | 170 | 130.861 (.000) |
| | % | 3.7% | 10.5% | 35.1% | 33.8% | 16.9% | |
| 중국 | N | 79 | 168 | 477 | 224 | 55 | |
| | % | 7.9% | 16.7% | 47.6% | 22.3% | 5.5% | |
| 전체 | N | 116 | 273 | 829 | 563 | 225 | 2006 |
| | % | 5.8% | 13.6% | 41.3% | 28.1% | 11.2% | 100.0% |

그림 3-77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소속감 비교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중국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자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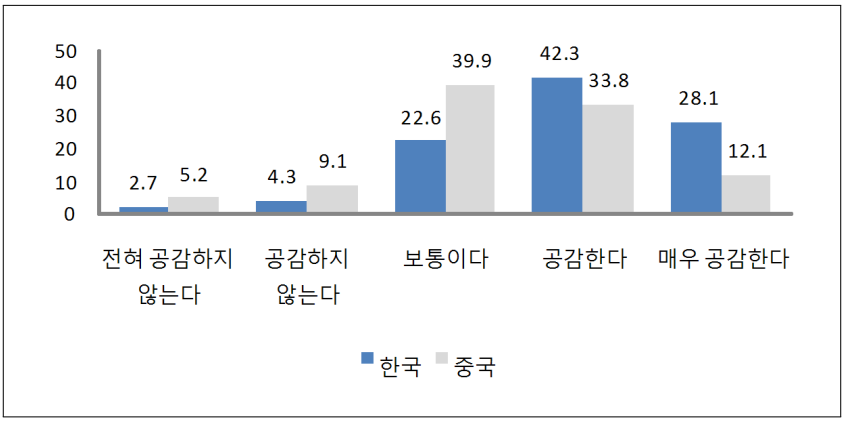
이에 비해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감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자국민으로서의 정체감에 대한 문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는 동아시아인이다'라는 진술에 대해 한국 학생들은 응답자의 50.7%가 공감한다고 한 반면, 중국 학생들은 27.8%만이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중국 학생들 가운데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4.6%로

표 3-81 아시아인으로서의 소속감 비교

| | |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 공감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공감한다 | 매우 공감한다 | $x^2$ (p) |
|---|---|---|---|---|---|---|---|
| 한국 | N | 27 | 43 | 226 | 424 | 282 | 147.258 (.000) |
| | % | 2.7% | 4.3% | 22.6% | 42.3% | 28.1% | |
| 중국 | N | 52 | 91 | 400 | 339 | 121 | |
| | % | 5.2% | 9.1% | 39.9% | 33.8% | 12.1% | |
| 전체 | N | 79 | 134 | 626 | 763 | 403 | 2005 |
| | % | 3.9% | 6.7% | 31.2% | 38.1% | 20.1% | 100.0% |

그림 3-78 아시아인으로서의 소속감 비교



같은 응답을 한 한국 학생들의 비율보다 약 10% 포인트 정도 더 높았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47.6%로 같은 응답을 한 한국 학생들의 비율보다 12.5%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학생들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자신이 동아시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중국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약 1/4정도에 불과하였고 비슷한 비율의 학생들은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동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감과 관련하여 한국 학생들 가운데 70.4%는 '나는 아시아인이다'라는 진술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 학생들은 45.9%가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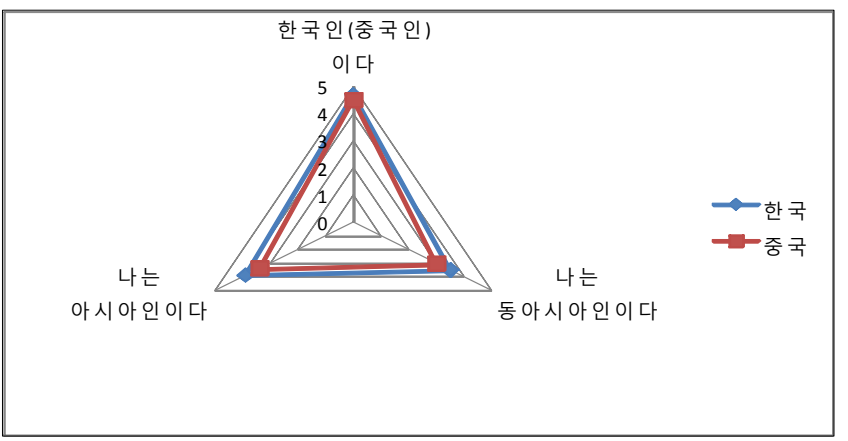
'나는 동아시아인다'라는 진술에 대한 응답과 비교해 볼 때, 한국 학생들의 경우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더 공감하는 학생의 비율이 19.4% 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공감하는 비율보다 18.1% 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시아라는 범주보다 동아시아라는 범주가 훨씬 더 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공감 정도가 양국 학생 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아시아라는 개념보다 더 소원하게 느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간의 악화된 관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과거사, 중화사상에서 비롯된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 등 여러 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 국민감정 차원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82 아시아지역 소속감 비교

| 내 용 | 국 가 | N | 평균 | 표준편차 | t(p) |
|---|---|---|---|---|---|
| 나는 한국인(중국인) 이다 | 한 국 | 1003 | 4.69 | .544 | 5.844 (.000) |
| | 중 국 | 1007 | 4.51 | .815 | |
| | 계 | 2010 | 4.60 | .699 | |
| 나는 동아시아인이다 | 한 국 | 1003 | 3.50 | 1.010 | 11.134 (.000) |
| | 중 국 | 1003 | 3.01 | .962 | |
| | 계 | 2006 | 3.25 | 1.016 | |
| 나는 아시아인이다 | 한 국 | 1002 | 3.89 | .954 | 11.643(.000) |
| | 중 국 | 1003 | 3.38 | .986 | |
| | 계 | 2005 | 3.64 | 1.002 | |

그림 3-79 아시아지역 소속감 비교




## 2) 국가별 아시아지역 문화에 대한 영향력 정도 비교

다음으로 양국의 학생들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아시아 지역 문화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양국의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가 갖는 영향력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상대국가의 문화적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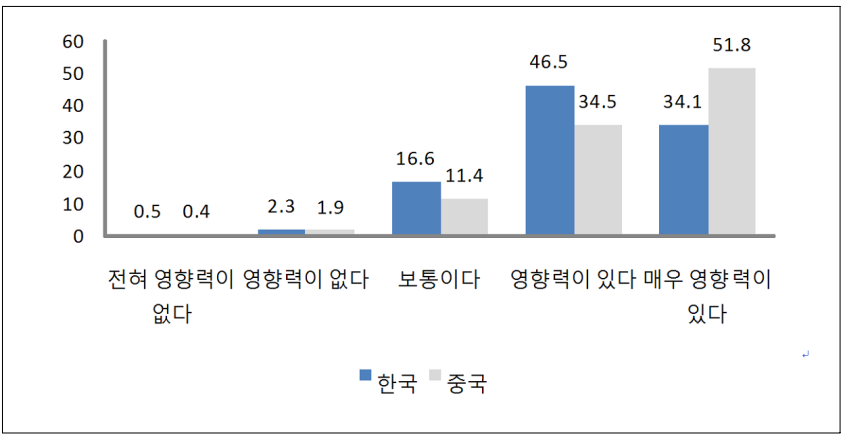
향력에 대한 평가 정도이다.

먼저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하여 중국 학생들 가운데 83.4%는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4%가 보통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 학생들의 80.6%는 중국 문화가 아시아 지역 문화에 대해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평가는 중국 학생들의 평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3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인식 비교**

| | | 전혀 영향력이 없다 | 영향력이 없다 | 보통이다 | 영향력이 있다 | 매우 영향력이 있다 | $x^2$ (p) |
|---|---|---|---|---|---|---|---|
| 한국 | N | 5 | 23 | 167 | 467 | 342 | 64.897 (.000) |
| | % | .5% | 2.3% | 16.6% | 46.5% | 34.1% | |
| 중국 | N | 4 | 19 | 115 | 347 | 521 | |
| | % | .4% | 1.9% | 11.4% | 34.5% | 51.8% | |
| 전체 | N | 9 | 42 | 282 | 814 | 863 | 2010 |
| | % | .4% | 2.1% | 14.0% | 40.5% | 42.9% | 100.0% |

**그림 3-80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인식 비교**



이에 비해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한국 학생들은 70.7%가, 중국 학생들은 63.8%가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층 사이에 일본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3-84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인식 비교**

| | | 전혀 영향력이 없다 | 영향력이 없다 | 보통이다 | 영향력이 있다 | 매우 영향력이 있다 | $x^2$ (p) |
|---|---|---|---|---|---|---|---|
| 한국 | N | 20 | 51 | 222 | 505 | 205 | 20.388 (.000) |
| | % | 2.0% | 5.1% | 22.1% | 50.3% | 20.4% | |
| 중국 | N | 47 | 66 | 250 | 480 | 161 | |
| | % | 4.7% | 6.6% | 24.9% | 47.8% | 16.0% | |
| 전체 | N | 67 | 117 | 472 | 985 | 366 | 2007 |
| | % | 3.3% | 5.8% | 23.5% | 49.1% | 18.2% | 100.0% |

**그림 3-81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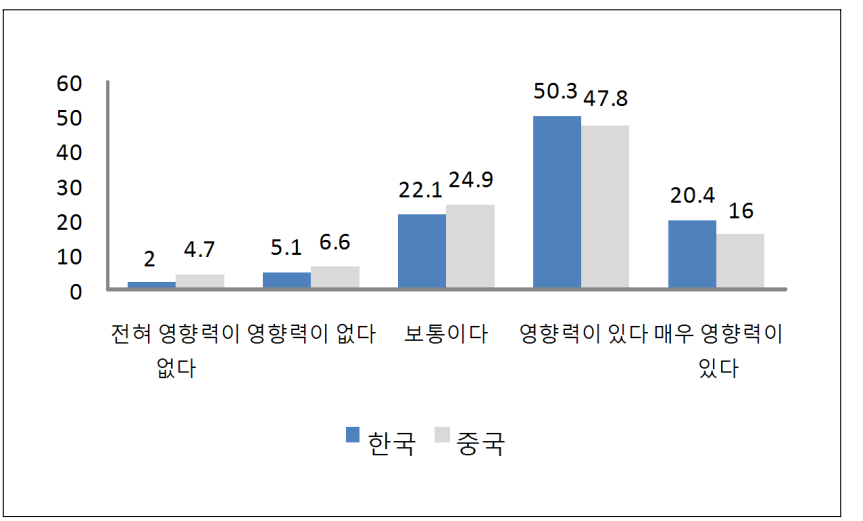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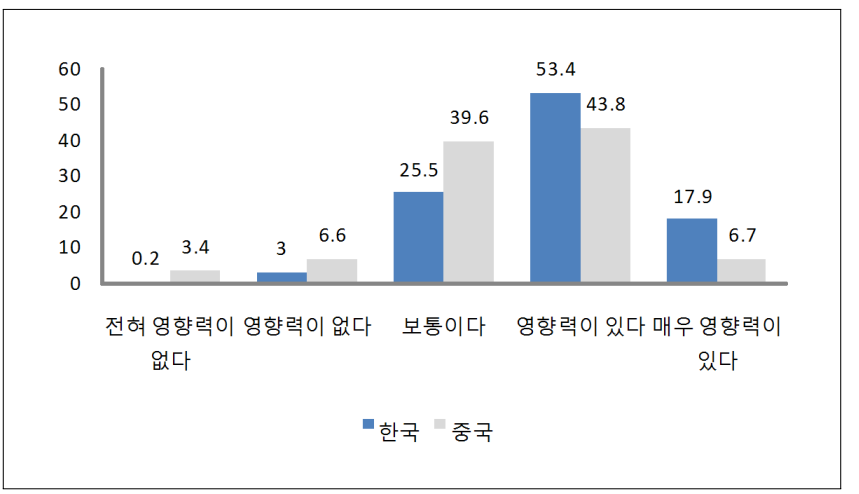


표 3-85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인식 비교

| | | 전혀 영향력이 없다 | 영향력이 없다 | 보통이다 | 영향력이 있다 | 매우 영향력이 있다 | $x^2$ (p) |
|---|---|---|---|---|---|---|---|
| 한국 | N | 2 | 30 | 256 | 535 | 179 | 132.814 (.000) |
| | % | .2% | 3.0% | 25.5% | 53.4% | 17.9% | |
| 중국 | N | 34 | 66 | 398 | 441 | 67 | |
| | % | 3.4% | 6.6% | 39.6% | 43.8% | 6.7% | |
| 전체 | N | 36 | 96 | 654 | 976 | 246 | 2008 |
| | % | 1.8% | 4.8% | 32.6% | 48.6% | 12.3% | 100.0% |

그림 3-82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인식 비교




반면에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한국 학생들의 71.3%가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중국 학생들은 50.5%가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3개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응답 분포를 비교해 보면, 한국 학생들은 중국(80.7%), 한국(71.3%), 일본(70.7%)의 순으로 해당 국가의 문화적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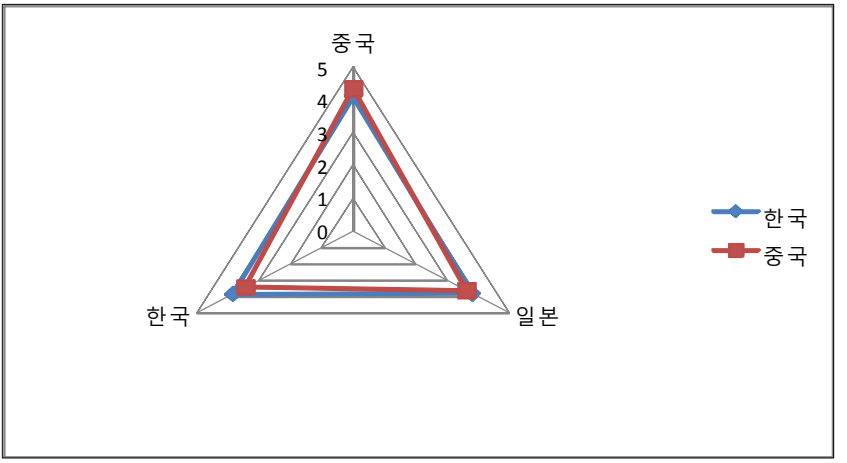
향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 학생들은 중국(83.4%), 일본(63.8%), 한국(50.5%)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한국 학생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중국 문화가 영향력이 있다고 한 반면, 중국 학생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자국 문화의 영향력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한국 문화가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본 문화가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한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내에서 한국 문화의 위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문화 교류를 통하여 한국 문화를 보다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3-86〉과 [그림 3-83〉은 3개 국가별 아시아 지역에서의 문화에 대한 영향력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국 학생들의 응답치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양국 학생들이 동일한 기준에 근거하여 응답하였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 국제 비교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찾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결과 해석에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 3-86 국가별 아시아 지역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 인식 비교**

| 내 용 | 국 가 | N | 평균 | 표준편차 | t(p) |
|---|---|---|---|---|---|
| 중국 | 한 국 | 1004 | 4.11 | .794 | -6.814 (.000) |
| | 중 국 | 1006 | 4.35 | .787 | |
| | 계 | 2010 | 4.23 | .799 | |
| 일본 | 한 국 | 1003 | 3.82 | .882 | 4.370 (.000) |
| | 중 국 | 1004 | 3.64 | .982 | |
| | 계 | 2007 | 3.73 | .938 | |
| 한국 | 한 국 | 1002 | 3.86 | .743 | 11.798 (.000) |
| | 중 국 | 1006 | 3.44 | .845 | |
| | 계 | 2008 | 3.65 | .823 | |

그림 3-83 국가별 아시아 지역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 인식 비교




### 3) 국가별 아시아 지역문화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비교

중국 학생들 가운데 자국의 문화가 지역문화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를 넘은 상황에서 자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79.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 및 그 우수성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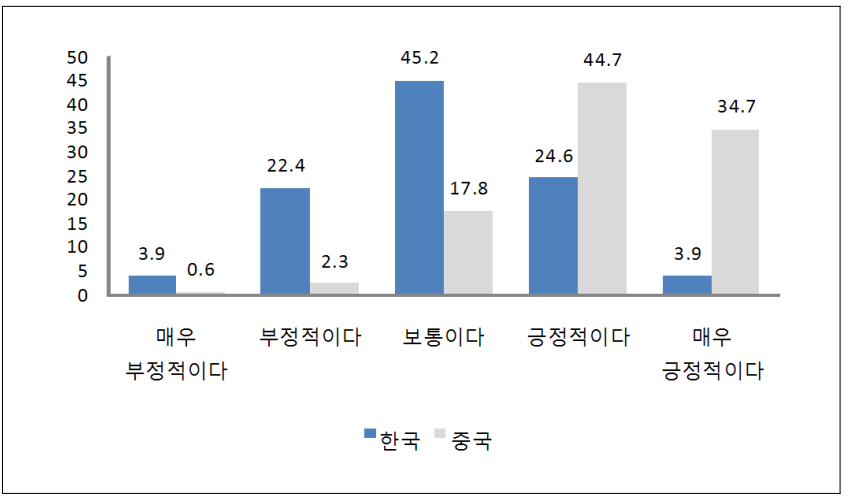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 학생들 가운데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28.5%인 반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도 이에 못지않은 26.3%로 나타났다. 즉 한국 학생들의 경우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시각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양국 학생들의 인식은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부

표 3-87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비교

| | | 매우 부정적이다 | 부정적이다 | 보통이다 | 긍정적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 | $x^2$ (p) |
|---|---|---|---|---|---|---|---|
| 한국 | N | 39 | 225 | 453 | 247 | 39 | 614.322 (.000) |
| | % | 3.9% | 22.4% | 45.2% | 24.6% | 3.9% | |
| 중국 | N | 6 | 23 | 179 | 450 | 349 | |
| | % | .6% | 2.3% | 17.8% | 44.7% | 34.7% | |
| 전체 | N | 45 | 248 | 632 | 697 | 388 | 2010 |
| | % | 2.2% | 12.3% | 31.4% | 34.7% | 19.3% | 100.0% |

그림 3-84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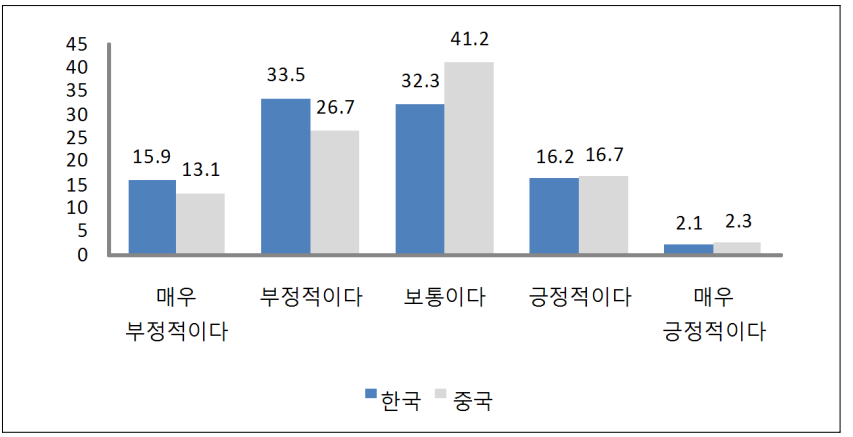



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49.4%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 학생들의 경우도 39.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국 학생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양국 학생들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전반적인 견해나 감정의 연장선에서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88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비교

| | | 매우 부정적이다 | 부정적이다 | 보통이다 | 긍정적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 | $x^2$ (p) |
|---|---|---|---|---|---|---|---|
| 한국 | N | 159 | 336 | 324 | 162 | 21 | 21.318 |
| | % | 15.9% | 33.5% | 32.3% | 16.2% | 2.1% | |
| 중국 | N | 132 | 269 | 415 | 168 | 23 | |
| | % | 13.1% | 26.7% | 41.2% | 16.7% | 2.3% | |
| 전체 | N | 291 | 605 | 739 | 330 | 44 | 2009 |
| | % | 14.5% | 30.1% | 36.8% | 16.4% | 2.2% | 100.0% |

그림 3-85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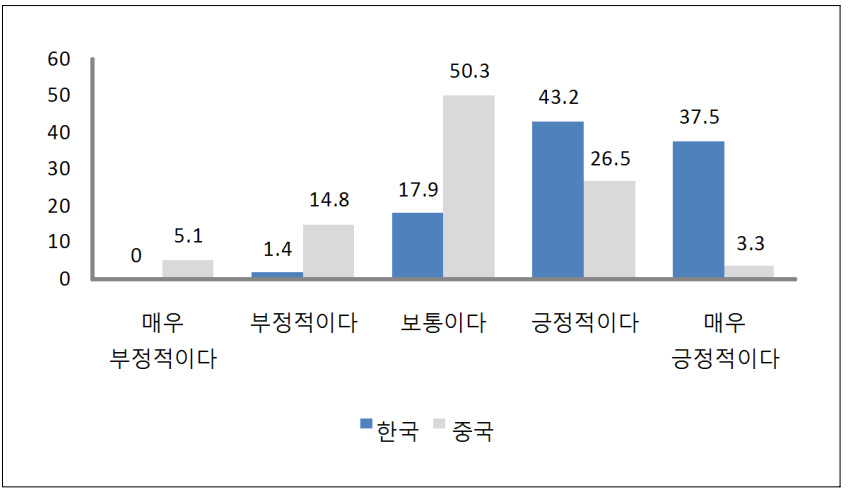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한국 학생들은 80.7%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7.9%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 학생들의 경우 29.8%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19%보다 약 10% 포인트 정도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89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비교

| | | 매우 부정적이다 | 부정적이다 | 보통이다 | 긍정적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 | $x^2$ (p) |
|---|---|---|---|---|---|---|---|
| 한국 | N | 0 | 14 | 179 | 433 | 376 | 646.645 (.000) |
| | % | .0% | 1.4% | 17.9% | 43.2% | 37.5% | |
| 중국 | N | 51 | 149 | 507 | 267 | 33 | |
| | % | 5.1% | 14.8% | 50.3% | 26.5% | 3.3% | |
| 전체 | N | 51 | 163 | 686 | 700 | 409 | 2009 |
| | % | 2.5% | 8.1% | 34.1% | 34.8% | 20.4% | 100.0% |

그림 3-86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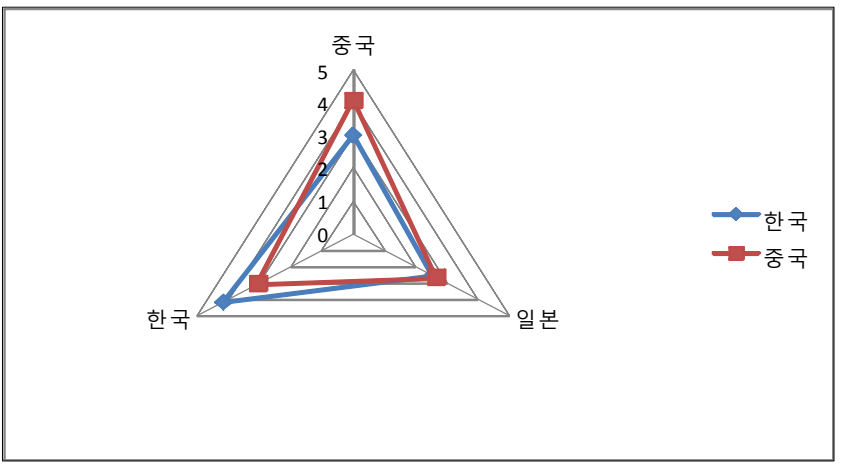



〈표 3-90〉에는 3개국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양국 학생들의 응답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3-90 국가별 아시아 지역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비교

| 내 용 | 국 가 | N | 평균 | 표준편차 | t(p) |
|---|---|---|---|---|---|
| 중국 | 한 국 | 1003 | 3.02 | .884 | -28.614 (.000) |
| | 중 국 | 1007 | 4.11 | .812 | |
| | 계 | 2010 | 3.56 | 1.007 | |
| 일본 | 한 국 | 1002 | 2.55 | 1.007 | -2.991 (.003) |
| | 중 국 | 1007 | 2.68 | .975 | |
| | 계 | 2009 | 2.62 | .993 | |
| 한국 | 한 국 | 1002 | 4.17 | .763 | 29.956 (.000) |
| | 중 국 | 1007 | 3.08 | .861 | |
| | 계 | 2009 | 3.62 | .978 | |

그림 3-87 국가별 아시아 지역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비교




### 4) 가장 협력해야 할 국가 비교

다음으로 양국의 학생들에게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응답결과가 〈표 3-91〉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 응답지에 제시된 5개 국가 가운데 미국을 가장 협력하여야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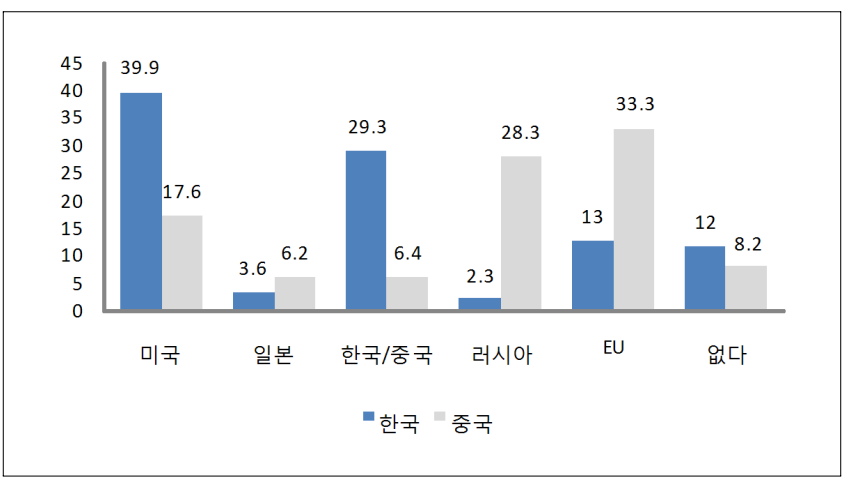
나라로 꼽은 학생의 비율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EU를 중요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중국 학생들은 EU를 가장 협력하여야 하는 나라로 선택한 비율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러시아, 미국의 순으로 가장 협력하여야 하는 나라로 선택하였다. 특히 한국을 가장 협력하여야 하는 나라로 선택한 중국 학생의 비율은 6.4%에 불과하여 일본을 선택한 비율

표 3-91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 비교

| | | 미국 | 일본 | 한국 (중국) | 러시아 | EU | 없다 | $x^2$ (p) |
|---|---|---|---|---|---|---|---|---|
| 한국 | N | 399 | 36 | 293 | 23 | 130 | 120 | 535.483 (.000) |
| | % | 39.9% | 3.6% | 29.3% | 2.3% | 13.0% | 12.0% | |
| 중국 | N | 160 | 56 | 58 | 257 | 302 | 74 | |
| | % | 17.6% | 6.2% | 6.4% | 28.3% | 33.3% | 8.2% | |
| 전체 | N | 559 | 92 | 351 | 280 | 432 | 194 | 1908 |
| | % | 29.3% | 4.8% | 18.4% | 14.7% | 22.6% | 10.2% | 100.0% |

그림 3-88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 비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국의 학생들이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협력하여야 하는 나라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5)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 형성에 대한 동의여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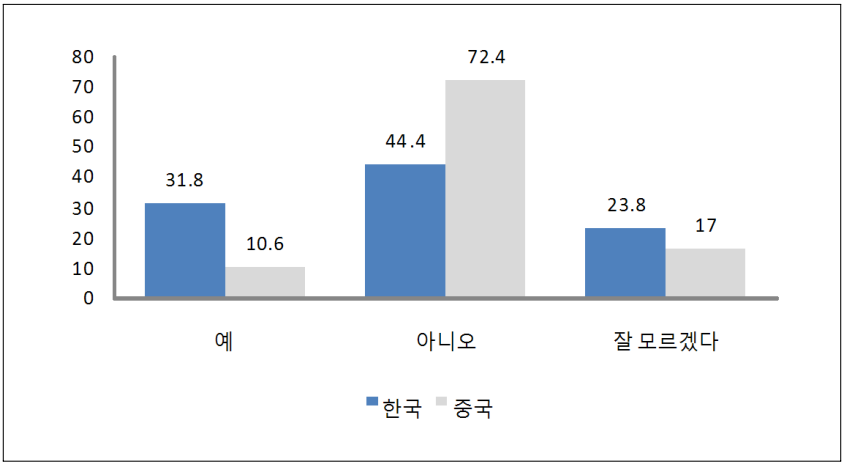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본 조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한 양국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이 지역 공동체 결성을 통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위상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은 EU나 NAFTA를 통한 북아메리카 공동체 등에 버금가는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견해는 우선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3-92〉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 가운데 44.4%, 중국 학생들 가운데 72.4%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학생의 경우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 학생의 경우

표 3-92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한 동의여부 비교**

| | | 예 | 아니오 | 잘 모르겠다 | $x^2$ (p) |
|---|---|---|---|---|---|
| 한국 | N | 319 | 446 | 239 | 183.957 (.000) |
| | % | 31.8% | 44.4% | 23.8% | |
| 중국 | N | 106 | 722 | 169 | |
| | % | 10.6% | 72.4% | 17.0% | |
| 전체 | N | 425 | 1168 | 408 | 2001 |
| | % | 21.2% | 58.4% | 20.4% | 100.0% |

그림 3-89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대한 의견 비교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중국 학생들 사이에 더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해 한·중·일 3국이 공통의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지역 공동체가 각각의 국가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영토 분쟁이나 과거 역사와 관련하여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 양국의 학생들이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양국 학생들에게 동아시아인이라는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이 현재로서는 단지 개념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대한 중국 학생들의 압도적인 반대는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G2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한국 및 일본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NAFTA를 통한 북미 공동체에서의 미국과 같은 역할을 동아

시아에서 중국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은 20대 초반인 본 조사의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별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4장 요약 및 결론

1. 요 약
2. 결론 및 정책제언

## 1. 요 약

### 가. 상대국에 대한 인지정도 및 이미지 분석결과 비교

먼저 상대국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에서 한국의 경우 중국 전반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국의 경우 이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에 비해 상대 국가에 대한 주관적 인지 정도가 더 낮았다. 상대국의 지리에 대한 인지 정도에서도 '모른다' 또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한국 학생들이 61.5%에 달하는 반면 중국 학생들은 40.8%가 '모른다' 또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함으로써 중국학생들에 비해 한국학생들의 중국 지리에 대한 주관적 인지 정도가 상당히 낮았다. 그리고 상대국의 역사에 대한 인지 정도에서는 전체 한국 응답자의 35.1%, 중국 응답자 37.7%가 상대국의 역사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범주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양국 학생 모두 상대국의 역사에 대한 주관적 인지 정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문항 응답에서 한국 학생들 가운데 중국 문화에 대해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4.2%에 그친 반면, 중국 학생들 가운데 한국 문화에 대해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5.7%로 약 1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상당 부분 한류의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 전반(23.7%), 역사(18.8%), 지리(22.7%) 등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경향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상대국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수준 비교에서 실제 양국의 학생들이 상대국의 문화자원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문화자원 5개 영역(문화예술자원, 지역자원,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 인물자원, 생활문화자원)에서 각 영역당 4개씩 항목을 제시, 총 20개의 상대국 문화자원 항목들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5개 영역 중 문화예술자원을 제외한 4개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냈다. 생활문화자원의 경우만 중국학생들이 한국학생들보다 알고 있다 응답한 개수가 높았고, 지역자원,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 인물자원 영역과 모든 영역 문화자원 항목을 총합한 경우에서는 한국학생들이 중국학생들 보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개수가 높게 나타났다.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문항 6개의 문항 중 한국 학생들은 복지 수준을 제외한 중국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수준, 자연, 관광지, 스포츠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는 반해, 중국 학생들은 복지 수준을 제외한 5개 문항의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상대국의 국민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실용을 추구한다'라는 문항을 제외한 '남을 배려한다', '매사에 적극적이다', '타문화에 개방적이다', '여유가 있다', '믿음직하다'의 5개 문항에서 한국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보다 상대국 국민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학생들의 한국 국민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이다.

## 나. 자국 및 상대국 문화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 분석결과 비교

본 조사에서는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에 가장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자국의 문화자원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모두 19개의 문화자원 유형을 설정하고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을 얻었다.

먼저 한국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문화예술자원, 지역자원,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 인물자원, 생활문화자원 영역으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자원 영역에서 한국 학생들이 가장 가치 있는 전통문학 작품으로 꼽은 것은 홍길동전이며, 현대문학작가로는 윤동주를 좋아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미술작품 장르 중에서는 도자기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전통놀이와 운동 중에서는 태권도, 무형문화재로는 판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었다. 대중문화 가운데서는 대중가요가 과반 이상의 선택을 받아 1위에 올랐다. 이것은 최근의 K-pop 강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자원 영역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유적지로는 불국사, 첨성대 등이 있는 경주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자연유산 중에서는 응답자 7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제주도가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위 자리에 올랐다. 한국 도시로는 예상대로 서울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 영역에서 한국을 대표할만한 역사적 발명품으로는 한글이 70% 이상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고 역사적 사건 중에서는 3·1운동을 선택한 응답자가 40% 이상이나 되었다.

인물자원 영역에서 세계에 가장 알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

대위인으로는 세종대왕이 60%에 가까운 지지를 얻어 1위에 꼽혔고 현대 위인 중에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가장 많은 응답자의 선택을 받았다. 스포츠스타 중에서는 김연아가 여자 응답자들의 높은 지지에 힘입어 1위를 차지했고, 박지성은 남자 응답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몇 % 뒤진 2위에 머물렀다.

마지막으로 생활문화자원 영역을 보면, 한국을 대표할만한 음식으로는 김치가 50% 가까운 응답자의 지지를 받아 최고로 꼽혔다. 한국 제품 중에서는 핸드폰이 절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의 강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랜드마크로 꼽힐 만한 현대건축물로는 인천공항을 지지한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 2위를 기록한 남산타워보다 10% 정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관광상품으로는 한류관광이 50%를 넘는 응답자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다. 지역축제 중에서는 세계적 명성을 누리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다. 보령머드축제가 부산국제영화제와 큰 격차 없이 2위 자리에 오른 것은 응답자들이 학생이라는 점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 학생들의 응답을 문화예술자원, 지역자원,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 인물자원, 생활문화자원 영역으로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자원 영역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학 및 도서로 가장 많은 중국 학생들이 지지한 작품은 사대명저이고 바로 그 뒤에 논어가 있다. 현대문학작가로는 루쉰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미술품으로는 문방사보를 꼽은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통놀이나 운동 중에서는 용춤 · 사자춤과 용선경기가 1, 2위를 차지했다. 무형문화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전통명절이라고 답

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바로 그 뒤를 중의(침구 · 추나)가 잇고 있다. 대중문화로는 장기와 희곡이 비슷한 지지를 얻어 1, 2위에 올라있다.

지역자원 영역에서 역사유역지로는 고궁박물관과 만리장성 등 많은 유적이 있는 베이징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그보다 조금 뒤처진 곳에 시안이 있다. 자연유산 중에서는 쓰촨성의 주자이거우가 40%에 가까운 지지를 얻어 중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 1위에 올랐다. 도시로는 베이징이 상하이보다 10% 정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여 수도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 영역에서 역사적 발명품으로는 한자가 응답자 3분의 1 이상의 지지를 얻어 독보적인 1위의 자리에 올랐다. 역사적 사건 중에서는 스포츠 제전인 베이징올림픽이 5 · 4운동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중국의 재부상을 전세계에 선포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인물자원 영역에서 중국을 대표할만한 고대위인으로는 진시황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동률 2위인 당태종 이세민과 제갈공명과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 현대위인 중에서는 저우언라이가 중국 국부 손문과 혁명영웅 마오쩌둥을 제치고 최고의 인물로 꼽혔다. 중국을 대표할만한 스포츠스타로는 농구선수 야오밍이 특히 남학생들이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단연 1위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생활문화자원 영역을 보면, 중국 대표음식으로는 명절 음식인 교자가 가장 많은 응답자의 지지를 얻었고 월병이 그 뒤를 이었다. 제품 중에서는 전통적인 품목인 비단과 도자기가 근소한 차이로 중국을 대표할만한 제품 1, 2 위에 올랐다. 중국의 랜드마크로 생각하는 현대건축물로는 상하이동방명주탑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그와 약간의 격

차를 두고 베이징인민대회당이 2위를 차지했다. 중국을 대표할만한 도시를 묻는 질문에서 베이징이 1위, 상하이가 2위였던 것과는 순위가 역전된 결과이다. 관광상품 중에서는 인문역사관광이 1위로 꼽혔는데 중국의 장구한 역사와 문화전통에 대한 중국 학생들의 자부심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지역축제로는 취푸국제공자문화제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는데, 2위인 상하이국제예술제를 10% 이상 차이로 앞섰다. 최근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강화되어온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 해석과 관련해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실은 순위와 수치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각 문항에서 보기를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서 순위와 수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 보기 개수를 늘리게 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에 따라 수치가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위도 바뀔 수 있다. 보기를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을 대표할만한 전통문학 및 도서로 사대명저가 1위에 올랐는데, 만약 사대명저를 개별 작품(삼국연의, 서유기, 수호전, 홍루몽)으로 나눠서 보기를 제시했더라면 논어가 1위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번에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중국작가 모옌(莫言)이라든가 다른 저명작가들을 보기에 더 넣게 되면 이번 조사에서 얻은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수치와 순위를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대로 문항에 따라서는 응답자의 성과 거주지역이 응답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국 모두 응답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성, 동일한 지역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때로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설문 내용, 보기 구성, 조사 대상자의 지역적 분포 등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순위와 수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에게 각각 자국과 상대국의 문화자원 유형 중에서 세계에 알릴만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국의 문화자원 유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최근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류나 스포츠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들이나 한국 고유의 전통이나 역사, 자연자원 등과 관련된 문화자원 유형들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중문화 외에 현대적 성격이 강한 문화자원들은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에 비해 중국 학생들은 문화전통과 역사, 자연과의 관련성이 높은 문화자원 유형들을 높게 평가하고 대체로 현대적 성격이 강한 문화자원 유형들에는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 대중문화와 스포츠 영역에서 이룬 현대적 성취와 한국 고유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갖는 데 비해, 중국 학생들은 자국의 전통문화와 역사, 자연자원에 대한 자부심이 훨씬 더 강하다.

상대국의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한국 학생들의 경우 중국의 역사와 자연, 전통과 관련된 문화자원 유형들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들은 대체로 여행 혹은 관광과의 연관성이 큰 문화자원 유형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관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적 성격이 강한 중국 문화자원 유형들에 대한 평가는 매우 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 문화자원 유형들 중에서 한류 현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들, 여행이나 관광과 연관성이 높은 것들, 그리고 한국의 현대적 성과물들이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 역시 중국 학생들의 관심사가 크게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 다. 한중일 국가관계 및 국제관 분석결과 비교

동북아시아의 주요 3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 향후 전망 및 국가 간 주요 분쟁에 대한 한·중 양국 학생들의 인지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한중 관계에 대한 평가에서 한중 관계를 '보통이다'라고 평가한 비율이 한국과 중국 학생들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중 관계에 대한 전망에서는 한국학생들과 중국학생들 대부분 '현재와 같을 것이다'와 '좋아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자국과 일본과의 관계와 전망에 대한 문항에서는 양국 학생 모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 학생들의 중일관계, 중국학생들이 바라본 한일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중·일간 분쟁사안에 대한 지식 수준 문항 중 독도문제에 대해 괄목할만한 점은 절반이 넘는 중국학생들 또한 독도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센카구열도(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학생들은 절반가량이 센카구열도(댜오위다오) 문제를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국 학생들(87.3%)이 한국 학생들(67.8%)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학생들(91.7%)이 중국 학생들(76.9%)보다 알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와 관련이 있는 문제로 양국의 학생 대부분이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중국 학생들의 경우 37.1%만이 알고 있다, 28.1%는 모른다고 응답하여 다른 문제에 비해 이 문제에 대한 중국 학생들의 인지 정도가 낮았다.

한중 학생들의 국제관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 아시아지역 소속감에 대한 질문에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 거의 대부분은 자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갖고 있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감을 묻는 '나는 동아시아인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한국 학생들의 절반정도는 공감한 반면 중국 학생들은 27.8%만이 공감한다라고 응답하였고,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24.6%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감에서도 한국 학생들(70.4%)이 중국 학생들(45.9%)보다 '나는 아시아인이다'라는 진술에 더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한중 학생들의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에 대한 영향력 정도에 대한 응답 비교로 한국 학생들은 중국(80.7%), 한국(71.3%), 일본(70.7%)의 순으로, 중국 학생들은 중국(83.4%), 일본(63.8%), 한국(50.5%)의 순으로 문화적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에서는 한국 학생들은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긍정적인 견해(28.5%)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견해(26.3%)도 비슷한 비율로 보여 중국 문화 영향력에 대한 경계적인 시선이 나타났으며,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부정적인 면을 보였다. 그리고 중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29.8%)이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19%)보다 높았다.

가장 협력해야 할 국가 비교 질문 응답에서 한국 학생들은 미국(39.9%), 중국(29.3%), EU(13.0%) 순으로, 중국 학생들은 EU(33.3%), 러시

아(28.3%), 미국(17.6%)의 순으로 선택했다.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 형성에 대한 동의여부에서 양국 학생들의 견해 모두 부정적이었는데, 특히 중국 학생들(72.4%)이 한국 학생들(44.4%) 보다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 형성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결론 및 정책제언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이 상대국에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청소년들의 지식수준이 중국청소년들에 비해 높았다. 생활문화자원만 빼고 지역, 역사, 인물, 등 모든 영역에서 한국청소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국에 대한 주관적 인지 정도에서는 한국청소년들이 더 낮았다.

한국청소년들은 중국에 대해 복지수준 외에 중국의 문화, 예술, 자연, 관광지, 스포츠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반대로 중국청소년들은 한국에 대해 복지수준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문화, 예술, 자연, 관광지, 스포츠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편이지만 한국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중국청소년들은 한국의 생활문화, 복지수준 등 현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긍정적이고 그러한 것을 향유하고 있는 한국 사람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청소년들은 자국의 문화, 예술, 지역, 역사, 자연자원 등에 대한 자부심이 한국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았으며 한국청소년들 역시 이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한국청소년들은 대중문화와 스포츠 영역에서 이룬 성취와 한국고유의

전통이나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청소년들은 역시 한류와 연관된 것, 여행이나 관광과 관련성이 높은 것 외에 한국의 현대적 성과물 등에 대해 고르게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한·중 청소년은 동북아 국가관계에 있어 상대국에는 비교적 호의적인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이보다 부정적이다. 동북아국가 간 영토문제와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중국학생들이 한국학생에 비해 지식주준이 높았으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동해/일본해 표기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국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 한·중 청소년 모두 자국에 대한 정체성이 높았으나 한국청소년들이 중국청소년들에 비해 동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방성을 소지하고 있었다. 중국청소년들은 한국청소년들에 비해 동아시아나 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청소년들이 중화주의로 인해 지역 및 세계에 대한 개방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여 향후 동북아 지역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지역 문화적 지형에 있어 한국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청소년들은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문화적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하여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가장 낮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일본에 비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더 긍정적으로 보았다. 한국청소년들은 동북아지역 문화적 지형에 있어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문화적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긍정과 동시에 부정하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양국 청소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과 정책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한·중 청소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퀴즈대회 개최

한국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중국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중국청소년들은 한국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으면서도 한국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양국 청소년의 상대국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양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한·중 대학생 퀴즈대회를 개최한다. 양국의 역사, 문화, 자연, 예술, 언어, 습관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퀴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국 대학을 순방하며 개최한다. KBS 1 TV '도전 골든벨' 과 같은 프로그램을 한·중 양국에서 진행한다. 이를 위해 기업 및 방송사의 협찬을 조직하며 양국 청년들의 요리경연, 노래경연 등을 삽입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한·중 청년의 관심을 유인한다. 점차적으로 지역 범위를 넓혀 대만, 몽골, 일본 등으로 확대하여 동북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간다.

### 나. 한·중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균형감 있는 소재 개발 필요

한국청년은 중국의 문화, 예술, 자연, 역사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점이 양국 간 교류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청소년의 경우, 한국인에 대해 막연한 호의적 감정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문화나 생활문화, 현대적 성과 등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한국 문화예술, 역사, 자연 등에 대한 관심은 떨어진다. 반면 자국의 문화예술, 역사, 자연 등에 대해 자부심이 강하다.

한국청년들은 중국의 문화예술, 역사, 자연 등에 대해 높게 평가하기에

상호교류에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지만 중국청년들의 중화주의는 양국 간 청소년교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청소년 교류 시 양국 청소년의 관심만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면 한국청소년에게는 중국의 문화예술, 역사, 자연자원 등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중국청소년에게는 한국의 대중문화, 생활문화, 현대적 성과물을 주요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지만 중국청소년들에게 중국문화와 차별화된 한국 고유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하는 균형감 있는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문화를 중국문화의 변방으로 취급하지 않고 한국 고유문화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어야 양국 청소년의 문화적 자부심과 상호존중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다. 한·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다양한 소재 제안

한·중 청소년교류 시 상대국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을 접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학생들에게는 중국청년들이 자국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 제시한 문화예술자원의 사대명저, 논어, 문방사보, 용춤·사자춤, 용선경기, 중의(침구, 추나), 지역자원으로 쓰촨성의 주자이거우, 인물자원으로 진시황, 당태종, 제갈공명, 저우언라이, 야오밍, 생활문화자원으로 교자, 월병, 상하이 동방명주탑, 지역축제로 취푸국제공자문화제 등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역으로 중국학생들에게는 대중가요(K-pop) 등 대중문화와 더불어 문화예술영역에서 홍길동전, 윤동주, 태권도, 판소리, 지역자원으로 경주, 제주도, 역사자원으로 3·1운동, 인물자원으로 세종대왕,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김연아, 생활문화자원으로 김치, 핸드폰, 인천공항, 부산국제영화

제 등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을 것이다.

### 라. 한·중 청소년의 유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정기적인 한·중 청소년캠프 개최

한·중 청소년의 상호교류를 위해서는 자국에 거주하고 있는 인적 자원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주하는 국가의 인적조직에서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한국, 중국에서 유학생 동아리와 캠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학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한·중 유학생 동아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들이 문화, 예술, 역사, 언어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중 대학생 캠프를 개최한다.

현재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한·중 청소년교류사업으로 여성가족부는 1992년 수교 후 양국합의에 의해 연 20명씩 교류하고 있는 한·중 국가간 교류와 2003년 한·중 양국 정상의 청소년 교류 확대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한·중 특별교류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한·중 청소년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국의 한국어과 학생에 대한 초청연수, 한국의 중국어과 학생에 대한 파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모두 초청과 파견으로 구성되는 사업이다.

국가차원에서 한·중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아리 형성을 촉진·지원하는 사업이 없다. 이들이 양국의 유학생 들이 동아리를 형성하여 자국 청소년과 교류하며 자국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캠프의 개발이 필요하다.

### 마. 한·중 청소년 여행촌 및 여행벨트 개발

한국과 중국 청소년의 상대국에 대한 관심은 여행과 관광에 쏠려 있다. 한국청소년은 중국의 역사와 자연, 전통과 관련된 문화자원 유형들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 청소년들은 한국 문화자원 유형들 중에서 한류 현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들, 여행이나 관광과 연관성이 높은 것들, 그리고 한국의 현대적 성과물들에 관심이 많다. 양국 청소년 간에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도록 안전하고 값싼 숙박시설과 이들의 관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행벨트의 개발이 필요하다. 서울, 북경, 상해, 부산 등에 외국 청소년 전용숙소를 개발한다. 청소년수련관 등을 활용한 외국청소년 거점시설을 개발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여행벨트를 개발하여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간 파트너십 강화

한국의 청소년들은 동북아지역의 개방적 · 창조적 문화발전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중국의 중화주의, 일본의 민족주의와 마주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 속에 중국의 문화만을 긍정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북한이라는 위협 요인이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동북아 발전 모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양국 청년의 시각은 싸늘하다. 동북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한 · 중 청소년은 일본의 침략이라는 근대사적 공유를 토대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족적 폐쇄성을 억제하고 동북아 발전의 파트너로서 번영과 평화라는 가치를 지켜나가도록 하는 교류방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부록

1. 설문조사지(한국용)
2. 설문조사지(중국용)
3. 부표

# 1. 설문조사지(한국용)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조사(한국청년용) | ID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 연구입니다. 대답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며, 단순히 본인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므로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9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 장수현 · 정계영 올림

* 연락처 : 02-2188-8804 / 6913-8903
* 이메일 : chycon@nypi.re.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 응답자 선정 질문 ●

| | |
|---|---|
| 선문 1. 성 별 | ① 남성 ② 여 성 |
| 선문 2. 연 령 | [ 만 세 ] |
| 선문 3. 구 분 | ① 대학생 ② 대학원생 |

Part Ⅰ. 중국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

**문 1.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을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운 곳에 ○표 해 주십시오.**

| | 전혀 모른다 | 모른다 | 보통이다 | 안다 | 잘 안다 |
|---|---|---|---|---|---|
| 1) 중국 전반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중국 역사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중국 문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중국 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2. '중국'에 대한 다음 항목 중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홍루몽 ② 장가계 ③ 마장(麻將) ④ 모택동 ⑤ 자금성
⑥ 상하이 ⑦ 등소평 ⑧ 동방명주 ⑨ 진시황 ⑩ 태극권
⑪ 만리장성 ⑫ 치파오 ⑬ 경극 ⑭ 북경오리 ⑮ 불설관무량수불경
⑯ 5·4운동 ⑰ 야오밍 ⑱ 신주 우주선 ⑲ 상하이국제영화제 ⑳ 베이징올림픽

**문 3. 평소 중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각 항목별로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표 해 주십시오.**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문화유산이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문화예술 수준이 높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자연이 아름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관광지가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스포츠 강국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복지 수준이 높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4. 평소 중국 국민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가까운 곳에 ○해 주십시오.**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남을 배려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매사에 적극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실용을 추구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타문화에 개방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여유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믿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5. 다음은 중국의 문화자원 유형입니다. 귀하는 어느 것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까? 다음 항목 중에서 우선순서에 따라 3 가지를 골라 그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3 순위 :_____)**

① 전통문학 및 도서 ② 현대문학 및 도서 ③ 미술작품 ④ 전통문화 ⑤ 무형문화재
⑥ 대중문화 ⑦ 역사유적지 ⑧ 자연유산 ⑨ 도시 ⑩ 역사적 발명품
⑪ 역사적 사건 ⑫ 고대 위인 ⑬ 현대 위인 ⑭ 스포츠 스타 ⑮ 음식
⑯ 제품 ⑰ 현대건축물(랜드마크) ⑱ 관광상품 ⑲ 지역축제

Part－II. 우리나라 문화자원의 가치

**문 6. 다음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자원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에 알릴만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해 주십시오.**

**문 6-1. 고전문학작품 · 도서 중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① 구운몽 ② 전우치전 ③ 홍길동전 ④ 양반전 ⑤ 춘향전
⑥ 심청전 ⑦ 금오신화 ⑧ 사씨남정기 ⑨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 6-2. 현대문학작가 중에서는 누구입니까?**

① 한용운 ② 이광수 ③ 염상섭 ④ 이상 ⑤ 윤동주 ⑥ 김소월 ⑦ 황순원 ⑧ 박완서
⑨ 이문열 ⑩ 박경리 ⑪ 신경숙 ⑫ 김훈 ⑬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 6-3. 미술작품 중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① 공예품(매듭, 자개, 칠) ② 도자기 ③ 비디오아트 ④ 사진
⑤ 설치미술 ⑥ 동양화 ⑦ 서양화 ⑧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 6-4. 전통놀이 혹은 운동 중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① 태권도 ② 태껸 ③ 제기차기 ④ 윷놀이 ⑤ 팽이치기
⑥ 그네타기 ⑦ 널뛰기 ⑧ 씨름타기 ⑨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 6-5. 무형문화재 중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① 판소리 ② 단오제 ③ 탈춤 ④ 강강술래 ⑤ 농악
⑥ 타령 ⑦ 종묘제례악 ⑧ 줄타기 ⑨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 6-6. 대중문화 중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① 대중가요(K-pop) ② 영화 ③ TV 드라마 ④ 뮤지컬 ⑤ 연극
⑥ 애니메이션 ⑦ 만화 ⑧ 컴퓨터게임 ⑨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 7. 우리나라 지역자원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에 알릴만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해 주십시오.**

**문 7-1. 역사유적지 중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① 경주(불국사, 첨성대 등) ② 안동(하회마을) ③ 남대문 ④ 경복궁 ⑤ 해인사 (팔만대장경)
⑥ 김해 가야 유적 ⑦ 낙화암 ⑧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 7-2. 자연유산 중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① 제주도 ② 강화도 ③ 설악산 ④ 지리산 ⑤ 다도해상국립공원
⑥ 순천만 ⑦ 홍도 ⑧ 태안반도 ⑨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 7-3. 도시 중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 8. 우리나라 역사적 발명품과 역사적 사건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에 알릴만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해 주십시오.**

**문 8-1. 역사적 발명품 중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① 한글 ② 인쇄기술(직지심경, 팔만대장경) ③ 도자기(상감청자) ④ 한복 ⑤ 거북선
⑥ 신기전 ⑦ 온돌 ⑧ 대동여지도 ⑨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 8-2. 역사적 사건 중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① 3·1운동 ② 6.25 전쟁 ③ 4.19 항쟁 ④ 5.18 광주 민주화 운동 ⑤ 88올림픽
⑥ 2002 서울 월드컵 ⑦ 대전엑스포 ⑧ 여수엑스포 ⑨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 9. 우리나라 인물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에 알릴만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해 주십시오.**

**문 9-1. 고대 위인 중에서는 누구입니까?**

① 광개토대왕 ② 강감찬 ③ 김유신 ④ 원효대사 ⑤ 최치원
⑥ 최영 ⑦ 세종대왕 ⑧ 이순신 ⑨ 율곡 이이 ⑩ 허준
⑪ 장영실 ⑫ 신사임당 ⑬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 9-2. 현대 위인 중에서는 누구입니까?**

① 신채호 ② 유관순 ③ 안중근 ④ 김구 ⑤ 박정희
⑥ 김대중 ⑦ 반기문 ⑧ 백남준 ⑨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 9-3. 스포츠 스타 중에서는 누구입니까?**

① 박지성 ② 김연아 ③ 박태환 ④ 박세리 ⑤ 손기정 ⑥ 박찬호 ⑦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10. 우리나라 생활자원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에 알릴만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해 주십시오.**

**문 10-1. 음식 중에서는 무엇입니까?**

① 김치 ② 불고기 ③ 비빔밥 ④ 인삼 ⑤ 라면
⑥ 곱창 ⑦ 막걸리 ⑧ 소주 ⑨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 10-2. 제품 중에서는 무엇입니까?**

① 핸드폰 ② 가전제품(TV, 냉장고) ③ 자동차 ④ 반도체
⑤ 패션(의류) ⑥ 화장품 ⑦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 10-3. 현대건축물(랜드마크) 중에서는 무엇입니까?**

① 63빌딩 ② 남산타워 ③ 부산 팬텀시티 ④ 예술의 전당 ⑤ 서울역사박물관
⑥ 인천공항 ⑦ 코엑스 ⑧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 10-4. 관광상품 중에서는 무엇입니까?**

① 의료관광(성형) ② 쇼핑관광 ③ 한류관광 ④ 공연관광 ⑤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 10-5. 지역축제 중에서는 무엇입니까?**

① 보령 머드축제 ② 함평 나비축제 ③ 대관령 눈꽃축제 ④ 강릉 단오제
⑤ 인제 빙어축제 ⑥ 화천 산천어 축제 ⑦ 이천 도자기 축제 ⑧ 부산 국제영화제
⑨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⑩ 락페스티벌(지산 등) ⑪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11. 우리나라 문화자원 유형 중 세계에 알릴만한 <u>가장</u>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항목 중에서 우선순서에 따라 3 가지를 골라 그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3 순위 :_____)**

① 전통문학 및 도서 ② 현대문학 및 도서 ③ 미술작품 ④ 전통문화 ⑤ 무형문화재
⑥ 대중문화 ⑦ 역사유적지 ⑧ 자연유산 ⑨ 도시 ⑩ 역사적 발명품
⑪ 역사적 사건 ⑫ 고대 위인 ⑬ 현대 위인 ⑭ 스포츠 스타 ⑮ 음식
⑯ 제품 ⑰ 현대건축물(랜드마크) ⑱ 관광상품 ⑲ 지역축제

## Part—III. 한·중·일의 국가 관계

**문12. 현재 한·중·일 각 국가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나쁘다 | 나쁘다 | 보통이다 | 좋다 | 매우 좋다 |
|---|---|---|---|---|---|
| 1) 한 · 중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한 · 일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중 · 일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3. 한·중·일 각 국가의 관계가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것, 혹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나빠질 것이다 | 나빠질 것이다 | 현재와 같을 것이다. | 좋아질 것이다 | 매우 좋아질 것이다 |
|---|---|---|---|---|---|
| 1) 한 · 중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한 · 일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중 · 일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4. 한·중·일 3국 간에 일어나는 다음과 같은 분쟁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 전혀 모르고 있다 | 모르고 있다 | 보통이다 |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
| 1) 독도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센카구열도 분쟁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야스쿠니 신사참배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일본역사교과서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일본군 '위안부'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동해/일본해 표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Part－Ⅳ. 국제관

**문15. 다음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 공감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공감한다 | 매우 공감한다 |
|---|---|---|---|---|---|
| 1) 나는 한국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동아시아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아시아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6. 다음 나라들이 아시아에서 가지는 문화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영향력이 없다 | 영향력이 없다 | 보통이다 | 영향력이 있다 | 매우 영향력이 있다 |
|---|---|---|---|---|---|
| 1) 중국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일본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한국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7. 아시아지역에서 다음 국가의 문화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 매우 부정적이다 | 부정적이다 | 보통이다 | 긍정적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 |
|---|---|---|---|---|---|
| 1) 중국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일본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한국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8. 다음 국가 중 한국이 <u>가장</u> 협력해야 할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미국 ② 일본 ③ 중국 ④ 러시아 ⑤ EU(유럽 연합)
⑥ 없다

**문19.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유럽연합(EU)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을 없애고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연합(EU)과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모르겠다

▣ 응답자 특성 관련 질문

**[통계-1] 가정의 소득수준은?**

① 상 ② 중 ③ 하

**[통계-2] 귀하는 한국인임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십니까?**

① 매우 자랑스럽다 ② 어느 정도 자랑스럽다
③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④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2. 설문조사지(중국용)

| 中韩青年的国际观与文化资源价值认知调查问卷（中国青年用） | ID | | | | | |
|---|---|---|---|---|---|---|

亲爱的青年朋友：

您好！

为了解中韩两国青年的国际观与文化资源价值认知度，建立东北亚文化共同体，我们正在开展这一调查活动。您的答案只是我们了解青年人想法的一个途径，不要求您做出对或错的判断，您只需要按照您的想法回答即可。

我们保证，我们将严格保护您的个人隐私，调查所得出的结果也仅用于学术研究。

感谢您的支持与合作！

2012年9月

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

尹彻庆　张秀贤　郑继永 敬致

＊电　　话:: 82+2+2188-8804/6913-8903

＊电子邮件 : chyoon@nypi.re.kr

| ● 基本情况 ● | |
|---|---|
| 问题 1. 性　　别 | ① 男　　② 女 |
| 问题 2. 年　　龄 | 〔 _____ 周岁 〕 |
| 问题 3. 身份类型 | ① 本科生　② 研究生 |

## Part Ⅰ. 对韩国的认知度与关心程度

问题 1. 您对韩国(Republic of Korea) 了解有多少? 请在相应的地方画○。

| | 完全不知道 | 不太知道 | 一般 | 知道些 | 很了解 |
|---|---|---|---|---|---|
| 1) 韩国整体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韩国历史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韩国文化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韩国地理 | ① | ② | ③ | ④ | ⑤ |

问题2. 有关“韩国”的下列项目中，请选出所有您知道或者听说过的项目。

① 春香传 ② 济州岛 ③ 韩流 ④ 金大中 ⑤ 景福宫
⑥ 仁川 ⑦ 潘基文 ⑧ 南山塔 ⑨ 世宗大王 ⑩ 跆拳道
⑪ 南大门 ⑫ 韩服 ⑬ 盘索里 ⑭ 泡菜 ⑮ 八万大藏经
⑯ 5.18光州民主化运动 ⑰ 朴智星 ⑱ 三星盖世手机
⑲ 釜山国际电影节 ⑳ 2002首尔世界杯

问题3. 平时对韩国的印象如何? 请在符合您想法的序号上画○。

| | 完全不是 | 不是 | 一般 | 认可 | 非常认可 |
|---|---|---|---|---|---|
| 1) 文化遗产多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文化艺术水平高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自然风光秀丽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观光地方多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是一个体育强国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福利水平高 | ① | ② | ③ | ④ | ⑤ |

问题 4. 平时对韩国民众的印象如何？请在相应的地方画○。

| | 完全不是 | 不是 | 一般 | 认可 | 非常认可 |
|---|---|---|---|---|---|
| 1）能照顾到别人 | ① | ② | ③ | ④ | ⑤ |
| 2）做事认真积极 | ① | ② | ③ | ④ | ⑤ |
| 3）追求实用 | ① | ② | ③ | ④ | ⑤ |
| 4）对异文化保持开放 | ① | ② | ③ | ④ | ⑤ |
| 5）心态轻松 | ① | ② | ③ | ④ | ⑤ |
| 6）可依赖 | ① | ② | ③ | ④ | ⑤ |

问题5. 以下是韩国文化资源的类别。您对哪一种最为关心？请在以下选项中按重要程度选出3种。
（第1个 ：_____），（第2个:_____），（第3个:_____）

① 传统文学与图书 ② 现代文学与图书 ③ 美术作品 ④ 传统文化
⑤ 非物质文化遗产 ⑥ 大众文化 ⑦ 历史遗迹 ⑧ 自然遗产
⑨ 城市 ⑩ 历史发明 ⑪ 历史事件 ⑫ 古代伟人
⑬ 当代伟人 ⑭ 体育明星 ⑮ 饮食 ⑯ 产品
⑰ 当代地标性建筑 ⑱ 旅游商品 ⑲ 地方节庆

## Part Ⅱ. 中国文化资源的价值

问题6. 以下问题是关于中国文化艺术资源价值的问题，请在您认为<u>最适合</u>向世界广泛传播的资源类别上画○。

问题 6-1. 古典文学作品、图书?
① 四大名著 ② 诗经 ③ 资治通鉴 ④ 战国策 ⑤ 金瓶梅
⑥ 论语 ⑦ 史记 ⑧ 易经
⑨ 其它(请具体填写:_____)

问题 6-2. 现当代文学作家?
① 鲁迅 ② 肖红 ③ 韩寒 ④ 梁实秋 ⑤ 朱自清 ⑥ 钱钟书 ⑦ 蒋方舟 ⑧ 茅盾
⑨ 王安忆 ⑩ 巴金 ⑪ 余秋雨 ⑫ 冰心 ⑬ 其它(请具体填写:_____)

问题 6-3. 美术作品?
① 苏州刺绣/中国结 ②风筝 ③ 文房四宝/书法 ④ 对联
⑤ 泥人面塑/皮影戏 ⑥国画/祥云图案 ⑦ 瓷器
⑧ 其它(请具体填写:_____)

问题 6-4. 传统游戏或运动类?
① 推铁环 ② 赛龙舟 ③ 抽陀螺 ④ 跳绳/跳皮筋 ⑤ 舞龙/舞狮
⑥ 踢毽子 ⑦ 捉迷藏 ⑧ 弹弓
⑨ 其它(请具体填写:_____)

问题 6-5. 非物质文化遗产?
①全聚德/各地美食 ②传统节日（过年等/对联/年画/铁画）
③苏绣 ④变脸/皮影/傩戏
⑤唐三彩/紫砂/陶瓷 ⑥功夫/气功/拳术类
⑦剧目/田歌/花鼓/说唱类 ⑧中医针灸推拿
⑨其它(请具体填写:_____)

问题 6-6. 大众文化?
① 麻将 ② 小品 ③ 中国象棋 ④ 戏曲 ⑤ 跑旱船
⑥ 相声 ⑦ 气功 ⑧ 海派清口（周立波等）
⑨ 其它(请具体填写:_____)

问题 7. 以下问题是关于中国地方资源文化价值的问题，请在您认为最适合向世界广泛传播的资源类别上画○。

问题 7-1. 历史遗迹?
① 北京（博物院/故宫/长城等） ②西安（兵马俑、始皇陵等）
③ 墓葬（长沙马王堆，洛阳古墓等） ④文化源头（红山、河南商殷遗址）
⑤ 三孔（孔府、孔庙、孔林等） ⑥四大古城（平遥等）
⑦ 四大石窟等
⑧ 其它(请具体填写:_____)

问题 7-2. 自然遗产?
① 九寨沟（四川） ② 黄龙（四川） ③ 武陵源（湖南）
④ 三江并流（云南） ⑤ 三清山（江西）
⑥ 大熊猫栖息地（四川） ⑦ 南方喀斯特（渝云贵）
⑧ 中国丹霞（贵闽湘粤赣浙） ⑨ 其它(请具体填写:_____)

问题 7-3. 城市?
① 北京 ② 天津 ③ 上海 ④ 武汉 ⑤ 广州 ⑥ 重庆
⑦ 其它(请具体填写:_____)

问题 8. 以下问题是关于中国历史发明的历史事件文化价值的问题，请在您认为最适合向世界广泛传播的资源类别上画○。

问题 8-1. 历史发明?
① 汉字 ② 印刷术 ③ 陶瓷 ④ 汉服（旗袍） ⑤ 火药（焰火等）
⑥ 农历 ⑦ 指南术 ⑧ 周易 ⑨ 其它(请具体填写:_____)

问题 8-2. 历史事件?

① 五四运动 ② 大禹治水 ③ 武王克商 ④ 春秋战国
⑤ 五胡乱华 ⑥ 甲午战争 ⑦ 北京奥运会 ⑧ 日本侵华
⑨ 其它(请具体填写:_____)

问题 9. 以下问题是关于中国著名人物文化价值的问题，请在您认为最适合向世界广泛传播的资源类别上画○。

问题 9-1. 古代伟人?

① 秦始皇 ② 汉武帝 ③ 李世民 ④ 乾隆 ⑤ 三皇五帝
⑥ 崇祯 ⑦ 武则天 ⑧ 司马迁 ⑨ 王阳明 ⑩ 诸葛亮
⑪ 曹操 ⑫ 成吉思汗 ⑬ 其它(请具体填写:_____)

问题 9-2. 现当代伟人?

① 孙中山 ② 林则徐 ③ 左宗棠 ④ 曾国藩 ⑤ 毛泽东
⑥ 邓小平 ⑦ 周恩来 ⑧ 蒋介石
⑨ 其它(请具体填写:_____)

问题 9-3. 体育名星?

① 邓亚萍 ② 叶诗文 ③ 姚明 ④ 聂卫平 ⑤ 郎平 ⑥ 郭晶晶
⑦ 其它(请具体填写:_____)

问题 10. 以下问题是关于中国生活资源文化价值的问题，请在您认为最适合向世界广泛传播的资源类别上画○。

问题 10-1. 饮食?

① 剁椒鱼头 ② 月饼 ③ 粉蒸肉 ④ 饺子 ⑤ 粤式海鲜
⑥ 烤鸭 ⑦ 涮羊肉/麻辣烫 ⑧ 佛跳墙
⑨ 其它(请具体填写:_____)

问题 10-2. 产品?

① 丝绸 ② 瓷器 ③ 神舟飞船 ④ 家电/电脑
⑤ 皮革 ⑥ 农产品
⑦ 其它(请具体填写:_____)

问题 10-3. 现当代地标性建筑?

① 上海东方明珠 ② 北京人民大会堂 ③ 郑州二七纪念塔
④ 天津天塔 ⑤ 济南泉城广场 ⑥ 三峡大坝
⑦ 武汉长江大桥 ⑧ 其它(请具体填写:_____)

问题 10-4. 旅游产品?

① 人文历史游 ② 自然风情游 ③ 体育健康游 ④ 生态休闲游
⑤其它(请具体填写:_____)

问题 10-5. 地方节庆?

①中国盱眙国际龙虾节　②青岛国际啤酒节
③宁波国际服装节　④中国呼和浩特昭君文化节
⑤中国上海国际艺术节　⑥中国曲阜国际孔子文化节
⑦杭州西湖国际博览会　⑧中国吴桥国际杂技节
⑨中国淮南豆腐文化节　⑩南宁国际民歌艺术节
⑪其它(请具体填写:_____)

问题11. 您认为最适合向世界广泛传播的中国文化资源类别是哪些？请在以下几个选项中按重要度顺序选出3种。

(第1个 :_____), (第2个:_____), (第3个:_____)

①传统文学图书　②现代文学图书　③美术作品　④传统文化
⑤非物质文化遗产　⑥ 大众文化　⑦ 历史遗迹　⑧ 自然遗产　⑨ 城市
⑩ 历史发明　⑪ 历史事件　⑫ 古代伟人　⑬ 当代伟人　⑭ 体育明星
⑮ 饮食　⑯ 产品　⑰ 当代地标性建筑
⑱ 旅游商品　⑲ 地方节庆

## Part Ⅲ. 中・韩・日 国家关系

问题12. 您如何看待现当代中韩日三国关系?

| | 非常差 | 差 | 一般 | 好 | 非常好 |
|---|---|---|---|---|---|
| 1）中韩关系 | ① | ② | ③ | ④ | ⑤ |
| 2）韩日关系 | ① | ② | ③ | ④ | ⑤ |
| 3）中日关系 | ① | ② | ③ | ④ | ⑤ |

问题 13. 中韩日三国间关系未来是会变好，还是变坏?

| | 变得很坏 | 变坏 | 维持现状 | 好转 | 变得很好 |
|---|---|---|---|---|---|
| 1）中韩关系 | ① | ② | ③ | ④ | ⑤ |
| 2）韩日关系 | ① | ② | ③ | ④ | ⑤ |
| 3）中日关系 | ① | ② | ③ | ④ | ⑤ |

问题14. 您知道下面中韩日三国之间的冲突吗？

| | 完全不知道 | 不知道 | 一般 | 知道 | 非常了解 |
|---|---|---|---|---|---|
| 1）独岛（竹岛）问题 | ① | ② | ③ | ④ | ⑤ |
| 2）钓鱼岛问题 | ① | ② | ③ | ④ | ⑤ |
| 3）参拜靖国神社 | ① | ② | ③ | ④ | ⑤ |
| 4）日本历史教科书问题 | ① | ② | ③ | ④ | ⑤ |
| 5）日军“慰安妇”问题 | ① | ② | ③ | ④ | ⑤ |
| 6）东海/日本海标记问题 | ① | ② | ③ | ④ | ⑤ |

## Part Ⅳ. 国际观

问题15. 您如何看待以下叙述？

| | 完全无共鸣 | 无共鸣 | 一般 | 有共鸣 | 非常有共鸣 |
|---|---|---|---|---|---|
| 1）我是一个中国人 | ① | ② | ③ | ④ | ⑤ |
| 2）我是一个东亚人 | ① | ② | ③ | ④ | ⑤ |
| 3）我是一个亚洲人 | ① | ② | ③ | ④ | ⑤ |

问题16. 您如何看待下列国家在亚洲地区的文化影响力？

| | 完全无影响力 | 没有影响力 | 一般 | 有影响力 | 非常有影响力 |
|---|---|---|---|---|---|
| 1）中国 | ① | ② | ③ | ④ | ⑤ |
| 2）日本 | ① | ② | ③ | ④ | ⑤ |
| 3）韩国 | ① | ② | ③ | ④ | ⑤ |

问题17. 您对以下国家在亚洲地区扩展文化影响持正面看法，还是负面看法?

| | 非常负面 | 负面 | 一般 | 正面 | 非常正面 |
|---|---|---|---|---|---|
| 1）中国 | ① | ② | ③ | ④ | ⑤ |
| 2）日本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3）韩国 | ① | ② | ③ | ④ | ⑤ |

问题18. 以下国家，您认为中国最应当加强合作的国家是哪一个？
① 美国　② 日本　③ 韩国
④ 俄罗斯　⑤ EU(欧盟)　⑥ 没有

问题19. 目前，欧洲的许多国家组成了欧盟，国境消失，正在形成一个地区共同体。您认为，中国、韩国、日本等东亚国家能走上类似于欧洲国家形成欧盟的道路吗？
① 能　② 不能　③ 不知道

## ▣ 受访者个人情况

〔统计-1〕您家庭的收入水平如何？
① 高　② 中　③ 低

〔统计-2〕您对作为一个中国人的自豪感程度如何？
① 非常自豪　② 有些自豪
③ 不自豪　④ 毫无自豪感

**◆◆ 感谢您的耐心回答 ◆◆**

## 3. 부표

### 1) 한국 응답자 조사결과

부표 1 중국 전반에 대한 인지정도

| | | | 전혀 모른다 | 모른다 | 보통 이다 | 안다 | 잘 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48 | 181 | 217 | 54 | 6 | 6.092 (.192) |
| | | % | 9.5% | 35.8% | 42.9% | 10.7% | 1.2% | |
| | 여자 | N | 44 | 206 | 208 | 37 | 3 | |
| | | % | 8.8% | 41.4% | 41.8% | 7.4% | .6% | |
| 신분 | 대학생 | N | 79 | 303 | 294 | 61 | 4 | 21.842 (.000) |
| | | % | 10.7% | 40.9% | 39.7% | 8.2% | .5% | |
| | 대학 원생 | N | 13 | 84 | 131 | 30 | 5 | |
| | | % | 4.9% | 31.9% | 49.8% | 11.4% | 1.9% | |
| 거주 지역 | 서울 | N | 9 | 73 | 88 | 29 | 1 | 40.861 (.001) |
| | | % | 4.5% | 36.5% | 44.0% | 14.5% | .5% | |
| | 부산 | N | 28 | 67 | 91 | 12 | 2 | |
| | | % | 14.0% | 33.5% | 45.5% | 6.0% | 1.0% | |
| | 대구 | N | 17 | 83 | 88 | 15 | 2 | |
| | | % | 8.3% | 40.5% | 42.9% | 7.3% | 1.0% | |
| | 광주 | N | 19 | 63 | 95 | 20 | 3 | |
| | | % | 9.5% | 31.5% | 47.5% | 10.0% | 1.5% | |
| | 대전 | N | 19 | 101 | 63 | 15 | 1 | |
| | | % | 9.5% | 50.8% | 31.7% | 7.5% | .5% | |
| 전체 | | N | 92 | 387 | 425 | 91 | 9 | 1004 |
| | | % | 9.2% | 38.5% | 42.3% | 9.1% | .9% | 100.0% |

부표 2 중국 역사에 대한 인지정도

| | | | 전혀 모른다 | 모른다 | 보통 이다 | 안다 | 잘 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50 | 155 | 195 | 92 | 14 | 23.628 (.000) |
| | | % | 9.9% | 30.6% | 38.5% | 18.2% | 2.8% | |
| | 여자 | N | 61 | 197 | 186 | 49 | 5 | |
| | | % | 12.2% | 39.6% | 37.3% | 9.8% | 1.0% | |
| 신분 | 대학생 | N | 88 | 278 | 273 | 93 | 9 | 18.863 (.000) |
| | | % | 11.9% | 37.5% | 36.8% | 12.6% | 1.2% | |
| | 대학 원생 | N | 23 | 74 | 108 | 48 | 10 | |
| | | % | 8.7% | 28.1% | 41.1% | 18.3% | 3.8% | |
| 거주 지역 | 서울 | N | 16 | 56 | 84 | 39 | 5 | 31.702 (.011) |
| | | % | 8.0% | 28.0% | 42.0% | 19.5% | 2.5% | |
| | 부산 | N | 27 | 58 | 84 | 26 | 5 | |
| | | % | 13.5% | 29.0% | 42.0% | 13.0% | 2.5% | |
| | 대구 | N | 22 | 87 | 71 | 22 | 3 | |
| | | % | 10.7% | 42.4% | 34.6% | 10.7% | 1.5% | |
| | 광주 | N | 21 | 64 | 82 | 28 | 5 | |
| | | % | 10.5% | 32.0% | 41.0% | 14.0% | 2.5% | |
| | 대전 | N | 25 | 87 | 60 | 26 | 1 | |
| | | % | 12.6% | 43.7% | 30.2% | 13.1% | .5% | |
| 전체 | | N | 111 | 352 | 381 | 141 | 19 | 1004 |
| | | % | 11.1% | 35.1% | 37.9% | 14.0% | 1.9% | 100.0% |

부표 3 중국 문화에 대한 인지정도

| | | | 전혀 모른다 | 모른다 | 보통 이다 | 안다 | 잘 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38 | 169 | 220 | 72 | 7 | .470 (.976) |
| | | % | 7.5% | 33.4% | 43.5% | 14.2% | 1.4% | |
| | 여자 | N | 35 | 160 | 226 | 71 | 6 | |
| | | % | 7.0% | 32.1% | 45.4% | 14.3% | 1.2% | |
| 신분 | 대학생 | N | 64 | 248 | 326 | 97 | 6 | 15.578 (.004) |
| | | % | 8.6% | 33.5% | 44.0% | 13.1% | .8% | |
| | 대학 원생 | N | 9 | 81 | 120 | 46 | 7 | |
| | | % | 3.4% | 30.8% | 45.6% | 17.5% | 2.7% | |
| 거주 지역 | 서울 | N | 6 | 74 | 86 | 32 | 2 | 19.273 (.255) |
| | | % | 3.0% | 37.0% | 43.0% | 16.0% | 1.0% | |
| | 부산 | N | 14 | 57 | 96 | 28 | 5 | |
| | | % | 7.0% | 28.5% | 48.0% | 14.0% | 2.5% | |
| | 대구 | N | 17 | 75 | 87 | 25 | 1 | |
| | | % | 8.3% | 36.6% | 42.4% | 12.2% | .5% | |
| | 광주 | N | 14 | 59 | 94 | 30 | 3 | |
| | | % | 7.0% | 29.5% | 47.0% | 15.0% | 1.5% | |
| | 대전 | N | 22 | 64 | 83 | 28 | 2 | |
| | | % | 11.1% | 32.2% | 41.7% | 14.1% | 1.0% | |
| 전체 | | N | 73 | 329 | 446 | 143 | 13 | 1004 |
| | | % | 7.3% | 32.8% | 44.4% | 14.2% | 1.3% | 100.0% |

**부표 4** 중국 지리에 대한 인지정도

| | | | 전혀 모른다 | 모른다 | 보통 이다 | 안다 | 잘 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90 | 199 | 146 | 59 | 12 | 12.764 (.012) |
| | | % | 17.8% | 39.3% | 28.9% | 11.7% | 2.4% | |
| | 여자 | N | 101 | 228 | 128 | 37 | 4 | |
| | | % | 20.3% | 45.8% | 25.7% | 7.4% | .8% | |
| 신분 | 대학생 | N | 158 | 314 | 191 | 68 | 10 | 11.747 (.019) |
| | | % | 21.3% | 42.4% | 25.8% | 9.2% | 1.3% | |
| | 대학 원생 | N | 33 | 113 | 83 | 28 | 6 | |
| | | % | 12.5% | 43.0% | 31.6% | 10.6% | 2.3% | |
| 거주 지역 | 서울 | N | 24 | 97 | 61 | 16 | 2 | 39.295 (.001) |
| | | % | 12.0% | 48.5% | 30.5% | 8.0% | 1.0% | |
| | 부산 | N | 47 | 65 | 66 | 17 | 5 | |
| | | % | 23.5% | 32.5% | 33.0% | 8.5% | 2.5% | |
| | 대구 | N | 42 | 93 | 44 | 24 | 2 | |
| | | % | 20.5% | 45.4% | 21.5% | 11.7% | 1.0% | |
| | 광주 | N | 44 | 68 | 64 | 21 | 3 | |
| | | % | 22.0% | 34.0% | 32.0% | 10.5% | 1.5% | |
| | 대전 | N | 34 | 104 | 39 | 18 | 4 | |
| | | % | 17.1% | 52.3% | 19.6% | 9.0% | 2.0% | |
| 전체 | | N | 191 | 427 | 274 | 96 | 16 | 1004 |
| | | % | 19.0% | 42.5% | 27.3% | 9.6% | 1.6% | 100.0% |

**부표 5** 중국 문화예술자원에 대한 인지정도

| | | | 홍루몽 | 태극권 | 경극 | 마장 | 합계 |
|---|---|---|---|---|---|---|---|
| 성 | 남자 | N | 46 | 412 | 303 | 40 | 447 |
| | | % | 10.3% | 92.2% | 67.8% | 8.9% | 100.0% |
| | 여자 | N | 70 | 335 | 349 | 44 | 434 |
| | | % | 16.1% | 77.2% | 80.4% | 10.1% | 100.0% |
| 신분 | 대학생 | N | 79 | 543 | 466 | 63 | 647 |
| | | % | 12.2% | 83.9% | 72.0% | 9.7% | 100.0% |
| | 대학 원생 | N | 37 | 204 | 186 | 21 | 234 |
| | | % | 15.8% | 87.2% | 79.5% | 9.0% | 100.0% |
| 거주 지역 | 서울 | N | 33 | 151 | 158 | 15 | 182 |
| | | % | 18.1% | 83.0% | 86.8% | 8.2% | 100.0% |
| | 부산 | N | 18 | 147 | 119 | 31 | 167 |
| | | % | 10.8% | 88.0% | 71.3% | 18.6% | 100.0% |
| | 대구 | N | 18 | 152 | 147 | 10 | 182 |
| | | % | 9.9% | 83.5% | 80.8% | 5.5% | 100.0% |
| | 광주 | N | 21 | 127 | 108 | 15 | 164 |
| | | % | 12.8% | 77.4% | 65.9% | 9.1% | 100.0% |
| | 대전 | N | 26 | 170 | 120 | 13 | 186 |
| | | % | 14.0% | 91.4% | 64.5% | 7.0% | 100.0% |
| 전체 | | N | 116 | 747 | 652 | 84 | 1955 |
| | | % | 13.2% | 84.8% | 74.0% | 9.5% | 181.5% |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부표 6** 중국 지역자원에 대한 인지정도

| | | | 만리장성 | 자금성 | 장가계 | 상하이 | 합계 |
|---|---|---|---|---|---|---|---|
| 성 | 남자 | N | 482 | 442 | 143 | 472 | 498 |
| | | % | 96.8% | 88.8% | 28.7% | 94.8% | 100.0% |
| | 여자 | N | 484 | 431 | 159 | 480 | 494 |
| | | % | 98.0% | 87.2% | 32.2% | 97.2% | 100.0% |
| 신분 | 대학생 | N | 710 | 639 | 177 | 705 | 731 |
| | | % | 97.1% | 87.4% | 24.2% | 96.4% | 100.0% |
| | 대학원생 | N | 256 | 234 | 125 | 247 | 261 |
| | | % | 98.1% | 89.7% | 47.9% | 94.6% | 100.0% |
| 거주지역 | 서울 | N | 195 | 189 | 49 | 197 | 199 |
| | | % | 98.0% | 95.0% | 24.6% | 99.0% | 100.0% |
| | 부산 | N | 194 | 174 | 35 | 189 | 198 |
| | | % | 98.0% | 87.9% | 17.7% | 95.5% | 100.0% |
| | 대구 | N | 193 | 191 | 76 | 198 | 204 |
| | | % | 94.6% | 93.6% | 37.3% | 97.1% | 100.0% |
| | 광주 | N | 187 | 161 | 75 | 179 | 194 |
| | | % | 96.4% | 83.0% | 38.7% | 92.3% | 100.0% |
| | 대전 | N | 197 | 158 | 67 | 189 | 197 |
| | | % | 100.0% | 80.2% | 34.0% | 95.9% | 100.0% |
| 전체 | | N | 966 | 873 | 302 | 952 | 3093 |
| | | % | 97.4% | 88.0% | 30.4% | 96.0% | 311.8% |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부표 7** 중국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에 대한 인지정도

| | | | 치파오 | 불설관무량수불경 | 5·4운동 | 베이징올림픽 | 합계 |
|---|---|---|---|---|---|---|---|
| 성 | 남자 | N | 196 | 14 | 138 | 483 | 489 |
| | | % | 40.1% | 2.9% | 28.2% | 98.8% | 100.0% |
| | 여자 | N | 265 | 6 | 195 | 474 | 481 |
| | | % | 55.1% | 1.2% | 40.5% | 98.5% | 100.0% |
| 신분 | 대학생 | N | 358 | 12 | 262 | 701 | 713 |
| | | % | 50.2% | 1.7% | 36.7% | 98.3% | 100.0% |
| | 대학원생 | N | 103 | 8 | 71 | 256 | 257 |
| | | % | 40.1% | 3.1% | 27.6% | 99.6% | 100.0% |
| 거주지역 | 서울 | N | 112 | 4 | 75 | 192 | 195 |
| | | % | 57.4% | 2.1% | 38.5% | 98.5% | 100.0% |
| | 부산 | N | 95 | 8 | 69 | 190 | 194 |
| | | % | 49.0% | 4.1% | 35.6% | 97.9% | 100.0% |
| | 대구 | N | 98 | 6 | 74 | 197 | 202 |
| | | % | 48.5% | 3.0% | 36.6% | 97.5% | 100.0% |
| | 광주 | N | 87 | 1 | 66 | 193 | 194 |
| | | % | 44.8% | .5% | 34.0% | 99.5% | 100.0% |
| | 대전 | N | 69 | 1 | 49 | 185 | 185 |
| | | % | 37.3% | .5% | 26.5% | 100.0% | 100.0% |
| 전체 | | N | 461 | 20 | 333 | 957 | 1771 |
| | | % | 47.5% | 2.1% | 34.3% | 98.7% | 182.6% |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부표 8** 중국 인물자원에 대한 인지정도

| | | | 모택동 | 등소평 | 진시황 | 야오밍 | 합계 |
|---|---|---|---|---|---|---|---|
| 성 | 남자 | N | 380 | 314 | 469 | 327 | 491 |
| | | % | 77.4% | 64.0% | 95.5% | 66.6% | 100.0% |
| | 여자 | N | 332 | 310 | 470 | 121 | 485 |
| | | % | 68.5% | 63.9% | 96.9% | 24.9% | 100.0% |
| 신분 | 대학생 | N | 496 | 421 | 688 | 314 | 717 |
| | | % | 69.2% | 58.7% | 96.0% | 43.8% | 100.0% |
| | 대학원생 | N | 216 | 203 | 251 | 134 | 259 |
| | | % | 83.4% | 78.4% | 96.9% | 51.7% | 100.0% |
| 거주지역 | 서울 | N | 165 | 142 | 193 | 112 | 198 |
| | | % | 83.3% | 71.7% | 97.5% | 56.6% | 100.0% |
| | 부산 | N | 138 | 101 | 182 | 88 | 191 |
| | | % | 72.3% | 52.9% | 95.3% | 46.1% | 100.0% |
| | 대구 | N | 167 | 131 | 195 | 87 | 200 |
| | | % | 83.5% | 65.5% | 97.5% | 43.5% | 100.0% |
| | 광주 | N | 124 | 109 | 186 | 73 | 194 |
| | | % | 63.9% | 56.2% | 95.9% | 37.6% | 100.0% |
| | 대전 | N | 118 | 141 | 183 | 88 | 193 |
| | | % | 61.1% | 73.1% | 94.8% | 45.6% | 100.0% |
| 전체 | | N | 712 | 624 | 939 | 448 | 2723 |
| | | % | 73.0% | 63.9% | 96.2% | 45.9% | 279.0% |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부표 9** 중국 생활문화자원에 대한 인지정도

| | | | 동방명주 | 북경오리 | 신주 우주선 | 상하이국제영화제 | 합계 |
|---|---|---|---|---|---|---|---|
| 성 | 남자 | N | 90 | 434 | 31 | 192 | 454 |
| | | % | 19.8% | 95.6% | 6.8% | 42.3% | 100.0% |
| | 여자 | N | 56 | 407 | 21 | 173 | 422 |
| | | % | 13.3% | 96.4% | 5.0% | 41.0% | 100.0% |
| 신분 | 대학생 | N | 98 | 618 | 36 | 273 | 642 |
| | | % | 15.3% | 96.3% | 5.6% | 42.5% | 100.0% |
| | 대학원생 | N | 48 | 223 | 16 | 92 | 234 |
| | | % | 20.5% | 95.3% | 6.8% | 39.3% | 100.0% |
| 거주지역 | 서울 | N | 41 | 175 | 13 | 84 | 179 |
| | | % | 22.9% | 97.8% | 7.3% | 46.9% | 100.0% |
| | 부산 | N | 31 | 176 | 11 | 81 | 183 |
| | | % | 16.9% | 96.2% | 6.0% | 44.3% | 100.0% |
| | 대구 | N | 24 | 175 | 12 | 68 | 179 |
| | | % | 13.4% | 97.8% | 6.7% | 38.0% | 100.0% |
| | 광주 | N | 25 | 152 | 9 | 69 | 163 |
| | | % | 15.3% | 93.3% | 5.5% | 42.3% | 100.0% |
| | 대전 | N | 25 | 163 | 7 | 63 | 172 |
| | | % | 14.5% | 94.8% | 4.1% | 36.6% | 100.0% |
| 전체 | | N | 146 | 841 | 52 | 365 | 1404 |
| | | % | 16.7% | 96.0% | 5.9% | 41.7% | 160.3% |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부표 10** 중국 문화유산에 대한 이미지(문화유산이 많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2 | 13 | 76 | 261 | 154 | 17.838 (.001) |
| | | % | .4% | 2.6% | 15.0% | 51.6% | 30.4% | |
| | 여자 | N | 2 | 9 | 57 | 322 | 108 | |
| | | % | .4% | 1.8% | 11.4% | 64.7% | 21.7% | |
| 신분 | 대학생 | N | 4 | 18 | 114 | 444 | 161 | 34.262 (.000) |
| | | % | .5% | 2.4% | 15.4% | 59.9% | 21.7% | |
| | 대학원생 | N | 0 | 4 | 19 | 139 | 101 | |
| | | % | .0% | 1.5% | 7.2% | 52.9% | 38.4% | |
| 거주지역 | 서울 | N | 1 | 2 | 13 | 120 | 64 | 45.642 (.000) |
| | | % | .5% | 1.0% | 6.5% | 60.0% | 32.0% | |
| | 부산 | N | 0 | 5 | 23 | 121 | 51 | |
| | | % | .0% | 2.5% | 11.5% | 60.5% | 25.5% | |
| | 대구 | N | 1 | 3 | 20 | 129 | 52 | |
| | | % | .5% | 1.5% | 9.8% | 62.9% | 25.4% | |
| | 광주 | N | 0 | 4 | 28 | 116 | 52 | |
| | | % | .0% | 2.0% | 14.0% | 58.0% | 26.0% | |
| | 대전 | N | 2 | 8 | 49 | 97 | 43 | |
| | | % | 1.0% | 4.0% | 24.6% | 48.7% | 21.6% | |
| 전체 | | N | 4 | 22 | 133 | 583 | 262 | 1004 |
| | | % | .4% | 2.2% | 13.2% | 58.1% | 26.1% | 100.0% |

**부표 11** 중국 문화예술에 대한 이미지(문화 예술수준이 높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0 | 75 | 194 | 192 | 35 | 8.419 (.077) |
| | | % | 2.0% | 14.8% | 38.3% | 37.9% | 6.9% | |
| | 여자 | N | 8 | 64 | 234 | 168 | 24 | |
| | | % | 1.6% | 12.9% | 47.0% | 33.7% | 4.8% | |
| 신분 | 대학생 | N | 16 | 111 | 326 | 255 | 33 | 17.389 (.002) |
| | | % | 2.2% | 15.0% | 44.0% | 34.4% | 4.5% | |
| | 대학원생 | N | 2 | 28 | 102 | 105 | 26 | |
| | | % | .8% | 10.6% | 38.8% | 39.9% | 9.9% | |
| 거주지역 | 서울 | N | 3 | 26 | 80 | 79 | 12 | 12.966 (.675) |
| | | % | 1.5% | 13.0% | 40.0% | 39.5% | 6.0% | |
| | 부산 | N | 3 | 23 | 94 | 67 | 13 | |
| | | % | 1.5% | 11.5% | 47.0% | 33.5% | 6.5% | |
| | 대구 | N | 4 | 35 | 80 | 76 | 10 | |
| | | % | 2.0% | 17.1% | 39.0% | 37.1% | 4.9% | |
| | 광주 | N | 3 | 30 | 80 | 70 | 17 | |
| | | % | 1.5% | 15.0% | 40.0% | 35.0% | 8.5% | |
| | 대전 | N | 5 | 25 | 94 | 68 | 7 | |
| | | % | 2.5% | 12.6% | 47.2% | 34.2% | 3.5% | |
| 전체 | | N | 18 | 139 | 428 | 360 | 59 | 1004 |
| | | % | 1.8% | 13.8% | 42.6% | 35.9% | 5.9% | 100.0% |

**부표 12** 중국 자연에 대한 이미지(자연이 아름답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3 | 40 | 142 | 221 | 90 | 21.968 (.000) |
| | | % | 2.6% | 7.9% | 28.1% | 43.7% | 17.8% | |
| | 여자 | N | 9 | 60 | 177 | 204 | 48 | |
| | | % | 1.8% | 12.0% | 35.5% | 41.0% | 9.6% | |
| 신분 | 대학생 | N | 18 | 85 | 264 | 295 | 79 | 43.255 (.000) |
| | | % | 2.4% | 11.5% | 35.6% | 39.8% | 10.7% | |
| | 대학원생 | N | 4 | 15 | 55 | 130 | 59 | |
| | | % | 1.5% | 5.7% | 20.9% | 49.4% | 22.4% | |
| 거주지역 | 서울 | N | 3 | 18 | 67 | 86 | 26 | 19.356 (.252) |
| | | % | 1.5% | 9.0% | 33.5% | 43.0% | 13.0% | |
| | 부산 | N | 5 | 26 | 62 | 79 | 28 | |
| | | % | 2.5% | 13.0% | 31.0% | 39.5% | 14.0% | |
| | 대구 | N | 4 | 29 | 58 | 92 | 22 | |
| | | % | 2.0% | 14.1% | 28.3% | 44.9% | 10.7% | |
| | 광주 | N | 4 | 14 | 63 | 81 | 38 | |
| | | % | 2.0% | 7.0% | 31.5% | 40.5% | 19.0% | |
| | 대전 | N | 6 | 13 | 69 | 87 | 24 | |
| | | % | 3.0% | 6.5% | 34.7% | 43.7% | 12.1% | |
| 전체 | | N | 22 | 100 | 319 | 425 | 138 | 1004 |
| | | % | 2.2% | 10.0% | 31.8% | 42.3% | 13.7% | 100.0% |

**부표 13** 중국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관광지가 많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4 | 11 | 99 | 272 | 120 | 5.916 (.206) |
| | | % | .8% | 2.2% | 19.6% | 53.8% | 23.7% | |
| | 여자 | N | 4 | 17 | 100 | 287 | 90 | |
| | | % | .8% | 3.4% | 20.1% | 57.6% | 18.1% | |
| 신분 | 대학생 | N | 7 | 21 | 153 | 410 | 150 | 2.447 (.654) |
| | | % | .9% | 2.8% | 20.6% | 55.3% | 20.2% | |
| | 대학원생 | N | 1 | 7 | 46 | 149 | 60 | |
| | | % | .4% | 2.7% | 17.5% | 56.7% | 22.8% | |
| 거주지역 | 서울 | N | 1 | 4 | 41 | 110 | 44 | 16.978 (.387) |
| | | % | .5% | 2.0% | 20.5% | 55.0% | 22.0% | |
| | 부산 | N | 0 | 7 | 38 | 107 | 48 | |
| | | % | .0% | 3.5% | 19.0% | 53.5% | 24.0% | |
| | 대구 | N | 1 | 6 | 36 | 126 | 36 | |
| | | % | .5% | 2.9% | 17.6% | 61.5% | 17.6% | |
| | 광주 | N | 2 | 4 | 34 | 116 | 44 | |
| | | % | 1.0% | 2.0% | 17.0% | 58.0% | 22.0% | |
| | 대전 | N | 4 | 7 | 50 | 100 | 38 | |
| | | % | 2.0% | 3.5% | 25.1% | 50.3% | 19.1% | |
| 전체 | | N | 8 | 28 | 199 | 559 | 210 | 1004 |
| | | % | .8% | 2.8% | 19.8% | 55.7% | 20.9% | 100.0% |

**부표 14** 중국 스포츠에 대한 이미지(스포츠 강국이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6 | 40 | 86 | 187 | 177 | 22.403 (.000) |
| | | % | 3.2% | 7.9% | 17.0% | 37.0% | 35.0% | |
| | 여자 | N | 8 | 61 | 119 | 188 | 122 | |
| | | % | 1.6% | 12.2% | 23.9% | 37.8% | 24.5% | |
| 신분 | 대학생 | N | 20 | 81 | 163 | 268 | 209 | 10.135 (.038) |
| | | % | 2.7% | 10.9% | 22.0% | 36.2% | 28.2% | |
| | 대학원생 | N | 4 | 20 | 42 | 107 | 90 | |
| | | % | 1.5% | 7.6% | 16.0% | 40.7% | 34.2% | |
| 거주지역 | 서울 | N | 3 | 11 | 26 | 75 | 85 | 70.903 (.000) |
| | | % | 1.5% | 5.5% | 13.0% | 37.5% | 42.5% | |
| | 부산 | N | 1 | 15 | 51 | 73 | 60 | |
| | | % | .5% | 7.5% | 25.5% | 36.5% | 30.0% | |
| | 대구 | N | 1 | 21 | 39 | 89 | 55 | |
| | | % | .5% | 10.2% | 19.0% | 43.4% | 26.8% | |
| | 광주 | N | 7 | 25 | 35 | 66 | 67 | |
| | | % | 3.5% | 12.5% | 17.5% | 33.0% | 33.5% | |
| | 대전 | N | 12 | 29 | 54 | 72 | 32 | |
| | | % | 6.0% | 14.6% | 27.1% | 36.2% | 16.1% | |
| 전체 | | N | 24 | 101 | 205 | 375 | 299 | 1004 |
| | | % | 2.4% | 10.1% | 20.4% | 37.4% | 29.8% | 100.0% |

**부표 15** 중국 복지수준에 대한 이미지(복지수준이 높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84 | 236 | 71 | 13 | 2 | 10.070 (.039) |
| | | % | 36.4% | 46.6% | 14.0% | 2.6% | .4% | |
| | 여자 | N | 150 | 250 | 91 | 7 | 0 | |
| | | % | 30.1% | 50.2% | 18.3% | 1.4% | .0% | |
| 신분 | 대학생 | N | 248 | 350 | 125 | 16 | 2 | 2.889 (.577) |
| | | % | 33.5% | 47.2% | 16.9% | 2.2% | .3% | |
| | 대학원생 | N | 86 | 136 | 37 | 4 | 0 | |
| | | % | 32.7% | 51.7% | 14.1% | 1.5% | .0% | |
| 거주지역 | 서울 | N | 74 | 101 | 19 | 4 | 2 | 38.340 (.001) |
| | | % | 37.0% | 50.5% | 9.5% | 2.0% | 1.0% | |
| | 부산 | N | 56 | 100 | 40 | 4 | 0 | |
| | | % | 28.0% | 50.0% | 20.0% | 2.0% | .0% | |
| | 대구 | N | 72 | 111 | 19 | 3 | 0 | |
| | | % | 35.1% | 54.1% | 9.3% | 1.5% | .0% | |
| | 광주 | N | 59 | 96 | 42 | 3 | 0 | |
| | | % | 29.5% | 48.0% | 21.0% | 1.5% | .0% | |
| | 대전 | N | 73 | 78 | 42 | 6 | 0 | |
| | | % | 36.7% | 39.2% | 21.1% | 3.0% | .0% | |
| 전체 | | N | 334 | 486 | 162 | 20 | 2 | 1004 |
| | | % | 33.3% | 48.4% | 16.1% | 2.0% | .2% | 100.0% |

부표 16 중국 국민 이미지1(남을 배려한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90 | 216 | 174 | 24 | 1 | 7.547 (.110) |
| | | % | 17.8% | 42.8% | 34.5% | 4.8% | .2% | |
| | 여자 | N | 61 | 238 | 178 | 19 | 2 | |
| | | % | 12.2% | 47.8% | 35.7% | 3.8% | .4% | |
| 신분 | 대학생 | N | 103 | 334 | 268 | 33 | 2 | 3.714 (.446) |
| | | % | 13.9% | 45.1% | 36.2% | 4.5% | .3% | |
| | 대학원생 | N | 48 | 120 | 84 | 10 | 1 | |
| | | % | 18.3% | 45.6% | 31.9% | 3.8% | .4% | |
| 거주지역 | 서울 | N | 1 | 2 | 3 | 4 | 5 | 26.621 (.046) |
| | | % | 35 | 99 | 59 | 7 | 0 | |
| | 부산 | N | 17.5% | 49.5% | 29.5% | 3.5% | .0% | |
| | | % | 34 | 89 | 70 | 7 | 0 | |
| | 대구 | N | 17.0% | 44.5% | 35.0% | 3.5% | .0% | |
| | | % | 25 | 100 | 65 | 15 | 0 | |
| | 광주 | N | 12.2% | 48.8% | 31.7% | 7.3% | .0% | |
| | | % | 28 | 72 | 89 | 8 | 2 | |
| | 대전 | N | 14.1% | 36.2% | 44.7% | 4.0% | 1.0% | |
| | | % | 29 | 94 | 69 | 6 | 1 | |
| 전체 | | N | 14.6% | 47.2% | 34.7% | 3.0% | .5% | 1003 |
| | | % | 151 | 454 | 352 | 43 | 3 | 100.0% |

부표 17 중국 국민 이미지2(매사에 적극적이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32 | 176 | 224 | 66 | 7 | 18.889 (.001) |
| | | % | 6.3% | 34.9% | 44.4% | 13.1% | 1.4% | |
| | 여자 | N | 15 | 149 | 217 | 103 | 14 | |
| | | % | 3.0% | 29.9% | 43.6% | 20.7% | 2.8% | |
| 신분 | 대학생 | N | 31 | 240 | 330 | 125 | 14 | 2.291 (.682) |
| | | % | 4.2% | 32.4% | 44.6% | 16.9% | 1.9% | |
| | 대학원생 | N | 16 | 85 | 111 | 44 | 7 | |
| | | % | 6.1% | 32.3% | 42.2% | 16.7% | 2.7% | |
| 거주지역 | 서울 | N | 9 | 63 | 80 | 46 | 2 | 19.432 (.247) |
| | | % | 4.5% | 31.5% | 40.0% | 23.0% | 1.0% | |
| | 부산 | N | 12 | 69 | 88 | 24 | 7 | |
| | | % | 6.0% | 34.5% | 44.0% | 12.0% | 3.5% | |
| | 대구 | N | 10 | 77 | 87 | 28 | 3 | |
| | | % | 4.9% | 37.6% | 42.4% | 13.7% | 1.5% | |
| | 광주 | N | 8 | 63 | 90 | 34 | 4 | |
| | | % | 4.0% | 31.7% | 45.2% | 17.1% | 2.0% | |
| | 대전 | N | 8 | 53 | 96 | 37 | 5 | |
| | | % | 4.0% | 26.6% | 48.2% | 18.6% | 2.5% | |
| 전체 | | N | 47 | 325 | 441 | 169 | 21 | 1003 |
| | | % | 4.7% | 32.4% | 44.0% | 16.8% | 2.1% | 100.0% |

부표 18 중국 국민 이미지3(실용을 추구한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21 | 90 | 184 | 179 | 31 | 1.707 (.790) |
| | | % | 4.2% | 17.8% | 36.4% | 35.4% | 6.1% | |
| | 여자 | N | 23 | 80 | 191 | 167 | 37 | |
| | | % | 4.6% | 16.1% | 38.4% | 33.5% | 7.4% | |
| 신분 | 대학생 | N | 34 | 129 | 284 | 247 | 46 | 3.751 (.441) |
| | | % | 4.6% | 17.4% | 38.4% | 33.4% | 6.2% | |
| | 대학원생 | N | 10 | 41 | 91 | 99 | 22 | |
| | | % | 3.8% | 15.6% | 34.6% | 37.6% | 8.4% | |
| 거주지역 | 서울 | N | 4 | 27 | 68 | 85 | 16 | 25.691 (.059) |
| | | % | 2.0% | 13.5% | 34.0% | 42.5% | 8.0% | |
| | 부산 | N | 15 | 42 | 66 | 67 | 10 | |
| | | % | 7.5% | 21.0% | 33.0% | 33.5% | 5.0% | |
| | 대구 | N | 5 | 38 | 74 | 75 | 13 | |
| | | % | 2.4% | 18.5% | 36.1% | 36.6% | 6.3% | |
| | 광주 | N | 10 | 32 | 86 | 58 | 13 | |
| | | % | 5.0% | 16.1% | 43.2% | 29.1% | 6.5% | |
| | 대전 | N | 10 | 31 | 81 | 61 | 16 | |
| | | % | 5.0% | 15.6% | 40.7% | 30.7% | 8.0% | |
| 전체 | | N | 44 | 170 | 375 | 346 | 68 | 1003 |
| | | % | 4.4% | 16.9% | 37.4% | 34.5% | 6.8% | 100.0% |

부표 19 중국 국민 이미지4(타문화에 개방적이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72 | 198 | 165 | 67 | 3 | 7.998 (.092) |
| | | % | 14.3% | 39.2% | 32.7% | 13.3% | .6% | |
| | 여자 | N | 54 | 181 | 178 | 75 | 10 | |
| | | % | 10.8% | 36.3% | 35.7% | 15.1% | 2.0% | |
| 신분 | 대학생 | N | 94 | 273 | 260 | 105 | 8 | 2.377 (.667) |
| | | % | 12.7% | 36.9% | 35.1% | 14.2% | 1.1% | |
| | 대학원생 | N | 32 | 106 | 83 | 37 | 5 | |
| | | % | 12.2% | 40.3% | 31.6% | 14.1% | 1.9% | |
| 거주지역 | 서울 | N | 19 | 85 | 62 | 32 | 2 | 28.542 (.027) |
| | | % | 9.5% | 42.5% | 31.0% | 16.0% | 1.0% | |
| | 부산 | N | 24 | 78 | 64 | 32 | 2 | |
| | | % | 12.0% | 39.0% | 32.0% | 16.0% | 1.0% | |
| | 대구 | N | 23 | 77 | 78 | 24 | 3 | |
| | | % | 11.2% | 37.6% | 38.0% | 11.7% | 1.5% | |
| | 광주 | N | 20 | 67 | 70 | 37 | 5 | |
| | | % | 10.1% | 33.7% | 35.2% | 18.6% | 2.5% | |
| | 대전 | N | 40 | 72 | 69 | 17 | 1 | |
| | | % | 20.1% | 36.2% | 34.7% | 8.5% | .5% | |
| 전체 | | N | 126 | 379 | 343 | 142 | 13 | 1003 |
| | | % | 12.6% | 37.8% | 34.2% | 14.2% | 1.3% | 100.0% |

부표 20 중국 국민 이미지5(여유가 있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50 | 169 | 156 | 111 | 19 | 1.418 (.841) |
| | | % | 9.9% | 33.5% | 30.9% | 22.0% | 3.8% | |
| | 여자 | N | 49 | 167 | 163 | 96 | 22 | |
| | | % | 9.9% | 33.6% | 32.8% | 19.3% | 4.4% | |
| 신분 | 대학생 | N | 72 | 256 | 235 | 148 | 29 | 1.823 (.768) |
| | | % | 9.7% | 34.6% | 31.8% | 20.0% | 3.9% | |
| | 대학원생 | N | 27 | 80 | 84 | 59 | 12 | |
| | | % | 10.3% | 30.5% | 32.1% | 22.5% | 4.6% | |
| 거주지역 | 서울 | N | 28 | 51 | 56 | 57 | 8 | 44.732 (.000) |
| | | % | 14.0% | 25.5% | 28.0% | 28.5% | 4.0% | |
| | 부산 | N | 17 | 65 | 69 | 41 | 8 | |
| | | % | 8.5% | 32.5% | 34.5% | 20.5% | 4.0% | |
| | 대구 | N | 16 | 73 | 67 | 37 | 12 | |
| | | % | 7.8% | 35.6% | 32.7% | 18.0% | 5.9% | |
| | 광주 | N | 17 | 58 | 64 | 46 | 13 | |
| | | % | 8.6% | 29.3% | 32.3% | 23.2% | 6.6% | |
| | 대전 | N | 21 | 89 | 63 | 26 | 0 | |
| | | % | 10.6% | 44.7% | 31.7% | 13.1% | .0% | |
| 전체 | | N | 99 | 336 | 319 | 207 | 41 | 1002 |
| | | % | 9.9% | 33.5% | 31.8% | 20.7% | 4.1% | 100.0% |

부표 21 중국 국민 이미지6(믿음직하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74 | 207 | 108 | 16 | 4.573 (.206) |
| | | % | 34.5% | 41.0% | 21.4% | 3.2% | |
| | 여자 | N | 148 | 212 | 127 | 11 | |
| | | % | 29.7% | 42.6% | 25.5% | 2.2% | |
| 신분 | 대학생 | N | 237 | 308 | 173 | 22 | .852 (.837) |
| | | % | 32.0% | 41.6% | 23.4% | 3.0% | |
| | 대학원생 | N | 85 | 111 | 62 | 5 | |
| | | % | 32.3% | 42.2% | 23.6% | 1.9% | |
| 거주지역 | 서울 | N | 70 | 87 | 39 | 4 | 10.246 (.594) |
| | | % | 35.0% | 43.5% | 19.5% | 2.0% | |
| | 부산 | N | 69 | 80 | 46 | 5 | |
| | | % | 34.5% | 40.0% | 23.0% | 2.5% | |
| | 대구 | N | 63 | 89 | 47 | 6 | |
| | | % | 30.7% | 43.4% | 22.9% | 2.9% | |
| | 광주 | N | 54 | 78 | 59 | 8 | |
| | | % | 27.1% | 39.2% | 29.6% | 4.0% | |
| | 대전 | N | 66 | 85 | 44 | 4 | |
| | | % | 33.2% | 42.7% | 22.1% | 2.0% | |
| 전체 | | N | 322 | 419 | 235 | 27 | 1003 |
| | | % | 32.1% | 41.8% | 23.4% | 2.7% | 100.0% |

부표 22 자국(한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1)

| | | | 문화예술자원 | | | | | | 지역자원 | | | 역사적발명품과 사건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성 | 남자 | N | 59 | 38 | 20 | 161 | 64 | 190 | 105 | 104 | 53 | 55 | 81 |
| | | % | 11.8% | 7.6% | 4.0% | 32.1% | 12.8% | 37.9% | 21.0% | 20.8% | 10.6% | 11.0% | 16.2% |
| | 여자 | N | 59 | 32 | 23 | 183 | 81 | 198 | 120 | 101 | 41 | 49 | 90 |
| | | % | 11.8% | 6.4% | 4.6% | 36.7% | 16.3% | 39.8% | 24.1% | 20.3% | 8.2% | 9.8% | 18.1% |
| 신분 | 대학생 | N | 86 | 60 | 29 | 234 | 95 | 292 | 166 | 142 | 71 | 75 | 147 |
| | | % | 11.7% | 8.1% | 3.9% | 31.7% | 12.9% | 39.6% | 22.5% | 19.2% | 9.6% | 10.2% | 19.9% |
| | 대학원생 | N | 32 | 10 | 14 | 110 | 50 | 96 | 59 | 63 | 23 | 29 | 24 |
| | | % | 12.3% | 3.8% | 5.4% | 42.1% | 19.2% | 36.8% | 22.6% | 24.1% | 8.8% | 11.1% | 9.2% |
| 거주지역 | 서울 | N | 25 | 14 | 7 | 77 | 39 | 73 | 44 | 48 | 13 | 22 | 28 |
| | | % | 12.6% | 7.0% | 3.5% | 38.7% | 19.6% | 36.7% | 22.1% | 24.1% | 6.5% | 11.1% | 14.1% |
| | 부산 | N | 21 | 14 | 11 | 70 | 25 | 68 | 54 | 31 | 28 | 21 | 36 |
| | | % | 10.5% | 7.0% | 5.5% | 35.0% | 12.5% | 34.0% | 27.0% | 15.5% | 14.0% | 10.5% | 18.0% |
| | 대구 | N | 24 | 20 | 6 | 75 | 31 | 84 | 45 | 48 | 13 | 28 | 31 |
| | | % | 11.7% | 9.8% | 2.9% | 36.6% | 15.1% | 41.0% | 22.0% | 23.4% | 6.3% | 13.7% | 15.1% |
| | 광주 | N | 29 | 12 | 9 | 72 | 18 | 74 | 40 | 44 | 21 | 15 | 34 |
| | | % | 14.6% | 6.1% | 4.5% | 36.4% | 9.1% | 37.4% | 20.2% | 22.2% | 10.6% | 7.6% | 17.2% |
| | 대전 | N | 19 | 10 | 10 | 50 | 32 | 89 | 42 | 34 | 19 | 18 | 42 |
| | | % | 9.6% | 5.1% | 5.1% | 25.4% | 16.2% | 45.2% | 21.3% | 17.3% | 9.6% | 9.1% | 21.3% |
| 전체 | | N | 118 | 70 | 43 | 344 | 145 | 388 | 225 | 205 | 94 | 104 | 171 |
| | | % | 11.8% | 7.0% | 4.3% | 34.4% | 14.5% | 38.8% | 22.5% | 20.5% | 9.4% | 10.4% | 17.1% |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주 2: 1) 전통문학 및 도서, 2) 현대문학 및 도서, 3) 미술작품, 4) 전통문화, 5) 무형문화제, 6) 대중문화, 7) 역사유적지, 8) 자연유산, 9) 도시, 10) 역사적 발명품, 11) 역사적 사건

부표 22 자국(한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2)

| | | | 인물자원 | | | 생활문화자원 | | | | | 합계 |
|---|---|---|---|---|---|---|---|---|---|---|---|
| |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 성 | 남자 | N | 70 | 24 | 124 | 158 | 92 | 25 | 38 | 34 | 501 |
| | | % | 14.0% | 4.8% | 24.8% | 31.5% | 18.4% | 5.0% | 7.6% | 6.8% | 100.0% |
| | 여자 | N | 46 | 24 | 92 | 197 | 55 | 17 | 48 | 33 | 498 |
| | | % | 9.2% | 4.8% | 18.5% | 39.6% | 11.0% | 3.4% | 9.6% | 6.6% | 100.0% |
| 신분 | 대학생 | N | 98 | 38 | 167 | 259 | 98 | 33 | 67 | 51 | 738 |
| | | % | 13.3% | 5.1% | 22.6% | 35.1% | 13.3% | 4.5% | 9.1% | 6.9% | 100.0% |
| | 대학원생 | N | 18 | 10 | 49 | 96 | 49 | 9 | 19 | 16 | 261 |
| | | % | 6.9% | 3.8% | 18.8% | 36.8% | 18.8% | 3.4% | 7.3% | 6.1% | 100.0% |
| 거주지역 | 서울 | N | 15 | 12 | 33 | 79 | 37 | 5 | 10 | 14 | 199 |
| | | % | 7.5% | 6.0% | 16.6% | 39.7% | 18.6% | 2.5% | 5.0% | 7.0% | 100.0% |
| | 부산 | N | 21 | 10 | 38 | 74 | 27 | 7 | 21 | 23 | 200 |
| | | % | 10.5% | 5.0% | 19.0% | 37.0% | 13.5% | 3.5% | 10.5% | 11.5% | 100.0% |
| | 대구 | N | 15 | 10 | 40 | 74 | 31 | 9 | 14 | 9 | 205 |
| | | % | 7.3% | 4.9% | 19.5% | 36.1% | 15.1% | 4.4% | 6.8% | 4.4% | 100.0% |
| | 광주 | N | 16 | 7 | 59 | 68 | 29 | 14 | 20 | 13 | 198 |
| | | % | 8.1% | 3.5% | 29.8% | 34.3% | 14.6% | 7.1% | 10.1% | 6.6% | 100.0% |
| | 대전 | N | 49 | 9 | 46 | 60 | 23 | 7 | 21 | 8 | 197 |
| | | % | 24.9% | 4.6% | 23.4% | 30.5% | 11.7% | 3.6% | 10.7% | 4.1% | 100.0% |
| 전체 | | N | 116 | 48 | 216 | 355 | 147 | 42 | 86 | 67 | 2984 |
| | | % | 11.6% | 4.8% | 21.6% | 35.5% | 14.7% | 4.2% | 8.6% | 6.7% | 298.7% |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주 2: 12) 고대 위인, 13) 현대 위인, 14) 스포츠 스타, 15) 음식, 16) 제품, 17) 현대건축물(랜드마크), 18) 관광상품, 19) 지역축제

부표 23 상대국(중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1)

| | | | 문화예술자원 | | | | | | 지역자원 | | | 역사적발명품과 사건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성 | 남자 | N | 79 | 12 | 22 | 91 | 25 | 52 | 225 | 183 | 95 | 25 | 136 |
| | | % | 15.6% | 2.4% | 4.3% | 18.0% | 4.9% | 10.3% | 44.5% | 36.2% | 18.8% | 4.9% | 26.9% |
| | 여자 | N | 59 | 12 | 27 | 146 | 42 | 61 | 215 | 169 | 122 | 14 | 99 |
| | | % | 11.8% | 2.4% | 5.4% | 29.3% | 8.4% | 12.2% | 43.2% | 33.9% | 24.5% | 2.8% | 19.9% |
| 신분 | 대학생 | N | 97 | 18 | 37 | 167 | 53 | 90 | 303 | 229 | 175 | 28 | 177 |
| | | % | 13.1% | 2.4% | 5.0% | 22.5% | 7.2% | 12.1% | 40.9% | 30.9% | 23.6% | 3.8% | 23.9% |
| | 대학원생 | N | 41 | 6 | 12 | 70 | 14 | 23 | 137 | 123 | 42 | 11 | 58 |
| | | % | 15.6% | 2.3% | 4.6% | 26.6% | 5.3% | 8.7% | 52.1% | 46.8% | 16.0% | 4.2% | 22.1% |
| 거주지역 | 서울 | N | 37 | 3 | 11 | 49 | 17 | 16 | 95 | 67 | 41 | 8 | 45 |
| | | % | 18.5% | 1.5% | 5.5% | 24.5% | 8.5% | 8.0% | 47.5% | 33.5% | 20.5% | 4.0% | 22.5% |
| | 부산 | N | 19 | 6 | 10 | 44 | 15 | 30 | 91 | 69 | 34 | 8 | 47 |
| | | % | 9.5% | 3.0% | 5.0% | 22.0% | 7.5% | 15.0% | 45.5% | 34.5% | 17.0% | 4.0% | 23.5% |
| | 대구 | N | 30 | 2 | 11 | 32 | 11 | 22 | 89 | 72 | 55 | 11 | 50 |
| | | % | 14.6% | 1.0% | 5.4% | 15.6% | 5.4% | 10.7% | 43.4% | 35.1% | 26.8% | 5.4% | 24.4% |
| | 광주 | N | 31 | 11 | 8 | 60 | 19 | 25 | 87 | 71 | 35 | 7 | 39 |
| | | % | 15.5% | 5.5% | 4.0% | 30.0% | 9.5% | 12.5% | 43.5% | 35.5% | 17.5% | 3.5% | 19.5% |
| | 대전 | N | 21 | 2 | 9 | 52 | 5 | 20 | 78 | 73 | 52 | 5 | 54 |
| | | % | 10.6% | 1.0% | 4.5% | 26.1% | 2.5% | 10.1% | 39.2% | 36.7% | 26.1% | 2.5% | 27.1% |
| 전체 | | N | 138 | 24 | 49 | 237 | 67 | 113 | 440 | 352 | 217 | 39 | 235 |
| | | % | 13.7% | 2.4% | 4.9% | 23.6% | 6.7% | 11.3% | 43.8% | 35.1% | 21.6% | 3.9% | 23.4% |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주 2: 1) 전통문학 및 도서, 2) 현대문학 및 도서, 3) 미술작품, 4) 전통문화, 5) 무형문화제, 6) 대중문화, 7) 역사유적지, 8) 자연유산, 9) 도시, 10) 역사적 발명품, 11) 역사적 사건

부표 23 상대국(중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2)

| | | | 인물자원 | | | 생활문화자원 | | | | | 합계 |
|---|---|---|---|---|---|---|---|---|---|---|---|
| |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 성 | 남자 | N | 125 | 15 | 78 | 162 | 25 | 38 | 90 | 36 | 506 |
| | | % | 24.7% | 3.0% | 15.4% | 32.0% | 4.9% | 7.5% | 17.8% | 7.1% | 100.0% |
| | 여자 | N | 61 | 15 | 43 | 187 | 19 | 40 | 93 | 68 | 498 |
| | | % | 12.2% | 3.0% | 8.6% | 37.6% | 3.8% | 8.0% | 18.7% | 13.7% | 100.0% |
| 신분 | 대학생 | N | 137 | 27 | 97 | 260 | 35 | 61 | 142 | 85 | 741 |
| | | % | 18.5% | 3.6% | 13.1% | 35.1% | 4.7% | 8.2% | 19.2% | 11.5% | 100.0% |
| | 대학원생 | N | 49 | 3 | 24 | 89 | 9 | 17 | 41 | 19 | 263 |
| | | % | 18.6% | 1.1% | 9.1% | 33.8% | 3.4% | 6.5% | 15.6% | 7.2% | 100.0% |
| 거주지역 | 서울 | N | 41 | 4 | 27 | 81 | 7 | 13 | 25 | 13 | 200 |
| | | % | 20.5% | 2.0% | 13.5% | 40.5% | 3.5% | 6.5% | 12.5% | 6.5% | 100.0% |
| | 부산 | N | 30 | 1 | 24 | 86 | 8 | 15 | 36 | 27 | 200 |
| | | % | 15.0% | .5% | 12.0% | 43.0% | 4.0% | 7.5% | 18.0% | 13.5% | 100.0% |
| | 대구 | N | 33 | 8 | 30 | 71 | 8 | 23 | 37 | 16 | 205 |
| | | % | 16.1% | 3.9% | 14.6% | 34.6% | 3.9% | 11.2% | 18.0% | 7.8% | 100.0% |
| | 광주 | N | 24 | 5 | 25 | 64 | 12 | 14 | 47 | 16 | 200 |
| | | % | 12.0% | 2.5% | 12.5% | 32.0% | 6.0% | 7.0% | 23.5% | 8.0% | 100.0% |
| | 대전 | N | 58 | 12 | 15 | 47 | 9 | 13 | 38 | 32 | 199 |
| | | % | 29.1% | 6.0% | 7.5% | 23.6% | 4.5% | 6.5% | 19.1% | 16.1% | 100.0% |
| 전체 | | N | 186 | 30 | 121 | 349 | 44 | 78 | 183 | 104 | 3006 |
| | | % | 18.5% | 3.0% | 12.1% | 34.8% | 4.4% | 7.8% | 18.2% | 10.4% | 299.4% |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주 2: 12) 고대 위인, 13) 현대 위인, 14) 스포츠 스타, 15) 음식, 16) 제품, 17) 현대건축물(랜드마크), 18) 관광상품, 19) 지역축제

**부표 24**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1(전통문학 및 도서)

| | | | 구운몽 | 전우치전 | 홍길동전 | 양반전 | 춘향전 | 심청전 | 금오신화 | 사씨남정기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104 | 21 | 151 | 38 | 80 | 67 | 27 | 10 | 7 | 18.455 (.018) |
| | | % | 20.6% | 4.2% | 29.9% | 7.5% | 15.8% | 13.3% | 5.3% | 2.0% | 1.4% | |
| | 여자 | N | 96 | 15 | 128 | 21 | 97 | 82 | 39 | 18 | 2 | |
| | | % | 19.3% | 3.0% | 25.7% | 4.2% | 19.5% | 16.5% | 7.8% | 3.6% | .4% | |
| 신분 | 대학생 | N | 140 | 29 | 213 | 46 | 121 | 105 | 58 | 23 | 5 | 16.683 (.034) |
| | | % | 18.9% | 3.9% | 28.8% | 6.2% | 16.4% | 14.2% | 7.8% | 3.1% | .7% | |
| | 대학원생 | N | 60 | 7 | 66 | 13 | 56 | 44 | 8 | 5 | 4 | |
| | | % | 22.8% | 2.7% | 25.1% | 4.9% | 21.3% | 16.7% | 3.0% | 1.9% | 1.5% | |
| 거주지역 | 서울 | N | 54 | 5 | 42 | 9 | 36 | 33 | 8 | 9 | 4 | 55.070 (.007) |
| | | % | 27.0% | 2.5% | 21.0% | 4.5% | 18.0% | 16.5% | 4.0% | 4.5% | 2.0% | |
| | 부산 | N | 39 | 8 | 55 | 9 | 36 | 30 | 19 | 3 | 1 | |
| | | % | 19.5% | 4.0% | 27.5% | 4.5% | 18.0% | 15.0% | 9.5% | 1.5% | .5% | |
| | 대구 | N | 39 | 7 | 54 | 10 | 33 | 34 | 20 | 6 | 2 | |
| | | % | 19.0% | 3.4% | 26.3% | 4.9% | 16.1% | 16.6% | 9.8% | 2.9% | 1.0% | |
| | 광주 | N | 36 | 10 | 69 | 7 | 38 | 27 | 9 | 2 | 1 | |
| | | % | 18.1% | 5.0% | 34.7% | 3.5% | 19.1% | 13.6% | 4.5% | 1.0% | .5% | |
| | 대전 | N | 32 | 6 | 59 | 24 | 34 | 25 | 10 | 8 | 1 | |
| | | % | 16.1% | 3.0% | 29.6% | 12.1% | 17.1% | 12.6% | 5.0% | 4.0% | .5% | |
| 전체 | | N | 200 | 36 | 279 | 59 | 177 | 149 | 66 | 28 | 9 | 1003 |
| | | % | 19.9% | 3.6% | 27.8% | 5.9% | 17.6% | 14.9% | 6.6% | 2.8% | .9% | 100.0% |

**부표 25**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2(현대문학작가)

| | | | 한용운 | 이광수 | 염상섭 | 이상 | 윤동주 | 김소월 | 황순원 | 박완서 | 이문열 | 박경리 | 신경숙 | 김훈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52 | 13 | 12 | 59 | 144 | 78 | 24 | 28 | 32 | 32 | 9 | 11 | 10 | 34.768 (.001) |
| | | % | 10.3% | 2.6% | 2.4% | 11.7% | 28.6% | 15.5% | 4.8% | 5.6% | 6.3% | 6.3% | 1.8% | 2.2% | 2.0% | |
| | 여자 | N | 41 | 13 | 14 | 65 | 151 | 72 | 13 | 35 | 7 | 57 | 18 | 7 | 5 | |
| | | % | 8.2% | 2.6% | 2.8% | 13.1% | 30.3% | 14.5% | 2.6% | 7.0% | 1.4% | 11.4% | 3.6% | 1.4% | 1.0% | |
| 신분 | 대학생 | N | 75 | 21 | 24 | 91 | 224 | 116 | 29 | 47 | 20 | 55 | 17 | 14 | 7 | 34.007 (.001) |
| | | % | 10.1% | 2.8% | 3.2% | 12.3% | 30.3% | 15.7% | 3.9% | 6.4% | 2.7% | 7.4% | 2.3% | 1.9% | .9% | |
| | 대학원생 | N | 18 | 5 | 2 | 33 | 71 | 34 | 8 | 16 | 19 | 34 | 10 | 4 | 8 | |
| | | % | 6.9% | 1.9% | .8% | 12.6% | 27.1% | 13.0% | 3.1% | 6.1% | 7.3% | 13.0% | 3.8% | 1.5% | 3.1% | |
| 거주지역 | 서울 | N | 17 | 2 | 5 | 35 | 53 | 21 | 10 | 16 | 7 | 17 | 5 | 7 | 5 | 75.600 (.007) |
| | | % | 8.5% | 1.0% | 2.5% | 17.5% | 26.5% | 10.5% | 5.0% | 8.0% | 3.5% | 8.5% | 2.5% | 3.5% | 2.5% | |
| | 부산 | N | 17 | 6 | 4 | 20 | 71 | 35 | 8 | 12 | 3 | 18 | 4 | 2 | 0 | |
| | | % | 8.5% | 3.0% | 2.0% | 10.0% | 35.5% | 17.5% | 4.0% | 6.0% | 1.5% | 9.0% | 2.0% | 1.0% | .0% | |
| | 대구 | N | 18 | 4 | 4 | 28 | 52 | 28 | 4 | 15 | 13 | 25 | 6 | 4 | 3 | |
| | | % | 8.8% | 2.0% | 2.0% | 13.7% | 25.5% | 13.7% | 2.0% | 7.4% | 6.4% | 12.3% | 2.9% | 2.0% | 1.5% | |
| | 광주 | N | 16 | 9 | 9 | 26 | 62 | 25 | 10 | 8 | 7 | 13 | 11 | 2 | 1 | |
| | | % | 8.0% | 4.5% | 4.5% | 13.1% | 31.2% | 12.6% | 5.0% | 4.0% | 3.5% | 6.5% | 5.5% | 1.0% | .5% | |
| | 대전 | N | 25 | 5 | 4 | 15 | 57 | 41 | 5 | 12 | 9 | 16 | 1 | 3 | 6 | |
| | | % | 12.6% | 2.5% | 2.0% | 7.5% | 28.6% | 20.6% | 2.5% | 6.0% | 4.5% | 8.0% | .5% | 1.5% | 3.0% | |
| 전체 | | N | 93 | 26 | 26 | 124 | 295 | 150 | 37 | 63 | 39 | 89 | 27 | 18 | 15 | 1002 |
| | | % | 9.3% | 2.6% | 2.6% | 12.4% | 29.4% | 15.0% | 3.7% | 6.3% | 3.9% | 8.9% | 2.7% | 1.8% | 1.5% | 100.0% |

부표 26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3(미술작품)

| | | | 공예품 | 도자기 | 비디오아트 | 사진 | 설치미술 | 동양화 | 서양화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86 | 240 | 47 | 9 | 14 | 102 | 3 | 4 | 26.308 (.000) |
| | | % | 17.0% | 47.5% | 9.3% | 1.8% | 2.8% | 20.2% | .6% | .8% | |
| | 여자 | N | 141 | 188 | 30 | 9 | 8 | 113 | 4 | 2 | |
| | | % | 28.5% | 38.0% | 6.1% | 1.8% | 1.6% | 22.8% | .8% | .4% | |
| 신분 | 대학생 | N | 151 | 338 | 48 | 16 | 19 | 159 | 7 | 2 | 28.983 (.000) |
| | | % | 20.4% | 45.7% | 6.5% | 2.2% | 2.6% | 21.5% | .9% | .3% | |
| | 대학원생 | N | 76 | 90 | 29 | 2 | 3 | 56 | 0 | 4 | |
| | | % | 29.2% | 34.6% | 11.2% | .8% | 1.2% | 21.5% | .0% | 1.5% | |
| 거주지역 | 서울 | N | 50 | 86 | 15 | 4 | 7 | 35 | 0 | 2 | 59.053 (.001) |
| | | % | 25.1% | 43.2% | 7.5% | 2.0% | 3.5% | 17.6% | .0% | 1.0% | |
| | 부산 | N | 27 | 99 | 12 | 7 | 5 | 48 | 0 | 2 | |
| | | % | 13.5% | 49.5% | 6.0% | 3.5% | 2.5% | 24.0% | .0% | 1.0% | |
| | 대구 | N | 41 | 84 | 16 | 2 | 4 | 51 | 4 | 1 | |
| | | % | 20.2% | 41.4% | 7.9% | 1.0% | 2.0% | 25.1% | 2.0% | .5% | |
| | 광주 | N | 39 | 81 | 23 | 2 | 6 | 47 | 2 | 0 | |
| | | % | 19.5% | 40.5% | 11.5% | 1.0% | 3.0% | 23.5% | 1.0% | .0% | |
| | 대전 | N | 70 | 78 | 11 | 3 | 0 | 34 | 1 | 1 | |
| | | % | 35.4% | 39.4% | 5.6% | 1.5% | .0% | 17.2% | .5% | .5% | |
| 전체 | | N | 227 | 428 | 77 | 18 | 22 | 215 | 7 | 6 | 1000 |
| | | % | 22.7% | 42.8% | 7.7% | 1.8% | 2.2% | 21.5% | .7% | .6% | 100.0% |

부표 27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4(전통놀이 혹은 운동)

| | | | 태권도 | 태껸 | 제기차기 | 윷놀이 | 팽이치기 | 그네타기 | 널뛰기 | 썰매타기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299 | 98 | 10 | 69 | 5 | 9 | 9 | 4 | 3 | 23.429 (.003) |
| | | % | 59.1% | 19.4% | 2.0% | 13.6% | 1.0% | 1.8% | 1.8% | .8% | .6% | |
| | 여자 | N | 329 | 63 | 5 | 68 | 1 | 3 | 23 | 4 | 1 | |
| | | % | 66.2% | 12.7% | 1.0% | 13.7% | .2% | .6% | 4.6% | .8% | .2% | |
| 신분 | 대학생 | N | 480 | 114 | 7 | 89 | 3 | 9 | 28 | 7 | 3 | 19.883 (.011) |
| | | % | 64.9% | 15.4% | .9% | 12.0% | .4% | 1.2% | 3.8% | .9% | .4% | |
| | 대학원생 | N | 148 | 47 | 8 | 48 | 3 | 3 | 4 | 1 | 1 | |
| | | % | 56.3% | 17.9% | 3.0% | 18.3% | 1.1% | 1.1% | 1.5% | .4% | .4% | |
| 거주지역 | 서울 | N | 117 | 35 | 3 | 26 | 2 | 3 | 10 | 3 | 1 | 43.964 (.077) |
| | | % | 58.5% | 17.5% | 1.5% | 13.0% | 1.0% | 1.5% | 5.0% | 1.5% | .5% | |
| | 부산 | N | 147 | 23 | 4 | 19 | 1 | 1 | 4 | 0 | 0 | |
| | | % | 73.9% | 11.6% | 2.0% | 9.5% | .5% | .5% | 2.0% | .0% | .0% | |
| | 대구 | N | 129 | 27 | 4 | 35 | 0 | 4 | 3 | 2 | 1 | |
| | | % | 62.9% | 13.2% | 2.0% | 17.1% | .0% | 2.0% | 1.5% | 1.0% | .5% | |
| | 광주 | N | 131 | 31 | 1 | 25 | 2 | 3 | 5 | 2 | 0 | |
| | | % | 65.5% | 15.5% | .5% | 12.5% | 1.0% | 1.5% | 2.5% | 1.0% | .0% | |
| | 대전 | N | 104 | 45 | 3 | 32 | 1 | 1 | 10 | 1 | 2 | |
| | | % | 52.3% | 22.6% | 1.5% | 16.1% | .5% | .5% | 5.0% | .5% | 1.0% | |
| 전체 | | N | 628 | 161 | 15 | 137 | 6 | 12 | 32 | 8 | 4 | 1003 |
| | | % | 62.6% | 16.1% | 1.5% | 13.7% | .6% | 1.2% | 3.2% | .8% | .4% | 100.0% |

부표 28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5(무형문화제)

| | | | 판소리 | 단오제 | 탈춤 | 강강술래 | 농악 | 타령 | 종묘제례악 | 줄타기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225 | 10 | 93 | 39 | 37 | 5 | 54 | 39 | 4 | 12.725 (.122) |
| | | % | 44.5% | 2.0% | 18.4% | 7.7% | 7.3% | 1.0% | 10.7% | 7.7% | .8% | |
| | 여자 | N | 227 | 10 | 106 | 36 | 42 | 4 | 54 | 16 | 1 | |
| | | % | 45.8% | 2.0% | 21.4% | 7.3% | 8.5% | .8% | 10.9% | 3.2% | .2% | |
| 신분 | 대학생 | N | 352 | 13 | 146 | 55 | 49 | 5 | 78 | 38 | 3 | 13.172 (.106) |
| | | % | 47.6% | 1.8% | 19.8% | 7.4% | 6.6% | .7% | 10.6% | 5.1% | .4% | |
| | 대학원생 | N | 100 | 7 | 53 | 20 | 30 | 4 | 30 | 17 | 2 | |
| | | % | 38.0% | 2.7% | 20.2% | 7.6% | 11.4% | 1.5% | 11.4% | 6.5% | .8% | |
| 거주지역 | 서울 | N | 87 | 4 | 47 | 9 | 18 | 3 | 18 | 10 | 3 | 36.863 (.254) |
| | | % | 43.7% | 2.0% | 23.6% | 4.5% | 9.0% | 1.5% | 9.0% | 5.0% | 1.5% | |
| | 부산 | N | 89 | 3 | 42 | 15 | 10 | 1 | 26 | 14 | 0 | |
| | | % | 44.5% | 1.5% | 21.0% | 7.5% | 5.0% | .5% | 13.0% | 7.0% | .0% | |
| | 대구 | N | 86 | 2 | 49 | 16 | 19 | 0 | 23 | 8 | 2 | |
| | | % | 42.0% | 1.0% | 23.9% | 7.8% | 9.3% | .0% | 11.2% | 3.9% | 1.0% | |
| | 광주 | N | 89 | 5 | 30 | 22 | 16 | 2 | 22 | 13 | 0 | |
| | | % | 44.7% | 2.5% | 15.1% | 11.1% | 8.0% | 1.0% | 11.1% | 6.5% | .0% | |
| | 대전 | N | 101 | 6 | 31 | 13 | 16 | 3 | 19 | 10 | 0 | |
| | | % | 50.8% | 3.0% | 15.6% | 6.5% | 8.0% | 1.5% | 9.5% | 5.0% | .0% | |
| 전체 | | N | 452 | 20 | 199 | 75 | 79 | 9 | 108 | 55 | 5 | 1002 |
| | | % | 45.1% | 2.0% | 19.9% | 7.5% | 7.9% | .9% | 10.8% | 5.5% | .5% | 100.0% |

부표 29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6(대중문화)

| | | | 대중가요 | 영화 | 드라마 | 뮤지컬 | 연극 | 애니메이션 | 만화 | 컴퓨터게임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261 | 72 | 75 | 8 | 6 | 2 | 3 | 75 | 4 | 49.473 (.000) |
| | | % | 51.6% | 14.2% | 14.8% | 1.6% | 1.2% | .4% | .6% | 14.8% | .8% | |
| | 여자 | N | 269 | 106 | 80 | 13 | 5 | 4 | 4 | 15 | 2 | |
| | | % | 54.0% | 21.3% | 16.1% | 2.6% | 1.0% | .8% | .8% | 3.0% | .4% | |
| 신분 | 대학생 | N | 392 | 127 | 112 | 16 | 8 | 4 | 7 | 69 | 6 | 5.976 (.650) |
| | | % | 52.9% | 17.1% | 15.1% | 2.2% | 1.1% | .5% | .9% | 9.3% | .8% | |
| | 대학원생 | N | 138 | 51 | 43 | 5 | 3 | 2 | 0 | 21 | 0 | |
| | | % | 52.5% | 19.4% | 16.3% | 1.9% | 1.1% | .8% | .0% | 8.0% | .0% | |
| 거주지역 | 서울 | N | 103 | 30 | 33 | 2 | 2 | 1 | 2 | 26 | 1 | 51.899 (.015) |
| | | % | 51.5% | 15.0% | 16.5% | 1.0% | 1.0% | .5% | 1.0% | 13.0% | .5% | |
| | 부산 | N | 122 | 39 | 20 | 6 | 2 | 1 | 2 | 8 | 0 | |
| | | % | 61.0% | 19.5% | 10.0% | 3.0% | 1.0% | .5% | 1.0% | 4.0% | .0% | |
| | 대구 | N | 86 | 46 | 35 | 4 | 3 | 2 | 1 | 26 | 2 | |
| | | % | 42.0% | 22.4% | 17.1% | 2.0% | 1.5% | 1.0% | .5% | 12.7% | 1.0% | |
| | 광주 | N | 118 | 25 | 27 | 3 | 1 | 2 | 2 | 21 | 1 | |
| | | % | 59.0% | 12.5% | 13.5% | 1.5% | .5% | 1.0% | 1.0% | 10.5% | .5% | |
| | 대전 | N | 101 | 38 | 40 | 6 | 3 | 0 | 0 | 9 | 2 | |
| | | % | 50.8% | 19.1% | 20.1% | 3.0% | 1.5% | .0% | .0% | 4.5% | 1.0% | |
| 전체 | | N | 530 | 178 | 155 | 21 | 11 | 6 | 7 | 90 | 6 | 1004 |
| | | % | 52.8% | 17.7% | 15.4% | 2.1% | 1.1% | .6% | .7% | 9.0% | .6% | 100.0% |

**부표 30**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1(역사유적지)

| | | | 경주 | 안동 | 남대문 | 경복궁 | 해인사 | 김해가야 유적 | 낙화암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244 | 49 | 18 | 88 | 95 | 3 | 3 | 6 | 12.376 (.089) |
| | | % | 48.2% | 9.7% | 3.6% | 17.4% | 18.8% | .6% | .6% | 1.2% | |
| | 여자 | N | 206 | 68 | 21 | 103 | 93 | 2 | 1 | 1 | |
| | | % | 41.6% | 13.7% | 4.2% | 20.8% | 18.8% | .4% | .2% | .2% | |
| 신분 | 대학생 | N | 327 | 87 | 32 | 149 | 132 | 5 | 4 | 4 | 8.913 (.259) |
| | | % | 44.2% | 11.8% | 4.3% | 20.1% | 17.8% | .7% | .5% | .5% | |
| | 대학원생 | N | 123 | 30 | 7 | 42 | 56 | 0 | 0 | 3 | |
| | | % | 47.1% | 11.5% | 2.7% | 16.1% | 21.5% | .0% | .0% | 1.1% | |
| 거주지역 | 서울 | N | 84 | 23 | 6 | 45 | 36 | 1 | 2 | 2 | 65.291 (.000) |
| | | % | 42.2% | 11.6% | 3.0% | 22.6% | 18.1% | .5% | 1.0% | 1.0% | |
| | 부산 | N | 88 | 17 | 8 | 32 | 50 | 4 | 1 | 0 | |
| | | % | 44.0% | 8.5% | 4.0% | 16.0% | 25.0% | 2.0% | .5% | .0% | |
| | 대구 | N | 98 | 17 | 3 | 34 | 50 | 0 | 1 | 2 | |
| | | % | 47.8% | 8.3% | 1.5% | 16.6% | 24.4% | .0% | .5% | 1.0% | |
| | 광주 | N | 83 | 22 | 14 | 46 | 31 | 0 | 0 | 3 | |
| | | % | 41.7% | 11.1% | 7.0% | 23.1% | 15.6% | .0% | .0% | 1.5% | |
| | 대전 | N | 97 | 38 | 8 | 34 | 21 | 0 | 0 | 0 | |
| | | % | 49.0% | 19.2% | 4.0% | 17.2% | 10.6% | .0% | .0% | .0% | |
| 전체 | | N | 450 | 117 | 39 | 191 | 188 | 5 | 4 | 7 | 1001 |
| | | % | 45.0% | 11.7% | 3.9% | 19.1% | 18.8% | .5% | .4% | .7% | 100.0% |

**부표 31**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2(자연유산)

| | | | 제주도 | 강화도 | 설악산 | 지리산 | 다도해상 국립공원 | 순천만 | 홍도 | 태안반도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342 | 13 | 39 | 36 | 34 | 25 | 3 | 5 | 9 | 13.912 (.084) |
| | | % | 67.6% | 2.6% | 7.7% | 7.1% | 6.7% | 4.9% | .6% | 1.0% | 1.8% | |
| | 여자 | N | 365 | 11 | 27 | 19 | 31 | 22 | 0 | 7 | 16 | |
| | | % | 73.3% | 2.2% | 5.4% | 3.8% | 6.2% | 4.4% | .0% | 1.4% | 3.2% | |
| 신분 | 대학생 | N | 526 | 20 | 49 | 47 | 34 | 39 | 1 | 7 | 18 | 26.776 (.001) |
| | | % | 71.0% | 2.7% | 6.6% | 6.3% | 4.6% | 5.3% | .1% | .9% | 2.4% | |
| | 대학원생 | N | 181 | 4 | 17 | 8 | 31 | 8 | 2 | 5 | 7 | |
| | | % | 68.8% | 1.5% | 6.5% | 3.0% | 11.8% | 3.0% | .8% | 1.9% | 2.7% | |
| 거주지역 | 서울 | N | 141 | 8 | 16 | 14 | 10 | 8 | 0 | 2 | 1 | 56.695 (.005) |
| | | % | 70.5% | 4.0% | 8.0% | 7.0% | 5.0% | 4.0% | .0% | 1.0% | .5% | |
| | 부산 | N | 143 | 4 | 12 | 11 | 13 | 1 | 0 | 4 | 12 | |
| | | % | 71.5% | 2.0% | 6.0% | 5.5% | 6.5% | .5% | .0% | 2.0% | 6.0% | |
| | 대구 | N | 139 | 4 | 16 | 6 | 16 | 12 | 1 | 4 | 7 | |
| | | % | 67.8% | 2.0% | 7.8% | 2.9% | 7.8% | 5.9% | .5% | 2.0% | 3.4% | |
| | 광주 | N | 133 | 4 | 11 | 11 | 20 | 13 | 2 | 2 | 4 | |
| | | % | 66.5% | 2.0% | 5.5% | 5.5% | 10.0% | 6.5% | 1.0% | 1.0% | 2.0% | |
| | 대전 | N | 151 | 4 | 11 | 13 | 6 | 13 | 0 | 0 | 1 | |
| | | % | 75.9% | 2.0% | 5.5% | 6.5% | 3.0% | 6.5% | .0% | .0% | .5% | |
| 전체 | | N | 707 | 24 | 66 | 55 | 65 | 47 | 3 | 12 | 25 | 1004 |
| | | % | 70.4% | 2.4% | 6.6% | 5.5% | 6.5% | 4.7% | .3% | 1.2% | 2.5% | 100.0% |

부표 32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3(도시)

| |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241 | 162 | 23 | 8 | 38 | 14 | 18 | 3.206 (.783) |
| | | % | 47.8% | 32.1% | 4.6% | 1.6% | 7.5% | 2.8% | 3.6% | |
| | 여자 | N | 218 | 171 | 22 | 12 | 39 | 12 | 24 | |
| | | % | 43.8% | 34.3% | 4.4% | 2.4% | 7.8% | 2.4% | 4.8% | |
| 신분 | 대학생 | N | 329 | 255 | 34 | 13 | 63 | 22 | 24 | 13.446 (.036) |
| | | % | 44.5% | 34.5% | 4.6% | 1.8% | 8.5% | 3.0% | 3.2% | |
| | 대학원생 | N | 130 | 78 | 11 | 7 | 14 | 4 | 18 | |
| | | % | 49.6% | 29.8% | 4.2% | 2.7% | 5.3% | 1.5% | 6.9% | |
| 거주지역 | 서울 | N | 144 | 29 | 4 | 7 | 4 | 2 | 9 | 564.420 (.000) |
| | | % | 72.4% | 14.6% | 2.0% | 3.5% | 2.0% | 1.0% | 4.5% | |
| | 부산 | N | 39 | 152 | 2 | 0 | 1 | 1 | 5 | |
| | | % | 19.5% | 76.0% | 1.0% | .0% | .5% | .5% | 2.5% | |
| | 대구 | N | 90 | 61 | 33 | 4 | 1 | 1 | 15 | |
| | | % | 43.9% | 29.8% | 16.1% | 2.0% | .5% | .5% | 7.3% | |
| | 광주 | N | 88 | 37 | 1 | 5 | 64 | 0 | 5 | |
| | | % | 44.0% | 18.5% | .5% | 2.5% | 32.0% | .0% | 2.5% | |
| | 대전 | N | 98 | 54 | 5 | 4 | 7 | 22 | 8 | |
| | | % | 49.5% | 27.3% | 2.5% | 2.0% | 3.5% | 11.1% | 4.0% | |
| 전체 | | N | 459 | 333 | 45 | 20 | 77 | 26 | 42 | 1002 |
| | | % | 45.8% | 33.2% | 4.5% | 2.0% | 7.7% | 2.6% | 4.2% | 100.0% |

부표 33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1(역사적 발명품)

| | | | 한글 | 인쇄기술 | 도자기 | 한복 | 거북선 | 신기전 | 온돌 | 대동여지도 | $x^2$ (p) |
|---|---|---|---|---|---|---|---|---|---|---|---|
| 성 | 남자 | N | 357 | 47 | 29 | 22 | 18 | 5 | 19 | 9 | 11.448 (.120) |
| | | % | 70.6% | 9.3% | 5.7% | 4.3% | 3.6% | 1.0% | 3.8% | 1.8% | |
| | 여자 | N | 355 | 45 | 23 | 30 | 11 | 0 | 28 | 5 | |
| | | % | 71.4% | 9.1% | 4.6% | 6.0% | 2.2% | .0% | 5.6% | 1.0% | |
| 신분 | 대학생 | N | 530 | 65 | 40 | 36 | 23 | 2 | 31 | 13 | 8.975 (.254) |
| | | % | 71.6% | 8.8% | 5.4% | 4.9% | 3.1% | .3% | 4.2% | 1.8% | |
| | 대학원생 | N | 182 | 27 | 12 | 16 | 6 | 3 | 16 | 1 | |
| | | % | 69.2% | 10.3% | 4.6% | 6.1% | 2.3% | 1.1% | 6.1% | .4% | |
| 거주지역 | 서울 | N | 133 | 23 | 11 | 13 | 5 | 1 | 14 | 0 | 34.858 (.174) |
| | | % | 66.5% | 11.5% | 5.5% | 6.5% | 2.5% | .5% | 7.0% | .0% | |
| | 부산 | N | 144 | 16 | 6 | 13 | 5 | 2 | 10 | 4 | |
| | | % | 72.0% | 8.0% | 3.0% | 6.5% | 2.5% | 1.0% | 5.0% | 2.0% | |
| | 대구 | N | 152 | 16 | 14 | 7 | 3 | 1 | 8 | 3 | |
| | | % | 74.5% | 7.8% | 6.9% | 3.4% | 1.5% | .5% | 3.9% | 1.5% | |
| | 광주 | N | 134 | 19 | 11 | 14 | 7 | 1 | 7 | 7 | |
| | | % | 67.0% | 9.5% | 5.5% | 7.0% | 3.5% | .5% | 3.5% | 3.5% | |
| | 대전 | N | 149 | 18 | 10 | 5 | 9 | 0 | 8 | 0 | |
| | | % | 74.9% | 9.0% | 5.0% | 2.5% | 4.5% | .0% | 4.0% | .0% | |
| 전체 | | N | 712 | 92 | 52 | 52 | 29 | 5 | 47 | 14 | 1003 |
| | | % | 71.0% | 9.2% | 5.2% | 5.2% | 2.9% | .5% | 4.7% | 1.4% | 100.0% |

부표 34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2(역사적 사건)

| | | | 3·1운동 | 6.25 전쟁 | 4.19 항쟁 | 5.18광주민주화운동 | 88올림픽 | 2002 서울 월드컵 | 대전엑스포 | 여수엑스포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184 | 101 | 9 | 90 | 19 | 88 | 3 | 7 | 4 | 33.278 (.000) |
| | | % | 36.4% | 20.0% | 1.8% | 17.8% | 3.8% | 17.4% | .6% | 1.4% | .8% | |
| | 여자 | N | 239 | 49 | 10 | 99 | 23 | 69 | 1 | 7 | 0 | |
| | | % | 48.1% | 9.9% | 2.0% | 19.9% | 4.6% | 13.9% | .2% | 1.4% | .0% | |
| 신분 | 대학생 | N | 331 | 114 | 15 | 136 | 25 | 105 | 4 | 9 | 1 | 20.645 (.008) |
| | | % | 44.7% | 15.4% | 2.0% | 18.4% | 3.4% | 14.2% | .5% | 1.2% | .1% | |
| | 대학원생 | N | 92 | 36 | 4 | 53 | 17 | 52 | 0 | 5 | 3 | |
| | | % | 35.1% | 13.7% | 1.5% | 20.2% | 6.5% | 19.8% | .0% | 1.9% | 1.1% | |
| 거주지역 | 서울 | N | 86 | 24 | 4 | 41 | 5 | 36 | 3 | 1 | 0 | 148.682 (.000) |
| | | % | 43.0% | 12.0% | 2.0% | 20.5% | 2.5% | 18.0% | 1.5% | .5% | .0% | |
| | 부산 | N | 80 | 41 | 0 | 30 | 12 | 34 | 0 | 1 | 2 | |
| | | % | 40.0% | 20.5% | .0% | 15.0% | 6.0% | 17.0% | .0% | .5% | 1.0% | |
| | 대구 | N | 99 | 29 | 9 | 29 | 6 | 31 | 0 | 1 | 0 | |
| | | % | 48.5% | 14.2% | 4.4% | 14.2% | 2.9% | 15.2% | .0% | .5% | .0% | |
| | 광주 | N | 41 | 35 | 5 | 69 | 9 | 30 | 0 | 11 | 0 | |
| | | % | 20.5% | 17.5% | 2.5% | 34.5% | 4.5% | 15.0% | .0% | 5.5% | .0% | |
| | 대전 | N | 117 | 21 | 1 | 20 | 10 | 26 | 1 | 0 | 2 | |
| | | % | 59.1% | 10.6% | .5% | 10.1% | 5.1% | 13.1% | .5% | .0% | 1.0% | |
| 전체 | | N | 423 | 150 | 19 | 189 | 42 | 157 | 4 | 14 | 4 | 1002 |
| | | % | 42.2% | 15.0% | 1.9% | 18.9% | 4.2% | 15.7% | .4% | 1.4% | .4% | 100.0% |

부표 35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1(고대위인)

| | | | 광개토대왕 | 강감찬 | 김유신 | 원효대사 | 최치원 | 세종대왕 | 이순신 | 율곡이이 | 허준 | 장영실 | 신사임당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68 | 5 | 11 | 0 | 4 | 266 | 103 | 5 | 8 | 31 | 4 | 1 | 51.897 (.000) |
| | | % | 13.4% | 1.0% | 2.2% | .0% | .8% | 52.6% | 20.4% | 1.0% | 1.6% | 6.1% | .8% | .2% | |
| | 여자 | N | 56 | 4 | 5 | 3 | 3 | 333 | 51 | 4 | 7 | 12 | 20 | 0 | |
| | | % | 11.2% | .8% | 1.0% | .6% | .6% | 66.9% | 10.2% | .8% | 1.4% | 2.4% | 4.0% | .0% | |
| 신분 | 대학생 | N | 95 | 8 | 13 | 3 | 6 | 423 | 117 | 7 | 14 | 34 | 21 | 0 | 15.919 (.144) |
| | | % | 12.8% | 1.1% | 1.8% | .4% | .8% | 57.1% | 15.8% | .9% | 1.9% | 4.6% | 2.8% | .0% | |
| | 대학원생 | N | 29 | 1 | 3 | 0 | 1 | 176 | 37 | 2 | 1 | 9 | 3 | 1 | |
| | | % | 11.0% | .4% | 1.1% | .0% | .4% | 66.9% | 14.1% | .8% | .4% | 3.4% | 1.1% | .4% | |
| 거주지역 | 서울 | N | 27 | 1 | 2 | 0 | 1 | 120 | 36 | 3 | 1 | 7 | 2 | 0 | 73.889 (.003) |
| | | % | 13.5% | .5% | 1.0% | .0% | .5% | 60.0% | 18.0% | 1.5% | .5% | 3.5% | 1.0% | .0% | |
| | 부산 | N | 20 | 2 | 6 | 0 | 2 | 115 | 42 | 1 | 3 | 6 | 2 | 1 | |
| | | % | 10.0% | 1.0% | 3.0% | .0% | 1.0% | 57.5% | 21.0% | .5% | 1.5% | 3.0% | 1.0% | .5% | |
| | 대구 | N | 22 | 1 | 2 | 1 | 3 | 128 | 29 | 2 | 3 | 11 | 3 | 0 | |
| | | % | 10.7% | .5% | 1.0% | .5% | 1.5% | 62.4% | 14.1% | 1.0% | 1.5% | 5.4% | 1.5% | .0% | |
| | 광주 | N | 22 | 5 | 6 | 2 | 0 | 129 | 19 | 1 | 2 | 10 | 4 | 0 | |
| | | % | 11.0% | 2.5% | 3.0% | 1.0% | .0% | 64.5% | 9.5% | .5% | 1.0% | 5.0% | 2.0% | .0% | |
| | 대전 | N | 33 | 0 | 0 | 0 | 1 | 107 | 28 | 2 | 6 | 9 | 13 | 0 | |
| | | % | 16.6% | .0% | .0% | .0% | .5% | 53.8% | 14.1% | 1.0% | 3.0% | 4.5% | 6.5% | .0% | |
| 전체 | | N | 124 | 9 | 16 | 3 | 7 | 599 | 154 | 9 | 15 | 43 | 24 | 1 | 1004 |
| | | % | 12.4% | .9% | 1.6% | .3% | .7% | 59.7% | 15.3% | .9% | 1.5% | 4.3% | 2.4% | .1% | 100.0% |

부표 36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2(현대위인)

| | | | 신채호 | 유관순 | 안중근 | 김구 | 박정희 | 김대중 | 반기문 | 백남준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8 | 66 | 86 | 116 | 33 | 29 | 143 | 18 | 6 | 42.350 (.000) |
| | | % | 1.6% | 13.1% | 17.0% | 23.0% | 6.5% | 5.7% | 28.3% | 3.6% | 1.2% | |
| | 여자 | N | 8 | 121 | 60 | 85 | 9 | 32 | 158 | 21 | 2 | |
| | | % | 1.6% | 24.4% | 12.1% | 17.1% | 1.8% | 6.5% | 31.9% | 4.2% | .4% | |
| 신분 | 대학생 | N | 12 | 162 | 110 | 143 | 29 | 40 | 212 | 25 | 6 | 23.156 (.003) |
| | | % | 1.6% | 21.9% | 14.9% | 19.4% | 3.9% | 5.4% | 28.7% | 3.4% | .8% | |
| | 대학원생 | N | 4 | 25 | 36 | 58 | 13 | 21 | 89 | 14 | 2 | |
| | | % | 1.5% | 9.5% | 13.7% | 22.1% | 5.0% | 8.0% | 34.0% | 5.3% | .8% | |
| 거주지역 | 서울 | N | 2 | 30 | 28 | 54 | 11 | 14 | 55 | 6 | 0 | 149.026 (.000) |
| | | % | 1.0% | 15.0% | 14.0% | 27.0% | 5.5% | 7.0% | 27.5% | 3.0% | .0% | |
| | 부산 | N | 4 | 41 | 33 | 33 | 8 | 5 | 64 | 6 | 4 | |
| | | % | 2.0% | 20.7% | 16.7% | 16.7% | 4.0% | 2.5% | 32.3% | 3.0% | 2.0% | |
| | 대구 | N | 8 | 26 | 34 | 42 | 17 | 5 | 58 | 11 | 3 | |
| | | % | 3.9% | 12.7% | 16.7% | 20.6% | 8.3% | 2.5% | 28.4% | 5.4% | 1.5% | |
| | 광주 | N | 1 | 20 | 27 | 39 | 3 | 34 | 63 | 12 | 1 | |
| | | % | .5% | 10.0% | 13.5% | 19.5% | 1.5% | 17.0% | 31.5% | 6.0% | .5% | |
| | 대전 | N | 1 | 70 | 24 | 33 | 3 | 3 | 61 | 4 | 0 | |
| | | % | .5% | 35.2% | 12.1% | 16.6% | 1.5% | 1.5% | 30.7% | 2.0% | .0% | |
| 전체 | | N | 16 | 187 | 146 | 201 | 42 | 61 | 301 | 39 | 8 | 1001 |
| | | % | 1.6% | 18.7% | 14.6% | 20.1% | 4.2% | 6.1% | 30.1% | 3.9% | .8% | 100.0% |

부표 37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3(스포츠 스타)

| | | | 박지성 | 김연아 | 박태환 | 박세리 | 손기정 | 박찬호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238 | 171 | 20 | 5 | 35 | 24 | 13 | 72.950 (.000) |
| | | % | 47.0% | 33.8% | 4.0% | 1.0% | 6.9% | 4.7% | 2.6% | |
| | 여자 | N | 156 | 290 | 22 | 3 | 19 | 3 | 5 | |
| | | % | 31.3% | 58.2% | 4.4% | .6% | 3.8% | .6% | 1.0% | |
| 신분 | 대학생 | N | 299 | 335 | 34 | 6 | 38 | 15 | 14 | 7.436 (.282) |
| | | % | 40.4% | 45.2% | 4.6% | .8% | 5.1% | 2.0% | 1.9% | |
| | 대학원생 | N | 95 | 126 | 8 | 2 | 16 | 12 | 4 | |
| | | % | 36.1% | 47.9% | 3.0% | .8% | 6.1% | 4.6% | 1.5% | |
| 거주지역 | 서울 | N | 66 | 97 | 11 | 1 | 12 | 8 | 5 | 24.684 (.423) |
| | | % | 33.0% | 48.5% | 5.5% | .5% | 6.0% | 4.0% | 2.5% | |
| | 부산 | N | 84 | 86 | 11 | 1 | 10 | 4 | 4 | |
| | | % | 42.0% | 43.0% | 5.5% | .5% | 5.0% | 2.0% | 2.0% | |
| | 대구 | N | 70 | 101 | 9 | 3 | 16 | 3 | 3 | |
| | | % | 34.1% | 49.3% | 4.4% | 1.5% | 7.8% | 1.5% | 1.5% | |
| | 광주 | N | 82 | 88 | 5 | 2 | 11 | 8 | 4 | |
| | | % | 41.0% | 44.0% | 2.5% | 1.0% | 5.5% | 4.0% | 2.0% | |
| | 대전 | N | 92 | 89 | 6 | 1 | 5 | 4 | 2 | |
| | | % | 46.2% | 44.7% | 3.0% | .5% | 2.5% | 2.0% | 1.0% | |
| 전체 | | N | 394 | 461 | 42 | 8 | 54 | 27 | 18 | 1004 |
| | | % | 39.2% | 45.9% | 4.2% | .8% | 5.4% | 2.7% | 1.8% | 100.0% |

부표 38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1(음식)

| | | | 김치 | 불고기 | 비빔밥 | 인삼 | 라면 | 곱창 | 막걸리 | 소주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226 | 136 | 72 | 7 | 8 | 8 | 24 | 20 | 5 | 12.785 (.119) |
| | | % | 44.7% | 26.9% | 14.2% | 1.4% | 1.6% | 1.6% | 4.7% | 4.0% | 1.0% | |
| | 여자 | N | 249 | 114 | 75 | 6 | 7 | 4 | 33 | 9 | 1 | |
| | | % | 50.0% | 22.9% | 15.1% | 1.2% | 1.4% | .8% | 6.6% | 1.8% | .2% | |
| 신분 | 대학생 | N | 360 | 173 | 110 | 7 | 9 | 9 | 45 | 22 | 6 | 10.928 (.206) |
| | | % | 48.6% | 23.3% | 14.8% | .9% | 1.2% | 1.2% | 6.1% | 3.0% | .8% | |
| | 대학원생 | N | 115 | 77 | 37 | 6 | 6 | 3 | 12 | 7 | 0 | |
| | | % | 43.7% | 29.3% | 14.1% | 2.3% | 2.3% | 1.1% | 4.6% | 2.7% | .0% | |
| 거주지역 | 서울 | N | 84 | 55 | 24 | 4 | 4 | 3 | 12 | 12 | 2 | 52.726 (.012) |
| | | % | 42.0% | 27.5% | 12.0% | 2.0% | 2.0% | 1.5% | 6.0% | 6.0% | 1.0% | |
| | 부산 | N | 103 | 41 | 23 | 2 | 2 | 4 | 16 | 8 | 1 | |
| | | % | 51.5% | 20.5% | 11.5% | 1.0% | 1.0% | 2.0% | 8.0% | 4.0% | .5% | |
| | 대구 | N | 87 | 55 | 39 | 1 | 4 | 0 | 15 | 4 | 0 | |
| | | % | 42.4% | 26.8% | 19.0% | .5% | 2.0% | .0% | 7.3% | 2.0% | .0% | |
| | 광주 | N | 112 | 41 | 29 | 3 | 1 | 1 | 9 | 4 | 0 | |
| | | % | 56.0% | 20.5% | 14.5% | 1.5% | .5% | .5% | 4.5% | 2.0% | .0% | |
| | 대전 | N | 89 | 58 | 32 | 3 | 4 | 4 | 5 | 1 | 3 | |
| | | % | 44.7% | 29.1% | 16.1% | 1.5% | 2.0% | 2.0% | 2.5% | .5% | 1.5% | |
| 전체 | | N | 475 | 250 | 147 | 13 | 15 | 12 | 57 | 29 | 6 | 1004 |
| | | % | 47.3% | 24.9% | 14.6% | 1.3% | 1.5% | 1.2% | 5.7% | 2.9% | .6% | 100.0% |

부표 39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2(제품)

| | | | 핸드폰 | 가전제품 | 자동차 | 반도체 | 패션 | 화장품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277 | 93 | 49 | 71 | 9 | 6 | 1 | 16.956 (.009) |
| | | % | 54.7% | 18.4% | 9.7% | 14.0% | 1.8% | 1.2% | .2% | |
| | 여자 | N | 270 | 83 | 31 | 73 | 15 | 24 | 1 | |
| | | % | 54.3% | 16.7% | 6.2% | 14.7% | 3.0% | 4.8% | .2% | |
| 신분 | 대학생 | N | 445 | 113 | 56 | 97 | 9 | 18 | 2 | 48.199 (.000) |
| | | % | 60.1% | 15.3% | 7.6% | 13.1% | 1.2% | 2.4% | .3% | |
| | 대학원생 | N | 102 | 63 | 24 | 47 | 15 | 12 | 0 | |
| | | % | 38.8% | 24.0% | 9.1% | 17.9% | 5.7% | 4.6% | .0% | |
| 거주지역 | 서울 | N | 120 | 34 | 17 | 18 | 5 | 5 | 0 | 47.792 (.003) |
| | | % | 60.3% | 17.1% | 8.5% | 9.0% | 2.5% | 2.5% | .0% | |
| | 부산 | N | 111 | 34 | 15 | 34 | 0 | 6 | 0 | |
| | | % | 55.5% | 17.0% | 7.5% | 17.0% | .0% | 3.0% | .0% | |
| | 대구 | N | 114 | 39 | 16 | 25 | 6 | 3 | 2 | |
| | | % | 55.6% | 19.0% | 7.8% | 12.2% | 2.9% | 1.5% | 1.0% | |
| | 광주 | N | 100 | 28 | 27 | 29 | 6 | 10 | 0 | |
| | | % | 50.0% | 14.0% | 13.5% | 14.5% | 3.0% | 5.0% | .0% | |
| | 대전 | N | 102 | 41 | 5 | 38 | 7 | 6 | 0 | |
| | | % | 51.3% | 20.6% | 2.5% | 19.1% | 3.5% | 3.0% | .0% | |
| 전체 | | N | 547 | 176 | 80 | 144 | 24 | 30 | 2 | 1003 |
| | | % | 54.5% | 17.5% | 8.0% | 14.4% | 2.4% | 3.0% | .2% | 100.0% |

부표 40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3(현대건축물)

| | | | 63빌딩 | 남산타워 | 부산팬텀시티 | 예술의 전당 | 서울역사박물관 | 인천공항 | 코엑스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103 | 97 | 62 | 25 | 13 | 153 | 46 | 6 | 27.487 (.000) |
| | | % | 20.4% | 19.2% | 12.3% | 5.0% | 2.6% | 30.3% | 9.1% | 1.2% | |
| | 여자 | N | 68 | 133 | 44 | 36 | 17 | 172 | 23 | 4 | |
| | | % | 13.7% | 26.8% | 8.9% | 7.2% | 3.4% | 34.6% | 4.6% | .8% | |
| 신분 | 대학생 | N | 142 | 170 | 72 | 37 | 23 | 232 | 56 | 9 | 19.356 (.007) |
| | | % | 19.2% | 22.9% | 9.7% | 5.0% | 3.1% | 31.3% | 7.6% | 1.2% | |
| | 대학원생 | N | 29 | 60 | 34 | 24 | 7 | 93 | 13 | 1 | |
| | | % | 11.1% | 23.0% | 13.0% | 9.2% | 2.7% | 35.6% | 5.0% | .4% | |
| 거주지역 | 서울 | N | 26 | 52 | 11 | 10 | 3 | 81 | 14 | 3 | 110.985 (.000) |
| | | % | 13.0% | 26.0% | 5.5% | 5.0% | 1.5% | 40.5% | 7.0% | 1.5% | |
| | 부산 | N | 39 | 30 | 47 | 17 | 5 | 50 | 9 | 3 | |
| | | % | 19.5% | 15.0% | 23.5% | 8.5% | 2.5% | 25.0% | 4.5% | 1.5% | |
| | 대구 | N | 27 | 33 | 31 | 12 | 13 | 67 | 17 | 3 | |
| | | % | 13.3% | 16.3% | 15.3% | 5.9% | 6.4% | 33.0% | 8.4% | 1.5% | |
| | 광주 | N | 32 | 55 | 13 | 11 | 5 | 68 | 15 | 1 | |
| | | % | 16.0% | 27.5% | 6.5% | 5.5% | 2.5% | 34.0% | 7.5% | .5% | |
| | 대전 | N | 47 | 60 | 4 | 11 | 4 | 59 | 14 | 0 | |
| | | % | 23.6% | 30.2% | 2.0% | 5.5% | 2.0% | 29.6% | 7.0% | .0% | |
| 전체 | | N | 171 | 230 | 106 | 61 | 30 | 325 | 69 | 10 | 1002 |
| | | % | 17.1% | 23.0% | 10.6% | 6.1% | 3.0% | 32.4% | 6.9% | 1.0% | 100.0% |

부표 41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4(관광상품)

| | | | 의료관광 | 쇼핑관광 | 한류관광 | 공연관광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131 | 54 | 275 | 41 | 4 | 6.310 (.177) |
| | | % | 25.9% | 10.7% | 54.5% | 8.1% | .8% | |
| | 여자 | N | 115 | 75 | 251 | 44 | 7 | |
| | | % | 23.4% | 15.2% | 51.0% | 8.9% | 1.4% | |
| 신분 | 대학생 | N | 189 | 89 | 392 | 62 | 2 | 20.377 (.000) |
| | | % | 25.7% | 12.1% | 53.4% | 8.4% | .3% | |
| | 대학원생 | N | 57 | 40 | 134 | 23 | 9 | |
| | | % | 21.7% | 15.2% | 51.0% | 8.7% | 3.4% | |
| 거주지역 | 서울 | N | 51 | 23 | 101 | 22 | 3 | 44.253 (.000) |
| | | % | 25.5% | 11.5% | 50.5% | 11.0% | 1.5% | |
| | 부산 | N | 51 | 19 | 117 | 9 | 3 | |
| | | % | 25.6% | 9.5% | 58.8% | 4.5% | 1.5% | |
| | 대구 | N | 44 | 27 | 114 | 20 | 0 | |
| | | % | 21.5% | 13.2% | 55.6% | 9.8% | .0% | |
| | 광주 | N | 28 | 35 | 114 | 19 | 3 | |
| | | % | 14.1% | 17.6% | 57.3% | 9.5% | 1.5% | |
| | 대전 | N | 72 | 25 | 80 | 15 | 2 | |
| | | % | 37.1% | 12.9% | 41.2% | 7.7% | 1.0% | |
| 전체 | | N | 246 | 129 | 526 | 85 | 11 | 997 |
| | | % | 24.7% | 12.9% | 52.8% | 8.5% | 1.1% | 100.0% |

부표 42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5(지역축제)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x^2$ (p) |
|---|---|---|---|---|---|---|---|---|---|---|---|---|---|---|
| 성 | 남자 | N | 132 | 34 | 33 | 15 | 13 | 19 | 16 | 164 | 11 | 59 | 7 | 36.206 (.000) |
| | | % | 26.2% | 6.8% | 6.6% | 3.0% | 2.6% | 3.8% | 3.2% | 32.6% | 2.2% | 11.7% | 1.4% | |
| | 여자 | N | 118 | 18 | 68 | 22 | 4 | 11 | 29 | 167 | 6 | 52 | 1 | |
| | | % | 23.8% | 3.6% | 13.7% | 4.4% | .8% | 2.2% | 5.8% | 33.7% | 1.2% | 10.5% | .2% | |
| 신분 | 대학생 | N | 207 | 43 | 71 | 29 | 14 | 20 | 28 | 217 | 14 | 89 | 5 | 33.307 (.000) |
| | | % | 28.1% | 5.8% | 9.6% | 3.9% | 1.9% | 2.7% | 3.8% | 29.4% | 1.9% | 12.1% | .7% | |
| | 대학원생 | N | 43 | 9 | 30 | 8 | 3 | 10 | 17 | 114 | 3 | 22 | 3 | |
| | | % | 16.4% | 3.4% | 11.5% | 3.1% | 1.1% | 3.8% | 6.5% | 43.5% | 1.1% | 8.4% | 1.1% | |
| 거주지역 | 서울 | N | 49 | 6 | 23 | 10 | 7 | 13 | 15 | 40 | 7 | 29 | 1 | 233.286 (.000) |
| | | % | 24.5% | 3.0% | 11.5% | 5.0% | 3.5% | 6.5% | 7.5% | 20.0% | 3.5% | 14.5% | .5% | |
| | 부산 | N | 24 | 1 | 17 | 5 | 3 | 5 | 7 | 118 | 3 | 15 | 1 | |
| | | % | 12.1% | .5% | 8.5% | 2.5% | 1.5% | 2.5% | 3.5% | 59.3% | 1.5% | 7.5% | .5% | |
| | 대구 | N | 45 | 3 | 20 | 13 | 2 | 6 | 11 | 71 | 4 | 29 | 1 | |
| | | % | 22.0% | 1.5% | 9.8% | 6.3% | 1.0% | 2.9% | 5.4% | 34.6% | 2.0% | 14.1% | .5% | |
| | 광주 | N | 45 | 35 | 14 | 4 | 3 | 4 | 6 | 60 | 1 | 24 | 3 | |
| | | % | 22.6% | 17.6% | 7.0% | 2.0% | 1.5% | 2.0% | 3.0% | 30.2% | .5% | 12.1% | 1.5% | |
| | 대전 | N | 87 | 7 | 27 | 5 | 2 | 2 | 6 | 42 | 2 | 14 | 2 | |
| | | % | 44.4% | 3.6% | 13.8% | 2.6% | 1.0% | 1.0% | 3.1% | 21.4% | 1.0% | 7.1% | 1.0% | |
| 전체 | | N | 250 | 52 | 101 | 37 | 17 | 30 | 45 | 331 | 17 | 111 | 8 | 999 |
| | | % | 25.0% | 5.2% | 10.1% | 3.7% | 1.7% | 3.0% | 4.5% | 33.1% | 1.7% | 11.1% | .8% | 100.0% |

주: 1) 보령머드축제, 2) 함평 나비축제, 3) 대관령 눈꽃축제, 4) 강릉 단오제, 5) 인제 빙어축제, 6) 화천 산천어 축제, 7) 이천 도자기 축제, 8) 부산 국제영화제, 9)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10) 락페스티벌(지산 등), 11) 기타

부표 43 한·중 관계에 대한 평가

| | | | 매우 나쁘다 | 나쁘다 | 보통이다 | 좋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2 | 126 | 320 | 47 | 4.239 (.237) |
| | | % | 2.4% | 25.0% | 63.4% | 9.3% | |
| | 여자 | N | 5 | 115 | 317 | 57 | |
| | | % | 1.0% | 23.3% | 64.2% | 11.5% | |
| 신분 | 대학생 | N | 9 | 190 | 469 | 72 | 8.138 (.043) |
| | | % | 1.2% | 25.7% | 63.4% | 9.7% | |
| | 대학원생 | N | 8 | 51 | 168 | 32 | |
| | | % | 3.1% | 19.7% | 64.9% | 12.4% | |
| 거주지역 | 서울 | N | 1 | 41 | 139 | 19 | 41.878 (.000) |
| | | % | .5% | 20.5% | 69.5% | 9.5% | |
| | 부산 | N | 2 | 42 | 137 | 18 | |
| | | % | 1.0% | 21.1% | 68.8% | 9.0% | |
| | 대구 | N | 6 | 41 | 143 | 13 | |
| | | % | 3.0% | 20.2% | 70.4% | 6.4% | |
| | 광주 | N | 4 | 43 | 119 | 32 | |
| | | % | 2.0% | 21.7% | 60.1% | 16.2% | |
| | 대전 | N | 4 | 74 | 99 | 22 | |
| | | % | 2.0% | 37.2% | 49.7% | 11.1% | |
| 전체 | | N | 17 | 241 | 637 | 104 | 999 |
| | | % | 1.7% | 24.1% | 63.8% | 10.4% | 100.0% |

부표 44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

| | | | 매우 나쁘다 | 나쁘다 | 보통이다 | 좋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88 | 247 | 61 | 10 | 10.052 (.018) |
| | | % | 37.2% | 48.8% | 12.1% | 2.0% | |
| | 여자 | N | 167 | 283 | 39 | 5 | |
| | | % | 33.8% | 57.3% | 7.9% | 1.0% | |
| 신분 | 대학생 | N | 276 | 381 | 71 | 12 | 4.568 (.206) |
| | | % | 37.3% | 51.5% | 9.6% | 1.6% | |
| | 대학원생 | N | 79 | 149 | 29 | 3 | |
| | | % | 30.4% | 57.3% | 11.2% | 1.2% | |
| 거주지역 | 서울 | N | 49 | 124 | 24 | 3 | 42.228 (.000) |
| | | % | 24.5% | 62.0% | 12.0% | 1.5% | |
| | 부산 | N | 82 | 96 | 20 | 1 | |
| | | % | 41.2% | 48.2% | 10.1% | .5% | |
| | 대구 | N | 62 | 121 | 16 | 5 | |
| | | % | 30.4% | 59.3% | 7.8% | 2.5% | |
| | 광주 | N | 62 | 106 | 26 | 4 | |
| | | % | 31.3% | 53.5% | 13.1% | 2.0% | |
| | 대전 | N | 100 | 83 | 14 | 2 | |
| | | % | 50.3% | 41.7% | 7.0% | 1.0% | |
| 전체 | | N | 355 | 530 | 100 | 15 | 1000 |
| | | % | 35.5% | 53.0% | 10.0% | 1.5% | 100.0% |

부표 45 중·일 관계에 대한 평가

| | | | 매우 나쁘다 | 나쁘다 | 보통이다 | 좋다 | 매우 좋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13 | 255 | 132 | 4 | 1 | 23.227 (.000) |
| | | % | 22.4% | 50.5% | 26.1% | .8% | .2% | |
| | 여자 | N | 70 | 247 | 158 | 19 | 0 | |
| | | % | 14.2% | 50.0% | 32.0% | 3.8% | .0% | |
| 신분 | 대학생 | N | 140 | 367 | 217 | 15 | 1 | 2.181 (.702) |
| | | % | 18.9% | 49.6% | 29.3% | 2.0% | .1% | |
| | 대학원생 | N | 43 | 135 | 73 | 8 | 0 | |
| | | % | 16.6% | 52.1% | 28.2% | 3.1% | .0% | |
| 거주지역 | 서울 | N | 33 | 106 | 58 | 3 | 0 | 24.938 (.071) |
| | | % | 16.5% | 53.0% | 29.0% | 1.5% | .0% | |
| | 부산 | N | 39 | 91 | 62 | 6 | 1 | |
| | | % | 19.6% | 45.7% | 31.2% | 3.0% | .5% | |
| | 대구 | N | 26 | 116 | 58 | 3 | 0 | |
| | | % | 12.8% | 57.1% | 28.6% | 1.5% | .0% | |
| | 광주 | N | 32 | 95 | 65 | 6 | 0 | |
| | | % | 16.2% | 48.0% | 32.8% | 3.0% | .0% | |
| | 대전 | N | 53 | 94 | 47 | 5 | 0 | |
| | | % | 26.6% | 47.2% | 23.6% | 2.5% | .0% | |
| 전체 | | N | 183 | 502 | 290 | 23 | 1 | 999 |
| | | % | 18.3% | 50.3% | 29.0% | 2.3% | .1% | 100.0% |

부표 46 한·중 관계에 대한 전망

| | | | 매우 나빠질 것이다 | 나빠질 것이다 | 현재와 같을 것이다 | 좋아질 것이다 | 매우 좋아질 것이다 | $x^2$ (p) |
|---|---|---|---|---|---|---|---|---|
| 성 | 남자 | N | 7 | 67 | 226 | 200 | 6 | 1.949 (.745) |
| | | % | 1.4% | 13.2% | 44.7% | 39.5% | 1.2% | |
| | 여자 | N | 3 | 68 | 223 | 199 | 4 | |
| | | % | .6% | 13.7% | 44.9% | 40.0% | .8% | |
| 신분 | 대학생 | N | 6 | 107 | 320 | 298 | 9 | 6.069 (.194) |
| | | % | .8% | 14.5% | 43.2% | 40.3% | 1.2% | |
| | 대학원생 | N | 4 | 28 | 129 | 101 | 1 | |
| | | % | 1.5% | 10.6% | 49.0% | 38.4% | .4% | |
| 거주지역 | 서울 | N | 2 | 28 | 76 | 92 | 1 | 32.217 (.009) |
| | | % | 1.0% | 14.1% | 38.2% | 46.2% | .5% | |
| | 부산 | N | 3 | 29 | 87 | 78 | 3 | |
| | | % | 1.5% | 14.5% | 43.5% | 39.0% | 1.5% | |
| | 대구 | N | 0 | 36 | 86 | 83 | 0 | |
| | | % | .0% | 17.6% | 42.0% | 40.5% | .0% | |
| | 광주 | N | 3 | 10 | 111 | 73 | 3 | |
| | | % | 1.5% | 5.0% | 55.5% | 36.5% | 1.5% | |
| | 대전 | N | 2 | 32 | 89 | 73 | 3 | |
| | | % | 1.0% | 16.1% | 44.7% | 36.7% | 1.5% | |
| 전체 | | N | 10 | 135 | 449 | 399 | 10 | 1003 |
| | | % | 1.0% | 13.5% | 44.8% | 39.8% | 1.0% | 100.0% |

**부표 47**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

| | | | 매우 나빠질 것이다 | 나빠질 것이다 | 현재와 같을 것이다 | 좋아질 것이다 | 매우 좋아질 것이다 | $x^2$ (p) |
|---|---|---|---|---|---|---|---|---|
| 성 | 남자 | N | 78 | 164 | 171 | 89 | 4 | 20.868 (.000) |
| | | % | 15.4% | 32.4% | 33.8% | 17.6% | .8% | |
| | 여자 | N | 74 | 205 | 171 | 48 | 0 | |
| | | % | 14.9% | 41.2% | 34.3% | 9.6% | .0% | |
| 신분 | 대학생 | N | 122 | 269 | 248 | 98 | 4 | 5.516 (.238) |
| | | % | 16.5% | 36.3% | 33.5% | 13.2% | .5% | |
| | 대학원생 | N | 30 | 100 | 94 | 39 | 0 | |
| | | % | 11.4% | 38.0% | 35.7% | 14.8% | .0% | |
| 거주지역 | 서울 | N | 18 | 72 | 70 | 39 | 1 | 29.848 (.019) |
| | | % | 9.0% | 36.0% | 35.0% | 19.5% | .5% | |
| | 부산 | N | 37 | 80 | 56 | 25 | 2 | |
| | | % | 18.5% | 40.0% | 28.0% | 12.5% | 1.0% | |
| | 대구 | N | 24 | 78 | 71 | 32 | 0 | |
| | | % | 11.7% | 38.0% | 34.6% | 15.6% | .0% | |
| | 광주 | N | 34 | 77 | 68 | 20 | 1 | |
| | | % | 17.0% | 38.5% | 34.0% | 10.0% | .5% | |
| | 대전 | N | 39 | 62 | 77 | 21 | 0 | |
| | | % | 19.6% | 31.2% | 38.7% | 10.6% | .0% | |
| 전체 | | N | 152 | 369 | 342 | 137 | 4 | 1004 |
| | | % | 15.1% | 36.8% | 34.1% | 13.6% | .4% | 100.0% |

**부표 48** 중·일 관계에 대한 전망

| | | | 매우 나빠질 것이다 | 나빠질 것이다 | 현재와 같을 것이다 | 좋아질 것이다 | 매우 좋아질 것이다 | $x^2$ (p) |
|---|---|---|---|---|---|---|---|---|
| 성 | 남자 | N | 66 | 161 | 221 | 56 | 1 | 5.241 (.263) |
| | | % | 13.1% | 31.9% | 43.8% | 11.1% | .2% | |
| | 여자 | N | 43 | 163 | 235 | 55 | 1 | |
| | | % | 8.7% | 32.8% | 47.3% | 11.1% | .2% | |
| 신분 | 대학생 | N | 86 | 235 | 334 | 83 | 2 | 2.575 (.631) |
| | | % | 11.6% | 31.8% | 45.1% | 11.2% | .3% | |
| | 대학원생 | N | 23 | 89 | 122 | 28 | 0 | |
| | | % | 8.8% | 34.0% | 46.6% | 10.7% | .0% | |
| 거주지역 | 서울 | N | 14 | 65 | 96 | 25 | 0 | 23.691 (.096) |
| | | % | 7.0% | 32.5% | 48.0% | 12.5% | .0% | |
| | 부산 | N | 25 | 71 | 82 | 22 | 0 | |
| | | % | 12.5% | 35.5% | 41.0% | 11.0% | .0% | |
| | 대구 | N | 19 | 75 | 86 | 23 | 0 | |
| | | % | 9.4% | 36.9% | 42.4% | 11.3% | .0% | |
| | 광주 | N | 19 | 52 | 101 | 27 | 1 | |
| | | % | 9.5% | 26.0% | 50.5% | 13.5% | .5% | |
| | 대전 | N | 32 | 61 | 91 | 14 | 1 | |
| | | % | 16.1% | 30.7% | 45.7% | 7.0% | .5% | |
| 전체 | | N | 109 | 324 | 456 | 111 | 2 | 1002 |
| | | % | 10.9% | 32.3% | 45.5% | 11.1% | .2% | 100.0% |

부표 49 분쟁에 대한 인식 1(독도문제)

| | | | 전혀 모르고 있다 | 모르고 있다 | 보통이다 |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 | 3 | 48 | 249 | 205 | 5.111 (.276) |
| | | % | .2% | .6% | 9.5% | 49.2% | 40.5% | |
| | 여자 | N | 0 | 4 | 43 | 276 | 175 | |
| | | % | .0% | .8% | 8.6% | 55.4% | 35.1% | |
| 신분 | 대학생 | N | 1 | 7 | 69 | 402 | 262 | 9.747 (.045) |
| | | % | .1% | .9% | 9.3% | 54.3% | 35.4% | |
| | 대학원생 | N | 0 | 0 | 22 | 123 | 118 | |
| | | % | .0% | .0% | 8.4% | 46.8% | 44.9% | |
| 거주지역 | 서울 | N | 1 | 0 | 15 | 101 | 83 | 23.473 (.102) |
| | | % | .5% | .0% | 7.5% | 50.5% | 41.5% | |
| | 부산 | N | 0 | 1 | 20 | 111 | 68 | |
| | | % | .0% | .5% | 10.0% | 55.5% | 34.0% | |
| | 대구 | N | 0 | 0 | 19 | 108 | 78 | |
| | | % | .0% | .0% | 9.3% | 52.7% | 38.0% | |
| | 광주 | N | 0 | 3 | 11 | 99 | 87 | |
| | | % | .0% | 1.5% | 5.5% | 49.5% | 43.5% | |
| | 대전 | N | 0 | 3 | 26 | 106 | 64 | |
| | | % | .0% | 1.5% | 13.1% | 53.3% | 32.2% | |
| 전체 | | N | 1 | 7 | 91 | 525 | 380 | 1004 |
| | | % | .1% | .7% | 9.1% | 52.3% | 37.8% | 100.0% |

부표 50 분쟁에 대한 인식 2(센카구열도/댜오위다오 분쟁)

| | | | 전혀 모르고 있다 | 모르고 있다 | 보통이다 |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56 | 143 | 82 | 157 | 68 | 47.560 (.000) |
| | | % | 11.1% | 28.3% | 16.2% | 31.0% | 13.4% | |
| | 여자 | N | 79 | 198 | 100 | 93 | 28 | |
| | | % | 15.9% | 39.8% | 20.1% | 18.7% | 5.6% | |
| 신분 | 대학생 | N | 110 | 251 | 143 | 174 | 63 | 11.869 (.018) |
| | | % | 14.8% | 33.9% | 19.3% | 23.5% | 8.5% | |
| | 대학원생 | N | 25 | 90 | 39 | 76 | 33 | |
| | | % | 9.5% | 34.2% | 14.8% | 28.9% | 12.5% | |
| 거주지역 | 서울 | N | 15 | 66 | 41 | 57 | 21 | 40.413 (.001) |
| | | % | 7.5% | 33.0% | 20.5% | 28.5% | 10.5% | |
| | 부산 | N | 28 | 78 | 35 | 45 | 14 | |
| | | % | 14.0% | 39.0% | 17.5% | 22.5% | 7.0% | |
| | 대구 | N | 28 | 66 | 34 | 55 | 22 | |
| | | % | 13.7% | 32.2% | 16.6% | 26.8% | 10.7% | |
| | 광주 | N | 19 | 76 | 48 | 40 | 17 | |
| | | % | 9.5% | 38.0% | 24.0% | 20.0% | 8.5% | |
| | 대전 | N | 45 | 55 | 24 | 53 | 22 | |
| | | % | 22.6% | 27.6% | 12.1% | 26.6% | 11.1% | |
| 전체 | | N | 135 | 341 | 182 | 250 | 96 | 1004 |
| | | % | 13.4% | 34.0% | 18.1% | 24.9% | 9.6% | 100.0% |

부표 51 분쟁에 대한 인식 3(야스쿠니 신사참배)

| | | | 전혀 모르고 있다 | 모르고 있다 | 보통이다 |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21 | 45 | 88 | 237 | 114 | 5.684 (.224) |
| | | % | 4.2% | 8.9% | 17.4% | 46.9% | 22.6% | |
| | 여자 | N | 30 | 46 | 93 | 243 | 86 | |
| | | % | 6.0% | 9.2% | 18.7% | 48.8% | 17.3% | |
| 신분 | 대학생 | N | 50 | 75 | 136 | 354 | 125 | 32.351 (.000) |
| | | % | 6.8% | 10.1% | 18.4% | 47.8% | 16.9% | |
| | 대학원생 | N | 1 | 16 | 45 | 126 | 75 | |
| | | % | .4% | 6.1% | 17.1% | 47.9% | 28.5% | |
| 거주지역 | 서울 | N | 2 | 9 | 25 | 117 | 47 | 72.899 (.000) |
| | | % | 1.0% | 4.5% | 12.5% | 58.5% | 23.5% | |
| | 부산 | N | 12 | 16 | 47 | 89 | 36 | |
| | | % | 6.0% | 8.0% | 23.5% | 44.5% | 18.0% | |
| | 대구 | N | 6 | 14 | 34 | 103 | 48 | |
| | | % | 2.9% | 6.8% | 16.6% | 50.2% | 23.4% | |
| | 광주 | N | 5 | 23 | 38 | 99 | 34 | |
| | | % | 2.5% | 11.6% | 19.1% | 49.7% | 17.1% | |
| | 대전 | N | 26 | 29 | 37 | 72 | 35 | |
| | | % | 13.1% | 14.6% | 18.6% | 36.2% | 17.6% | |
| 전체 | | N | 51 | 91 | 181 | 480 | 200 | 1003 |
| | | % | 5.1% | 9.1% | 18.0% | 47.9% | 19.9% | 100.0% |

부표 52 분쟁에 대한 인식 4(일본역사교과서)

| | | | 전혀 모르고 있다 | 모르고 있다 | 보통이다 |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 | 12 | 59 | 280 | 154 | 8.696 (.069) |
| | | % | .2% | 2.4% | 11.7% | 55.3% | 30.4% | |
| | 여자 | N | 6 | 8 | 53 | 305 | 125 | |
| | | % | 1.2% | 1.6% | 10.7% | 61.4% | 25.2% | |
| 신분 | 대학생 | N | 7 | 17 | 85 | 438 | 193 | 7.465 (.113) |
| | | % | .9% | 2.3% | 11.5% | 59.2% | 26.1% | |
| | 대학원생 | N | 0 | 3 | 27 | 147 | 86 | |
| | | % | .0% | 1.1% | 10.3% | 55.9% | 32.7% | |
| 거주지역 | 서울 | N | 0 | 4 | 20 | 115 | 61 | 15.654 (.477) |
| | | % | .0% | 2.0% | 10.0% | 57.5% | 30.5% | |
| | 부산 | N | 4 | 6 | 18 | 119 | 52 | |
| | | % | 2.0% | 3.0% | 9.0% | 59.8% | 26.1% | |
| | 대구 | N | 1 | 2 | 21 | 124 | 57 | |
| | | % | .5% | 1.0% | 10.2% | 60.5% | 27.8% | |
| | 광주 | N | 0 | 5 | 24 | 118 | 53 | |
| | | % | .0% | 2.5% | 12.0% | 59.0% | 26.5% | |
| | 대전 | N | 2 | 3 | 29 | 109 | 56 | |
| | | % | 1.0% | 1.5% | 14.6% | 54.8% | 28.1% | |
| 전체 | | N | 7 | 20 | 112 | 585 | 279 | 1003 |
| | | % | .7% | 2.0% | 11.2% | 58.3% | 27.8% | 100.0% |

**부표 53** 분쟁에 대한 인식 5(일본군 '위안부')

| | | | 전혀 모르고 있다 | 모르고 있다 | 보통이다 |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 | 5 | 44 | 275 | 181 | 3.305 (.508) |
| | | % | .2% | 1.0% | 8.7% | 54.3% | 35.8% | |
| | 여자 | N | 1 | 3 | 30 | 274 | 190 | |
| | | % | .2% | .6% | 6.0% | 55.0% | 38.2% | |
| 신분 | 대학생 | N | 2 | 6 | 52 | 416 | 265 | 3.379 (.497) |
| | | % | .3% | .8% | 7.0% | 56.1% | 35.8% | |
| | 대학원생 | N | 0 | 2 | 22 | 133 | 106 | |
| | | % | .0% | .8% | 8.4% | 50.6% | 40.3% | |
| 거주지역 | 서울 | N | 0 | 1 | 11 | 118 | 70 | 12.809 (.687) |
| | | % | .0% | .5% | 5.5% | 59.0% | 35.0% | |
| | 부산 | N | 1 | 2 | 16 | 103 | 78 | |
| | | % | .5% | 1.0% | 8.0% | 51.5% | 39.0% | |
| | 대구 | N | 0 | 0 | 13 | 112 | 80 | |
| | | % | .0% | .0% | 6.3% | 54.6% | 39.0% | |
| | 광주 | N | 0 | 2 | 13 | 111 | 74 | |
| | | % | .0% | 1.0% | 6.5% | 55.5% | 37.0% | |
| | 대전 | N | 1 | 3 | 21 | 105 | 69 | |
| | | % | .5% | 1.5% | 10.6% | 52.8% | 34.7% | |
| 전체 | | N | 2 | 8 | 74 | 549 | 371 | 1004 |
| | | % | .2% | .8% | 7.4% | 54.7% | 37.0% | 100.0% |

**부표 54** 분쟁에 대한 인식 6(동해/일본해 표기)

| | | | 전혀 모르고 있다 | 모르고 있다 | 보통이다 |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 | 10 | 30 | 252 | 212 | .336 (.987) |
| | | % | .2% | 2.0% | 5.9% | 49.9% | 42.0% | |
| | 여자 | N | 1 | 8 | 28 | 246 | 215 | |
| | | % | .2% | 1.6% | 5.6% | 49.4% | 43.2% | |
| 신분 | 대학생 | N | 2 | 15 | 36 | 388 | 300 | 12.831 (.012) |
| | | % | .3% | 2.0% | 4.9% | 52.4% | 40.5% | |
| | 대학원생 | N | 0 | 3 | 22 | 110 | 127 | |
| | | % | .0% | 1.1% | 8.4% | 42.0% | 48.5% | |
| 거주지역 | 서울 | N | 0 | 2 | 13 | 102 | 82 | 10.716 (.827) |
| | | % | .0% | 1.0% | 6.5% | 51.3% | 41.2% | |
| | 부산 | N | 1 | 4 | 9 | 98 | 88 | |
| | | % | .5% | 2.0% | 4.5% | 49.0% | 44.0% | |
| | 대구 | N | 0 | 2 | 11 | 104 | 88 | |
| | | % | .0% | 1.0% | 5.4% | 50.7% | 42.9% | |
| | 광주 | N | 0 | 5 | 9 | 94 | 92 | |
| | | % | .0% | 2.5% | 4.5% | 47.0% | 46.0% | |
| | 대전 | N | 1 | 5 | 16 | 100 | 77 | |
| | | % | .5% | 2.5% | 8.0% | 50.3% | 38.7% | |
| 전체 | | N | 2 | 18 | 58 | 498 | 427 | 1003 |
| | | % | .2% | 1.8% | 5.8% | 49.7% | 42.6% | 100.0% |

부표 55 자국인으로서의(한국인) 소속감

| | | |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 공감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공감한다 | 매우 공감한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 | 2 | 15 | 117 | 370 | 1.789 (.774) |
| | | % | .2% | .4% | 3.0% | 23.2% | 73.3% | |
| | 여자 | N | 0 | 1 | 12 | 122 | 363 | |
| | | % | .0% | .2% | 2.4% | 24.5% | 72.9% | |
| 신분 | 대학생 | N | 1 | 3 | 20 | 188 | 529 | 5.357 (.253) |
| | | % | .1% | .4% | 2.7% | 25.4% | 71.4% | |
| | 대학원생 | N | 0 | 0 | 7 | 51 | 204 | |
| | | % | .0% | .0% | 2.7% | 19.5% | 77.9% | |
| 거주지역 | 서울 | N | 0 | 0 | 0 | 43 | 157 | 45.320 (.000) |
| | | % | .0% | .0% | .0% | 21.5% | 78.5% | |
| | 부산 | N | 0 | 0 | 5 | 36 | 159 | |
| | | % | .0% | .0% | 2.5% | 18.0% | 79.5% | |
| | 대구 | N | 0 | 1 | 4 | 40 | 160 | |
| | | % | .0% | .5% | 2.0% | 19.5% | 78.0% | |
| | 광주 | N | 1 | 2 | 8 | 49 | 139 | |
| | | % | .5% | 1.0% | 4.0% | 24.6% | 69.8% | |
| | 대전 | N | 0 | 0 | 10 | 71 | 118 | |
| | | % | .0% | .0% | 5.0% | 35.7% | 59.3% | |
| 전체 | | N | 1 | 3 | 27 | 239 | 733 | 1003 |
| | | % | .1% | .3% | 2.7% | 23.8% | 73.1% | 100.0% |

부표 56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소속감

| | | |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 공감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공감한다 | 매우 공감한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8 | 49 | 174 | 165 | 99 | 5.341 (.254) |
| | | % | 3.6% | 9.7% | 34.5% | 32.7% | 19.6% | |
| | 여자 | N | 19 | 56 | 178 | 174 | 71 | |
| | | % | 3.8% | 11.2% | 35.7% | 34.9% | 14.3% | |
| 신분 | 대학생 | N | 28 | 76 | 249 | 257 | 131 | 3.529 (.473) |
| | | % | 3.8% | 10.3% | 33.6% | 34.7% | 17.7% | |
| | 대학원생 | N | 9 | 29 | 103 | 82 | 39 | |
| | | % | 3.4% | 11.1% | 39.3% | 31.3% | 14.9% | |
| 거주지역 | 서울 | N | 8 | 25 | 67 | 76 | 24 | 49.602 (.000) |
| | | % | 4.0% | 12.5% | 33.5% | 38.0% | 12.0% | |
| | 부산 | N | 2 | 28 | 72 | 56 | 42 | |
| | | % | 1.0% | 14.0% | 36.0% | 28.0% | 21.0% | |
| | 대구 | N | 4 | 18 | 75 | 68 | 40 | |
| | | % | 2.0% | 8.8% | 36.6% | 33.2% | 19.5% | |
| | 광주 | N | 4 | 10 | 70 | 75 | 40 | |
| | | % | 2.0% | 5.0% | 35.2% | 37.7% | 20.1% | |
| | 대전 | N | 19 | 24 | 68 | 64 | 24 | |
| | | % | 9.5% | 12.1% | 34.2% | 32.2% | 12.1% | |
| 전체 | | N | 37 | 105 | 352 | 339 | 170 | 1003 |
| | | % | 3.7% | 10.5% | 35.1% | 33.8% | 16.9% | 100.0% |

**부표 57** 아시아인으로서의 소속감

| | | |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 공감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공감한다 | 매우 공감한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3 | 23 | 129 | 199 | 140 | 6.350 (.174) |
| | | % | 2.6% | 4.6% | 25.6% | 39.5% | 27.8% | |
| | 여자 | N | 14 | 20 | 97 | 225 | 142 | |
| | | % | 2.8% | 4.0% | 19.5% | 45.2% | 28.5% | |
| 신분 | 대학생 | N | 23 | 34 | 165 | 304 | 214 | 4.108 (.392) |
| | | % | 3.1% | 4.6% | 22.3% | 41.1% | 28.9% | |
| | 대학원생 | N | 4 | 9 | 61 | 120 | 68 | |
| | | % | 1.5% | 3.4% | 23.3% | 45.8% | 26.0% | |
| 거주지역 | 서울 | N | 5 | 14 | 40 | 91 | 50 | 44.417 (.000) |
| | | % | 2.5% | 7.0% | 20.0% | 45.5% | 25.0% | |
| | 부산 | N | 2 | 4 | 41 | 87 | 66 | |
| | | % | 1.0% | 2.0% | 20.5% | 43.5% | 33.0% | |
| | 대구 | N | 1 | 7 | 48 | 85 | 63 | |
| | | % | .5% | 3.4% | 23.5% | 41.7% | 30.9% | |
| | 광주 | N | 3 | 6 | 47 | 86 | 57 | |
| | | % | 1.5% | 3.0% | 23.6% | 43.2% | 28.6% | |
| | 대전 | N | 16 | 12 | 50 | 75 | 46 | |
| | | % | 8.0% | 6.0% | 25.1% | 37.7% | 23.1% | |
| 전체 | | N | 27 | 43 | 226 | 424 | 282 | 1002 |
| | | % | 2.7% | 4.3% | 22.6% | 42.3% | 28.1% | 100.0% |

**부표 58**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 | | | 전혀 영향력이 없다 | 영향력이 없다 | 보통이다 | 영향력이 있다 | 매우 영향력이 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5 | 14 | 85 | 207 | 195 | 18.830 (.001) |
| | | % | 1.0% | 2.8% | 16.8% | 40.9% | 38.5% | |
| | 여자 | N | 0 | 9 | 82 | 260 | 147 | |
| | | % | .0% | 1.8% | 16.5% | 52.2% | 29.5% | |
| 신분 | 대학생 | N | 4 | 18 | 133 | 332 | 254 | 5.093 (.278) |
| | | % | .5% | 2.4% | 17.9% | 44.8% | 34.3% | |
| | 대학원생 | N | 1 | 5 | 34 | 135 | 88 | |
| | | % | .4% | 1.9% | 12.9% | 51.3% | 33.5% | |
| 거주지역 | 서울 | N | 0 | 3 | 20 | 73 | 104 | 83.168 (.000) |
| | | % | .0% | 1.5% | 10.0% | 36.5% | 52.0% | |
| | 부산 | N | 1 | 5 | 36 | 104 | 54 | |
| | | % | .5% | 2.5% | 18.0% | 52.0% | 27.0% | |
| | 대구 | N | 1 | 7 | 22 | 101 | 74 | |
| | | % | .5% | 3.4% | 10.7% | 49.3% | 36.1% | |
| | 광주 | N | 3 | 5 | 26 | 102 | 64 | |
| | | % | 1.5% | 2.5% | 13.0% | 51.0% | 32.0% | |
| | 대전 | N | 0 | 3 | 63 | 87 | 46 | |
| | | % | .0% | 1.5% | 31.7% | 43.7% | 23.1% | |
| 전체 | | N | 5 | 23 | 167 | 467 | 342 | 1004 |
| | | % | .5% | 2.3% | 16.6% | 46.5% | 34.1% | 100.0% |

부표 59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 | | | 전혀 영향력이 없다 | 영향력이 없다 | 보통이다 | 영향력이 있다 | 매우 영향력이 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2 | 26 | 105 | 238 | 124 | 12.105 (.017) |
| | | % | 2.4% | 5.1% | 20.8% | 47.1% | 24.6% | |
| | 여자 | N | 8 | 25 | 117 | 267 | 81 | |
| | | % | 1.6% | 5.0% | 23.5% | 53.6% | 16.3% | |
| 신분 | 대학생 | N | 17 | 46 | 170 | 362 | 146 | 11.168 (.025) |
| | | % | 2.3% | 6.2% | 22.9% | 48.9% | 19.7% | |
| | 대학원생 | N | 3 | 5 | 52 | 143 | 59 | |
| | | % | 1.1% | 1.9% | 19.8% | 54.6% | 22.5% | |
| 거주지역 | 서울 | N | 1 | 7 | 27 | 102 | 62 | 98.103 (.000) |
| | | % | .5% | 3.5% | 13.6% | 51.3% | 31.2% | |
| | 부산 | N | 5 | 11 | 38 | 114 | 32 | |
| | | % | 2.5% | 5.5% | 19.0% | 57.0% | 16.0% | |
| | 대구 | N | 0 | 6 | 38 | 106 | 55 | |
| | | % | .0% | 2.9% | 18.5% | 51.7% | 26.8% | |
| | 광주 | N | 3 | 10 | 42 | 111 | 34 | |
| | | % | 1.5% | 5.0% | 21.0% | 55.5% | 17.0% | |
| | 대전 | N | 11 | 17 | 77 | 72 | 22 | |
| | | % | 5.5% | 8.5% | 38.7% | 36.2% | 11.1% | |
| 전체 | | N | 20 | 51 | 222 | 505 | 205 | 1003 |
| | | % | 2.0% | 5.1% | 22.1% | 50.3% | 20.4% | 100.0% |

부표 60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 | | | 전혀 영향력이 없다 | 영향력이 없다 | 보통이다 | 영향력이 있다 | 매우 영향력이 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2 | 15 | 126 | 261 | 101 | 5.270 (.261) |
| | | % | .4% | 3.0% | 25.0% | 51.7% | 20.0% | |
| | 여자 | N | 0 | 15 | 130 | 274 | 78 | |
| | | % | .0% | 3.0% | 26.2% | 55.1% | 15.7% | |
| 신분 | 대학생 | N | 1 | 24 | 191 | 384 | 141 | 4.696 (.320) |
| | | % | .1% | 3.2% | 25.8% | 51.8% | 19.0% | |
| | 대학원생 | N | 1 | 6 | 65 | 151 | 38 | |
| | | % | .4% | 2.3% | 24.9% | 57.9% | 14.6% | |
| 거주지역 | 서울 | N | 1 | 4 | 57 | 110 | 27 | 26.217 (.051) |
| | | % | .5% | 2.0% | 28.6% | 55.3% | 13.6% | |
| | 부산 | N | 0 | 9 | 53 | 92 | 45 | |
| | | % | .0% | 4.5% | 26.6% | 46.2% | 22.6% | |
| | 대구 | N | 0 | 8 | 40 | 126 | 31 | |
| | | % | .0% | 3.9% | 19.5% | 61.5% | 15.1% | |
| | 광주 | N | 1 | 2 | 58 | 107 | 32 | |
| | | % | .5% | 1.0% | 29.0% | 53.5% | 16.0% | |
| | 대전 | N | 0 | 7 | 48 | 100 | 44 | |
| | | % | .0% | 3.5% | 24.1% | 50.3% | 22.1% | |
| 전체 | | N | 2 | 30 | 256 | 535 | 179 | 1002 |
| | | % | .2% | 3.0% | 25.5% | 53.4% | 17.9% | 100.0% |

**부표 61**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 | | | 매우 부정적이다 | 부정적이다 | 보통이다 | 긍정적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 | $x^2$ (p) |
|---|---|---|---|---|---|---|---|---|
| 성 | 남자 | N | 26 | 113 | 226 | 117 | 23 | 6.232 (.182) |
| | | % | 5.1% | 22.4% | 44.8% | 23.2% | 4.6% | |
| | 여자 | N | 13 | 112 | 227 | 130 | 16 | |
| | | % | 2.6% | 22.5% | 45.6% | 26.1% | 3.2% | |
| 신분 | 대학생 | N | 27 | 164 | 340 | 178 | 31 | 1.923 (.750) |
| | | % | 3.6% | 22.2% | 45.9% | 24.1% | 4.2% | |
| | 대학원생 | N | 12 | 61 | 113 | 69 | 8 | |
| | | % | 4.6% | 23.2% | 43.0% | 26.2% | 3.0% | |
| 거주지역 | 서울 | N | 4 | 45 | 89 | 53 | 9 | 18.909 (.273) |
| | | % | 2.0% | 22.5% | 44.5% | 26.5% | 4.5% | |
| | 부산 | N | 8 | 43 | 96 | 49 | 4 | |
| | | % | 4.0% | 21.5% | 48.0% | 24.5% | 2.0% | |
| | 대구 | N | 12 | 49 | 86 | 52 | 6 | |
| | | % | 5.9% | 23.9% | 42.0% | 25.4% | 2.9% | |
| | 광주 | N | 6 | 38 | 85 | 58 | 12 | |
| | | % | 3.0% | 19.1% | 42.7% | 29.1% | 6.0% | |
| | 대전 | N | 9 | 50 | 97 | 35 | 8 | |
| | | % | 4.5% | 25.1% | 48.7% | 17.6% | 4.0% | |
| 전체 | | N | 39 | 225 | 453 | 247 | 39 | 1003 |
| | | % | 3.9% | 22.4% | 45.2% | 24.6% | 3.9% | 100.0% |

**부표 62**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 | | | 매우 부정적이다 | 부정적이다 | 보통이다 | 긍정적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 | $x^2$ (p) |
|---|---|---|---|---|---|---|---|---|
| 성 | 남자 | N | 81 | 141 | 182 | 87 | 13 | 15.717 (.003) |
| | | % | 16.1% | 28.0% | 36.1% | 17.3% | 2.6% | |
| | 여자 | N | 78 | 195 | 142 | 75 | 8 | |
| | | % | 15.7% | 39.2% | 28.5% | 15.1% | 1.6% | |
| 신분 | 대학생 | N | 122 | 242 | 246 | 114 | 15 | 3.053 (.549) |
| | | % | 16.5% | 32.7% | 33.3% | 15.4% | 2.0% | |
| | 대학원생 | N | 37 | 94 | 78 | 48 | 6 | |
| | | % | 14.1% | 35.7% | 29.7% | 18.3% | 2.3% | |
| 거주지역 | 서울 | N | 22 | 54 | 75 | 42 | 7 | 38.775 (.001) |
| | | % | 11.0% | 27.0% | 37.5% | 21.0% | 3.5% | |
| | 부산 | N | 37 | 73 | 59 | 28 | 2 | |
| | | % | 18.6% | 36.7% | 29.6% | 14.1% | 1.0% | |
| | 대구 | N | 37 | 69 | 66 | 31 | 2 | |
| | | % | 18.0% | 33.7% | 32.2% | 15.1% | 1.0% | |
| | 광주 | N | 19 | 80 | 56 | 36 | 8 | |
| | | % | 9.5% | 40.2% | 28.1% | 18.1% | 4.0% | |
| | 대전 | N | 44 | 60 | 68 | 25 | 2 | |
| | | % | 22.1% | 30.2% | 34.2% | 12.6% | 1.0% | |
| 전체 | | N | 159 | 336 | 324 | 162 | 21 | 1002 |
| | | % | 15.9% | 33.5% | 32.3% | 16.2% | 2.1% | 100.0% |

부표 63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 | | | 부정적이다 | 보통이다 | 긍정적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1 | 86 | 227 | 180 | 6.509 (.089) |
| | | % | 2.2% | 17.1% | 45.0% | 35.7% | |
| | 여자 | N | 3 | 93 | 206 | 196 | |
| | | % | .6% | 18.7% | 41.4% | 39.4% | |
| 신분 | 대학생 | N | 14 | 145 | 297 | 283 | 16.250 (.001) |
| | | % | 1.9% | 19.6% | 40.2% | 38.3% | |
| | 대학원생 | N | 0 | 34 | 136 | 93 | |
| | | % | .0% | 12.9% | 51.7% | 35.4% | |
| 거주지역 | 서울 | N | 4 | 30 | 98 | 68 | 28.623 (.004) |
| | | % | 2.0% | 15.0% | 49.0% | 34.0% | |
| | 부산 | N | 1 | 35 | 74 | 89 | |
| | | % | .5% | 17.6% | 37.2% | 44.7% | |
| | 대구 | N | 1 | 29 | 94 | 81 | |
| | | % | .5% | 14.1% | 45.9% | 39.5% | |
| | 광주 | N | 5 | 31 | 95 | 68 | |
| | | % | 2.5% | 15.6% | 47.7% | 34.2% | |
| | 대전 | N | 3 | 54 | 72 | 70 | |
| | | % | 1.5% | 27.1% | 36.2% | 35.2% | |
| 전체 | | N | 14 | 179 | 433 | 376 | 1002 |
| | | % | 1.4% | 17.9% | 43.2% | 37.5% | 100.0% |

부표 64 한국이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

| | |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 EU | 없다 | $x^2$ (p) |
|---|---|---|---|---|---|---|---|---|---|
| 성 | 남자 | N | 253 | 11 | 115 | 15 | 62 | 47 | 55.702 (.000) |
| | | % | 50.3% | 2.2% | 22.9% | 3.0% | 12.3% | 9.3% | |
| | 여자 | N | 146 | 25 | 178 | 8 | 68 | 73 | |
| | | % | 29.3% | 5.0% | 35.7% | 1.6% | 13.7% | 14.7% | |
| 신분 | 대학생 | N | 301 | 28 | 200 | 18 | 97 | 94 | 7.042 (.218) |
| | | % | 40.8% | 3.8% | 27.1% | 2.4% | 13.1% | 12.7% | |
| | 대학원생 | N | 98 | 8 | 93 | 5 | 33 | 26 | |
| | | % | 37.3% | 3.0% | 35.4% | 1.9% | 12.5% | 9.9% | |
| 거주지역 | 서울 | N | 75 | 9 | 62 | 5 | 28 | 18 | 48.636 (.000) |
| | | % | 38.1% | 4.6% | 31.5% | 2.5% | 14.2% | 9.1% | |
| | 부산 | N | 88 | 6 | 51 | 4 | 27 | 24 | |
| | | % | 44.0% | 3.0% | 25.5% | 2.0% | 13.5% | 12.0% | |
| | 대구 | N | 81 | 11 | 64 | 6 | 21 | 22 | |
| | | % | 39.5% | 5.4% | 31.2% | 2.9% | 10.2% | 10.7% | |
| | 광주 | N | 66 | 3 | 72 | 7 | 37 | 15 | |
| | | % | 33.0% | 1.5% | 36.0% | 3.5% | 18.5% | 7.5% | |
| | 대전 | N | 89 | 7 | 44 | 1 | 17 | 41 | |
| | | % | 44.7% | 3.5% | 22.1% | .5% | 8.5% | 20.6% | |
| 전체 | | N | 399 | 36 | 293 | 23 | 130 | 120 | 1001 |
| | | % | 39.9% | 3.6% | 29.3% | 2.3% | 13.0% | 12.0% | 100.0% |

부표 65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대한 의견

| | | | 예 | 아니오 | 잘 모르겠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67 | 233 | 106 | 4.589 (.101) |
| | | % | 33.0% | 46.0% | 20.9% | |
| | 여자 | N | 152 | 213 | 133 | |
| | | % | 30.5% | 42.8% | 26.7% | |
| 신분 | 대학생 | N | 230 | 326 | 185 | 2.199 (.333) |
| | | % | 31.0% | 44.0% | 25.0% | |
| | 대학원생 | N | 89 | 120 | 54 | |
| | | % | 33.8% | 45.6% | 20.5% | |
| 거주지역 | 서울 | N | 50 | 100 | 50 | 46.927 (.000) |
| | | % | 25.0% | 50.0% | 25.0% | |
| | 부산 | N | 78 | 63 | 59 | |
| | | % | 39.0% | 31.5% | 29.5% | |
| | 대구 | N | 64 | 81 | 60 | |
| | | % | 31.2% | 39.5% | 29.3% | |
| | 광주 | N | 73 | 82 | 45 | |
| | | % | 36.5% | 41.0% | 22.5% | |
| | 대전 | N | 54 | 120 | 25 | |
| | | % | 27.1% | 60.3% | 12.6% | |
| 전체 | | N | 319 | 446 | 239 | 1004 |
| | | % | 31.8% | 44.4% | 23.8% | 100.0% |

## 2) 중국 응답자 조사결과

부표 66 한국 전반에 대한 인지정도

| | | | 전혀 모른다 | 모른다 | 보통이다 | 안다 | 잘 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20 | 138 | 206 | 110 | 5 | 2.663 (.616) |
| | | % | 4.2% | 28.8% | 43.0% | 23.0% | 1.0% | |
| | 여자 | N | 24 | 161 | 202 | 128 | 9 | |
| | | % | 4.6% | 30.7% | 38.5% | 24.4% | 1.7% | |
| 신분 | 대학생 | N | 36 | 223 | 281 | 162 | 8 | 7.506 (.111) |
| | | % | 5.1% | 31.4% | 39.6% | 22.8% | 1.1% | |
| | 대학원생 | N | 8 | 76 | 127 | 76 | 6 | |
| | | % | 2.7% | 25.9% | 43.3% | 25.9% | 2.0% | |
| 거주지역 | 북경 | N | 2 | 36 | 89 | 53 | 7 | 51.557 (.000) |
| | | % | 1.1% | 19.3% | 47.6% | 28.3% | 3.7% | |
| | 상해 | N | 10 | 47 | 91 | 45 | 1 | |
| | | % | 5.2% | 24.2% | 46.9% | 23.2% | .5% | |
| | 광주 | N | 5 | 69 | 88 | 54 | 1 | |
| | | % | 2.3% | 31.8% | 40.6% | 24.9% | .5% | |
| | 천진 | N | 13 | 75 | 70 | 52 | 4 | |
| | | % | 6.1% | 35.0% | 32.7% | 24.3% | 1.9% | |
| | 하얼빈 | N | 14 | 72 | 70 | 34 | 1 | |
| | | % | 7.3% | 37.7% | 36.6% | 17.8% | .5% | |
| 전체 | | N | 44 | 299 | 408 | 238 | 14 | 1003 |
| | | % | 4.4% | 29.8% | 40.7% | 23.7% | 1.4% | 100.0% |

부표 67 한국 역사에 대한 인지정도

| | | | 전혀 모른다 | 모른다 | 보통 이다 | 안다 | 잘 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45 | 163 | 154 | 110 | 7 | 26.338 (.000) |
| | | % | 9.4% | 34.0% | 32.2% | 23.0% | 1.5% | |
| | 여자 | N | 69 | 241 | 127 | 78 | 8 | |
| | | % | 13.2% | 46.1% | 24.3% | 14.9% | 1.5% | |
| 신분 | 대학생 | N | 81 | 297 | 203 | 116 | 12 | 9.859 (.000) |
| | | % | 11.4% | 41.9% | 28.6% | 16.4% | 1.7% | |
| | 대학 원생 | N | 33 | 107 | 78 | 72 | 3 | |
| | | % | 11.3% | 36.5% | 26.6% | 24.6% | 1.0% | |
| 거주 지역 | 북경 | N | 14 | 58 | 66 | 42 | 7 | 62.318 (.000) |
| | | % | 7.5% | 31.0% | 35.3% | 22.5% | 3.7% | |
| | 상해 | N | 17 | 77 | 55 | 40 | 5 | |
| | | % | 8.8% | 39.7% | 28.4% | 20.6% | 2.6% | |
| | 광주 | N | 15 | 95 | 59 | 48 | 0 | |
| | | % | 6.9% | 43.8% | 27.2% | 22.1% | .0% | |
| | 천진 | N | 29 | 105 | 43 | 34 | 3 | |
| | | % | 13.6% | 49.1% | 20.1% | 15.9% | 1.4% | |
| | 하얼빈 | N | 39 | 69 | 58 | 24 | 0 | |
| | | % | 20.5% | 36.3% | 30.5% | 12.6% | .0% | |
| 전체 | | N | 114 | 404 | 281 | 188 | 15 | 1002 |
| | | % | 11.4% | 40.3% | 28.0% | 18.8% | 1.5% | 100.0% |

부표 68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정도

| | | | 전혀 모른다 | 모른다 | 보통 이다 | 안다 | 잘 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29 | 151 | 175 | 120 | 4 | 3.183 (.528) |
| | | % | 6.1% | 31.5% | 36.5% | 25.1% | .8% | |
| | 여자 | N | 23 | 169 | 184 | 138 | 9 | |
| | | % | 4.4% | 32.3% | 35.2% | 26.4% | 1.7% | |
| 신분 | 대학생 | N | 36 | 235 | 256 | 174 | 8 | 3.127 (.537) |
| | | % | 5.1% | 33.1% | 36.1% | 24.5% | 1.1% | |
| | 대학 원생 | N | 16 | 85 | 103 | 84 | 5 | |
| | | % | 5.5% | 29.0% | 35.2% | 28.7% | 1.7% | |
| 거주 지역 | 북경 | N | 3 | 51 | 67 | 59 | 6 | 63.808 (.000) |
| | | % | 1.6% | 27.4% | 36.0% | 31.7% | 3.2% | |
| | 상해 | N | 7 | 48 | 84 | 53 | 2 | |
| | | % | 3.6% | 24.7% | 43.3% | 27.3% | 1.0% | |
| | 광주 | N | 3 | 66 | 78 | 68 | 2 | |
| | | % | 1.4% | 30.4% | 35.9% | 31.3% | .9% | |
| | 천진 | N | 17 | 81 | 67 | 47 | 2 | |
| | | % | 7.9% | 37.9% | 31.3% | 22.0% | .9% | |
| | 하얼빈 | N | 22 | 74 | 63 | 31 | 1 | |
| | | % | 11.5% | 38.7% | 33.0% | 16.2% | .5% | |
| 전체 | | N | 52 | 320 | 359 | 258 | 13 | 1002 |
| | | % | 5.2% | 31.9% | 35.8% | 25.7% | 1.3% | 100.0% |

**부표 69** 한국 지리에 대한 인지정도

| | | | 전혀 모른다 | 모른다 | 보통 이다 | 안다 | 잘 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33 | 135 | 163 | 115 | 33 | 17.050 (.002) |
| | | % | 6.9% | 28.2% | 34.0% | 24.0% | 6.9% | |
| | 여자 | N | 58 | 183 | 152 | 112 | 18 | |
| | | % | 11.1% | 35.0% | 29.1% | 21.4% | 3.4% | |
| 신분 | 대학생 | N | 71 | 224 | 214 | 161 | 39 | 4.356 (.360) |
| | | % | 10.0% | 31.6% | 30.2% | 22.7% | 5.5% | |
| | 대학 원생 | N | 20 | 94 | 101 | 66 | 12 | |
| | | % | 6.8% | 32.1% | 34.5% | 22.5% | 4.1% | |
| 거주 지역 | 북경 | N | 8 | 65 | 53 | 49 | 11 | 53.800 (.000) |
| | | % | 4.3% | 34.9% | 28.5% | 26.3% | 5.9% | |
| | 상해 | N | 18 | 69 | 50 | 42 | 15 | |
| | | % | 9.3% | 35.6% | 25.8% | 21.6% | 7.7% | |
| | 광주 | N | 13 | 42 | 83 | 67 | 12 | |
| | | % | 6.0% | 19.4% | 38.2% | 30.9% | 5.5% | |
| | 천진 | N | 27 | 75 | 63 | 40 | 9 | |
| | | % | 12.6% | 35.0% | 29.4% | 18.7% | 4.2% | |
| | 하얼빈 | N | 25 | 67 | 66 | 29 | 4 | |
| | | % | 13.1% | 35.1% | 34.6% | 15.2% | 2.1% | |
| 전체 | | N | 91 | 318 | 315 | 227 | 51 | 1002 |
| | | % | 9.1% | 31.7% | 31.4% | 22.7% | 5.1% | 100.0% |

**부표 70** 한국 문화예술자원에 대한 인지정도

| | | | 춘향전 | 태권도 | 판소리 | K-pop | 합계 |
|---|---|---|---|---|---|---|---|
| 성 | 남자 | N | 60 | 350 | 15 | 266 | 398 |
| | | % | 15.1% | 87.9% | 3.8% | 66.8% | 100.0% |
| | 여자 | N | 131 | 387 | 18 | 360 | 472 |
| | | % | 27.8% | 82.0% | 3.8% | 76.3% | 100.0% |
| 신분 | 대학생 | N | 118 | 526 | 19 | 449 | 617 |
| | | % | 19.1% | 85.3% | 3.1% | 72.8% | 100.0% |
| | 대학 원생 | N | 73 | 211 | 14 | 177 | 253 |
| | | % | 28.9% | 83.4% | 5.5% | 70.0% | 100.0% |
| 거주 지역 | 북경 | N | 43 | 125 | 15 | 123 | 162 |
| | | % | 26.5% | 77.2% | 9.3% | 75.9% | 100.0% |
| | 상해 | N | 51 | 166 | 1 | 144 | 184 |
| | | % | 27.7% | 90.2% | .5% | 78.3% | 100.0% |
| | 광주 | N | 33 | 171 | 6 | 148 | 201 |
| | | % | 16.4% | 85.1% | 3.0% | 73.6% | 100.0% |
| | 천진 | N | 37 | 156 | 4 | 124 | 181 |
| | | % | 20.4% | 86.2% | 2.2% | 68.5% | 100.0% |
| | 하얼빈 | N | 27 | 119 | 7 | 87 | 142 |
| | | % | 19.0% | 83.8% | 4.9% | 61.3% | 100.0% |
| 전체 | | N | 191 | 737 | 33 | 626 | 870 |
| | | % | 22.0% | 84.7% | 3.8% | 72.0% | 182.4% |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부표 71** 한국 지역자원에 대한 인지정도

| | | | 남대문 | 경복궁 | 제주도 | 인천 | 합계 |
|---|---|---|---|---|---|---|---|
| 성 | 남자 | N | 39 | 74 | 313 | 172 | 339 |
| | | % | 11.5% | 21.8% | 92.3% | 50.7% | 100.0% |
| | 여자 | N | 73 | 143 | 409 | 154 | 431 |
| | | % | 16.9% | 33.2% | 94.9% | 35.7% | 100.0% |
| 신분 | 대학생 | N | 79 | 136 | 494 | 216 | 527 |
| | | % | 15.0% | 25.8% | 93.7% | 41.0% | 100.0% |
| | 대학원생 | N | 33 | 81 | 228 | 110 | 243 |
| | | % | 13.6% | 33.3% | 93.8% | 45.3% | 100.0% |
| 거주지역 | 북경 | N | 28 | 43 | 138 | 76 | 148 |
| | | % | 18.9% | 29.1% | 93.2% | 51.4% | 100.0% |
| | 상해 | N | 26 | 53 | 160 | 73 | 169 |
| | | % | 15.4% | 31.4% | 94.7% | 43.2% | 100.0% |
| | 광주 | N | 32 | 51 | 187 | 88 | 194 |
| | | % | 16.5% | 26.3% | 96.4% | 45.4% | 100.0% |
| | 천진 | N | 16 | 44 | 140 | 57 | 153 |
| | | % | 10.5% | 28.8% | 91.5% | 37.3% | 100.0% |
| | 하얼빈 | N | 10 | 26 | 97 | 32 | 106 |
| | | % | 9.4% | 24.5% | 91.5% | 30.2% | 100.0% |
| 전체 | | N | 112 | 217 | 722 | 326 | 1377 |
| | | % | 14.5% | 28.2% | 93.8% | 42.3% | 178.8% |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부표 72** 한국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에 대한 인지정도

| | | | 팔만대장경 | 한복 | 5·18 광주민주화운동 | 2002 서울월드컵 | 합계 |
|---|---|---|---|---|---|---|---|
| 성 | 남자 | N | 37 | 299 | 32 | 300 | 394 |
| | | % | 9.4% | 75.9% | 8.1% | 76.1% | 100.0% |
| | 여자 | N | 40 | 420 | 22 | 244 | 457 |
| | | % | 8.8% | 91.9% | 4.8% | 53.4% | 100.0% |
| 신분 | 대학생 | N | 49 | 519 | 29 | 374 | 608 |
| | | % | 8.1% | 85.4% | 4.8% | 61.5% | 100.0% |
| | 대학원생 | N | 28 | 200 | 25 | 170 | 243 |
| | | % | 11.5% | 82.3% | 10.3% | 70.0% | 100.0% |
| 거주지역 | 북경 | N | 19 | 137 | 21 | 96 | 154 |
| | | % | 12.3% | 89.0% | 13.6% | 62.3% | 100.0% |
| | 상해 | N | 14 | 139 | 10 | 119 | 165 |
| | | % | 8.5% | 84.2% | 6.1% | 72.1% | 100.0% |
| | 광주 | N | 13 | 182 | 12 | 119 | 203 |
| | | % | 6.4% | 89.7% | 5.9% | 58.6% | 100.0% |
| | 천진 | N | 15 | 156 | 4 | 103 | 180 |
| | | % | 8.3% | 86.7% | 2.2% | 57.2% | 100.0% |
| | 하얼빈 | N | 16 | 105 | 7 | 107 | 149 |
| | | % | 10.7% | 70.5% | 4.7% | 71.8% | 100.0% |
| 전체 | | N | 77 | 719 | 54 | 544 | 1394 |
| | | % | 9.05 | 84.5% | 6.35 | 63.9% | 163.8% |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부표 73** 한국 인물자원에 대한 인지정도

| | | | 세종대왕 | 김대중 | 반기문 | 박지성 | 합계 |
|---|---|---|---|---|---|---|---|
| 성 | 남자 | N | 82 | 199 | 351 | 210 | 398 |
| | | % | 20.6% | 50.0% | 88.2% | 52.8% | 100.0% |
| | 여자 | N | 77 | 202 | 376 | 143 | 433 |
| | | % | 17.8% | 46.7% | 86.8% | 33.0% | 100.0% |
| 신분 | 대학생 | N | 107 | 236 | 494 | 230 | 566 |
| | | % | 18.9% | 41.7% | 87.3% | 40.6% | 100.0% |
| | 대학원생 | N | 52 | 165 | 233 | 123 | 265 |
| | | % | 19.6% | 62.3% | 87.9% | 46.4% | 100.0% |
| 거주지역 | 북경 | N | 33 | 83 | 108 | 53 | 131 |
| | | % | 25.2% | 63.4% | 82.4% | 40.5% | 100.0% |
| | 상해 | N | 38 | 89 | 169 | 76 | 180 |
| | | % | 21.1% | 49.4% | 93.9% | 42.2% | 100.0% |
| | 광주 | N | 40 | 90 | 198 | 94 | 209 |
| | | % | 19.1% | 43.1% | 94.7% | 45.0% | 100.0% |
| | 천진 | N | 22 | 84 | 151 | 67 | 176 |
| | | % | 12.5% | 47.7% | 85.8% | 38.1% | 100.0% |
| | 하얼빈 | N | 26 | 55 | 101 | 63 | 135 |
| | | % | 19.3% | 40.7% | 74.8% | 46.7% | 100.0% |
| 전체 | | N | 159 | 401 | 727 | 353 | 1640 |
| | | % | 19.1% | 48.3% | 87.5% | 42.5% | 197.4% |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부표 74** 한국 생활문화자원에 대한 인지정도

| | | | 김치 | 삼성갤럭시 | 남산타워 | 부산국제영화제 | 합계 |
|---|---|---|---|---|---|---|---|
| 성 | 남자 | N | 404 | 341 | 28 | 236 | 450 |
| | | % | 89.8% | 75.8% | 6.2% | 52.4% | 100.0% |
| | 여자 | N | 480 | 341 | 49 | 319 | 499 |
| | | % | 96.2% | 68.3% | 9.8% | 63.9% | 100.0% |
| 신분 | 대학생 | N | 617 | 477 | 49 | 390 | 666 |
| | | % | 92.6% | 71.6% | 7.4% | 58.6% | 100.0% |
| | 대학원생 | N | 267 | 205 | 28 | 165 | 283 |
| | | % | 94.3% | 72.4% | 9.9% | 58.3% | 100.0% |
| 거주지역 | 북경 | N | 168 | 121 | 19 | 103 | 179 |
| | | % | 93.9% | 67.6% | 10.6% | 57.5% | 100.0% |
| | 상해 | N | 183 | 138 | 13 | 113 | 189 |
| | | % | 96.8% | 73.0% | 6.9% | 59.8% | 100.0% |
| | 광주 | N | 198 | 162 | 15 | 149 | 210 |
| | | % | 94.3% | 77.1% | 7.1% | 71.0% | 100.0% |
| | 천진 | N | 188 | 157 | 16 | 119 | 204 |
| | | % | 92.2% | 77.0% | 7.8% | 58.3% | 100.0% |
| | 하얼빈 | N | 147 | 104 | 14 | 71 | 167 |
| | | % | 88.0% | 62.3% | 8.4% | 42.5% | 100.0% |
| 전체 | | N | 884 | 682 | 77 | 555 | 2198 |
| | | % | 93.2% | 71.9% | 8.1% | 58.5% | 231.6% |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부표 75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이미지(문화유산이 많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89 | 145 | 205 | 37 | 1 | 6.629 (.157) |
| | | % | 18.7% | 30.4% | 43.0% | 7.8% | .2% | |
| | 여자 | N | 69 | 159 | 241 | 51 | 2 | |
| | | % | 13.2% | 30.5% | 46.2% | 9.8% | .4% | |
| 신분 | 대학생 | N | 111 | 198 | 328 | 70 | 2 | 9.670 (.046) |
| | | % | 15.7% | 27.9% | 46.3% | 9.9% | .3% | |
| | 대학원생 | N | 47 | 106 | 118 | 18 | 1 | |
| | | % | 16.2% | 36.6% | 40.7% | 6.2% | .3% | |
| 거주지역 | 북경 | N | 23 | 37 | 94 | 29 | 2 | 57.716 (.000) |
| | | % | 12.4% | 20.0% | 50.8% | 15.7% | 1.1% | |
| | 상해 | N | 27 | 57 | 99 | 11 | 0 | |
| | | % | 13.9% | 29.4% | 51.0% | 5.7% | .0% | |
| | 광주 | N | 29 | 59 | 110 | 18 | 0 | |
| | | % | 13.4% | 27.3% | 50.9% | 8.3% | .0% | |
| | 천진 | N | 33 | 82 | 82 | 16 | 0 | |
| | | % | 15.5% | 38.5% | 38.5% | 7.5% | .0% | |
| | 하얼빈 | N | 46 | 69 | 61 | 14 | 1 | |
| | | % | 24.1% | 36.1% | 31.9% | 7.3% | .5% | |
| 전체 | | N | 158 | 304 | 446 | 88 | 3 | 999 |
| | | % | 15.8% | 30.4% | 44.6% | 8.8% | .3% | 100.0% |

부표 76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이미지(문화 예술수준이 높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55 | 124 | 217 | 75 | 6 | 11.798 (.019) |
| | | % | 11.5% | 26.0% | 45.5% | 15.7% | 1.3% | |
| | 여자 | N | 49 | 96 | 268 | 98 | 11 | |
| | | % | 9.4% | 18.4% | 51.3% | 18.8% | 2.1% | |
| 신분 | 대학생 | N | 76 | 144 | 337 | 138 | 15 | 12.974 (.011) |
| | | % | 10.7% | 20.3% | 47.5% | 19.4% | 2.1% | |
| | 대학원생 | N | 28 | 76 | 148 | 35 | 2 | |
| | | % | 9.7% | 26.3% | 51.2% | 12.1% | .7% | |
| 거주지역 | 북경 | N | 11 | 22 | 84 | 57 | 11 | 104.715 (.000) |
| | | % | 5.9% | 11.9% | 45.4% | 30.8% | 5.9% | |
| | 상해 | N | 22 | 46 | 100 | 26 | 0 | |
| | | % | 11.3% | 23.7% | 51.5% | 13.4% | .0% | |
| | 광주 | N | 15 | 42 | 112 | 43 | 4 | |
| | | % | 6.9% | 19.4% | 51.9% | 19.9% | 1.9% | |
| | 천진 | N | 16 | 56 | 112 | 28 | 2 | |
| | | % | 7.5% | 26.2% | 52.3% | 13.1% | .9% | |
| | 하얼빈 | N | 40 | 54 | 77 | 19 | 0 | |
| | | % | 21.1% | 28.4% | 40.5% | 10.0% | .0% | |
| 전체 | | N | 104 | 220 | 485 | 173 | 17 | 999 |
| | | % | 10.4% | 22.0% | 48.5% | 17.3% | 1.7% | 100.0% |

부표 77 한국 자연에 대한 이미지(자연이 아름답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27 | 72 | 237 | 130 | 12 | 14.474 (.006) |
| | | % | 5.6% | 15.1% | 49.6% | 27.2% | 2.5% | |
| | 여자 | N | 23 | 49 | 243 | 187 | 18 | |
| | | % | 4.4% | 9.4% | 46.7% | 36.0% | 3.5% | |
| 신분 | 대학생 | N | 39 | 86 | 335 | 222 | 25 | 3.867 (.424) |
| | | % | 5.5% | 12.2% | 47.4% | 31.4% | 3.5% | |
| | 대학원생 | N | 11 | 35 | 145 | 95 | 5 | |
| | | % | 3.8% | 12.0% | 49.8% | 32.6% | 1.7% | |
| 거주지역 | 북경 | N | 3 | 12 | 88 | 72 | 12 | 76.541 (.000) |
| | | % | 1.6% | 6.4% | 47.1% | 38.5% | 6.4% | |
| | 상해 | N | 9 | 21 | 99 | 60 | 5 | |
| | | % | 4.6% | 10.8% | 51.0% | 30.9% | 2.6% | |
| | 광주 | N | 6 | 18 | 101 | 84 | 5 | |
| | | % | 2.8% | 8.4% | 47.2% | 39.3% | 2.3% | |
| | 천진 | N | 9 | 27 | 113 | 59 | 5 | |
| | | % | 4.2% | 12.7% | 53.1% | 27.7% | 2.3% | |
| | 하얼빈 | N | 23 | 43 | 79 | 42 | 3 | |
| | | % | 12.1% | 22.6% | 41.6% | 22.1% | 1.6% | |
| 전체 | | N | 50 | 121 | 480 | 317 | 30 | 998 |
| | | % | 5.0% | 12.1% | 48.1% | 31.8% | 3.0% | 100.0% |

부표 78 한국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관광지가 많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26 | 85 | 251 | 104 | 9 | 18.243 (.001) |
| | | % | 5.5% | 17.9% | 52.8% | 21.9% | 1.9% | |
| | 여자 | N | 22 | 60 | 263 | 155 | 22 | |
| | | % | 4.2% | 11.5% | 50.4% | 29.7% | 4.2% | |
| 신분 | 대학생 | N | 35 | 99 | 360 | 185 | 28 | 6.468 (.167) |
| | | % | 5.0% | 14.0% | 50.9% | 26.2% | 4.0% | |
| | 대학원생 | N | 13 | 46 | 154 | 74 | 3 | |
| | | % | 4.5% | 15.9% | 53.1% | 25.5% | 1.0% | |
| 거주지역 | 북경 | N | 3 | 16 | 94 | 60 | 13 | 72.655 (.000) |
| | | % | 1.6% | 8.6% | 50.5% | 32.3% | 7.0% | |
| | 상해 | N | 12 | 24 | 100 | 55 | 3 | |
| | | % | 6.2% | 12.4% | 51.5% | 28.4% | 1.5% | |
| | 광주 | N | 6 | 23 | 111 | 66 | 9 | |
| | | % | 2.8% | 10.7% | 51.6% | 30.7% | 4.2% | |
| | 천진 | N | 6 | 38 | 117 | 49 | 4 | |
| | | % | 2.8% | 17.8% | 54.7% | 22.9% | 1.9% | |
| | 하얼빈 | N | 21 | 44 | 92 | 29 | 2 | |
| | | % | 11.2% | 23.4% | 48.9% | 15.4% | 1.1% | |
| 전체 | | N | 48 | 145 | 514 | 259 | 31 | 997 |
| | | % | 4.8% | 14.5% | 51.6% | 26.0% | 3.1% | 100.0% |

부표 79 한국 스포츠에 대한 이미지(스포츠 강국이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49 | 129 | 195 | 74 | 31 | 18.797 (.001) |
| | | % | 10.3% | 27.0% | 40.8% | 15.5% | 6.5% | |
| | 여자 | N | 43 | 171 | 240 | 56 | 13 | |
| | | % | 8.2% | 32.7% | 45.9% | 10.7% | 2.5% | |
| 신분 | 대학생 | N | 72 | 201 | 305 | 92 | 39 | 11.449 (.022) |
| | | % | 10.2% | 28.3% | 43.0% | 13.0% | 5.5% | |
| | 대학원생 | N | 20 | 99 | 130 | 38 | 5 | |
| | | % | 6.8% | 33.9% | 44.5% | 13.0% | 1.7% | |
| 거주지역 | 북경 | N | 5 | 40 | 65 | 39 | 37 | 168.613 (.000) |
| | | % | 2.7% | 21.5% | 34.9% | 21.0% | 19.9% | |
| | 상해 | N | 15 | 57 | 97 | 24 | 2 | |
| | | % | 7.7% | 29.2% | 49.7% | 12.3% | 1.0% | |
| | 광주 | N | 21 | 73 | 94 | 28 | 0 | |
| | | % | 9.7% | 33.8% | 43.5% | 13.0% | .0% | |
| | 천진 | N | 21 | 73 | 96 | 22 | 1 | |
| | | % | 9.9% | 34.3% | 45.1% | 10.3% | .5% | |
| | 하얼빈 | N | 30 | 57 | 83 | 17 | 4 | |
| | | % | 15.7% | 29.8% | 43.5% | 8.9% | 2.1% | |
| 전체 | | N | 92 | 300 | 435 | 130 | 44 | 1001 |
| | | % | 9.2% | 30.0% | 43.5% | 13.0% | 4.4% | 100.0% |

부표 80 한국 복지수준에 대한 이미지(복지수준이 높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3 | 60 | 218 | 156 | 31 | 18.071 (.001) |
| | | % | 2.7% | 12.6% | 45.6% | 32.6% | 6.5% | |
| | 여자 | N | 23 | 90 | 265 | 124 | 19 | |
| | | % | 4.4% | 17.3% | 50.9% | 23.8% | 3.6% | |
| 신분 | 대학생 | N | 24 | 105 | 341 | 192 | 45 | 9.935 (.042) |
| | | % | 3.4% | 14.9% | 48.2% | 27.2% | 6.4% | |
| | 대학원생 | N | 12 | 45 | 142 | 88 | 5 | |
| | | % | 4.1% | 15.4% | 48.6% | 30.1% | 1.7% | |
| 거주지역 | 북경 | N | 4 | 19 | 70 | 59 | 35 | 130.463 (.000) |
| | | % | 2.1% | 10.2% | 37.4% | 31.6% | 18.7% | |
| | 상해 | N | 9 | 30 | 98 | 54 | 1 | |
| | | % | 4.7% | 15.6% | 51.0% | 28.1% | .5% | |
| | 광주 | N | 4 | 21 | 118 | 66 | 6 | |
| | | % | 1.9% | 9.8% | 54.9% | 30.7% | 2.8% | |
| | 천진 | N | 4 | 36 | 107 | 62 | 5 | |
| | | % | 1.9% | 16.8% | 50.0% | 29.0% | 2.3% | |
| | 하얼빈 | N | 15 | 44 | 90 | 39 | 3 | |
| | | % | 7.9% | 23.0% | 47.1% | 20.4% | 1.6% | |
| 전체 | | N | 36 | 150 | 483 | 280 | 50 | 999 |
| | | % | 3.6% | 15.0% | 48.3% | 28.0% | 5.0% | 100.0% |

부표 81 한국 국민 이미지1(남을 배려한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34 | 97 | 253 | 86 | 8 | 15.482 (.004) |
| | | % | 7.1% | 20.3% | 52.9% | 18.0% | 1.7% | |
| | 여자 | N | 32 | 66 | 285 | 129 | 13 | |
| | | % | 6.1% | 12.6% | 54.3% | 24.6% | 2.5% | |
| 신분 | 대학생 | N | 40 | 110 | 380 | 159 | 21 | 13.883 (.008) |
| | | % | 5.6% | 15.5% | 53.5% | 22.4% | 3.0% | |
| | 대학원생 | N | 26 | 53 | 158 | 56 | 0 | |
| | | % | 8.9% | 18.1% | 53.9% | 19.1% | .0% | |
| 거주지역 | 북경 | N | 3 | 23 | 100 | 51 | 10 | 71.810 (.000) |
| | | % | 1.6% | 12.3% | 53.5% | 27.3% | 5.3% | |
| | 상해 | N | 23 | 29 | 100 | 39 | 3 | |
| | | % | 11.9% | 14.9% | 51.5% | 20.1% | 1.5% | |
| | 광주 | N | 8 | 19 | 127 | 59 | 3 | |
| | | % | 3.7% | 8.8% | 58.8% | 27.3% | 1.4% | |
| | 천진 | N | 13 | 43 | 113 | 44 | 2 | |
| | | % | 6.0% | 20.0% | 52.6% | 20.5% | .9% | |
| | 하얼빈 | N | 19 | 49 | 98 | 22 | 3 | |
| | | % | 9.9% | 25.7% | 51.3% | 11.5% | 1.6% | |
| 전체 | | N | 66 | 163 | 538 | 215 | 21 | 1003 |
| | | % | 6.6% | 16.3% | 53.6% | 21.4% | 2.1% | 100.0% |

부표 82 한국 국민 이미지2(매사에 적극적이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8 | 50 | 233 | 170 | 8 | 5.718 (.221) |
| | | % | 3.8% | 10.4% | 48.6% | 35.5% | 1.7% | |
| | 여자 | N | 23 | 36 | 248 | 205 | 13 | |
| | | % | 4.4% | 6.9% | 47.2% | 39.0% | 2.5% | |
| 신분 | 대학생 | N | 26 | 59 | 350 | 256 | 21 | 12.027 (.017) |
| | | % | 3.7% | 8.3% | 49.2% | 36.0% | 2.9% | |
| | 대학원생 | N | 15 | 27 | 131 | 119 | 0 | |
| | | % | 5.1% | 9.2% | 44.9% | 40.8% | .0% | |
| 거주지역 | 북경 | N | 1 | 15 | 77 | 85 | 9 | 71.239 (.000) |
| | | % | .5% | 8.0% | 41.2% | 45.5% | 4.8% | |
| | 상해 | N | 17 | 21 | 91 | 64 | 2 | |
| | | % | 8.7% | 10.8% | 46.7% | 32.8% | 1.0% | |
| | 광주 | N | 1 | 6 | 104 | 99 | 7 | |
| | | % | .5% | 2.8% | 47.9% | 45.6% | 3.2% | |
| | 천진 | N | 9 | 19 | 109 | 75 | 3 | |
| | | % | 4.2% | 8.8% | 50.7% | 34.9% | 1.4% | |
| | 하얼빈 | N | 13 | 25 | 100 | 52 | 0 | |
| | | % | 6.8% | 13.2% | 52.6% | 27.4% | .0% | |
| 전체 | | N | 41 | 86 | 481 | 375 | 21 | 1004 |
| | | % | 4.1% | 8.6% | 47.9% | 37.4% | 2.1% | 100.0% |

부표 83 한국 국민 이미지3(실용을 추구한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20 | 50 | 255 | 138 | 13 | 6.321 (.176) |
| | | % | 4.2% | 10.5% | 53.6% | 29.0% | 2.7% | |
| | 여자 | N | 19 | 52 | 252 | 189 | 10 | |
| | | % | 3.6% | 10.0% | 48.3% | 36.2% | 1.9% | |
| 신분 | 대학생 | N | 26 | 67 | 377 | 220 | 17 | 6.793 (.147) |
| | | % | 3.7% | 9.5% | 53.3% | 31.1% | 2.4% | |
| | 대학원생 | N | 13 | 35 | 130 | 107 | 6 | |
| | | % | 4.5% | 12.0% | 44.7% | 36.8% | 2.1% | |
| 거주지역 | 북경 | N | 4 | 17 | 82 | 78 | 6 | 54.543 (.000) |
| | | % | 2.1% | 9.1% | 43.9% | 41.7% | 3.2% | |
| | 상해 | N | 12 | 13 | 107 | 59 | 3 | |
| | | % | 6.2% | 6.7% | 55.2% | 30.4% | 1.5% | |
| | 광주 | N | 1 | 13 | 110 | 88 | 4 | |
| | | % | .5% | 6.0% | 50.9% | 40.7% | 1.9% | |
| | 천진 | N | 9 | 27 | 108 | 59 | 8 | |
| | | % | 4.3% | 12.8% | 51.2% | 28.0% | 3.8% | |
| | 하얼빈 | N | 13 | 32 | 100 | 43 | 2 | |
| | | % | 6.8% | 16.8% | 52.6% | 22.6% | 1.1% | |
| 전체 | | N | 39 | 102 | 507 | 327 | 23 | 998 |
| | | % | 3.9% | 10.2% | 50.8% | 32.8% | 2.3% | 100.0% |

부표 84 한국 국민 이미지4(타문화에 개방적이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64 | 102 | 184 | 115 | 15 | 7.955 (.093) |
| | | % | 13.3% | 21.3% | 38.3% | 24.0% | 3.1% | |
| | 여자 | N | 43 | 110 | 229 | 126 | 17 | |
| | | % | 8.2% | 21.0% | 43.6% | 24.0% | 3.2% | |
| 신분 | 대학생 | N | 71 | 136 | 298 | 181 | 26 | 9.780 (.044) |
| | | % | 10.0% | 19.1% | 41.9% | 25.4% | 3.7% | |
| | 대학원생 | N | 36 | 76 | 115 | 60 | 6 | |
| | | % | 12.3% | 25.9% | 39.2% | 20.5% | 2.0% | |
| 거주지역 | 북경 | N | 16 | 31 | 75 | 54 | 11 | 36.061 (.003) |
| | | % | 8.6% | 16.6% | 40.1% | 28.9% | 5.9% | |
| | 상해 | N | 26 | 31 | 71 | 61 | 6 | |
| | | % | 13.3% | 15.9% | 36.4% | 31.3% | 3.1% | |
| | 광주 | N | 19 | 49 | 99 | 47 | 3 | |
| | | % | 8.8% | 22.6% | 45.6% | 21.7% | 1.4% | |
| | 천진 | N | 22 | 52 | 88 | 50 | 3 | |
| | | % | 10.2% | 24.2% | 40.9% | 23.3% | 1.4% | |
| | 하얼빈 | N | 24 | 49 | 80 | 29 | 9 | |
| | | % | 12.6% | 25.7% | 41.9% | 15.2% | 4.7% | |
| 전체 | | N | 107 | 212 | 413 | 241 | 32 | 1005 |
| | | % | 10.6% | 21.1% | 41.1% | 24.0% | 3.2% | 100.0% |

부표 85 한국 국민 이미지5(여유가 있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39 | 111 | 215 | 99 | 16 | 3.799 (.434) |
| | | % | 8.1% | 23.1% | 44.8% | 20.6% | 3.3% | |
| | 여자 | N | 37 | 101 | 240 | 128 | 18 | |
| | | % | 7.1% | 19.3% | 45.8% | 24.4% | 3.4% | |
| 신분 | 대학생 | N | 51 | 141 | 319 | 168 | 32 | 12.571 (.014) |
| | | % | 7.2% | 19.8% | 44.9% | 23.6% | 4.5% | |
| | 대학원생 | N | 25 | 71 | 136 | 59 | 2 | |
| | | % | 8.5% | 24.2% | 46.4% | 20.1% | .7% | |
| 거주지역 | 북경 | N | 8 | 30 | 86 | 52 | 11 | 43.068 (.000) |
| | | % | 4.3% | 16.0% | 46.0% | 27.8% | 5.9% | |
| | 상해 | N | 19 | 40 | 71 | 57 | 8 | |
| | | % | 9.7% | 20.5% | 36.4% | 29.2% | 4.1% | |
| | 광주 | N | 7 | 53 | 112 | 39 | 5 | |
| | | % | 3.2% | 24.5% | 51.9% | 18.1% | 2.3% | |
| | 천진 | N | 18 | 45 | 103 | 46 | 3 | |
| | | % | 8.4% | 20.9% | 47.9% | 21.4% | 1.4% | |
| | 하얼빈 | N | 24 | 44 | 83 | 33 | 7 | |
| | | % | 12.6% | 23.0% | 43.5% | 17.3% | 3.7% | |
| 전체 | | N | 76 | 212 | 455 | 227 | 34 | 1004 |
| | | % | 7.6% | 21.1% | 45.3% | 22.6% | 3.4% | 100.0% |

부표 86 한국 국민 이미지6(믿음직하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x^2$ (p) |
|---|---|---|---|---|---|---|---|---|
| 성 | 남자 | N | 64 | 129 | 234 | 47 | 4 | 15.113 (.004) |
| | | % | 13.4% | 27.0% | 49.0% | 9.8% | .8% | |
| | 여자 | N | 53 | 103 | 295 | 59 | 13 | |
| | | % | 10.1% | 19.7% | 56.4% | 11.3% | 2.5% | |
| 신분 | 대학생 | N | 81 | 150 | 389 | 75 | 15 | 8.805 (.066) |
| | | % | 11.4% | 21.1% | 54.8% | 10.6% | 2.1% | |
| | 대학원생 | N | 36 | 82 | 140 | 31 | 2 | |
| | | % | 12.4% | 28.2% | 48.1% | 10.7% | .7% | |
| 거주지역 | 북경 | N | 13 | 27 | 118 | 22 | 6 | 51.411 (.000) |
| | | % | 7.0% | 14.5% | 63.4% | 11.8% | 3.2% | |
| | 상해 | N | 27 | 39 | 99 | 28 | 1 | |
| | | % | 13.9% | 20.1% | 51.0% | 14.4% | .5% | |
| | 광주 | N | 13 | 60 | 120 | 20 | 3 | |
| | | % | 6.0% | 27.8% | 55.6% | 9.3% | 1.4% | |
| | 천진 | N | 25 | 55 | 109 | 23 | 3 | |
| | | % | 11.6% | 25.6% | 50.7% | 10.7% | 1.4% | |
| | 하얼빈 | N | 39 | 51 | 83 | 13 | 4 | |
| | | % | 20.5% | 26.8% | 43.7% | 6.8% | 2.1% | |
| 전체 | | N | 117 | 232 | 529 | 106 | 17 | 1001 |
| | | % | 11.7% | 23.2% | 52.8% | 10.6% | 1.7% | 100.0% |

부표 87 자국(중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1)

| | | | 문화예술자원 | | | | | | 지역자원 | | | 역사적발명품과 사건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성 | 남자 | N | 147 | 39 | 52 | 220 | 162 | 60 | 148 | 107 | 33 | 57 | 55 |
| | | % | 31.7% | 8.4% | 11.2% | 47.5% | 35.0% | 13.0% | 32.0% | 23.1% | 7.1% | 12.3% | 11.9% |
| | 여자 | N | 116 | 30 | 42 | 257 | 209 | 57 | 159 | 120 | 42 | 45 | 55 |
| | | % | 22.8% | 5.9% | 8.3% | 50.5% | 41.1% | 11.2% | 31.2% | 23.6% | 8.3% | 8.8% | 10.8% |
| 신분 | 대학생 | N | 194 | 56 | 63 | 335 | 253 | 92 | 209 | 150 | 54 | 79 | 80 |
| | | % | 28.1% | 8.1% | 9.1% | 48.6% | 36.7% | 13.3% | 30.3% | 21.7% | 7.8% | 11.4% | 11.6% |
| | 대학원생 | N | 69 | 13 | 31 | 142 | 118 | 25 | 98 | 77 | 21 | 23 | 30 |
| | | % | 24.5% | 4.6% | 11.0% | 50.4% | 41.8% | 8.9% | 34.8% | 27.3% | 7.4% | 8.2% | 10.6% |
| 거주지역 | 북경 | N | 66 | 13 | 25 | 74 | 55 | 26 | 62 | 43 | 11 | 26 | 20 |
| | | % | 36.9% | 7.3% | 14.0% | 41.3% | 30.7% | 14.5% | 34.6% | 24.0% | 6.1% | 14.5% | 11.2% |
| | 상해 | N | 59 | 2 | 13 | 118 | 94 | 13 | 71 | 43 | 9 | 15 | 24 |
| | | % | 31.7% | 1.1% | 7.0% | 63.4% | 50.5% | 7.0% | 38.2% | 23.1% | 4.8% | 8.1% | 12.9% |
| | 광주 | N | 50 | 14 | 15 | 107 | 88 | 36 | 61 | 41 | 18 | 16 | 24 |
| | | % | 24.2% | 6.8% | 7.2% | 51.7% | 42.5% | 17.4% | 29.5% | 19.8% | 8.7% | 7.7% | 11.6% |
| | 천진 | N | 50 | 16 | 14 | 101 | 78 | 28 | 57 | 54 | 16 | 27 | 25 |
| | | % | 23.4% | 7.5% | 6.5% | 47.2% | 36.4% | 13.1% | 26.6% | 25.2% | 7.5% | 12.6% | 11.7% |
| | 하얼빈 | N | 38 | 24 | 27 | 77 | 56 | 14 | 56 | 46 | 21 | 18 | 17 |
| | | % | 20.4% | 12.9% | 14.5% | 41.4% | 30.1% | 7.5% | 30.1% | 24.7% | 11.3% | 9.7% | 9.1% |
| 전체 | | N | 263 | 69 | 94 | 477 | 371 | 117 | 307 | 227 | 75 | 102 | 110 |
| | | % | 27.1% | 7.1% | 9.7% | 49.1% | 38.2% | 12.0% | 31.6% | 23.4% | 7.7% | 10.5% | 11.3% |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주 2: 1) 전통문학 및 도서, 2) 현대문학 및 도서, 3) 미술작품, 4) 전통문화, 5) 무형문화제, 6) 대중문화, 7) 역사유적지, 8) 자연유산, 9) 도시, 10) 역사적 발명품, 11) 역사적 사건

부표 87 자국(중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2)

| | | | 인물자원 | | | 생활문화자원 | | | | | 합계 |
|---|---|---|---|---|---|---|---|---|---|---|---|
| |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 성 | 남자 | N | 50 | 35 | 12 | 98 | 19 | 16 | 16 | 42 | 463 |
| | | % | 10.8% | 7.6% | 2.6% | 21.2% | 4.1% | 3.5% | 3.5% | 9.1% | 100.0% |
| | 여자 | N | 51 | 24 | 11 | 160 | 15 | 27 | 21 | 65 | 509 |
| | | % | 10.0% | 4.7% | 2.2% | 31.4% | 2.9% | 5.3% | 4.1% | 12.8% | 100.0% |
| 신분 | 대학생 | N | 71 | 48 | 17 | 171 | 23 | 39 | 23 | 83 | 690 |
| | | % | 10.3% | 7.0% | 2.5% | 24.8% | 3.3% | 5.7% | 3.3% | 12.0% | 100.0% |
| | 대학원생 | N | 30 | 11 | 6 | 87 | 11 | 4 | 14 | 24 | 282 |
| | | % | 10.6% | 3.9% | 2.1% | 30.9% | 3.9% | 1.4% | 5.0% | 8.5% | 100.0% |
| 거주지역 | 북경 | N | 20 | 7 | 6 | 43 | 10 | 3 | 5 | 13 | 179 |
| | | % | 11.2% | 3.9% | 3.4% | 24.0% | 5.6% | 1.7% | 2.8% | 7.3% | 100.0% |
| | 상해 | N | 9 | 2 | 1 | 57 | 3 | 4 | 8 | 13 | 186 |
| | | % | 4.8% | 1.1% | .5% | 30.6% | 1.6% | 2.2% | 4.3% | 7.0% | 100.0% |
| | 광주 | N | 25 | 15 | 5 | 48 | 9 | 14 | 6 | 25 | 207 |
| | | % | 12.1% | 7.2% | 2.4% | 23.2% | 4.3% | 6.8% | 2.9% | 12.1% | 100.0% |
| | 천진 | N | 20 | 18 | 4 | 54 | 6 | 12 | 10 | 41 | 214 |
| | | % | 9.3% | 8.4% | 1.9% | 25.2% | 2.8% | 5.6% | 4.7% | 19.2% | 100.0% |
| | 하얼빈 | N | 27 | 17 | 7 | 56 | 6 | 10 | 8 | 15 | 186 |
| | | % | 14.5% | 9.1% | 3.8% | 30.1% | 3.2% | 5.4% | 4.3% | 8.1% | 100.0% |
| 전체 | | N | 101 | 59 | 23 | 258 | 34 | 43 | 37 | 107 | 2874 |
| | | % | 10.4% | 6.1% | 2.4% | 26.5% | 3.5% | 4.4% | 3.8% | 11.0% | 295.7% |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주 2: 12) 고대 위인, 13) 현대 위인, 14) 스포츠 스타, 15) 음식, 16) 제품, 17) 현대건축물(랜드마크), 18) 관광상품, 19) 지역축제

부표 88 상대국(한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1)

| | | | 문화예술자원 | | | | | | 지역자원 | | |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성 | 남자 | N | 66 | 42 | 40 | 136 | 85 | 141 | 78 | 88 | 84 | 13 | 75 |
| | | % | 14.0% | 8.9% | 8.5% | 28.9% | 18.0% | 29.9% | 16.6% | 18.7% | 17.8% | 2.8% | 15.9% |
| | 여자 | N | 64 | 43 | 40 | 142 | 86 | 181 | 55 | 89 | 120 | 15 | 47 |
| | | % | 12.4% | 8.3% | 7.7% | 27.4% | 16.6% | 34.9% | 10.6% | 17.2% | 23.2% | 2.9% | 9.1% |
| 신분 | 대학생 | N | 102 | 61 | 57 | 193 | 121 | 228 | 100 | 115 | 144 | 19 | 97 |
| | | % | 14.6% | 8.7% | 8.2% | 27.6% | 17.3% | 32.6% | 14.3% | 16.5% | 20.6% | 2.7% | 13.9% |
| | 대학원생 | N | 28 | 24 | 23 | 85 | 50 | 94 | 33 | 62 | 60 | 9 | 25 |
| | | % | 9.7% | 8.3% | 7.9% | 29.3% | 17.2% | 32.4% | 11.4% | 21.4% | 20.7% | 3.1% | 8.6% |
| 거주지역 | 북경 | N | 25 | 20 | 23 | 53 | 24 | 87 | 16 | 28 | 33 | 7 | 22 |
| | | % | 13.7% | 11.0% | 12.6% | 29.1% | 13.2% | 47.8% | 8.8% | 15.4% | 18.1% | 3.8% | 12.1% |
| | 상해 | N | 37 | 8 | 8 | 59 | 41 | 66 | 35 | 39 | 37 | 3 | 29 |
| | | % | 19.2% | 4.1% | 4.1% | 30.6% | 21.2% | 34.2% | 18.1% | 20.2% | 19.2% | 1.6% | 15.0% |
| | 광주 | N | 23 | 17 | 10 | 67 | 41 | 68 | 26 | 35 | 58 | 5 | 31 |
| | | % | 10.7% | 7.9% | 4.7% | 31.3% | 19.2% | 31.8% | 12.1% | 16.4% | 27.1% | 2.3% | 14.5% |
| | 천진 | N | 27 | 22 | 17 | 58 | 34 | 62 | 22 | 40 | 49 | 8 | 22 |
| | | % | 12.6% | 10.2% | 7.9% | 27.0% | 15.8% | 28.8% | 10.2% | 18.6% | 22.8% | 3.7% | 10.2% |
| | 하얼빈 | N | 18 | 18 | 22 | 41 | 31 | 39 | 34 | 35 | 27 | 5 | 18 |
| | | % | 9.7% | 9.7% | 11.9% | 22.2% | 16.8% | 21.1% | 18.4% | 18.9% | 14.6% | 2.7% | 9.7% |
| 전체 | | N | 130 | 85 | 80 | 278 | 171 | 322 | 133 | 177 | 204 | 28 | 122 |
| | | % | 13.1% | 8.6% | 8.1% | 28.1% | 17.3% | 32.6% | 13.4% | 17.9% | 20.6% | 2.8% | 12.3% |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주 2: 1) 전통문학 및 도서, 2) 현대문학 및 도서, 3) 미술작품, 4) 전통문화, 5) 무형문화제, 6) 대중문화, 7) 역사유적지, 8) 자연유산, 9) 도시, 10) 역사적 발명품, 11) 역사적 사건

부표 88 상대국(한국) 문화자원 유형에 대한 가치 인식(2)

| | | | 인물자원 | | | 생활문화자원 | | | | | 합계 |
|---|---|---|---|---|---|---|---|---|---|---|---|
| |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 성 | 남자 | N | 15 | 25 | 87 | 169 | 97 | 35 | 76 | 33 | 471 |
| | | % | 3.2% | 5.3% | 18.5% | 35.9% | 20.6% | 7.4% | 16.1% | 7.0% | 100.0% |
| | 여자 | N | 8 | 16 | 55 | 261 | 106 | 53 | 90 | 67 | 518 |
| | | % | 1.5% | 3.1% | 10.6% | 50.4% | 20.5% | 10.2% | 17.4% | 12.9% | 100.0% |
| 신분 | 대학생 | N | 19 | 33 | 102 | 293 | 132 | 64 | 104 | 71 | 699 |
| | | % | 2.7% | 4.7% | 14.6% | 41.9% | 18.9% | 9.2% | 14.9% | 10.2% | 100.0% |
| | 대학원생 | N | 4 | 8 | 40 | 137 | 71 | 24 | 62 | 29 | 290 |
| | | % | 1.4% | 2.8% | 13.8% | 47.2% | 24.5% | 8.3% | 21.4% | 10.0% | 100.0% |
| 거주지역 | 북경 | N | 2 | 6 | 40 | 81 | 40 | 8 | 21 | 10 | 182 |
| | | % | 1.1% | 3.3% | 22.0% | 44.5% | 22.0% | 4.4% | 11.5% | 5.5% | 100.0% |
| | 상해 | N | 3 | 8 | 30 | 77 | 36 | 13 | 26 | 15 | 193 |
| | | % | 1.6% | 4.1% | 15.5% | 39.9% | 18.7% | 6.7% | 13.5% | 7.8% | 100.0% |
| | 광주 | N | 4 | 15 | 19 | 88 | 43 | 20 | 31 | 39 | 214 |
| | | % | 1.9% | 7.0% | 8.9% | 41.1% | 20.1% | 9.3% | 14.5% | 18.2% | 100.0% |
| | 천진 | N | 4 | 6 | 25 | 98 | 47 | 35 | 50 | 19 | 215 |
| | | % | 1.9% | 2.8% | 11.6% | 45.6% | 21.9% | 16.3% | 23.3% | 8.8% | 100.0% |
| | 하얼빈 | N | 10 | 6 | 28 | 86 | 37 | 12 | 38 | 17 | 185 |
| | | % | 5.4% | 3.2% | 15.1% | 46.5% | 20.0% | 6.5% | 20.5% | 9.2% | 100.0% |
| 전체 | | N | 23 | 41 | 142 | 430 | 203 | 88 | 166 | 100 | 2923 |
| | | % | 2.3% | 4.1% | 14.4% | 43.5% | 20.5% | 8.9% | 16.8% | 10.1% | 295.6% |

주 1: 본 자료는 중복응답의 결과로 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한 빈도와 백분율임
주 2: 12) 고대 위인, 13) 현대 위인, 14) 스포츠 스타, 15) 음식, 16) 제품, 17) 현대건축물(랜드마크), 18) 관광상품, 19) 지역축제

**부표 89**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1(전통문학 및 도서)

| | | | 사대명저 | 시경 | 자치통감 | 전국책 | 금병매 | 논어 | 사기 | 주역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136 | 42 | 40 | 23 | 13 | 95 | 43 | 60 | 13 | 18.612 (.017) |
| | | % | 29.2% | 9.0% | 8.6% | 4.9% | 2.8% | 20.4% | 9.2% | 12.9% | 2.8% | |
| | 여자 | N | 128 | 59 | 49 | 21 | 10 | 135 | 57 | 38 | 7 | |
| | | % | 25.4% | 11.7% | 9.7% | 4.2% | 2.0% | 26.8% | 11.3% | 7.5% | 1.4% | |
| 신분 | 대학생 | N | 192 | 72 | 64 | 36 | 17 | 170 | 65 | 58 | 13 | 12.678 (.123) |
| | | % | 27.9% | 10.5% | 9.3% | 5.2% | 2.5% | 24.7% | 9.5% | 8.4% | 1.9% | |
| | 대학원생 | N | 72 | 29 | 25 | 8 | 6 | 60 | 35 | 40 | 7 | |
| | | % | 25.5% | 10.3% | 8.9% | 2.8% | 2.1% | 21.3% | 12.4% | 14.2% | 2.5% | |
| 거주지역 | 북경 | N | 67 | 19 | 10 | 9 | 2 | 49 | 9 | 15 | 2 | 102.845 (.000) |
| | | % | 36.8% | 10.4% | 5.5% | 4.9% | 1.1% | 26.9% | 4.9% | 8.2% | 1.1% | |
| | 상해 | N | 50 | 17 | 9 | 3 | 2 | 54 | 18 | 32 | 4 | |
| | | % | 26.5% | 9.0% | 4.8% | 1.6% | 1.1% | 28.6% | 9.5% | 16.9% | 2.1% | |
| | 광주 | N | 41 | 32 | 14 | 8 | 4 | 52 | 32 | 15 | 3 | |
| | | % | 20.4% | 15.9% | 7.0% | 4.0% | 2.0% | 25.9% | 15.9% | 7.5% | 1.5% | |
| | 천진 | N | 69 | 18 | 23 | 8 | 5 | 43 | 22 | 16 | 8 | |
| | | % | 32.5% | 8.5% | 10.8% | 3.8% | 2.4% | 20.3% | 10.4% | 7.5% | 3.8% | |
| | 하얼빈 | N | 37 | 15 | 33 | 16 | 10 | 32 | 19 | 20 | 3 | |
| | | % | 20.0% | 8.1% | 17.8% | 8.6% | 5.4% | 17.3% | 10.3% | 10.8% | 1.6% | |
| 전체 | | N | 264 | 101 | 89 | 44 | 23 | 230 | 100 | 98 | 20 | 969 |
| | | % | 27.2% | 10.4% | 9.2% | 4.5% | 2.4% | 23.7% | 10.3% | 10.1% | 2.1% | 100.0% |

**부표 90**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2(현대문학작가)

| | | | 루쉰 | 샤오홍 | 한한 | 량스추 | 주쯔칭 | 첸종수 | 장핑저우 | 마오둔 | 왕안이 | 바진 | 위추위 | 빙신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158 | 9 | 37 | 23 | 23 | 67 | 7 | 16 | 10 | 34 | 49 | 24 | 12 | 11.025 (.527) |
| | | % | 33.7% | 1.9% | 7.9% | 4.9% | 4.9% | 14.3% | 1.5% | 3.4% | 2.1% | 7.2% | 10.4% | 5.1% | 2.6% | |
| | 여자 | N | 163 | 11 | 36 | 14 | 33 | 97 | 4 | 11 | 9 | 37 | 53 | 29 | 10 | |
| | | % | 32.1% | 2.2% | 7.1% | 2.8% | 6.5% | 19.1% | .8% | 2.2% | 1.8% | 7.3% | 10.5% | 5.7% | 2.0% | |
| 신분 | 대학생 | N | 223 | 11 | 57 | 30 | 36 | 120 | 8 | 13 | 14 | 52 | 76 | 39 | 12 | 18.740 (.095) |
| | | % | 32.3% | 1.6% | 8.2% | 4.3% | 5.2% | 17.4% | 1.2% | 1.9% | 2.0% | 7.5% | 11.0% | 5.6% | 1.7% | |
| | 대학원생 | N | 98 | 9 | 16 | 7 | 20 | 44 | 3 | 14 | 5 | 19 | 26 | 14 | 10 | |
| | | % | 34.4% | 3.2% | 5.6% | 2.5% | 7.0% | 15.4% | 1.1% | 4.9% | 1.8% | 6.7% | 9.1% | 4.9% | 3.5% | |
| 거주지역 | 북경 | N | 59 | 5 | 14 | 4 | 9 | 31 | 2 | 7 | 2 | 13 | 19 | 10 | 5 | 105.449 (.000) |
| | | % | 32.8% | 2.8% | 7.8% | 2.2% | 5.0% | 17.2% | 1.1% | 3.9% | 1.1% | 7.2% | 10.6% | 5.6% | 2.8% | |
| | 상해 | N | 74 | 3 | 8 | 3 | 9 | 51 | 0 | 4 | 9 | 11 | 10 | 9 | 2 | |
| | | % | 38.3% | 1.6% | 4.1% | 1.6% | 4.7% | 26.4% | .0% | 2.1% | 4.7% | 5.7% | 5.2% | 4.7% | 1.0% | |
| | 광주 | N | 65 | 3 | 18 | 11 | 12 | 39 | 5 | 6 | 4 | 17 | 11 | 9 | 4 | |
| | | % | 31.9% | 1.5% | 8.8% | 5.4% | 5.9% | 19.1% | 2.5% | 2.9% | 2.0% | 8.3% | 5.4% | 4.4% | 2.0% | |
| | 천진 | N | 79 | 4 | 16 | 3 | 11 | 26 | 4 | 5 | 1 | 19 | 27 | 13 | 5 | |
| | | % | 37.1% | 1.9% | 7.5% | 1.4% | 5.2% | 12.2% | 1.9% | 2.3% | .5% | 8.9% | 12.7% | 6.1% | 2.3% | |
| | 하얼빈 | N | 44 | 5 | 17 | 16 | 15 | 17 | 0 | 5 | 3 | 11 | 35 | 12 | 6 | |
| | | % | 23.7% | 2.7% | 9.1% | 8.6% | 8.1% | 9.1% | .0% | 2.7% | 1.6% | 5.9% | 18.8% | 6.5% | 3.2% | |
| 전체 | | N | 321 | 20 | 73 | 37 | 56 | 164 | 11 | 27 | 19 | 71 | 102 | 53 | 22 | 976 |
| | | % | 32.9% | 2.0% | 7.5% | 3.8% | 5.7% | 16.8% | 1.1% | 2.8% | 1.9% | 7.3% | 10.5% | 5.4% | 2.3% | 100.0% |

**부표 91**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3(미술작품)

| | | | 소주자수/중국매듭 | 연 | 문방사보 | 대련(주련) | 점토인형공예/그림자극 | 중국화/상운문양 | 도자기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60 | 25 | 135 | 42 | 25 | 99 | 80 | 3 | 13.439 (.062) |
| | | % | 12.8% | 5.3% | 28.8% | 9.0% | 5.3% | 21.1% | 17.1% | .6% | |
| | 여자 | N | 91 | 34 | 142 | 35 | 41 | 78 | 87 | 3 | |
| | | % | 17.8% | 6.7% | 27.8% | 6.8% | 8.0% | 15.3% | 17.0% | .6% | |
| 신분 | 대학생 | N | 110 | 42 | 188 | 59 | 45 | 124 | 122 | 3 | 4.645 (.703) |
| | | % | 15.9% | 6.1% | 27.1% | 8.5% | 6.5% | 17.9% | 17.6% | .4% | |
| | 대학원생 | N | 41 | 17 | 89 | 18 | 21 | 53 | 45 | 3 | |
| | | % | 14.3% | 5.9% | 31.0% | 6.3% | 7.3% | 18.5% | 15.7% | 1.0% | |
| 거주지역 | 북경 | N | 31 | 15 | 40 | 28 | 8 | 33 | 26 | 1 | 69.724 (.000) |
| | | % | 17.0% | 8.2% | 22.0% | 15.4% | 4.4% | 18.1% | 14.3% | .5% | |
| | 상해 | N | 19 | 7 | 71 | 9 | 7 | 42 | 36 | 1 | |
| | | % | 9.9% | 3.6% | 37.0% | 4.7% | 3.6% | 21.9% | 18.8% | .5% | |
| | 광주 | N | 36 | 12 | 41 | 13 | 27 | 39 | 36 | 2 | |
| | | % | 17.5% | 5.8% | 19.9% | 6.3% | 13.1% | 18.9% | 17.5% | 1.0% | |
| | 천진 | N | 37 | 9 | 75 | 15 | 13 | 31 | 32 | 2 | |
| | | % | 17.3% | 4.2% | 35.0% | 7.0% | 6.1% | 14.5% | 15.0% | .9% | |
| | 하얼빈 | N | 28 | 16 | 50 | 12 | 11 | 32 | 37 | 0 | |
| | | % | 15.1% | 8.6% | 26.9% | 6.5% | 5.9% | 17.2% | 19.9% | .0% | |
| 전체 | | N | 151 | 59 | 277 | 77 | 66 | 177 | 167 | 6 | 980 |
| | | % | 15.4% | 6.0% | 28.3% | 7.9% | 6.7% | 18.1% | 17.0% | .6% | 100.0% |

**부표 92**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4(전통놀이 혹은 운동)

| | | | 굴렁쇠놀이 | 용선경기 | 팽이치기 | 줄넘기/고무줄뛰기 | 용춤/사자춤 | 제기차기 | 숨바꼭질 | 새총놀이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13 | 145 | 29 | 23 | 162 | 47 | 17 | 25 | 6 | 13.383 (.099) |
| | | % | 2.8% | 31.0% | 6.2% | 4.9% | 34.7% | 10.1% | 3.6% | 5.4% | 1.3% | |
| | 여자 | N | 10 | 148 | 36 | 42 | 204 | 42 | 10 | 16 | 7 | |
| | | % | 1.9% | 28.7% | 7.0% | 8.2% | 39.6% | 8.2% | 1.9% | 3.1% | 1.4% | |
| 신분 | 대학생 | N | 21 | 210 | 42 | 47 | 250 | 61 | 22 | 39 | 9 | 20.702 (.008) |
| | | % | 3.0% | 30.0% | 6.0% | 6.7% | 35.7% | 8.7% | 3.1% | 5.6% | 1.3% | |
| | 대학원생 | N | 2 | 83 | 23 | 18 | 116 | 28 | 5 | 2 | 4 | |
| | | % | .7% | 29.5% | 8.2% | 6.4% | 41.3% | 10.0% | 1.8% | .7% | 1.4% | |
| 거주지역 | 북경 | N | 7 | 45 | 12 | 22 | 67 | 19 | 4 | 3 | 3 | 69.136 (.000) |
| | | % | 3.8% | 24.7% | 6.6% | 12.1% | 36.8% | 10.4% | 2.2% | 1.6% | 1.6% | |
| | 상해 | N | 4 | 67 | 8 | 7 | 80 | 12 | 3 | 7 | 3 | |
| | | % | 2.1% | 35.1% | 4.2% | 3.7% | 41.9% | 6.3% | 1.6% | 3.7% | 1.6% | |
| | 광주 | N | 5 | 60 | 15 | 7 | 76 | 25 | 10 | 10 | 2 | |
| | | % | 2.4% | 28.6% | 7.1% | 3.3% | 36.2% | 11.9% | 4.8% | 4.8% | 1.0% | |
| | 천진 | N | 4 | 69 | 12 | 9 | 94 | 9 | 3 | 8 | 4 | |
| | | % | 1.9% | 32.5% | 5.7% | 4.2% | 44.3% | 4.2% | 1.4% | 3.8% | 1.9% | |
| | 하얼빈 | N | 3 | 52 | 18 | 20 | 49 | 24 | 7 | 13 | 1 | |
| | | % | 1.6% | 27.8% | 9.6% | 10.7% | 26.2% | 12.8% | 3.7% | 7.0% | .5% | |
| 전체 | | N | 23 | 293 | 65 | 65 | 366 | 89 | 27 | 41 | 13 | 982 |
| | | % | 2.3% | 29.8% | 6.6% | 6.6% | 37.3% | 9.1% | 2.7% | 4.2% | 1.3% | 100.0% |

**부표 93**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5(무형문화제)

| | | | 중국 요리 | 전통 명절 | 소주 자수 | 변검/그림자극/나희 | 당삼채/자사도예/도자기 | 쿵푸/기공/무술 | 극/전가/화고/설창 | 중의(침구/추나)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51 | 95 | 19 | 40 | 48 | 99 | 31 | 84 | 3 | 28.128 (.000) |
| | | % | 10.9% | 20.2% | 4.0% | 8.5% | 10.2% | 21.1% | 6.6% | 17.9% | .6% | |
| | 여자 | N | 42 | 110 | 43 | 55 | 69 | 62 | 34 | 95 | 0 | |
| | | % | 8.2% | 21.6% | 8.4% | 10.8% | 13.5% | 12.2% | 6.7% | 18.6% | .0% | |
| 신분 | 대학생 | N | 62 | 150 | 44 | 72 | 91 | 109 | 46 | 122 | 2 | 6.575 (.583) |
| | | % | 8.9% | 21.5% | 6.3% | 10.3% | 13.0% | 15.6% | 6.6% | 17.5% | .3% | |
| | 대학원생 | N | 31 | 55 | 18 | 23 | 26 | 52 | 19 | 57 | 1 | |
| | | % | 11.0% | 19.5% | 6.4% | 8.2% | 9.2% | 18.4% | 6.7% | 20.2% | .4% | |
| 거주지역 | 북경 | N | 16 | 32 | 13 | 23 | 19 | 29 | 25 | 22 | 1 | 60.880 (.002) |
| | | % | 8.9% | 17.8% | 7.2% | 12.8% | 10.6% | 16.1% | 13.9% | 12.2% | .6% | |
| | 상해 | N | 22 | 40 | 11 | 15 | 15 | 31 | 10 | 47 | 0 | |
| | | % | 11.5% | 20.9% | 5.8% | 7.9% | 7.9% | 16.2% | 5.2% | 24.6% | .0% | |
| | 광주 | N | 20 | 44 | 16 | 19 | 28 | 30 | 19 | 33 | 0 | |
| | | % | 9.6% | 21.1% | 7.7% | 9.1% | 13.4% | 14.4% | 9.1% | 15.8% | .0% | |
| | 천진 | N | 19 | 49 | 8 | 13 | 31 | 41 | 8 | 44 | 2 | |
| | | % | 8.8% | 22.8% | 3.7% | 6.0% | 14.4% | 19.1% | 3.7% | 20.5% | .9% | |
| | 하얼빈 | N | 16 | 40 | 14 | 25 | 24 | 30 | 3 | 33 | 0 | |
| | | % | 8.6% | 21.6% | 7.6% | 13.5% | 13.0% | 16.2% | 1.6% | 17.8% | .0% | |
| 전체 | | N | 93 | 205 | 62 | 95 | 117 | 161 | 65 | 179 | 3 | 980 |
| | | % | 9.5% | 20.9% | 6.3% | 9.7% | 11.9% | 16.4% | 6.6% | 18.3% | .3% | 100.0% |

**부표 94** 세계에 알리고 싶은 문화예술 자원6(대중문화)

| | | | 마작 | 소품 | 장기 | 희곡 | 뱃놀이춤(포한선) | 재담 | 기공 | 해파청구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70 | 47 | 132 | 89 | 3 | 86 | 33 | 8 | 5 | 25.285 (.001) |
| | | % | 14.8% | 9.9% | 27.9% | 18.8% | .6% | 18.2% | 7.0% | 1.7% | 1.1% | |
| | 여자 | N | 77 | 46 | 130 | 148 | 1 | 65 | 26 | 14 | 0 | |
| | | % | 15.2% | 9.1% | 25.6% | 29.2% | .2% | 12.8% | 5.1% | 2.8% | .0% | |
| 신분 | 대학생 | N | 105 | 63 | 195 | 164 | 4 | 110 | 36 | 16 | 5 | 9.193 (.326) |
| | | % | 15.0% | 9.0% | 27.9% | 23.5% | .6% | 15.8% | 5.2% | 2.3% | .7% | |
| | 대학원생 | N | 42 | 30 | 67 | 73 | 0 | 41 | 23 | 6 | 0 | |
| | | % | 14.9% | 10.6% | 23.8% | 25.9% | .0% | 14.5% | 8.2% | 2.1% | .0% | |
| 거주지역 | 북경 | N | 29 | 18 | 26 | 47 | 0 | 42 | 17 | 3 | 0 | 80.537 (.000) |
| | | % | 15.9% | 9.9% | 14.3% | 25.8% | .0% | 23.1% | 9.3% | 1.6% | .0% | |
| | 상해 | N | 32 | 11 | 53 | 58 | 0 | 23 | 12 | 2 | 1 | |
| | | % | 16.7% | 5.7% | 27.6% | 30.2% | .0% | 12.0% | 6.3% | 1.0% | .5% | |
| | 광주 | N | 33 | 19 | 60 | 57 | 0 | 20 | 12 | 5 | 2 | |
| | | % | 15.9% | 9.1% | 28.8% | 27.4% | .0% | 9.6% | 5.8% | 2.4% | 1.0% | |
| | 천진 | N | 23 | 27 | 62 | 48 | 0 | 41 | 6 | 5 | 2 | |
| | | % | 10.7% | 12.6% | 29.0% | 22.4% | .0% | 19.2% | 2.8% | 2.3% | .9% | |
| | 하얼빈 | N | 30 | 18 | 61 | 27 | 4 | 25 | 12 | 7 | 0 | |
| | | % | 16.3% | 9.8% | 33.2% | 14.7% | 2.2% | 13.6% | 6.5% | 3.8% | .0% | |
| 전체 | | N | 147 | 93 | 262 | 237 | 4 | 151 | 59 | 22 | 5 | 980 |
| | | % | 15.0% | 9.5% | 26.7% | 24.2% | .4% | 15.4% | 6.0% | 2.2% | .5% | 100.0% |

부표 95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1(역사유적지)

| | | | 베이징 유적 | 시안 유적 | 분묘 | 중국 초기문명 발상지 | 공자유적 | 사대고성 | 사대 석굴암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165 | 118 | 22 | 22 | 78 | 42 | 19 | 5 | 45.337 (.000) |
| | | % | 35.0% | 25.1% | 4.7% | 4.7% | 16.6% | 8.9% | 4.0% | 1.1% | |
| | 여자 | N | 200 | 96 | 38 | 51 | 33 | 64 | 27 | 2 | |
| | | % | 39.1% | 18.8% | 7.4% | 10.0% | 6.5% | 12.5% | 5.3% | .4% | |
| 신분 | 대학생 | N | 263 | 151 | 44 | 41 | 76 | 82 | 37 | 7 | 15.506 (.030) |
| | | % | 37.5% | 21.5% | 6.3% | 5.8% | 10.8% | 11.7% | 5.3% | 1.0% | |
| | 대학원생 | N | 102 | 63 | 16 | 32 | 35 | 24 | 9 | 0 | |
| | | % | 36.3% | 22.4% | 5.7% | 11.4% | 12.5% | 8.5% | 3.2% | .0% | |
| 거주지역 | 북경 | N | 74 | 34 | 10 | 14 | 30 | 11 | 7 | 0 | 44.231 (.026) |
| | | % | 41.1% | 18.9% | 5.6% | 7.8% | 16.7% | 6.1% | 3.9% | .0% | |
| | 상해 | N | 77 | 43 | 10 | 14 | 17 | 18 | 9 | 3 | |
| | | % | 40.3% | 22.5% | 5.2% | 7.3% | 8.9% | 9.4% | 4.7% | 1.6% | |
| | 광주 | N | 71 | 38 | 16 | 16 | 25 | 32 | 12 | 2 | |
| | | % | 33.5% | 17.9% | 7.5% | 7.5% | 11.8% | 15.1% | 5.7% | .9% | |
| | 천진 | N | 92 | 41 | 10 | 14 | 26 | 21 | 8 | 1 | |
| | | % | 43.2% | 19.2% | 4.7% | 6.6% | 12.2% | 9.9% | 3.8% | .5% | |
| | 하얼빈 | N | 51 | 58 | 14 | 15 | 13 | 24 | 10 | 1 | |
| | | % | 27.4% | 31.2% | 7.5% | 8.1% | 7.0% | 12.9% | 5.4% | .5% | |
| 전체 | | N | 365 | 214 | 60 | 73 | 111 | 106 | 46 | 7 | 982 |
| | | % | 37.2% | 21.8% | 6.1% | 7.4% | 11.3% | 10.8% | 4.7% | .7% | 100.0% |

부표 96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2(자연유산)

| | | | 스촨 주자이거우 | 스촨 황룽 | 후난 우링위안 | 윈난 싼장빙류 | 장시 산칭산 | 스촨팬더 서식지 | 남방 카르스트 | 중국단 하지형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175 | 26 | 28 | 45 | 25 | 84 | 46 | 34 | 14 | 6.817 (.556) |
| | | % | 36.7% | 5.5% | 5.9% | 9.4% | 5.2% | 17.6% | 9.6% | 7.1% | 2.9% | |
| | 여자 | N | 203 | 28 | 26 | 49 | 25 | 102 | 42 | 29 | 6 | |
| | | % | 39.8% | 5.5% | 5.1% | 9.6% | 4.9% | 20.0% | 8.2% | 5.7% | 1.2% | |
| 신분 | 대학생 | N | 254 | 42 | 38 | 67 | 40 | 137 | 59 | 50 | 15 | 9.461 (.305) |
| | | % | 36.2% | 6.0% | 5.4% | 9.5% | 5.7% | 19.5% | 8.4% | 7.1% | 2.1% | |
| | 대학원생 | N | 124 | 12 | 16 | 27 | 10 | 49 | 29 | 13 | 5 | |
| | | % | 43.5% | 4.2% | 5.6% | 9.5% | 3.5% | 17.2% | 10.2% | 4.6% | 1.8% | |
| 거주지역 | 북경 | N | 79 | 10 | 9 | 17 | 8 | 30 | 19 | 10 | 1 | 78.019 (.000) |
| | | % | 43.2% | 5.5% | 4.9% | 9.3% | 4.4% | 16.4% | 10.4% | 5.5% | .5% | |
| | 상해 | N | 96 | 6 | 8 | 17 | 5 | 35 | 11 | 9 | 3 | |
| | | % | 50.5% | 3.2% | 4.2% | 8.9% | 2.6% | 18.4% | 5.8% | 4.7% | 1.6% | |
| | 광주 | N | 63 | 8 | 12 | 28 | 12 | 35 | 25 | 24 | 5 | |
| | | % | 29.7% | 3.8% | 5.7% | 13.2% | 5.7% | 16.5% | 11.8% | 11.3% | 2.4% | |
| | 천진 | N | 84 | 9 | 15 | 20 | 6 | 52 | 14 | 10 | 4 | |
| | | % | 39.3% | 4.2% | 7.0% | 9.3% | 2.8% | 24.3% | 6.5% | 4.7% | 1.9% | |
| | 하얼빈 | N | 56 | 21 | 10 | 12 | 19 | 34 | 19 | 10 | 7 | |
| | | % | 29.8% | 11.2% | 5.3% | 6.4% | 10.1% | 18.1% | 10.1% | 5.3% | 3.7% | |
| 전체 | | N | 378 | 54 | 54 | 94 | 50 | 186 | 88 | 63 | 20 | 987 |
| | | % | 38.3% | 5.5% | 5.5% | 9.5% | 5.1% | 18.8% | 8.9% | 6.4% | 2.0% | 100.0% |

**부표 97** 세계에 알리고 싶은 지역자원3(도시)

| | | | 베이징 | 텐진 | 상하이 | 우한 | 광저우 | 충칭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154 | 48 | 119 | 24 | 56 | 25 | 48 | 11.577 (.072) |
| | | % | 32.5% | 10.1% | 25.1% | 5.1% | 11.8% | 5.3% | 10.1% | |
| | 여자 | N | 194 | 37 | 128 | 29 | 42 | 41 | 42 | |
| | | % | 37.8% | 7.2% | 25.0% | 5.7% | 8.2% | 8.0% | 8.2% | |
| 신분 | 대학생 | N | 235 | 57 | 174 | 40 | 79 | 49 | 66 | 8.186 (.225) |
| | | % | 33.6% | 8.1% | 24.9% | 5.7% | 11.3% | 7.0% | 9.4% | |
| | 대학원생 | N | 113 | 28 | 73 | 13 | 19 | 17 | 24 | |
| | | % | 39.4% | 9.8% | 25.4% | 4.5% | 6.6% | 5.9% | 8.4% | |
| 거주지역 | 북경 | N | 92 | 12 | 42 | 10 | 7 | 11 | 9 | 274.917 (.000) |
| | | % | 50.3% | 6.6% | 23.0% | 5.5% | 3.8% | 6.0% | 4.9% | |
| | 상해 | N | 63 | 7 | 80 | 8 | 7 | 6 | 23 | |
| | | % | 32.5% | 3.6% | 41.2% | 4.1% | 3.6% | 3.1% | 11.9% | |
| | 광주 | N | 63 | 2 | 45 | 9 | 61 | 12 | 19 | |
| | | % | 29.9% | .9% | 21.3% | 4.3% | 28.9% | 5.7% | 9.0% | |
| | 천진 | N | 87 | 50 | 34 | 11 | 2 | 8 | 22 | |
| | | % | 40.7% | 23.4% | 15.9% | 5.1% | .9% | 3.7% | 10.3% | |
| | 하얼빈 | N | 43 | 14 | 46 | 15 | 21 | 29 | 17 | |
| | | % | 23.2% | 7.6% | 24.9% | 8.1% | 11.4% | 15.7% | 9.2% | |
| 전체 | | N | 348 | 85 | 247 | 53 | 98 | 66 | 90 | 987 |
| | | % | 35.3% | 8.6% | 25.0% | 5.4% | 9.9% | 6.7% | 9.1% | 100.0% |

**부표 98**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1(역사적 발명품)

| | | | 한자 | 인쇄술 | 도자기 | 전통의상 | 화약 | 음력 | 나침반 | 주역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169 | 39 | 60 | 68 | 25 | 28 | 15 | 64 | 2 | 16.773 (.033) |
| | | % | 36.0% | 8.3% | 12.8% | 14.5% | 5.3% | 6.0% | 3.2% | 13.6% | .4% | |
| | 여자 | N | 185 | 35 | 77 | 109 | 13 | 22 | 17 | 52 | 3 | |
| | | % | 36.1% | 6.8% | 15.0% | 21.2% | 2.5% | 4.3% | 3.3% | 10.1% | .6% | |
| 신분 | 대학생 | N | 260 | 53 | 102 | 124 | 31 | 35 | 26 | 66 | 4 | 17.101 (.029) |
| | | % | 37.1% | 7.6% | 14.6% | 17.7% | 4.4% | 5.0% | 3.7% | 9.4% | .6% | |
| | 대학원생 | N | 94 | 21 | 35 | 53 | 7 | 15 | 6 | 50 | 1 | |
| | | % | 33.3% | 7.4% | 12.4% | 18.8% | 2.5% | 5.3% | 2.1% | 17.7% | .4% | |
| 거주지역 | 북경 | N | 70 | 21 | 18 | 29 | 10 | 10 | 3 | 21 | 0 | 61.385 (.001) |
| | | % | 38.5% | 11.5% | 9.9% | 15.9% | 5.5% | 5.5% | 1.6% | 11.5% | .0% | |
| | 상해 | N | 87 | 9 | 22 | 29 | 4 | 6 | 5 | 28 | 1 | |
| | | % | 45.5% | 4.7% | 11.5% | 15.2% | 2.1% | 3.1% | 2.6% | 14.7% | .5% | |
| | 광주 | N | 66 | 17 | 33 | 40 | 6 | 17 | 10 | 20 | 3 | |
| | | % | 31.1% | 8.0% | 15.6% | 18.9% | 2.8% | 8.0% | 4.7% | 9.4% | 1.4% | |
| | 천진 | N | 86 | 18 | 35 | 34 | 6 | 8 | 5 | 20 | 1 | |
| | | % | 40.4% | 8.5% | 16.4% | 16.0% | 2.8% | 3.8% | 2.3% | 9.4% | .5% | |
| | 하얼빈 | N | 45 | 9 | 29 | 45 | 12 | 9 | 9 | 27 | 0 | |
| | | % | 24.3% | 4.9% | 15.7% | 24.3% | 6.5% | 4.9% | 4.9% | 14.6% | .0% | |
| 전체 | | N | 354 | 74 | 137 | 177 | 38 | 50 | 32 | 116 | 5 | 983 |
| | | % | 36.0% | 7.5% | 13.9% | 18.0% | 3.9% | 5.1% | 3.3% | 11.8% | .5% | 100.0% |

부표99. 계 알리고 싶은 역사적 발명품과 사건2(역사적 사건)

| | | | 5·4 운동 | 대우 치수 | 무왕 극상 | 춘추 전국 | 오호 난화 | 청일 전쟁 | 베이징 올림픽 | 일본중 국침략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113 | 32 | 13 | 95 | 11 | 25 | 105 | 67 | 14 | 18.600 (.017) |
| | | % | 23.8% | 6.7% | 2.7% | 20.0% | 2.3% | 5.3% | 22.1% | 14.1% | 2.9% | |
| | 여자 | N | 101 | 47 | 12 | 100 | 2 | 32 | 137 | 78 | 5 | |
| | | % | 19.6% | 9.1% | 2.3% | 19.5% | .4% | 6.2% | 26.7% | 15.2% | 1.0% | |
| 신분 | 대학생 | N | 156 | 55 | 23 | 137 | 11 | 38 | 178 | 93 | 13 | 11.716 (.164) |
| | | % | 22.2% | 7.8% | 3.3% | 19.5% | 1.6% | 5.4% | 25.3% | 13.2% | 1.8% | |
| | 대학 원생 | N | 58 | 24 | 2 | 58 | 2 | 19 | 64 | 52 | 6 | |
| | | % | 20.4% | 8.4% | .7% | 20.4% | .7% | 6.7% | 22.5% | 18.2% | 2.1% | |
| 거주 지역 | 북경 | N | 59 | 14 | 4 | 29 | 0 | 12 | 46 | 16 | 3 | 86.156 (.000) |
| | | % | 32.2% | 7.7% | 2.2% | 15.8% | .0% | 6.6% | 25.1% | 8.7% | 1.6% | |
| | 상해 | N | 41 | 12 | 3 | 60 | 3 | 7 | 42 | 22 | 5 | |
| | | % | 21.0% | 6.2% | 1.5% | 30.8% | 1.5% | 3.6% | 21.5% | 11.3% | 2.6% | |
| | 광주 | N | 48 | 10 | 3 | 39 | 3 | 12 | 52 | 42 | 5 | |
| | | % | 22.4% | 4.7% | 1.4% | 18.2% | 1.4% | 5.6% | 24.3% | 19.6% | 2.3% | |
| | 천진 | N | 41 | 22 | 2 | 34 | 1 | 12 | 55 | 42 | 4 | |
| | | % | 19.2% | 10.3% | .9% | 16.0% | .5% | 5.6% | 25.8% | 19.7% | 1.9% | |
| | 하얼빈 | N | 25 | 21 | 13 | 33 | 6 | 14 | 47 | 23 | 2 | |
| | | % | 13.6% | 11.4% | 7.1% | 17.9% | 3.3% | 7.6% | 25.5% | 12.5% | 1.1% | |
| 전체 | | N | 214 | 79 | 25 | 195 | 13 | 57 | 242 | 145 | 19 | 989 |
| | | % | 21.6% | 8.0% | 2.5% | 19.7% | 1.3% | 5.8% | 24.5% | 14.7% | 1.9% | 100.0% |

부표 100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1(고대위인)

| | | | 진시황 | 한무제 | 당태종 | 건륭 황제 | 삼황 오제 | 숭정 황제 | 측천 무후 | 사마천 | 왕양명 | 제갈 공명 | 조조 | 징기 스칸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75 | 61 | 64 | 15 | 29 | 4 | 28 | 34 | 31 | 49 | 20 | 47 | 16 | 33.214 (.001) |
| | | % | 15.9% | 12.9% | 13.5% | 3.2% | 6.1% | .8% | 5.9% | 7.2% | 6.6% | 10.4% | 4.2% | 9.9% | 3.4% | |
| | 여자 | N | 58 | 62 | 66 | 24 | 27 | 6 | 63 | 42 | 24 | 81 | 16 | 39 | 5 | |
| | | % | 11.3% | 12.1% | 12.9% | 4.7% | 5.3% | 1.2% | 12.3% | 8.2% | 4.7% | 15.8% | 3.1% | 7.6% | 1.0% | |
| 신분 | 대학생 | N | 92 | 77 | 91 | 29 | 40 | 8 | 71 | 56 | 45 | 91 | 23 | 58 | 16 | 12.303 (.422) |
| | | % | 13.2% | 11.0% | 13.1% | 4.2% | 5.7% | 1.1% | 10.2% | 8.0% | 6.5% | 13.1% | 3.3% | 8.3% | 2.3% | |
| | 대학 원생 | N | 41 | 46 | 39 | 10 | 16 | 2 | 20 | 20 | 10 | 39 | 13 | 28 | 5 | |
| | | % | 14.2% | 15.9% | 13.5% | 3.5% | 5.5% | .7% | 6.9% | 6.9% | 3.5% | 13.5% | 4.5% | 9.7% | 1.7% | |
| 거주 지역 | 북경 | N | 27 | 24 | 19 | 6 | 5 | 5 | 18 | 21 | 10 | 31 | 11 | 4 | 4 | 120.266 (.000) |
| | | % | 14.6% | 13.0% | 10.3% | 3.2% | 2.7% | 2.7% | 9.7% | 11.4% | 5.4% | 16.8% | 5.9% | 2.2% | 2.2% | |
| | 상해 | N | 27 | 28 | 19 | 0 | 12 | 1 | 15 | 16 | 20 | 20 | 3 | 24 | 8 | |
| | | % | 14.0% | 14.5% | 9.8% | .0% | 6.2% | .5% | 7.8% | 8.3% | 10.4% | 10.4% | 1.6% | 12.4% | 4.1% | |
| | 광주 | N | 39 | 21 | 25 | 9 | 9 | 2 | 20 | 15 | 16 | 27 | 6 | 18 | 4 | |
| | | % | 18.5% | 10.0% | 11.8% | 4.3% | 4.3% | .9% | 9.5% | 7.1% | 7.6% | 12.8% | 2.8% | 8.5% | 1.9% | |
| | 천진 | N | 30 | 28 | 42 | 8 | 12 | 1 | 16 | 8 | 4 | 26 | 6 | 27 | 4 | |
| | | % | 14.2% | 13.2% | 19.8% | 3.8% | 5.7% | .5% | 7.5% | 3.8% | 1.9% | 12.3% | 2.8% | 12.7% | 1.9% | |
| | 하얼빈 | N | 10 | 22 | 25 | 16 | 18 | 1 | 22 | 16 | 5 | 26 | 10 | 13 | 1 | |
| | | % | 5.4% | 11.9% | 13.5% | 8.6% | 9.7% | .5% | 11.9% | 8.6% | 2.7% | 14.1% | 5.4% | 7.0% | .5% | |
| 전체 | | N | 133 | 123 | 130 | 39 | 56 | 10 | 91 | 76 | 55 | 130 | 36 | 86 | 21 | 986 |
| | | % | 13.5% | 12.5% | 13.2% | 4.0% | 5.7% | 1.0% | 9.2% | 7.7% | 5.6% | 13.2% | 3.7% | 8.7% | 2.1% | 100.0% |

부표 101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2(현대위인)

| | | | 손문 | 임칙서 | 좌종당 | 증국번 | 마오 쩌둥 | 덩샤 오핑 | 저우언 라이 | 쟝제스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104 | 22 | 16 | 27 | 98 | 62 | 113 | 29 | 5 | 19.025 (.015) |
| | | % | 21.8% | 4.6% | 3.4% | 5.7% | 20.6% | 13.0% | 23.7% | 6.1% | 1.1% | |
| | 여자 | N | 91 | 34 | 12 | 29 | 97 | 65 | 167 | 15 | 2 | |
| | | % | 17.8% | 6.6% | 2.3% | 5.7% | 18.9% | 12.7% | 32.6% | 2.9% | .4% | |
| 신분 | 대학생 | N | 134 | 41 | 28 | 33 | 137 | 90 | 201 | 32 | 6 | 16.981 (.030) |
| | | % | 19.1% | 5.8% | 4.0% | 4.7% | 19.5% | 12.8% | 28.6% | 4.6% | .9% | |
| | 대학 원생 | N | 61 | 15 | 0 | 23 | 58 | 37 | 79 | 12 | 1 | |
| | | % | 21.3% | 5.2% | .0% | 8.0% | 20.3% | 12.9% | 27.6% | 4.2% | .3% | |
| 거주 지역 | 북경 | N | 25 | 16 | 3 | 19 | 48 | 26 | 36 | 11 | 1 | 149.084 (.000) |
| | | % | 13.5% | 8.6% | 1.6% | 10.3% | 25.9% | 14.1% | 19.5% | 5.9% | .5% | |
| | 상해 | N | 45 | 11 | 0 | 10 | 41 | 23 | 56 | 5 | 2 | |
| | | % | 23.3% | 5.7% | .0% | 5.2% | 21.2% | 11.9% | 29.0% | 2.6% | 1.0% | |
| | 광주 | N | 68 | 9 | 5 | 11 | 27 | 36 | 45 | 8 | 1 | |
| | | % | 32.4% | 4.3% | 2.4% | 5.2% | 12.9% | 17.1% | 21.4% | 3.8% | .5% | |
| | 천진 | N | 28 | 12 | 1 | 8 | 52 | 28 | 79 | 2 | 3 | |
| | | % | 13.1% | 5.6% | .5% | 3.8% | 24.4% | 13.1% | 37.1% | .9% | 1.4% | |
| | 하얼빈 | N | 29 | 8 | 19 | 8 | 27 | 14 | 64 | 18 | 0 | |
| | | % | 15.5% | 4.3% | 10.2% | 4.3% | 14.4% | 7.5% | 34.2% | 9.6% | .0% | |
| 전체 | | N | 195 | 56 | 28 | 56 | 195 | 127 | 280 | 44 | 7 | 988 |
| | | % | 19.7% | 5.7% | 2.8% | 5.7% | 19.7% | 12.9% | 28.3% | 4.5% | .7% | 100.0% |

부표 102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인물자원3(스포츠 스타)

| | | | 덩야핑 | 예스원 | 야오밍 | 녜워이핑 | 랑핑 | 궈징징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74 | 47 | 253 | 18 | 37 | 24 | 24 | 42.394 (.000) |
| | | % | 15.5% | 9.9% | 53.0% | 3.8% | 7.8% | 5.0% | 5.0% | |
| | 여자 | N | 122 | 93 | 177 | 25 | 38 | 36 | 26 | |
| | | % | 23.6% | 18.0% | 34.2% | 4.8% | 7.4% | 7.0% | 5.0% | |
| 신분 | 대학생 | N | 129 | 100 | 302 | 35 | 51 | 48 | 40 | 9.588 (.143) |
| | | % | 18.3% | 14.2% | 42.8% | 5.0% | 7.2% | 6.8% | 5.7% | |
| | 대학 원생 | N | 67 | 40 | 128 | 8 | 24 | 12 | 10 | |
| | | % | 23.2% | 13.8% | 44.3% | 2.8% | 8.3% | 4.2% | 3.5% | |
| 거주 지역 | 북경 | N | 33 | 22 | 85 | 12 | 17 | 14 | 4 | 65.122 (.000) |
| | | % | 17.6% | 11.8% | 45.5% | 6.4% | 9.1% | 7.5% | 2.1% | |
| | 상해 | N | 29 | 25 | 103 | 7 | 9 | 7 | 13 | |
| | | % | 15.0% | 13.0% | 53.4% | 3.6% | 4.7% | 3.6% | 6.7% | |
| | 광주 | N | 42 | 33 | 81 | 4 | 18 | 16 | 19 | |
| | | % | 19.7% | 15.5% | 38.0% | 1.9% | 8.5% | 7.5% | 8.9% | |
| | 천진 | N | 61 | 26 | 89 | 3 | 12 | 13 | 10 | |
| | | % | 28.5% | 12.1% | 41.6% | 1.4% | 5.6% | 6.1% | 4.7% | |
| | 하얼빈 | N | 31 | 34 | 72 | 17 | 19 | 10 | 4 | |
| | | % | 16.6% | 18.2% | 38.5% | 9.1% | 10.2% | 5.3% | 2.1% | |
| 전체 | | N | 196 | 140 | 430 | 43 | 75 | 60 | 50 | 994 |
| | | % | 19.7% | 14.1% | 43.3% | 4.3% | 7.5% | 6.0% | 5.0% | 100.0% |

부표 103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1(음식)

| | | | 타초어두 | 월병 | 분증육 | 교자 | 광동해물요리 | 오리구이 | 양고기샤브샤브/마라탕 | 불도장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23 | 115 | 19 | 149 | 20 | 51 | 61 | 30 | 11 | 7.431 (.491) |
| | | % | 4.8% | 24.0% | 4.0% | 31.1% | 4.2% | 10.6% | 12.7% | 6.3% | 2.3% | |
| | 여자 | N | 29 | 94 | 23 | 180 | 18 | 66 | 61 | 27 | 13 | |
| | | % | 5.7% | 18.4% | 4.5% | 35.2% | 3.5% | 12.9% | 11.9% | 5.3% | 2.5% | |
| 신분 | 대학생 | N | 30 | 154 | 33 | 224 | 33 | 81 | 89 | 37 | 19 | 14.442 (.071) |
| | | % | 4.3% | 22.0% | 4.7% | 32.0% | 4.7% | 11.6% | 12.7% | 5.3% | 2.7% | |
| | 대학원생 | N | 22 | 55 | 9 | 105 | 5 | 36 | 33 | 20 | 5 | |
| | | % | 7.6% | 19.0% | 3.1% | 36.2% | 1.7% | 12.4% | 11.4% | 6.9% | 1.7% | |
| 거주지역 | 북경 | N | 12 | 53 | 3 | 47 | 6 | 32 | 22 | 5 | 5 | 104.715 (.000) |
| | | % | 6.5% | 28.6% | 1.6% | 25.4% | 3.2% | 17.3% | 11.9% | 2.7% | 2.7% | |
| | 상해 | N | 14 | 36 | 3 | 60 | 6 | 32 | 30 | 9 | 3 | |
| | | % | 7.3% | 18.7% | 1.6% | 31.1% | 3.1% | 16.6% | 15.5% | 4.7% | 1.6% | |
| | 광주 | N | 9 | 40 | 9 | 52 | 17 | 26 | 30 | 22 | 9 | |
| | | % | 4.2% | 18.7% | 4.2% | 24.3% | 7.9% | 12.1% | 14.0% | 10.3% | 4.2% | |
| | 천진 | N | 8 | 43 | 12 | 102 | 5 | 14 | 16 | 6 | 6 | |
| | | % | 3.8% | 20.3% | 5.7% | 48.1% | 2.4% | 6.6% | 7.5% | 2.8% | 2.8% | |
| | 하얼빈 | N | 9 | 37 | 15 | 68 | 4 | 13 | 24 | 15 | 1 | |
| | | % | 4.8% | 19.9% | 8.1% | 36.6% | 2.2% | 7.0% | 12.9% | 8.1% | .5% | |
| 전체 | | N | 52 | 209 | 42 | 329 | 38 | 117 | 122 | 57 | 24 | 990 |
| | | % | 5.3% | 21.1% | 4.2% | 33.2% | 3.8% | 11.8% | 12.3% | 5.8% | 2.4% | 100.0% |

부표 104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2(제품)

| | | | 비단 | 도자기 | 션저우 우주선 | 가전제품/컴퓨터 | 피혁제품 | 농산물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157 | 176 | 61 | 37 | 14 | 27 | 4 | 25.561 (.000) |
| | | % | 33.0% | 37.0% | 12.8% | 7.8% | 2.9% | 5.7% | .8% | |
| | 여자 | N | 236 | 172 | 35 | 25 | 10 | 35 | 3 | |
| | | % | 45.7% | 33.3% | 6.8% | 4.8% | 1.9% | 6.8% | .6% | |
| 신분 | 대학생 | N | 284 | 254 | 69 | 33 | 17 | 40 | 6 | 12.482 (.052) |
| | | % | 40.4% | 36.1% | 9.8% | 4.7% | 2.4% | 5.7% | .9% | |
| | 대학원생 | N | 109 | 94 | 27 | 29 | 7 | 22 | 1 | |
| | | % | 37.7% | 32.5% | 9.3% | 10.0% | 2.4% | 7.6% | .3% | |
| 거주지역 | 북경 | N | 80 | 57 | 11 | 12 | 11 | 11 | 3 | 63.967 (.000) |
| | | % | 43.2% | 30.8% | 5.9% | 6.5% | 5.9% | 5.9% | 1.6% | |
| | 상해 | N | 90 | 73 | 13 | 6 | 2 | 7 | 0 | |
| | | % | 47.1% | 38.2% | 6.8% | 3.1% | 1.0% | 3.7% | .0% | |
| | 광주 | N | 83 | 78 | 18 | 13 | 7 | 16 | 0 | |
| | | % | 38.6% | 36.3% | 8.4% | 6.0% | 3.3% | 7.4% | .0% | |
| | 천진 | N | 83 | 79 | 20 | 16 | 1 | 11 | 4 | |
| | | % | 38.8% | 36.9% | 9.3% | 7.5% | .5% | 5.1% | 1.9% | |
| | 하얼빈 | N | 57 | 61 | 34 | 15 | 3 | 17 | 0 | |
| | | % | 30.5% | 32.6% | 18.2% | 8.0% | 1.6% | 9.1% | .0% | |
| 전체 | | N | 393 | 348 | 96 | 62 | 24 | 62 | 7 | 992 |
| | | % | 39.6% | 35.1% | 9.7% | 6.3% | 2.4% | 6.3% | .7% | 100.0% |

부표 105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3(현대건축물)

| | | | 상하이 동방명주탑 | 베이징인 민대회당 | 정저우 2·7기념탑 | 톈진 천탑 | 지난 천성광장 | 삼협댐 | 우한 장강대교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157 | 129 | 8 | 24 | 32 | 73 | 28 | 27 | 16.475 (.021) |
| | | % | 32.8% | 27.0% | 1.7% | 5.0% | 6.7% | 15.3% | 5.9% | 5.6% | |
| | 여자 | N | 191 | 137 | 21 | 21 | 16 | 69 | 40 | 21 | |
| | | % | 37.0% | 26.6% | 4.1% | 4.1% | 3.1% | 13.4% | 7.8% | 4.1% | |
| 신분 | 대학생 | N | 259 | 190 | 19 | 28 | 33 | 94 | 47 | 36 | 6.316 (.503) |
| | | % | 36.7% | 26.9% | 2.7% | 4.0% | 4.7% | 13.3% | 6.7% | 5.1% | |
| | 대학원생 | N | 89 | 76 | 10 | 17 | 15 | 48 | 21 | 12 | |
| | | % | 30.9% | 26.4% | 3.5% | 5.9% | 5.2% | 16.7% | 7.3% | 4.2% | |
| 거주지역 | 북경 | N | 66 | 67 | 4 | 7 | 8 | 13 | 12 | 8 | 127.121 (.000) |
| | | % | 35.7% | 36.2% | 2.2% | 3.8% | 4.3% | 7.0% | 6.5% | 4.3% | |
| | 상해 | N | 109 | 34 | 2 | 1 | 7 | 23 | 9 | 7 | |
| | | % | 56.8% | 17.7% | 1.0% | .5% | 3.6% | 12.0% | 4.7% | 3.6% | |
| | 광주 | N | 59 | 64 | 3 | 6 | 4 | 41 | 19 | 19 | |
| | | % | 27.4% | 29.8% | 1.4% | 2.8% | 1.9% | 19.1% | 8.8% | 8.8% | |
| | 천진 | N | 62 | 52 | 11 | 25 | 14 | 31 | 13 | 6 | |
| | | % | 29.0% | 24.3% | 5.1% | 11.7% | 6.5% | 14.5% | 6.1% | 2.8% | |
| | 하얼빈 | N | 52 | 49 | 9 | 6 | 15 | 34 | 15 | 8 | |
| | | % | 27.7% | 26.1% | 4.8% | 3.2% | 8.0% | 18.1% | 8.0% | 4.3% | |
| 전체 | | N | 348 | 266 | 29 | 45 | 48 | 142 | 68 | 48 | 994 |
| | | % | 35.0% | 26.8% | 2.9% | 4.5% | 4.8% | 14.3% | 6.8% | 4.8% | 100.0% |

부표 106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4(관광상품)

| | | | 인문역사 관광 | 자연풍물 관광 | 스포츠건강 관광 | 생태레저 관광 | 기타 | $x^2$ (p) |
|---|---|---|---|---|---|---|---|---|
| 성 | 남자 | N | 227 | 151 | 34 | 63 | 3 | 4.622 (.328) |
| | | % | 47.5% | 31.6% | 7.1% | 13.2% | .6% | |
| | 여자 | N | 243 | 176 | 29 | 70 | 0 | |
| | | % | 46.9% | 34.0% | 5.6% | 13.5% | .0% | |
| 신분 | 대학생 | N | 336 | 224 | 50 | 95 | 1 | 5.247 (.263) |
| | | % | 47.6% | 31.7% | 7.1% | 13.5% | .1% | |
| | 대학원생 | N | 134 | 103 | 13 | 38 | 2 | |
| | | % | 46.2% | 35.5% | 4.5% | 13.1% | .7% | |
| 거주지역 | 북경 | N | 106 | 54 | 7 | 18 | 1 | 87.257 (.000) |
| | | % | 57.0% | 29.0% | 3.8% | 9.7% | .5% | |
| | 상해 | N | 113 | 54 | 5 | 20 | 1 | |
| | | % | 58.5% | 28.0% | 2.6% | 10.4% | .5% | |
| | 광주 | N | 110 | 59 | 11 | 32 | 0 | |
| | | % | 51.9% | 27.8% | 5.2% | 15.1% | .0% | |
| | 천진 | N | 79 | 99 | 9 | 27 | 1 | |
| | | % | 36.7% | 46.0% | 4.2% | 12.6% | .5% | |
| | 하얼빈 | N | 62 | 61 | 31 | 36 | 0 | |
| | | % | 32.6% | 32.1% | 16.3% | 18.9% | .0% | |
| 전체 | | N | 470 | 327 | 63 | 133 | 3 | 996 |
| | | % | 47.2% | 32.8% | 6.3% | 13.4% | .3% | 100.0% |

부표 107 세계에 알리고 싶은 생활문화자원5(지역축제)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x^2$ (p) |
|---|---|---|---|---|---|---|---|---|---|---|---|---|---|---|
| 성 | 남자 | N | 17 | 81 | 20 | 13 | 86 | 122 | 51 | 22 | 21 | 22 | 12 | 21.524 (.018) |
| | | % | 3.6% | 17.3% | 4.3% | 2.8% | 18.4% | 26.1% | 10.9% | 4.7% | 4.5% | 4.7% | 2.6% | |
| | 여자 | N | 19 | 69 | 11 | 27 | 73 | 155 | 70 | 27 | 32 | 25 | 4 | |
| | | % | 3.7% | 13.5% | 2.1% | 5.3% | 14.3% | 30.3% | 13.7% | 5.3% | 6.3% | 4.9% | .8% | |
| 신분 | 대학생 | N | 24 | 94 | 24 | 32 | 128 | 189 | 79 | 38 | 35 | 36 | 14 | 21.872 (.016) |
| | | % | 3.5% | 13.6% | 3.5% | 4.6% | 18.5% | 27.3% | 11.4% | 5.5% | 5.1% | 5.2% | 2.0% | |
| | 대학원생 | N | 12 | 56 | 7 | 8 | 31 | 88 | 42 | 11 | 18 | 11 | 2 | |
| | | % | 4.2% | 19.6% | 2.4% | 2.8% | 10.8% | 30.8% | 14.7% | 3.8% | 6.3% | 3.8% | .7% | |
| 거주지역 | 북경 | N | 4 | 34 | 7 | 6 | 50 | 46 | 16 | 11 | 4 | 6 | 0 | 103.812 (.000) |
| | | % | 2.2% | 18.5% | 3.8% | 3.3% | 27.2% | 25.0% | 8.7% | 6.0% | 2.2% | 3.3% | .0% | |
| | 상해 | N | 3 | 17 | 2 | 2 | 39 | 71 | 28 | 6 | 9 | 7 | 4 | |
| | | % | 1.6% | 9.0% | 1.1% | 1.1% | 20.7% | 37.8% | 14.9% | 3.2% | 4.8% | 3.7% | 2.1% | |
| | 광주 | N | 7 | 42 | 5 | 9 | 24 | 59 | 26 | 7 | 13 | 9 | 7 | |
| | | % | 3.4% | 20.2% | 2.4% | 4.3% | 11.5% | 28.4% | 12.5% | 3.4% | 6.3% | 4.3% | 3.4% | |
| | 천진 | N | 9 | 28 | 8 | 7 | 28 | 62 | 32 | 13 | 13 | 9 | 4 | |
| | | % | 4.2% | 13.1% | 3.8% | 3.3% | 13.1% | 29.1% | 15.0% | 6.1% | 6.1% | 4.2% | 1.9% | |
| | 하얼빈 | N | 13 | 29 | 9 | 16 | 18 | 39 | 19 | 12 | 14 | 16 | 1 | |
| | | % | 7.0% | 15.6% | 4.8% | 8.6% | 9.7% | 21.0% | 10.2% | 6.5% | 7.5% | 8.6% | .5% | |
| 전체 | | N | 36 | 150 | 31 | 40 | 159 | 277 | 121 | 49 | 53 | 47 | 16 | 979 |
| | | % | 3.7% | 15.3% | 3.2% | 4.1% | 16.2% | 28.3% | 12.4% | 5.0% | 5.4% | 4.8% | 1.6% | 100.0% |

주: 1) 장쑤 위이 가재축제, 2) 칭다오 맥주축제, 3) 닝보 국제복장축제, 4) 후허하오터 왕소군문화제, 5)상하이 국제예술제, 6) 취푸 국제공자문화제, 7) 항저우 서호국제박람회, 8) 우차오 국제서커스축제, 9) 화이난 두부문화제, 10) 난닝 국제민가예술제, 11) 기타

부표 108 한·중 관계에 대한 평가

| | | | 매우 나쁘다 | 나쁘다 | 보통이다 | 좋다 | 매우 좋다 | $x^2$ (p) |
|---|---|---|---|---|---|---|---|---|
| 성 | 남자 | N | 22 | 76 | 318 | 50 | 15 | 7.234 (.124) |
| | | % | 4.6% | 15.8% | 66.1% | 10.4% | 3.1% | |
| | 여자 | N | 21 | 56 | 363 | 69 | 15 | |
| | | % | 4.0% | 10.7% | 69.3% | 13.2% | 2.9% | |
| 신분 | 대학생 | N | 27 | 101 | 467 | 89 | 28 | 13.345 (.010) |
| | | % | 3.8% | 14.2% | 65.6% | 12.5% | 3.9% | |
| | 대학원생 | N | 16 | 31 | 214 | 30 | 2 | |
| | | % | 5.5% | 10.6% | 73.0% | 10.2% | .7% | |
| 거주지역 | 북경 | N | 2 | 16 | 101 | 40 | 27 | 165.531 (.000) |
| | | % | 1.1% | 8.6% | 54.3% | 21.5% | 14.5% | |
| | 상해 | N | 12 | 21 | 143 | 19 | 0 | |
| | | % | 6.2% | 10.8% | 73.3% | 9.7% | .0% | |
| | 광주 | N | 4 | 33 | 151 | 28 | 2 | |
| | | % | 1.8% | 15.1% | 69.3% | 12.8% | .9% | |
| | 천진 | N | 7 | 24 | 162 | 21 | 1 | |
| | | % | 3.3% | 11.2% | 75.3% | 9.8% | .5% | |
| | 하얼빈 | N | 18 | 38 | 124 | 11 | 0 | |
| | | % | 9.4% | 19.9% | 64.9% | 5.8% | .0% | |
| 전체 | | N | 43 | 132 | 681 | 119 | 30 | 1005 |
| | | % | 4.3% | 13.1% | 67.8% | 11.8% | 3.0% | 100.0% |

부표 109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

| | | | 매우 나쁘다 | 나쁘다 | 보통이다 | 좋다 | 매우 좋다 | $x^2$ (p) |
|---|---|---|---|---|---|---|---|---|
| 성 | 남자 | N | 65 | 209 | 167 | 31 | 7 | 32.150 (.000) |
| | | % | 13.6% | 43.6% | 34.9% | 6.5% | 1.5% | |
| | 여자 | N | 45 | 165 | 253 | 55 | 4 | |
| | | % | 8.6% | 31.6% | 48.5% | 10.5% | .8% | |
| 신분 | 대학생 | N | 74 | 256 | 307 | 61 | 10 | 4.875 (.300) |
| | | % | 10.5% | 36.2% | 43.4% | 8.6% | 1.4% | |
| | 대학원생 | N | 36 | 118 | 113 | 25 | 1 | |
| | | % | 12.3% | 40.3% | 38.6% | 8.5% | .3% | |
| 거주지역 | 북경 | N | 25 | 92 | 52 | 15 | 2 | 35.077 (.004) |
| | | % | 13.4% | 49.5% | 28.0% | 8.1% | 1.1% | |
| | 상해 | N | 18 | 80 | 79 | 14 | 2 | |
| | | % | 9.3% | 41.5% | 40.9% | 7.3% | 1.0% | |
| | 광주 | N | 19 | 75 | 96 | 24 | 3 | |
| | | % | 8.8% | 34.6% | 44.2% | 11.1% | 1.4% | |
| | 천진 | N | 21 | 69 | 101 | 22 | 1 | |
| | | % | 9.8% | 32.2% | 47.2% | 10.3% | .5% | |
| | 하얼빈 | N | 27 | 58 | 92 | 11 | 3 | |
| | | % | 14.1% | 30.4% | 48.2% | 5.8% | 1.6% | |
| 전체 | | N | 110 | 374 | 420 | 86 | 11 | 1001 |
| | | % | 11.0% | 37.4% | 42.0% | 8.6% | 1.1% | 100.0% |

**부표 110** 중·일 관계에 대한 평가

| | | | 매우 나쁘다 | 나쁘다 | 보통이다 | 좋다 | 매우 좋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48 | 203 | 124 | 3 | 1 | 10.533 (.032) |
| | | % | 30.9% | 42.4% | 25.9% | .6% | .2% | |
| | 여자 | N | 125 | 222 | 164 | 10 | 2 | |
| | | % | 23.9% | 42.4% | 31.4% | 1.9% | .4% | |
| 신분 | 대학생 | N | 195 | 296 | 203 | 13 | 2 | 5.720 (.221) |
| | | % | 27.5% | 41.7% | 28.6% | 1.8% | .3% | |
| | 대학원생 | N | 78 | 129 | 85 | 0 | 1 | |
| | | % | 26.6% | 44.0% | 29.0% | .0% | .3% | |
| 거주지역 | 북경 | N | 60 | 92 | 34 | 0 | 0 | 32.199 (.009) |
| | | % | 32.3% | 49.5% | 18.3% | .0% | .0% | |
| | 상해 | N | 63 | 81 | 48 | 2 | 0 | |
| | | % | 32.5% | 41.8% | 24.7% | 1.0% | .0% | |
| | 광주 | N | 50 | 88 | 74 | 3 | 2 | |
| | | % | 23.0% | 40.6% | 34.1% | 1.4% | .9% | |
| | 천진 | N | 52 | 92 | 66 | 3 | 1 | |
| | | % | 24.3% | 43.0% | 30.8% | 1.4% | .5% | |
| | 하얼빈 | N | 48 | 72 | 66 | 5 | 0 | |
| | | % | 25.1% | 37.7% | 34.6% | 2.6% | .0% | |
| 전체 | | N | 273 | 425 | 288 | 13 | 3 | 1002 |
| | | % | 27.2% | 42.4% | 28.7% | 1.3% | .3% | 100.0% |

**부표 111** 한·중 관계에 대한 전망

| | | | 매우 나빠질 것이다 | 나빠질 것이다 | 현재와 같을 것이다 | 좋아질 것이다 | 매우 좋아질 것이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3 | 59 | 237 | 144 | 27 | 10.127 (.038) |
| | | % | 2.7% | 12.3% | 49.4% | 30.0% | 5.6% | |
| | 여자 | N | 13 | 35 | 286 | 164 | 26 | |
| | | % | 2.5% | 6.7% | 54.6% | 31.3% | 5.0% | |
| 신분 | 대학생 | N | 15 | 72 | 358 | 219 | 48 | 15.143 (.004) |
| | | % | 2.1% | 10.1% | 50.3% | 30.8% | 6.7% | |
| | 대학원생 | N | 11 | 22 | 165 | 89 | 5 | |
| | | % | 3.8% | 7.5% | 56.5% | 30.5% | 1.7% | |
| 거주지역 | 북경 | N | 5 | 5 | 76 | 70 | 30 | 95.536 (.000) |
| | | % | 2.7% | 2.7% | 40.9% | 37.6% | 16.1% | |
| | 상해 | N | 5 | 20 | 108 | 56 | 6 | |
| | | % | 2.6% | 10.3% | 55.4% | 28.7% | 3.1% | |
| | 광주 | N | 2 | 18 | 119 | 69 | 10 | |
| | | % | .9% | 8.3% | 54.6% | 31.7% | 4.6% | |
| | 천진 | N | 5 | 19 | 113 | 73 | 5 | |
| | | % | 2.3% | 8.8% | 52.6% | 34.0% | 2.3% | |
| | 하얼빈 | N | 9 | 32 | 107 | 40 | 2 | |
| | | % | 4.7% | 16.8% | 56.3% | 21.1% | 1.1% | |
| 전체 | | N | 26 | 94 | 523 | 308 | 53 | 1004 |
| | | % | 2.6% | 9.4% | 52.1% | 30.7% | 5.3% | 100.0% |

부표 112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

| | | | 매우 나빠질 것이다 | 나빠질 것이다 | 현재와 같을 것이다 | 좋아질 것이다 | 매우 좋아질 것이다 | $x^2$ (p) |
|---|---|---|---|---|---|---|---|---|
| 성 | 남자 | N | 51 | 168 | 180 | 73 | 7 | 21.164 (.000) |
| | | % | 10.6% | 35.1% | 37.6% | 15.2% | 1.5% | |
| | 여자 | N | 34 | 136 | 261 | 85 | 5 | |
| | | % | 6.5% | 26.1% | 50.1% | 16.3% | 1.0% | |
| 신분 | 대학생 | N | 60 | 228 | 295 | 113 | 12 | 10.840 (.028) |
| | | % | 8.5% | 32.2% | 41.7% | 16.0% | 1.7% | |
| | 대학원생 | N | 25 | 76 | 146 | 45 | 0 | |
| | | % | 8.6% | 26.0% | 50.0% | 15.4% | .0% | |
| 거주지역 | 북경 | N | 26 | 66 | 69 | 25 | 0 | 39.882 (.001) |
| | | % | 14.0% | 35.5% | 37.1% | 13.4% | .0% | |
| | 상해 | N | 16 | 48 | 93 | 34 | 2 | |
| | | % | 8.3% | 24.9% | 48.2% | 17.6% | 1.0% | |
| | 광주 | N | 11 | 58 | 104 | 39 | 5 | |
| | | % | 5.1% | 26.7% | 47.9% | 18.0% | 2.3% | |
| | 천진 | N | 18 | 68 | 80 | 45 | 3 | |
| | | % | 8.4% | 31.8% | 37.4% | 21.0% | 1.4% | |
| | 하얼빈 | N | 14 | 64 | 95 | 15 | 2 | |
| | | % | 7.4% | 33.7% | 50.0% | 7.9% | 1.1% | |
| 전체 | | N | 85 | 304 | 441 | 158 | 12 | 1000 |
| | | % | 8.5% | 30.4% | 44.1% | 15.8% | 1.2% | 100.0% |

부표 113 중·일 관계에 대한 전망

| | | | 매우 나빠질 것이다 | 나빠질 것이다 | 현재와 같을 것이다 | 좋아질 것이다 | 매우 좋아질 것이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05 | 185 | 124 | 62 | 3 | 21.258 (.000) |
| | | % | 21.9% | 38.6% | 25.9% | 12.9% | .6% | |
| | 여자 | N | 70 | 178 | 173 | 97 | 4 | |
| | | % | 13.4% | 34.1% | 33.1% | 18.6% | .8% | |
| 신분 | 대학생 | N | 127 | 264 | 196 | 115 | 7 | 7.307 (.121) |
| | | % | 17.9% | 37.2% | 27.6% | 16.2% | 1.0% | |
| | 대학원생 | N | 48 | 99 | 101 | 44 | 0 | |
| | | % | 16.4% | 33.9% | 34.6% | 15.1% | .0% | |
| 거주지역 | 북경 | N | 47 | 70 | 44 | 25 | 0 | 29.568 (.020) |
| | | % | 25.3% | 37.6% | 23.7% | 13.4% | .0% | |
| | 상해 | N | 31 | 68 | 59 | 34 | 2 | |
| | | % | 16.0% | 35.1% | 30.4% | 17.5% | 1.0% | |
| | 광주 | N | 33 | 73 | 64 | 43 | 4 | |
| | | % | 15.2% | 33.6% | 29.5% | 19.8% | 1.8% | |
| | 천진 | N | 35 | 75 | 64 | 39 | 1 | |
| | | % | 16.4% | 35.0% | 29.9% | 18.2% | .5% | |
| | 하얼빈 | N | 29 | 77 | 66 | 18 | 0 | |
| | | % | 15.3% | 40.5% | 34.7% | 9.5% | .0% | |
| 전체 | | N | 175 | 363 | 297 | 159 | 7 | 1001 |
| | | % | 17.5% | 36.3% | 29.7% | 15.9% | .7% | 100.0% |

부표 114 분쟁에 대한 인식 1(독도문제)

| | | | 전혀 모르고 있다 | 모르고 있다 | 보통이다 |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22 | 56 | 87 | 246 | 71 | 53.308 (.000) |
| | | % | 4.6% | 11.6% | 18.0% | 51.0% | 14.7% | |
| | 여자 | N | 40 | 115 | 107 | 240 | 21 | |
| | | % | 7.6% | 22.0% | 20.5% | 45.9% | 4.0% | |
| 신분 | 대학생 | N | 49 | 129 | 135 | 336 | 64 | 4.672 (.323) |
| | | % | 6.9% | 18.1% | 18.9% | 47.1% | 9.0% | |
| | 대학원생 | N | 13 | 42 | 59 | 150 | 28 | |
| | | % | 4.5% | 14.4% | 20.2% | 51.4% | 9.6% | |
| 거주지역 | 북경 | N | 8 | 22 | 26 | 106 | 24 | 49.014 (.000) |
| | | % | 4.3% | 11.8% | 14.0% | 57.0% | 12.9% | |
| | 상해 | N | 12 | 33 | 24 | 103 | 23 | |
| | | % | 6.2% | 16.9% | 12.3% | 52.8% | 11.8% | |
| | 광주 | N | 12 | 28 | 46 | 116 | 16 | |
| | | % | 5.5% | 12.8% | 21.1% | 53.2% | 7.3% | |
| | 천진 | N | 14 | 43 | 46 | 96 | 16 | |
| | | % | 6.5% | 20.0% | 21.4% | 44.7% | 7.4% | |
| | 하얼빈 | N | 16 | 45 | 52 | 65 | 13 | |
| | | % | 8.4% | 23.6% | 27.2% | 34.0% | 6.8% | |
| 전체 | | N | 62 | 171 | 194 | 486 | 92 | 1005 |
| | | % | 6.2% | 17.0% | 19.3% | 48.4% | 9.2% | 100.0% |

부표 115 분쟁에 대한 인식 2(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

| | | | 전혀 모르고 있다 | 모르고 있다 | 보통이다 |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2 | 5 | 34 | 224 | 217 | 45.192 (.000) |
| | | % | .4% | 1.0% | 7.1% | 46.5% | 45.0% | |
| | 여자 | N | 2 | 7 | 43 | 341 | 131 | |
| | | % | .4% | 1.3% | 8.2% | 65.1% | 25.0% | |
| 신분 | 대학생 | N | 2 | 9 | 57 | 399 | 247 | 1.331 (.856) |
| | | % | .3% | 1.3% | 8.0% | 55.9% | 34.6% | |
| | 대학원생 | N | 2 | 3 | 20 | 166 | 101 | |
| | | % | .7% | 1.0% | 6.8% | 56.8% | 34.6% | |
| 거주지역 | 북경 | N | 0 | 0 | 9 | 87 | 90 | 69.542 (.000) |
| | | % | .0% | .0% | 4.8% | 46.8% | 48.4% | |
| | 상해 | N | 1 | 2 | 7 | 113 | 72 | |
| | | % | .5% | 1.0% | 3.6% | 57.9% | 36.9% | |
| | 광주 | N | 0 | 2 | 12 | 129 | 75 | |
| | | % | .0% | .9% | 5.5% | 59.2% | 34.4% | |
| | 천진 | N | 1 | 1 | 16 | 134 | 63 | |
| | | % | .5% | .5% | 7.4% | 62.3% | 29.3% | |
| | 하얼빈 | N | 2 | 7 | 33 | 102 | 48 | |
| | | % | 1.0% | 3.6% | 17.2% | 53.1% | 25.0% | |
| 전체 | | N | 4 | 12 | 77 | 565 | 348 | 1006 |
| | | % | .4% | 1.2% | 7.7% | 56.2% | 34.6% | 100.0% |

부표 116 분쟁에 대한 인식 3(야스쿠니 신사참배)

| | | | 전혀 모르고 있다 | 모르고 있다 | 보통이다 |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 | 9 | 49 | 245 | 178 | 43.088 (.000) |
| | | % | .2% | 1.9% | 10.2% | 50.8% | 36.9% | |
| | 여자 | N | 4 | 17 | 47 | 354 | 102 | |
| | | % | .8% | 3.2% | 9.0% | 67.6% | 19.5% | |
| 신분 | 대학생 | N | 3 | 21 | 79 | 423 | 188 | 9.504 (.050) |
| | | % | .4% | 2.9% | 11.1% | 59.2% | 26.3% | |
| | 대학원생 | N | 2 | 5 | 17 | 176 | 92 | |
| | | % | .7% | 1.7% | 5.8% | 60.3% | 31.5% | |
| 거주지역 | 북경 | N | 0 | 9 | 31 | 98 | 48 | 50.922 (.000) |
| | | % | .0% | 4.8% | 16.7% | 52.7% | 25.8% | |
| | 상해 | N | 2 | 1 | 6 | 124 | 62 | |
| | | % | 1.0% | .5% | 3.1% | 63.6% | 31.8% | |
| | 광주 | N | 0 | 2 | 11 | 141 | 64 | |
| | | % | .0% | .9% | 5.0% | 64.7% | 29.4% | |
| | 천진 | N | 2 | 8 | 18 | 130 | 57 | |
| | | % | .9% | 3.7% | 8.4% | 60.5% | 26.5% | |
| | 하얼빈 | N | 1 | 6 | 30 | 106 | 49 | |
| | | % | .5% | 3.1% | 15.6% | 55.2% | 25.5% | |
| 전체 | | N | 5 | 26 | 96 | 599 | 280 | 1006 |
| | | % | .5% | 2.6% | 9.5% | 59.5% | 27.8% | 100.0% |

부표 117 분쟁에 대한 인식 4(일본역사교과서)

| | | | 전혀 모르고 있다 | 모르고 있다 | 보통이다 |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2 | 12 | 45 | 256 | 166 | 26.155 (.000) |
| | | % | .4% | 2.5% | 9.4% | 53.2% | 34.5% | |
| | 여자 | N | 4 | 17 | 55 | 341 | 106 | |
| | | % | .8% | 3.3% | 10.5% | 65.2% | 20.3% | |
| 신분 | 대학생 | N | 5 | 21 | 79 | 422 | 185 | 4.774 (.312) |
| | | % | .7% | 2.9% | 11.1% | 59.3% | 26.0% | |
| | 대학원생 | N | 1 | 8 | 21 | 175 | 87 | |
| | | % | .3% | 2.7% | 7.2% | 59.9% | 29.8% | |
| 거주지역 | 북경 | N | 0 | 13 | 33 | 89 | 51 | 77.159 (.000) |
| | | % | .0% | 7.0% | 17.7% | 47.8% | 27.4% | |
| | 상해 | N | 1 | 1 | 7 | 124 | 62 | |
| | | % | .5% | .5% | 3.6% | 63.6% | 31.8% | |
| | 광주 | N | 0 | 3 | 10 | 144 | 60 | |
| | | % | .0% | 1.4% | 4.6% | 66.4% | 27.6% | |
| | 천진 | N | 4 | 1 | 20 | 137 | 53 | |
| | | % | 1.9% | .5% | 9.3% | 63.7% | 24.7% | |
| | 하얼빈 | N | 1 | 11 | 30 | 103 | 46 | |
| | | % | .5% | 5.8% | 15.7% | 53.9% | 24.1% | |
| 전체 | | N | 6 | 29 | 100 | 597 | 272 | 1004 |
| | | % | .6% | 2.9% | 10.0% | 59.5% | 27.1% | 100.0% |

부표 118 분쟁에 대한 인식 5(일본군 '위안부')

| | | | 전혀 모르고 있다 | 모르고 있다 | 보통이다 |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7 | 36 | 62 | 235 | 140 | 26.901 (.000) |
| | | % | 1.5% | 7.5% | 12.9% | 49.0% | 29.2% | |
| | 여자 | N | 5 | 55 | 67 | 312 | 85 | |
| | | % | 1.0% | 10.5% | 12.8% | 59.5% | 16.2% | |
| 신분 | 대학생 | N | 10 | 78 | 99 | 382 | 143 | 18.903 (.001) |
| | | % | 1.4% | 11.0% | 13.9% | 53.7% | 20.1% | |
| | 대학원생 | N | 2 | 13 | 30 | 165 | 82 | |
| | | % | .7% | 4.5% | 10.3% | 56.5% | 28.1% | |
| 거주지역 | 북경 | N | 2 | 34 | 25 | 87 | 38 | 52.584 (.000) |
| | | % | 1.1% | 18.3% | 13.4% | 46.8% | 20.4% | |
| | 상해 | N | 0 | 4 | 19 | 116 | 56 | |
| | | % | .0% | 2.1% | 9.7% | 59.5% | 28.7% | |
| | 광주 | N | 4 | 11 | 25 | 123 | 54 | |
| | | % | 1.8% | 5.1% | 11.5% | 56.7% | 24.9% | |
| | 천진 | N | 3 | 24 | 27 | 124 | 36 | |
| | | % | 1.4% | 11.2% | 12.6% | 57.9% | 16.8% | |
| | 하얼빈 | N | 3 | 18 | 33 | 97 | 41 | |
| | | % | 1.6% | 9.4% | 17.2% | 50.5% | 21.4% | |
| 전체 | | N | 12 | 91 | 129 | 547 | 225 | 1004 |
| | | % | 1.2% | 9.1% | 12.8% | 54.5% | 22.4% | 100.0% |

부표 119 분쟁에 대한 인식 6(동해/일본해 표기)

| | | | 전혀 모르고 있다 | 모르고 있다 | 보통이다 |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16 | 98 | 144 | 165 | 59 | 24.377 (.000) |
| | | % | 3.3% | 20.3% | 29.9% | 34.2% | 12.2% | |
| | 여자 | N | 21 | 147 | 156 | 175 | 24 | |
| | | % | 4.0% | 28.1% | 29.8% | 33.5% | 4.6% | |
| 신분 | 대학생 | N | 29 | 184 | 215 | 231 | 54 | 6.004 (.199) |
| | | % | 4.1% | 25.8% | 30.2% | 32.4% | 7.6% | |
| | 대학원생 | N | 8 | 61 | 85 | 109 | 29 | |
| | | % | 2.7% | 20.9% | 29.1% | 37.3% | 9.9% | |
| 거주지역 | 북경 | N | 5 | 52 | 54 | 56 | 19 | 28.150 (.030) |
| | | % | 2.7% | 28.0% | 29.0% | 30.1% | 10.2% | |
| | 상해 | N | 3 | 40 | 62 | 73 | 17 | |
| | | % | 1.5% | 20.5% | 31.8% | 37.4% | 8.7% | |
| | 광주 | N | 5 | 45 | 72 | 76 | 20 | |
| | | % | 2.3% | 20.6% | 33.0% | 34.9% | 9.2% | |
| | 천진 | N | 8 | 58 | 54 | 77 | 17 | |
| | | % | 3.7% | 27.1% | 25.2% | 36.0% | 7.9% | |
| | 하얼빈 | N | 16 | 50 | 58 | 58 | 10 | |
| | | % | 8.3% | 26.0% | 30.2% | 30.2% | 5.2% | |
| 전체 | | N | 37 | 245 | 300 | 340 | 83 | 1005 |
| | | % | 3.7% | 24.4% | 29.9% | 33.8% | 8.3% | 100.0% |

부표 120 자국인으로서의(중국인) 소속감

| | | |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 공감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공감한다 | 매우 공감한다 | $x^2$ (p) |
|---|---|---|---|---|---|---|---|---|
| 성 | 남자 | N | 7 | 6 | 47 | 126 | 296 | 14.752 (.005) |
| | | % | 1.5% | 1.2% | 9.8% | 26.1% | 61.4% | |
| | 여자 | N | 10 | 6 | 23 | 119 | 367 | |
| | | % | 1.9% | 1.1% | 4.4% | 22.7% | 69.9% | |
| 신분 | 대학생 | N | 15 | 10 | 50 | 167 | 473 | 4.341 (.362) |
| | | % | 2.1% | 1.4% | 7.0% | 23.4% | 66.2% | |
| | 대학원생 | N | 2 | 2 | 20 | 78 | 190 | |
| | | % | .7% | .7% | 6.8% | 26.7% | 65.1% | |
| 거주지역 | 북경 | N | 1 | 1 | 13 | 48 | 123 | 60.895 (.000) |
| | | % | .5% | .5% | 7.0% | 25.8% | 66.1% | |
| | 상해 | N | 4 | 1 | 10 | 41 | 140 | |
| | | % | 2.0% | .5% | 5.1% | 20.9% | 71.4% | |
| | 광주 | N | 2 | 1 | 11 | 44 | 160 | |
| | | % | .9% | .5% | 5.0% | 20.2% | 73.4% | |
| | 천진 | N | 6 | 2 | 6 | 55 | 146 | |
| | | % | 2.8% | .9% | 2.8% | 25.6% | 67.9% | |
| | 하얼빈 | N | 4 | 7 | 30 | 57 | 94 | |
| | | % | 2.1% | 3.6% | 15.6% | 29.7% | 49.0% | |
| 전체 | | N | 17 | 12 | 70 | 245 | 663 | 1007 |
| | | % | 1.7% | 1.2% | 7.0% | 24.3% | 65.8% | 100.0% |

부표 121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소속감

| | | |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 공감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공감한다 | 매우 공감한다 | $x^2$ (p) |
|---|---|---|---|---|---|---|---|---|
| 성 | 남자 | N | 51 | 101 | 223 | 92 | 15 | 32.631 (.000) |
| | | % | 10.6% | 21.0% | 46.3% | 19.1% | 3.1% | |
| | 여자 | N | 28 | 67 | 254 | 132 | 40 | |
| | | % | 5.4% | 12.9% | 48.8% | 25.3% | 7.7% | |
| 신분 | 대학생 | N | 54 | 114 | 351 | 156 | 38 | 2.922 (.571) |
| | | % | 7.6% | 16.0% | 49.2% | 21.9% | 5.3% | |
| | 대학원생 | N | 25 | 54 | 126 | 68 | 17 | |
| | | % | 8.6% | 18.6% | 43.4% | 23.4% | 5.9% | |
| 거주지역 | 북경 | N | 17 | 21 | 110 | 26 | 12 | 46.791 (.000) |
| | | % | 9.1% | 11.3% | 59.1% | 14.0% | 6.5% | |
| | 상해 | N | 13 | 35 | 96 | 39 | 13 | |
| | | % | 6.6% | 17.9% | 49.0% | 19.9% | 6.6% | |
| | 광주 | N | 11 | 38 | 87 | 63 | 16 | |
| | | % | 5.1% | 17.7% | 40.5% | 29.3% | 7.4% | |
| | 천진 | N | 12 | 34 | 99 | 59 | 10 | |
| | | % | 5.6% | 15.9% | 46.3% | 27.6% | 4.7% | |
| | 하얼빈 | N | 26 | 40 | 85 | 37 | 4 | |
| | | % | 13.5% | 20.8% | 44.3% | 19.3% | 2.1% | |
| 전체 | | N | 79 | 168 | 477 | 224 | 55 | 1003 |
| | | % | 7.9% | 16.7% | 47.6% | 22.3% | 5.5% | 100.0% |

부표 122 아시아인으로서의 소속감

| | | |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 공감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공감한다 | 매우 공감한다 | $x^2$ (p) |
|---|---|---|---|---|---|---|---|---|
| 성 | 남자 | N | 38 | 68 | 218 | 125 | 33 | 83.545 (.000) |
| | | % | 7.9% | 14.1% | 45.2% | 25.9% | 6.8% | |
| | 여자 | N | 14 | 23 | 182 | 214 | 88 | |
| | | % | 2.7% | 4.4% | 34.9% | 41.1% | 16.9% | |
| 신분 | 대학생 | N | 37 | 64 | 293 | 234 | 85 | 1.678 (.795) |
| | | % | 5.2% | 9.0% | 41.1% | 32.8% | 11.9% | |
| | 대학원생 | N | 15 | 27 | 107 | 105 | 36 | |
| | | % | 5.2% | 9.3% | 36.9% | 36.2% | 12.4% | |
| 거주지역 | 북경 | N | 9 | 13 | 93 | 52 | 19 | 31.161 (.013) |
| | | % | 4.8% | 7.0% | 50.0% | 28.0% | 10.2% | |
| | 상해 | N | 8 | 21 | 69 | 72 | 26 | |
| | | % | 4.1% | 10.7% | 35.2% | 36.7% | 13.3% | |
| | 광주 | N | 7 | 12 | 82 | 82 | 32 | |
| | | % | 3.3% | 5.6% | 38.1% | 38.1% | 14.9% | |
| | 천진 | N | 9 | 21 | 85 | 74 | 25 | |
| | | % | 4.2% | 9.8% | 39.7% | 34.6% | 11.7% | |
| | 하얼빈 | N | 19 | 24 | 71 | 59 | 19 | |
| | | % | 9.9% | 12.5% | 37.0% | 30.7% | 9.9% | |
| 전체 | | N | 52 | 91 | 400 | 339 | 121 | 1003 |
| | | % | 5.2% | 9.1% | 39.9% | 33.8% | 12.1% | 100.0% |

부표 123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 | | | 전혀 영향력이 없다 | 영향력이 없다 | 보통이다 | 영향력이 있다 | 매우 영향력이 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2 | 13 | 73 | 157 | 236 | 16.790 (.002) |
| | | % | .4% | 2.7% | 15.2% | 32.6% | 49.1% | |
| | 여자 | N | 2 | 6 | 42 | 190 | 285 | |
| | | % | .4% | 1.1% | 8.0% | 36.2% | 54.3% | |
| 신분 | 대학생 | N | 4 | 13 | 83 | 232 | 382 | 6.021 (.198) |
| | | % | .6% | 1.8% | 11.6% | 32.5% | 53.5% | |
| | 대학원생 | N | 0 | 6 | 32 | 115 | 139 | |
| | | % | .0% | 2.1% | 11.0% | 39.4% | 47.6% | |
| 거주지역 | 북경 | N | 1 | 3 | 22 | 64 | 96 | 24.925 (.071) |
| | | % | .5% | 1.6% | 11.8% | 34.4% | 51.6% | |
| | 상해 | N | 1 | 3 | 23 | 66 | 103 | |
| | | % | .5% | 1.5% | 11.7% | 33.7% | 52.6% | |
| | 광주 | N | 0 | 3 | 20 | 68 | 127 | |
| | | % | .0% | 1.4% | 9.2% | 31.2% | 58.3% | |
| | 천진 | N | 1 | 4 | 14 | 81 | 115 | |
| | | % | .5% | 1.9% | 6.5% | 37.7% | 53.5% | |
| | 하얼빈 | N | 1 | 6 | 36 | 68 | 80 | |
| | | % | .5% | 3.1% | 18.8% | 35.6% | 41.9% | |
| 전체 | | N | 4 | 19 | 115 | 347 | 521 | 1006 |
| | | % | .4% | 1.9% | 11.4% | 34.5% | 51.8% | 100.0% |

부표 124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 | | | 전혀 영향력이 없다 | 영향력이 없다 | 보통이다 | 영향력이 있다 | 매우 영향력이 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31 | 33 | 133 | 214 | 69 | 12.827 (.012) |
| | | % | 6.5% | 6.9% | 27.7% | 44.6% | 14.4% | |
| | 여자 | N | 16 | 33 | 117 | 266 | 92 | |
| | | % | 3.1% | 6.3% | 22.3% | 50.8% | 17.6% | |
| 신분 | 대학생 | N | 38 | 59 | 178 | 322 | 116 | 16.733 (.002) |
| | | % | 5.3% | 8.3% | 25.0% | 45.2% | 16.3% | |
| | 대학원생 | N | 9 | 7 | 72 | 158 | 45 | |
| | | % | 3.1% | 2.4% | 24.7% | 54.3% | 15.5% | |
| 거주지역 | 북경 | N | 18 | 34 | 40 | 67 | 26 | 113.155 (.000) |
| | | % | 9.7% | 18.4% | 21.6% | 36.2% | 14.1% | |
| | 상해 | N | 5 | 4 | 32 | 120 | 35 | |
| | | % | 2.6% | 2.0% | 16.3% | 61.2% | 17.9% | |
| | 광주 | N | 7 | 3 | 45 | 115 | 48 | |
| | | % | 3.2% | 1.4% | 20.6% | 52.8% | 22.0% | |
| | 천진 | N | 9 | 11 | 64 | 98 | 32 | |
| | | % | 4.2% | 5.1% | 29.9% | 45.8% | 15.0% | |
| | 하얼빈 | N | 8 | 14 | 69 | 80 | 20 | |
| | | % | 4.2% | 7.3% | 36.1% | 41.9% | 10.5% | |
| 전체 | | N | 47 | 66 | 250 | 480 | 161 | 1004 |
| | | % | 4.7% | 6.6% | 24.9% | 47.8% | 16.0% | 100.0% |

부표 125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 | | | 전혀 영향력이 없다 | 영향력이 없다 | 보통이다 | 영향력이 있다 | 매우 영향력이 있다 | $x^2$ (p) |
|---|---|---|---|---|---|---|---|---|
| 성 | 남자 | N | 22 | 44 | 192 | 201 | 23 | 19.078 (.001) |
| | | % | 4.6% | 9.1% | 39.8% | 41.7% | 4.8% | |
| | 여자 | N | 12 | 22 | 206 | 240 | 44 | |
| | | % | 2.3% | 4.2% | 39.3% | 45.8% | 8.4% | |
| 신분 | 대학생 | N | 24 | 56 | 282 | 308 | 44 | 7.362 (.118) |
| | | % | 3.4% | 7.8% | 39.5% | 43.1% | 6.2% | |
| | 대학원생 | N | 10 | 10 | 116 | 133 | 23 | |
| | | % | 3.4% | 3.4% | 39.7% | 45.5% | 7.9% | |
| 거주지역 | 북경 | N | 4 | 3 | 64 | 98 | 17 | 60.205 (.000) |
| | | % | 2.2% | 1.6% | 34.4% | 52.7% | 9.1% | |
| | 상해 | N | 5 | 7 | 74 | 98 | 12 | |
| | | % | 2.6% | 3.6% | 37.8% | 50.0% | 6.1% | |
| | 광주 | N | 6 | 12 | 76 | 104 | 19 | |
| | | % | 2.8% | 5.5% | 35.0% | 47.9% | 8.8% | |
| | 천진 | N | 10 | 20 | 86 | 84 | 15 | |
| | | % | 4.7% | 9.3% | 40.0% | 39.1% | 7.0% | |
| | 하얼빈 | N | 9 | 24 | 98 | 57 | 4 | |
| | | % | 4.7% | 12.5% | 51.0% | 29.7% | 2.1% | |
| 전체 | | N | 34 | 66 | 398 | 441 | 67 | 1006 |
| | | % | 3.4% | 6.6% | 39.6% | 43.8% | 6.7% | 100.0% |

부표 126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 성 | | | 매우 부정적이다 | 부정적이다 | 보통이다 | 긍정적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 | $x^2$ (p) |
|---|---|---|---|---|---|---|---|---|
| 성 | 남자 | N | 4 | 16 | 107 | 197 | 158 | 19.320 (.001) |
| | | % | .8% | 3.3% | 22.2% | 40.9% | 32.8% | |
| | 여자 | N | 2 | 7 | 72 | 253 | 191 | |
| | | % | .4% | 1.3% | 13.7% | 48.2% | 36.4% | |
| 신분 | 대학생 | N | 5 | 15 | 127 | 308 | 260 | 4.319 (.365) |
| | | % | .7% | 2.1% | 17.8% | 43.1% | 36.4% | |
| | 대학원생 | N | 1 | 8 | 52 | 142 | 89 | |
| | | % | .3% | 2.7% | 17.8% | 48.6% | 30.5% | |
| 거주지역 | 북경 | N | 0 | 6 | 27 | 67 | 86 | 43.730 (.000) |
| | | % | .0% | 3.2% | 14.5% | 36.0% | 46.2% | |
| | 상해 | N | 3 | 2 | 42 | 89 | 60 | |
| | | % | 1.5% | 1.0% | 21.4% | 45.4% | 30.6% | |
| | 광주 | N | 0 | 4 | 37 | 106 | 71 | |
| | | % | .0% | 1.8% | 17.0% | 48.6% | 32.6% | |
| | 천진 | N | 0 | 3 | 26 | 110 | 76 | |
| | | % | .0% | 1.4% | 12.1% | 51.2% | 35.3% | |
| | 하얼빈 | N | 3 | 8 | 47 | 78 | 56 | |
| | | % | 1.6% | 4.2% | 24.5% | 40.6% | 29.2% | |
| 전체 | | N | 6 | 23 | 179 | 450 | 349 | 1007 |
| | | % | .6% | 2.3% | 17.8% | 44.7% | 34.7% | 100.0% |

부표 127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 | | | 매우 부정적이다 | 부정적이다 | 보통이다 | 긍정적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 | $x^2$ (p) |
|---|---|---|---|---|---|---|---|---|
| 성 | 남자 | N | 72 | 128 | 198 | 74 | 10 | 3.532 (.473) |
| | | % | 14.9% | 26.6% | 41.1% | 15.4% | 2.1% | |
| | 여자 | N | 60 | 141 | 217 | 94 | 13 | |
| | | % | 11.4% | 26.9% | 41.3% | 17.9% | 2.5% | |
| 신분 | 대학생 | N | 104 | 195 | 290 | 109 | 17 | 7.582 (.108) |
| | | % | 14.5% | 27.3% | 40.6% | 15.2% | 2.4% | |
| | 대학원생 | N | 28 | 74 | 125 | 59 | 6 | |
| | | % | 9.6% | 25.3% | 42.8% | 20.2% | 2.1% | |
| 거주지역 | 북경 | N | 39 | 54 | 56 | 32 | 5 | 46.206 (.000) |
| | | % | 21.0% | 29.0% | 30.1% | 17.2% | 2.7% | |
| | 상해 | N | 19 | 36 | 97 | 39 | 5 | |
| | | % | 9.7% | 18.4% | 49.5% | 19.9% | 2.6% | |
| | 광주 | N | 28 | 49 | 91 | 44 | 6 | |
| | | % | 12.8% | 22.5% | 41.7% | 20.2% | 2.8% | |
| | 천진 | N | 29 | 74 | 82 | 29 | 1 | |
| | | % | 13.5% | 34.4% | 38.1% | 13.5% | .5% | |
| | 하얼빈 | N | 17 | 56 | 89 | 24 | 6 | |
| | | % | 8.9% | 29.2% | 46.4% | 12.5% | 3.1% | |
| 전체 | | N | 132 | 269 | 415 | 168 | 23 | 1007 |
| | | % | 13.1% | 26.7% | 41.2% | 16.7% | 2.3% | 100.0% |

부표 128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 | | | 매우 부정적이다 | 부정적이다 | 보통이다 | 긍정적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 | $x^2$ (p) |
|---|---|---|---|---|---|---|---|---|
| 성 | 남자 | N | 30 | 79 | 243 | 116 | 14 | 6.523 (.163) |
| | | % | 6.2% | 16.4% | 50.4% | 24.1% | 2.9% | |
| | 여자 | N | 21 | 70 | 264 | 151 | 19 | |
| | | % | 4.0% | 13.3% | 50.3% | 28.8% | 3.6% | |
| 신분 | 대학생 | N | 35 | 107 | 361 | 186 | 26 | 1.401 (.844) |
| | | % | 4.9% | 15.0% | 50.5% | 26.0% | 3.6% | |
| | 대학원생 | N | 16 | 42 | 146 | 81 | 7 | |
| | | % | 5.5% | 14.4% | 50.0% | 27.7% | 2.4% | |
| 거주지역 | 북경 | N | 4 | 13 | 75 | 76 | 18 | 93.720 (.000) |
| | | % | 2.2% | 7.0% | 40.3% | 40.9% | 9.7% | |
| | 상해 | N | 11 | 29 | 105 | 48 | 3 | |
| | | % | 5.6% | 14.8% | 53.6% | 24.5% | 1.5% | |
| | 광주 | N | 12 | 22 | 120 | 58 | 6 | |
| | | % | 5.5% | 10.1% | 55.0% | 26.6% | 2.8% | |
| | 천진 | N | 7 | 39 | 112 | 56 | 1 | |
| | | % | 3.3% | 18.1% | 52.1% | 26.0% | .5% | |
| | 하얼빈 | N | 17 | 46 | 95 | 29 | 5 | |
| | | % | 8.9% | 24.0% | 49.5% | 15.1% | 2.6% | |
| 전체 | | N | 51 | 149 | 507 | 267 | 33 | 1007 |
| | | % | 5.1% | 14.8% | 50.3% | 26.5% | 3.3% | 100.0% |

부표 129 중국이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

| | | | 미국 | 일본 | 한국 | 러시아 | EU | 없다 | $x^2$ (p) |
|---|---|---|---|---|---|---|---|---|---|
| 성 | 남자 | N | 75 | 30 | 30 | 124 | 134 | 46 | 8.583 (.127) |
| | | % | 17.1% | 6.8% | 6.8% | 28.2% | 30.5% | 10.5% | |
| | 여자 | N | 85 | 26 | 28 | 133 | 168 | 28 | |
| | | % | 18.2% | 5.6% | 6.0% | 28.4% | 35.9% | 6.0% | |
| 신분 | 대학생 | N | 103 | 44 | 51 | 182 | 212 | 48 | 14.285 (.014) |
| | | % | 16.1% | 6.9% | 8.0% | 28.4% | 33.1% | 7.5% | |
| | 대학원생 | N | 57 | 12 | 7 | 75 | 90 | 26 | |
| | | % | 21.3% | 4.5% | 2.6% | 28.1% | 33.7% | 9.7% | |
| 거주지역 | 북경 | N | 30 | 8 | 32 | 19 | 51 | 25 | 107.781 (.000) |
| | | % | 18.2% | 4.8% | 19.4% | 11.5% | 30.9% | 15.2% | |
| | 상해 | N | 36 | 14 | 9 | 60 | 54 | 15 | |
| | | % | 19.1% | 7.4% | 4.8% | 31.9% | 28.7% | 8.0% | |
| | 광주 | N | 34 | 11 | 5 | 55 | 60 | 6 | |
| | | % | 19.9% | 6.4% | 2.9% | 32.2% | 35.1% | 3.5% | |
| | 천진 | N | 28 | 8 | 3 | 81 | 75 | 16 | |
| | | % | 13.3% | 3.8% | 1.4% | 38.4% | 35.5% | 7.6% | |
| | 하얼빈 | N | 32 | 15 | 9 | 42 | 62 | 12 | |
| | | % | 18.6% | 8.7% | 5.2% | 24.4% | 36.0% | 7.0% | |
| 전체 | | N | 160 | 56 | 58 | 257 | 302 | 74 | 907 |
| | | % | 17.6% | 6.2% | 6.4% | 28.3% | 33.3% | 8.2% | 100.0% |

부표 130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대한 의견

| | | | 예 | 아니오 | 잘 모르겠다 | $x^2$ (p) |
|---|---|---|---|---|---|---|
| 성 | 남자 | N | 49 | 376 | 53 | 23.690 (.000) |
| | | % | 10.3% | 78.7% | 11.1% | |
| | 여자 | N | 57 | 346 | 116 | |
| | | % | 11.0% | 66.7% | 22.4% | |
| 신분 | 대학생 | N | 87 | 520 | 100 | 18.129 (.000) |
| | | % | 12.3% | 73.6% | 14.1% | |
| | 대학원생 | N | 19 | 202 | 69 | |
| | | % | 6.6% | 69.7% | 23.8% | |
| 거주지역 | 북경 | N | 25 | 129 | 32 | 21.318 (.006) |
| | | % | 13.4% | 69.4% | 17.2% | |
| | 상해 | N | 20 | 140 | 34 | |
| | | % | 10.3% | 72.2% | 17.5% | |
| | 광주 | N | 34 | 145 | 36 | |
| | | % | 15.8% | 67.4% | 16.7% | |
| | 천진 | N | 17 | 152 | 44 | |
| | | % | 8.0% | 71.4% | 20.7% | |
| | 하얼빈 | N | 10 | 156 | 23 | |
| | | % | 5.3% | 82.5% | 12.2% | |
| 전체 | | N | 106 | 722 | 169 | 997 |
| | | % | 10.6% | 72.4% | 17.0% | 100.0% |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김국신·송정호·이교덕·정정숙. 2006.『동북아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Ⅲ)-종합편』,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우준·김예경·최운도. 2006.『동북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한중일 시각 비교와 협력 방안 모색』,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남치호. 2007.『문화자원과 지역정책』, 서울: 대왕사.

문옥표·송도영·양영균. 2005.『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문화관광부. 1990.『문화지도 작성을 위한 기초 연구』.

_____. 2004.『창의한국 :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

박기홍·김대관. 2004.『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잠재력과 장애요인』, 서울: 통일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2009.『부산지역 문화자원 특성분석과 활용방안 연구』.

_____. 2007.『부산지역 문화자원의 문화산업화 전략』.

오명석·한경구·장수현·최호림. 2004.『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오해섭·윤철경. 2005.『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구축 연구』,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윤철경. 2004.『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_____. 2011.『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윤철경·오해섭. 2004.『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이남희. 2005.「동북아문화공동체의 정체성과 그 구축 방안-문화유산의 활용과 가치

공유를 중심으로」,『동양사회사상』, 제11집.
이남희. 2004.「아시아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그 현황과 과제」.『한국향토문화 진흥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전영평·박경하. 2003.「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구상과 전략」.『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0호.
조수동·김주완·이강화·이윤아. 2002.『문화의 이해』, 서울: 이문출판사.
한국문화정책연구원. 1998.『한국의 문화관광지도 작성 연구』. 1998.

한 · 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비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TEL_ 3460-1223 FAX_ 3460-1212
http://www.kiep.go.kr

9 788932 214290 94320
ISBN 978-89-322-1429-0
ISBN 978-89-322-1072-8(세트)